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정보와 전략

Introductory Guide for Korean SMEs
to enter the South Asian Market

기본연구 08-12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정보와 전략

•

이 준 호

KoSBI 중소기업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	이준호(연구위원)
공동연구	권선윤(연구원)

발 간 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구촌 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국내시장에서도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글로벌화를 통해 글로벌한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경쟁하지 않을 경우 국내시장에서도 완전히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인 조건이나 고급정보에의 접근은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설사 고급정보에 접근한다 하여도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BRICs 지역으로의 진출과 그로 인한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동남아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뿐만이 아니라 중국시장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체시장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동남아 지역은 신뢰할만한 통계의 수집이 어렵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동남아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북 형식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장 진출에 앞서 본 연구·조사를 통해 동남아 지역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본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보다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종합적

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이준호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 동의대학의 이홍배 교수와 본 연구원의 권선윤 연구원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또한 정보 및 통계 수집 환경이 척박한 상황에서 열성과 성의를 다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함으로서 연구의 질을 높여준 숙명여대의 오시원 학생과 한국외국어대의 김인수 학생에게도 본 연구진을 대신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조사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2008년 12월

원장 최홍건

요 약

1. 서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사항을 보면 1989년 말 기준으로 북미(특히 미국)지역이 가장 많았으나 아시아지역 투자가 급격히 늘어 북미지역 투자의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자동차, 전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은 고급 기술 습득 및 선진국과의 무역 마찰 회피를 위해 북미지역에 주로 집중 투자 되었고, 섬유, 의류, 신발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업체들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경기과열과 급격한 임금인상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대 정책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WTO 가입으로 국제 시장에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마저 불확실하게 되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은 중국을 대신할 시장으로 동남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개척지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동남아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주요 산업의 동향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국 시장의 잠재력을 검토하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할 수 있는 산업이나 업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 일찍부터 진출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

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장 진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종합정보를 파악하여 출발점을 제공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부산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대상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분석

동남아시아 주요 8개국의 경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생산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각 국가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필리핀: 광물자원 풍부 ② 인도네시아: 노동인구 풍부 및 문화 다양 ③ 말레이시아: 연중 내내 여름, 다인종국 ④ 베트남: 최근 경제성장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베트남 투자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적 유사성을 띰 ⑤ 태국: 지리적 위치상 중간 거점형 투자가 기대됨 ⑥ 캄보디아: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⑦ 미얀마: 다양한 고유 언어가 있으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동남아 3대 쌀 생산지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아 태국이 중간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국가간에 교류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국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국가의 GDP구성을 보면 미얀마와 라오스는 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은 산업이 GDP의 40%이상을 차지하고, 필리핀은 서비스업종이 50%가 넘는다. 이는 대상 국가가 가진 자연 환경 및 노동인구 구성, 인프라 구조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다.

<대상국 주요산업>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가전산업 광업 농림수산 농기계 석유화학 에너지 이동통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농업 제조업 전지 및 전자 자동차 화학 및 석유 화학 항공 철강 목재 가공	팜 오일 바이오디젤 셀랑고리 정수 시설 관련 산업	섬유 신발 석유화학 철강 이동통신 전력	농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자동차 식품	봉제 관광 농림수산 제조 건설	농업 광업 임업 자원개발

대상국 각각은 자국 경제 환경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강점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취약성 및 예민한 사항을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세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는 에너지 고갈 및 전력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영 투자 유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산업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인 팜 오일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팜 오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개발을 장려해 오고 있으며 '국가 바이오 연료 정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로 편입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자국의 안정된 통화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다. 태국은 바트화에 대한 투기와 단기 외환유입을 억제하여 바트화의 단기적인 급변동 현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다. 미얀마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정책이 없으나 우선 자국 경제 안정화를 우선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써 통화정책 대외경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라오스는 최근 광산개발과 관련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은 라오스 정부의 동향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 8개국은 각각의 인프라구조, 산업 환경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해 특징적인 제도 및 현황을 보이고 있다. 가령 필리핀의 경우에는 높은 영어 사용률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노동력의 보유로 외국 투자들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진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인의 생계와 고용을 확대하는 행위, 필리핀 소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투자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의 부족으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세금 감면 외에도 규정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켜주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및 서비스 분야도 점차 개방하는 추세이다. 베트남은 최근 최고의 투자지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낮은 비용 대비 높은 생산 경쟁력과 높은 수익 가능성이 그 원인이다.

<대상 국가의 투자관련 법규>

지 표 / 국 가	투자관련 법규(령)
필리핀	1976년 - 투자인센티브법(Investment Incentive Act) 1987년 - 종합투자법(Ommibus Investment Code of 1987) 1991년 -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인도네시아	2007년 - 신투자법 발효
말레이시아	1986년 - 투자진흥법(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of 1986)
베트남	2006년 - 개정 외국인 투자법
태국	2007년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캄보디아	1958년 -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시행법률 등 채택. 1998년 - 외국인 투자법(시행령 제정)
미얀마	1998년 - 외국인 투자법
라오스	1994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미국과도 정상적인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와 관련해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치안, 환경, 광고와 같은 분야는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캄보디아는 내수시장이 좁아 제조업체가 진출하기에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진행중인 One-Stop Service 활용이 요구된다. 미얀마는 사회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천연자원개발, 첨단기술 습득과 관련 산업을 개방하고 있다. 라오스도 199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유치법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업의 자유로운 과실송금 등을 규정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남아시장은 풍부한 천연 자원과 저임금이라는 매력적인 시장 요소를 가지고 있다. 메콩 델타지역도 그러한 시장의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구조 및 정책의 변화로 투자 유치가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진출 계획을 가진 기업은 투자 대상국 각각의 정책 및 산업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주요 업종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필리핀의 경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업의 자체 조건이 미흡하여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그 외 광산산업, PDP LDC TV, 모바일 컨텐츠,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 핸드폰, 의약품, 바이오 연료에도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과일음료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음료의 브랜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층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의 필수품인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로 헬멧에 대한 수출입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제품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가장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맞춰 컴퓨터게임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와 휴대폰도 떠오르는 투자대상이다. 세계 경제시장에 문을 연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근 떠오르는 투자대상 최상위국가에 걸맞게 다양한 산업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 종류로는 자동차부터 플라스틱 원료, 사료제품, 모터사이클, 타이어, 헬멧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태국은 영화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위성수신기도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다.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에 속하지만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 금고관련 산업에도 투자가 유치되는 있다. 그 외 주목할만 점은 세계적인 유산인 앙코르로 꾸준히 증가하는 관광업이다. 국내 문제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는 제지, 발전기, 타이어 등이 주요 투자 산업이며 최근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주변기기도 유망 산업에 속한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직접투자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업종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의 확보 및 수입규제의 회피를 위한 동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과 진출업종이 매우 편중되어 왔다. 따라서 무역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과 철강 등 일부제조업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업종은 진출이 부진한 상태이다.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도자추종전략(follow the leader strategy)에 따른 중복투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들어 해외직접투자의 분야가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

출에서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보다는 해외시장 확보와 효율극대화를 위해 추진해야만 한다.

셋째, 기술협력 및 공동경영방식 기술습득의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있어 전액투자방식에만 중점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현지합작투자, 그리고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제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M&A 방식에 의한 투자형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의 고용유지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해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단순한 투자 이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섬유, 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주로 동남아의 저임금후발국에 집중되었다. 반면 자본집약적 업종의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은 선진국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였다. 향후에는 중소기업 역시 선진국으로의 진출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부품생산을 담당할 중소기업 등과 함께 동반 진출함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현지 부가가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선진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정보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겠다.

다섯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투자결정이 최고경영자의 직관적 판단이나 경쟁기업의 모방 투자에 치우쳐 있으며, 과도한 부채와 모기업의 지급보증 위주의 투자자금 조달, 한국식 경영방식의 고수와 현지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은 마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향(완전 신고제 및 OECD 회원국에 대한 자동 승인제 도입 검토, 현행 허가기준 및 허가 소요기간 개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 철폐 등)을 두어야 하며, 설령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즉, 높은 debt-equityratio), 특히 해당 투자사업의 수익성에 기초한 자금조달(project financing)을 활용하기 보다는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경영부실이 나타날 경우 국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다.

3. 동남아시아 대상 국가별 투자 사례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의 배경으로는 크게 시장 점유율 늘리기, 동남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비용 절감,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분석되었다. 삼성전기, 레이디스본, 지원산업 등 동남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기업이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해외 진출에 앞서 치밀한 시장 분석 및 정보 획득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출 전에 세금제도, 환경법, 노동법 등을 고려해 해외 진출 전략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역을 선정하고 입지조건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반여건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대상국에 진출한 뒤에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현지 근로자를 기업의 일원으로 하기까지의 훈련, 대상 국가의 사회적 배경에 맞는 기업 문화 만들기 등이 진출기업에 성공적인 착지와 도약이 되었음을 전달하고 있다. 셋째, 상위 기업들은 대상국 진출 후 현지화 등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대상국의 변화하는 정책 사안 및 정보를 계속해서 분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그러한 노력은 새로운 환경 변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대사관 및 한국 투자업체 협의회를 통한 투자정보

와 도움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전체적인 성공 요소 중 기업이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구비하는 것으로 동남아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반면 동남아 시장 진출에 실패사례를 살펴보면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동남아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국내 파견 직원의 보수 및 행실 문제, 기업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 동남아시장 근로자의 미흡한 기술력 및 높은 이직률, 갑작스러운 세계경제의 위기로 시장이 침체되어 기업이 어떠한 전략이나 방편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들이 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진출하려는 시장 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진출 시장의 구매 선호도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의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벤더(Vendor)의 신뢰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의 필요성을 뜻한다고 하겠다. 둘째,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과 진출의 적절성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남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우리나라가 가진 고임금을 포함한 생산비용의 상승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동남아의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 아래 너무 성급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로인해 진출 혹은 투자하려는 대상국가의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적 상황 등의 정황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실패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진출의 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4. 일본 중소기업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

일본 정부는 일찍이 동남아시장의 성장 잠재성 등을 인식하고 자국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 및 이를 통한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 사업과 일원화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

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구상부터 해외현지거점 구축 및 현지 생산 및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항목별 지원 사업 및 지원기구가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투자진출을 위해 ① 해외 대상 국가들의 일반적인 경제정보 입수 지원 ② 해외 투자를 위한 정보 입수 지원 ③ 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정부 입수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에 나온 것처럼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및 진출과 관련해 매우 세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동남아진출 구상단계에서의 자금지원 관련 사업특징>

지원 기구	지원 사업
중소기업금융공고	- 기업활력강화대출(해외전개자금)사업 및 증소기업신용보험제도(해외투자보험) 운영
상공조합중앙금고	- 동남아사업 전개 종합지원책 전개
신금(信金)중앙공고	- 동남아국가와의 거래지원, 정보제공업무 및 상담 등
국제협력은행	- 해외투자금융, 수출, 동남아투자, 사업개발 등 자금 지원 사업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 동남아투자관련 신용보증제도 운영
일본무역보험 및 무역보험기구	- 해외투자보험 및 무역보험관련 사업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정부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의 세분화와 전문화 정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동남아 진출과 같이 확고한 진출 목표가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보 열람 및 지원 대상과의 접촉에 있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동남아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과 특징>

지원 기구	지원 사업
해외기술자연수협회	- 중소기업연수사업 및 특정국가 연수사업
해외직업훈련협회	- 관리기술 및 글로벌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해외컨설팅사업 전개
일본무역진흥기구	- 동남아국가들의 현지 법무・노무・세무 관련 상담사업
일본상공회의소	- 현지채용사원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운영
해외무역개발협회	- 중소기업전문가파견사업, 경제산업인재육성지원 및 해외취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해외기술자연수협회	- 중소기업연수・유입사업, 산업기술자연수・유입사업 등

또한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 시장에 대한 세분화된 목표를 세워 접근하고 있다. 가령 태국은 동남아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현지화 전략의 가장 토대가 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일본에 태국에 진출하는 동기는 세계 시장을 겨냥한 관련 업종 및 기업의 전략적 진출처의 역할이 가능한 곳이다. 베트남은 일본 중소기업이 제 2의 태국으로 기대하고 있는 곳이며,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일본 중소기업의 진출처로서 각광받고 있는 국가로 투자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및 생산원가 절감 등의 형태로 현지진출을 꾀하고 있다. 우리 기업 역시 동남아를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관련하여 동남아 주요 8개국의 비즈니스 정보를 국가개황, 주요 산업 현황 및 정책, 기타 관련 정책, 대상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가별

투자사례, 일본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보도 알아보았다. 앞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 첫째, 중국 남부에 부품조달을 위한 견본 시장을 개최하여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부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 남부에 추가적인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를 고려해봐야 한다. 셋째, 한국과 현지국에서 겪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담당기관에 상호 옴부즈맨 기능을 설치하고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지 대사관과 KOTRA 관계자 및 현지 중소기업인 협회 관계자가 매분기 현지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회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구별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지원기구	검토대상 지원 사업	지원 사업 기대효과
정보·자료 제공 기구	- 국제화지원 어드바이저 사업 전개 - 현지전문가그룹 설치사업 - FTA 활용·이익 극대화 사업 전개 - 기술협력 강화 사업 전개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활용 효과 - 원활하고 안정된 사업전개 - 현지 법제도,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한 대응가능 - 지적재산권 침해 보호 효과
금융 관련 지원 기구	- 제조가공기술 활용 극대화사업 전개 - 현지 금융조달시스템 강화	-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가공기술 통한 이익 극대화 효과 - 사업의 다변화, 안정화 효과
ASEAN 현지 협력 관련 기구	- ASEAN-KOREA CENTER 설립 및 운영 사업 확대	- 민간차원에서의 협력·교류 확대 효과 - 국내 중소기업 인지도 및 신뢰성 향상 효과

다섯째, 한국 기업이 진출한 현지국에 한국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사업을 양국 중소기업관계기관의 주관 아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해서 전개하는 방안이 앞으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여섯째, 동남아지역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해주는 "동남아

지역 정보 전문센터"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곱번째, 동남아 중점 전략 국가와의 "(가칭)민간합동투자포럼"의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덟번째,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 기반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추진해서 동지역에 일본 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 동남아시아에 대한 체계적 전급의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다.

끝으로, 메콩델타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동 지역은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중소기업들의 진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다. 앞에서도 분석된 것처럼, 동 지역에의 투자진출은 가능한 원자재의 현지조달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 지역에의 진출은 태국 현지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거점화 진출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는 투자관련 우대정책 중 하나로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5개국 모두가 동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한 현지조달을 중심으로 한 진출형태를 모색하는 것이 안정된 사업전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 지역 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현지조달은 태국의 기간산업의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들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콩지역개발사업의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은 낮은 인건비에 더하여 저렴한 일반경비, 각종 우대정책 및 세금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현지 진출 및 생산거점화를 통한 이익창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지역의 기간산업에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동반진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을 알리고 기타 지역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구성 ····· 3

제2장 투자 대상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투자 대상 국가 개황 ····· 5
   가. 필리핀 ····· 5
   나. 인도네시아 ····· 7
   다. 말레이시아 ····· 9
   라. 베트남 ····· 11
   마. 태국 ····· 13
   바. 캄보디아 ····· 15
   사. 미얀마 ····· 17
   아. 라오스 ····· 19
   자. 소결 ····· 21
2. 투자 대상 국가 경제지표 ····· 22

3. 투자 대상 국가의 FTA 현황 ····· 25
가. 필리핀 ····· 25
나. 인도네시아 ····· 26
다. 말레이시아 ····· 27
라. 베트남 ····· 30
마. 태국 ····· 31
바. 캄보디아 ····· 32
아. 라오스 ····· 34
4. 투자 대상 국가의 주요 산업 현황 및 정책 ····· 34
가. 투자 대상 국가의 주요 산업 및 정책 ····· 34
나. 기타 관련 정책 ····· 81
5. 투자 대상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128
가. 주요 투자 국가 ····· 114
나. 주요 투자업종 ····· 185
다. 투자 유치제도 ····· 227

제3장 동남아시아 대상 국가별 투자사례

1. 성공사례 ····· 279
가. 필리핀 ····· 241
나. 인도네시아 ····· 246
다. 말레이시아 ····· 264
라. 베트남 ····· 274
마. 태국 ····· 285
바. 캄보디아 ····· 291
사. 미얀마 ····· 293
아. 소결 ····· 298

2. 실패사례 ····· 299
가. 필리핀 ····· 299
나. 인도네시아 ····· 309
다. 말레이시아 ····· 310
라. 베트남 ····· 312
마. 소결 ····· 314

제4장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일본의 동남아진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 317
가. 지원 사업 및 지원시스템의 개요 ····· 317
나. 주요 지원기구별 세부 지원 사업 현황과 특징 ····· 320
2.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 전략 ····· 325
가.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 개요 ····· 325
나. 동남아시장 진출 및 관련 지원 전략: 국가별·업종별 ··· 32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 339
가. 진출 단계별 지원 시스템 및 사업 개선 시사점 ····· 339
나. 기구별 지원 사업 관련 개선 시사점 ····· 344
2. 국가별·업종별 전략 시사점 ····· 347
가. 태국 및 베트남 ····· 348
나. 인도네시아 ····· 349
다.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 349
라. 캄보디아 및 라오스 ····· 351
마. 미얀마 ····· 352
바. 브루나이 ····· 353
3. 결론 및 정책 제안 ····· 354

참고문헌 ····· 359

표 차 례

<표 2-1> 필리핀 개요 ····· 6
<표 2-2> 인도네시아 개요 ····· 8
<표 2-3> 말레이시아 개요 ····· 10
<표 2-4> 베트남 개요 ····· 12
<표 2-5> 태국 개요 ····· 14
<표 2-6> 캄보디아 개요 ····· 16
<표 2-7> 미얀마 개요 ····· 18
<표 2-8> 라오스 개요 ····· 20
<표 2-9> 투자 대상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 23
<표 2-10>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 현황 ····· 28
<표 2-11> 한·태국 상품교역부분 협상 진행상황 ····· 31
<표 2-12> 태국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32
<표 2-13> 산업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경상가격 GDP기준) ··· 35
<표 2-14> 주요 가전제품 수입관세율 ····· 36
<표 2-15> 주요 자원별, 연도별 생산량 ····· 37
<표 2-16> 석유화학제품 생산동향 ····· 38
<표 2-17> 합성수지별 제조업체 현황 ····· 39
<표 2-18> 자동차 조립 생산업체 ····· 41
<표 2-19> 주요 전화서비스 회사별 회선수 ····· 42
<표 2-20> 주요 전화서비스 회사별 점유율 ····· 43

<표 2-21> 연도별 전화보급률(100명당 전화 회선수) ····· 43
<표 2-22>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별 가입자 수 ····· 44
<표 2-23> 주요 산업별 성장률 ····· 54
<표 2-24> 제조업 지수 ····· 55
<표 2-25> 주요 제조업 매출액 ····· 55
<표 2-26> 세계 주요국의 팜 오일 생산 추이(2000~05) ····· 56
<표 2-27> 말레이시아의 팜 제품 생산량 ····· 57
<표 2-28> 말레이시아의 팜 제품 수출량 ····· 57
<표 2-29> 산업 부문별 생산액 및 증가율 ····· 60
<표 2-30> 베트남 섬유직물 산업 생산현황 ····· 61
<표 2-31> 주요국별 신발수출 현황 ····· 61
<표 2-32> 베트남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현황 ····· 62
<표 2-33> 베트남 철강생산 현황(2007년 기준) ····· 62
<표 2-34> 베트남 건설 시장규모 ····· 64
<표 2-35> 전체 산업 구조 ····· 67
<표 2-36> 산업별 경제동향 ····· 70
<표 2-37> 미얀마 쌀 수출 ····· 75
<표 2-38> 티크와 경목의 생산 및 수출현황 ····· 75
<표 2-39>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2004~05) ····· 76
<표 2-40> 연도별 수산물 생산 현황 ····· 77
<표 2-41> 미얀마 설비별 발전용량 ····· 78
<표 2-42> 발전소별 매각일정 ····· 84
<표 2-43> 광업촉진계획 4대 전략 ····· 88
<표 2-44> 광업권 종류 및 그 내용 ····· 89
<표 2-45> 말레이시아의 NBP 실행과제 ····· 98

<표 2-46> 환율 변동추이 ····· 105
<표 2-47> 최저임금 인상률 ····· 107
<표 2-48> 정부 주요 정책 ····· 109
<표 2-49> 외국인투자 장려 내용 ····· 115
<표 2-50>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내용 ····· 116
<표 2-51>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117
<표 2-52> 2007년 국가별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분기별) ·· 118
<표 2-53> 산업별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분기별) ····· 119
<표 2-54> 직접투자 신고금액 ····· 120
<표 2-55> 주요 투자업종 및 업체 ····· 120
<표 2-56> 외국인투자 실현실적 ····· 122
<표 2-57> 2007년 주요 국가별 투자실현 동향 ····· 123
<표 2-58> 2007년 외국인투자 승인실적 ····· 123
<표 2-59> 2007년 주요 국가별 투자승인 동향 ····· 124
<표 2-60> 연도별 외국인 투자실현 및 승인 동향 ····· 125
<표 2-61> 연도별 한국의 대인니 투자실현 및 승인동향 ····· 127
<표 2-62> 2007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현황(실현기준) · 128
<표 2-63> 최근 외국인투자액 ····· 132
<표 2-64> 1억 링깃 이상 투자 프로젝트 현황 ····· 134
<표 2-65> 2005/2006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 135
<표 2-66> 최근 5년간 산업별 제조업 투자 누계(국내 및 외국인투자) ·· 136
<표 2-67>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제조업 부문 ·· 137
<표 2-68> 산업별 대말레이시아 투자통계 ····· 138
<표 2-69> 유망시장 20개국의 부문별 지수 현황 ····· 139
<표 2-70> 투자 여건 비교표 ····· 140

<표 2-71> 연도별 외국인의 대베트남 투자 동향 ····· 141
<표 2-72> 국가별 투자 현황 ····· 142
<표 2-73> 대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 143
<표 2-74> 대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 144
<표 2-75> 주요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 145
<표 2-76> 2006년도 베트남 주요 지역별 외국인투자현황 ···· 147
<표 2-77> 최근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현황 ····· 150
<표 2-78> 국가별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과 실행금액 ····· 150
<표 2-79> 2006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지역별 투자현황 ···· 152
<표 2-80> 2006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업종별 투자현황 ···· 153
<표 2-81> 2006년도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 프로젝트 현황 ·· 154
<표 2-82> 태국에 대한 국가별 투자동향 ····· 160
<표 2-83> 태국에 대한 산업별 외국인투자동향 ····· 161
<표 2-84> 투자 Zone별 투자 건수(2006~07) ····· 162
<표 2-85> BOI 승인건수 및 투자액 ····· 163
<표 2-86> 연도별 한국의 대태국 투자프로젝트(BOI 승인 기준) ··· 163
<표 2-87> 우리나라의 대태국 연도별 투자현황 ····· 164
<표 2-88> 투자 장려 및 제한 업종 ····· 169
<표 2-89> 2008년 상반기 제조업 분야 투자승인 ····· 170
<표 2-90> 국별 외국인투자 현황 ····· 171
<표 2-91> 주요 분야별 직접 투자현황 ····· 171
<표 2-92>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 추이(2006년 6월, 신고기준) ·· 172
<표 2-93> 민간 참여 제한 및 인허가 필요 분야 ····· 174
<표 2-94> 미얀마의 외국인투자유치 비중 ····· 177
<표 2-95> 국가별 투자동향 ····· 177

<표 2-96> 산업별 투자동향 ····· 178
<표 2-97>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현황 ····· 178
<표 2-98> 우리나라 주요 투자기업 현황 ····· 180
<표 2-99> 투자유치법의 주된 내용 ····· 181
<표 2-100> 대상국가의 주요도시 투자환경 ····· 183
<표 2-101>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통계(신고기준) ····· 185
<표 2-102> 대한 필리핀 음료 수입 동향 ····· 195
<표 2-103> 가축 및 가금류 생산량 ····· 208
<표 2-104> 국가별 디젤 발전기세트 태국 시장 점유율 ····· 214
<표 2-105> 영화산업 시장규모 ····· 214
<표 2-106> 외국기업 관련 구법과 신법 주요 차이점 ····· 230
<표 2-107> 승인 건수 ····· 236

<표 3-1> 기업 개요 ····· 242
<표 2-2>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 243
<표 3-3> 투자자 개요 ····· 246
<표 3-4> 제품 판매 현황 ····· 247
<표 3-5> 사업추진경위 ····· 249
<표 3-6> 현지 투자사업 내용 ····· 251
<표 3-7> 자금소요 및 조달방법 ····· 252
<표 3-8> 현지법인개요 ····· 253
<표 3-9> 기업개황 ····· 260
<표 3-10> 투자자 일반 현황 ····· 264
<표 3-11> 현지투자 진출과정 ····· 265
<표 3-12> 현지법인 일반 현황 ····· 266
<표 3-13> 직원 수 및 급여수준 ····· 266
<표 3-14> 손익 및 송금액 ····· 268

<표 3-15> 기업개황 ····· 270
<표 3-16> 투자자 일반 현황 ····· 274
<표 3-17> 진출과정 ····· 275
<표 3-18> 직원 수 및 급여수준 ····· 276
<표 3-19> 기업개황 ····· 279
<표 3-20> 생산성 ····· 280
<표 3-21> 정부에 의해 승인된 섬유·봉제 산업의 장기 개발 전략 ·· 281
<표 3-22> 진출과정 ····· 282
<표 3-23> 현지법인 개요 ····· 286
<표 3-24> 기업개황 ····· 295
<표 3-25> 1996~2007년까지 플라스틱 생활용품(용기류)생산 업체수 ·· 296
<표 3-26> 2005~2007년 플라스틱 칫솔 생산 업체수 ····· 297
<표 3-27> 기업개황 ····· 300
<표 3-28>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 302
<표 3-29> 기업현황 ····· 304
<표 3-30> 기업개요 ····· 309
<표 3-31> 기업개황 ····· 312
<표 3-32> 베트남 전력 현황 ····· 313

<표 4-1> 동남아진출 구상단계에서의 지원 사업 현황과 특징 ·· 318
<표 4-2> 동남아진출 구상단계에서의 자금지원 관련 사업 특징 ·· 319
<표 4-3> 동남아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과 특징 ·· 319
<표 4-4> 베트남의 임금 수준 비교 ····· 327
<표 4-5> 인도네시아 바탕섬, 빙탕섬, 카리문섬의 주요 전략산업 ·· 329

<표 5-1> 단계별 지원 시스템 및 관련 사업 개선방안 ····· 343
<표 5-2> 기구별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 347

그 림 차 례

<그림 2-1> 투자 대상 국가의 GDP 및 그 증가율과 1인당 증가율 ·· 24
<그림 2-2> 노동인구구성 및 노동인구수 ····· 24
<그림 2-3> 최근 10년 간 전기·전자 산업의 투자 승인 현황 ···· 135
<그림 2-4>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제조업 부문 ··· 138
<그림 2-5> 2006년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지역별 비중(건수, 금액 기준) ·· 146
<그림 2-6> 2006년도 베트남의 분야별 외국인 투자비중 ····· 148
<그림 2-7> 2006년도 베트남의 공업분야 외국인 투자현황 ··· 149
<그림 2-8> 2006 한국의 베트남 투자지역별 비중(금액기준) ··· 151
<그림 2-9> 2006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유형 ····· 151
<그림 2-10> 2008년 상반기 캄보디아 투자건수 ····· 169
<그림 2-11> 캄보디아 관광객 수 ····· 221

<그림 3-1> 성진기공 조직도 ····· 267
<그림 2-2> 레이디스본 조직도 ····· 277
<그림 3-3> A텔레콤 현지 법인 조직도 ····· 288

<그림 4-4> UPI(United Plastic Industry)의 시기별 미얀마시장 진출 과정 ····· 296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과다경쟁으로 기업의 철수 사례가 증가하고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방정책과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의 핵심이었던 중국은 경기과열과 급격한 임금인상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들이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내부요인 외에 WTO 가입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누려왔던 특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는 외부요인도 중국에 진출하였던 기업들로 하여금 동남아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에 충분하다.[1] 최근에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중국을 대체하여 동남아 국가 등으로의 진출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사항을 보면 1989년 말 기준으로 북미(특히 미국)지역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지역 투자는 급격히 늘어 북미지역 투자의 뒤를 이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상당부분이

1) 이성진.

동남아시아(중국포함)와 북미,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섬유, 의류, 신발, 완구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업체들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 지역에 많이 진출하였으며, 철강, 자동차, 전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은 고급기술 습득 및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회피를 위해 북미지역에 주로 집중 투자하였다. 각 산업분야와 투자진출 회사의 특성에 따라 투자 지역이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값싼 인건비 및 중간거점으로써도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지닌 동남아시장으로의 진출이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 베트남이 주요 투자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생산비용의 이점보다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남아시장으로의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러한 점 등에서 볼 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같은 신흥성장 잠재국으로의 진출이 미시장 개척이나 생산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인프라의 부족, 숙련노동자의 부족, 정책의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관심투자대상국가의 정책, 투자환경 변화, 적정 진출시점 등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강화하여 신속한 정보수집과 이에 따른 적정한 가치측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고급정보의 수집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과 같이 통계의 집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사의 능력을 가늠하여 진출여부를 결정짓기가 오히려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동남아국들과 같이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

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제도나 관습에 따라 경제가 요동을 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사회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가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동남아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주요 산업의 동향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국 시장의 잠재력을 검토하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할 수 있는 산업이나 업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 일찍부터 진출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들을 일본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국내 중소기업 동남아 진출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장 진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종합정보를 접함으로서 그 출발점을 제시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부산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상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은 물론 산업 및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접근 가능한 모든 최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문헌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대상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기 발표된 자

료나 통계도 대상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서 정보의 정확성과 적기성을 기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은 물론 일본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 현황과 지원 시스템 그리고 효과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상 국가별로 경제, 산업 그리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상 국가별로 각 국에 진출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산업 및 기타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 국가별로 해외투자현황 및 해외기업의 진출 현황,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상국가별 성공 진출 사례 및 실패 진출 사례를 제시하고 각각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제적으로 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일본 중소기업들의 동남아지역 진출 전략 분석을 통해 국내 지원 시스템 및 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일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각국의 경제, 사회,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업종과 이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할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2

투자대상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투자 대상 국가 개황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는 지리적 측면에서 거점형 투자를 하기에 유리하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선택한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8개국이다. 이 국가들 중 이미 우리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아직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국가도 있다. 각 나라의 외국인투자 정책과 시장 환경, 기존 시장경제 등을 살펴 어느 나라에 어떤 산업이 적절할지 살피고 미시적으로 어떤 업종이 투자하기에 유망한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필리핀

1) 국가개요[2)]

2)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필리핀은 인접 동북아 국가, 동남아 국가 그리고 태평양, 인도양을 통해 미국, 인도 등과 연결할 수 있는 항공, 해상 운송의 요충지인 동남아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또한 철광석, 니켈, 구리 등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회 간접시설 낙후,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90년대 후반까지 동남아 인근 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격히 낮은 1~2%대의 경제성장률에 머물렀다.

한편 2001년 아로요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정책의 개혁으로 차츰 경제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아로요 정권이 제시하였던 경제개발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MTPDP)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전반의 인프라 확충, 지역별 균형 발전, 농업 및 IT분야의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교육부문 투자확충, 중점적 성장 전략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기반 구축 및 수출확대 등이 있다.

<표 2-1> 필리핀 개요

	내 용
공식국가명	필리핀(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위치	동남아시아, 북위 4도23분 21도25분, 동경 116도-127도
면적	300,800㎢(한반도의 1.3배)
기후	고온다습 아열대기후(건기: 5-11월, 우기: 6-10월)
수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인구	8,400만명(2004년 추정)
주요도시	Malira(1,600만 명), Quezon(2,200만 명)
민족(인종)	말레이계가 주종
언어	타갈로그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종교	가톨릭(81%), 이슬람(5.1%), 기독교(2.8%), 기타(11.1%)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시차(표준시)	GMT + 8(한국보다 1시간 늦음)
교민수	영주권소지자 1,500명 포함 장기 체류자 37,000명 추정 단기 체류자 포함시 50,000~60,000명 내외

자료: 필리핀 투자 실무 가이드(KOTRA), KOTIS(2007).

나. 인도네시아

1) 국가개요[3)]

인도네시아는 1만 7천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섬나라이자 최대 화산국가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섬이 활화산과 휴화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국민의 87%가 회교도이며 기독교가 7%, 가톨릭이 3%, 힌두교가 2%이며 나머지는 토속신앙을 믿는다.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오랜 전통에서 비롯한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종족이 사는 만큼 '아다트(Adat)'라는 관습법도 지역마다 다르다. 아다트 법률은 다른 회교국과는 달리 여성의 권리를 많은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다.

자카르타를 제외한 모든 섬은 열대지역에 속하며 두 계절로 나뉜다. 10~3월까지는 우기, 4~9월까지는 건기이다. 호우는 12월과 1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밤에 평균기온이 10℃정도 떨어지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필수이다.

2) 한국・인도네시아 관계[4)]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체결은 1971년「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한편 2006년「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으면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모니

---

3)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4)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터, 휘발유, 아연, 동괴 스크랩 등이며,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나프타, 천연고무 등이다. 2007년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승인은 400건, 8억9천5백만 달러였으며, 투자실현은 164건 6억2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5)]

<표 2-2> 인도네시아 개요

	내 용
공식국가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위치	동남아시아
면적	2,027,087㎢(한반도의 9배) -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등 5개의 큰섬과 17,500여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
기후	열대몬순, 고온 무풍다습 - 연평균기온: 25-28℃(자카르타 32-33℃), 습도 73-87% - 우기(10월-3월)와 건기(4월-9얼)로 나뉨.
수도	자카르타(Jakarta)
인구	2억4천만 명
주요도시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스마랑, 족자카르타(이상 자바), 메단, 빨렘방(이상 수마트라), 반자르마신, 발릭빠빤, 뽄띠아낙(칼리만탄), 우중빤당, 머나도(슬라웨시), 덴파사(발리), 암본(말루꾸)
민족(인종)	자바족(45%), 순다족, 아체족, 바딱족 등 300여 종족
언어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 공용어)
종교	회교(87%), 기독교(7%), 가톨릭(3%), 힌두교(2%) 등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시차(표준시)	GMT + 7(자카르타 기준, 한국보다 2시간 느림)
교민수	약 3만 5천여 명으로 추정. (자카르타 30,000명 이상, 수라바야 3,000명, 반둥 400명, 발리 250명, 족자 120명, 메단 60명, 바탐 15명 등)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 핵심 가이드(KOTRA), KOTIS(2007).

5) 인니투자청 통계기준.

다. 말레이시아

1) 국가개요[6)]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열대지방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구구성은 다양하다. 총 인구 약 2,664만 명(2007년 1월 추정)의 다인종 국가로 말레이계(61%), 중국계(24%), 인도계(7%)가 주 인종그룹이며, 사바와 사라왁주의 다양한 토착민(8%)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이슬람이 공식국교이나 불교, 힌두교, 기독교 등 다른 종교들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반도는 대부분 산지로 덮여 있는데 이들 산맥은 오래전에 형성되었으며 동서 교통에 있어서 항상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습지는 보통 삼림으로 덮여 있고 반도 해안선 연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일 년 내내 여름이다.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고온 다습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다. 평균기온, 강수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1차 산업에 기반을 둔 자유 기업 경제 체제의 개발도상국으로 산업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주석, 고무, 야자유의 세계적인 생산국이며 목재, 후추 등도 생산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산업개발청(MIDA), 말레이시아 중공업공사(HICOM), 국가경제개발공사(SEDC)가 설립되어 산업화를 장려하고 새로운 경제정책(NEP)을 후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운송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항공이 항공서비스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관광개발공사(TDC)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모든 학교는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가치관을 개발시키고 국가적 통합을 장려하기 위하여 통일된 교과 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말레이어와 제2국

6)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어인 영어로 동시에 이루어지며 교육시스템은 중등학교, 직업학교, 공예학교, 사범대학교, 공과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말레이시아 개요

	내 용
공식 국가명	말레이시아(Malaysia)
위치	동남아 적도 북단
면적	329,758㎢(한반도의 1.5배)
기후	열대성 기후, 연평균 27℃, 연평균 강수량 2,410㎜
수도	콸라룸푸르(Kuala Lumpur)
인구	2,664만명(2007.1월 추정)
주요도시	Kuala Lumpur(156만명), Penang(152만명), Johor Bahru(135만명) 등
민족(인종)	말레이계(61%), 중국계(24%), 인도계(7%), 기타(8%)
언어	말레이어(Bahasa Malay), 영어(상용어)
종교	이슬람교(60%), 불교(17%), 기독교(3%), 기타(20%)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내각수반, 압둘라 바다위 수상)
시차(표준시)	GMT + 8(한국보다 1시간 늦음)
교민수	약 1만5천 명으로 추산(중단기 체류자 포함)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 핵심 가이드(KOTRA), 말련정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2007).

2) 한국 · 말레이시아 관계[7)]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2년「무역협정」에서부터 1995년「자원협력 양해각서」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협정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교역품목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 컴퓨터, 철강판, 무

7)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선통신기기, 기구부품 등이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는 천연가스, 반도체, 원유, 컴퓨터, 석유제품, 목재류, LPG 등이 있다. 한국의 말레이시아로의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이며 2007년 투자건수는 23건, 투자 총액은 347.8백만 달러 규모이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관계에 있어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도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교역·투자·인사교류 등 양국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 선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나서 국제적 지위도 격상되었다. 앞으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역확대, 기술협력 증대, 현지 합작투자 강화 등이 필요하며, 양국 국민간 이해증진을 위해 문화행사 개최, 한국연구소 설립 및 지원 등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도 필요할 것이다.

라. 베트남

1) 국가개요[8)]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S자 모양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이다. 남북으로 길게 추옹송 산맥으로 하며 북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서쪽으로 타이완, 동서쪽으로 남중국해와 통킨만을 접하고 있다. 베트남은 천연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울창한 파파야 나무들과 넓은 백사장, 열대과일과 해산물 등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실시하며 농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 농업은 국내 총생산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노

8) 주 베트남 대사관.

동력의 약 3/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작지는 벼농사에 이용된 후 2모작이 이루어진다.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 땅콩 · 수수 · 옥수수 등이며, 국영농장에서 콩 · 사탕수수 · 코코넛 · 고무 · 커피 · 차 등이 생산되고 있다. 가축인 돼지 · 소 사육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광업과 제조업은 국내총생산의 1/5을, 총 노동력의 1/10을 차지한다. 철학 및 종교가 베트남인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로 구분된다.

<표 2-4> 베트남 개요

	내 용
공식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동경 103도 27분에서 109도 28분, 북위8도 30분에서 23도 20분에 위치)
면적	329,560㎢(한반도의 1.5배)
기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도	하노이(Ha Noi)
인구	84.16백만(2006년 기준)
주요도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민족(인종)	낀족(Kinh)족(89%), 따이(Tay)족(2.0%), 타이(Thai)족(1.6%), 호아(Hoa)족(1.5%), 기타 소수민족
언어	베트남어(일부 산악족은 고유 언어사용)
종교	불교(60%), 카톨릭교(20%), 기독교(5.0%), 까오다이교(2.5%), 호아호아교(2.5%)
정부형태	공산체제
시차(표준시)	GMT + 7(한국보다 2시간 늦음)

자료: 베트남 투자핵심가이드, KOTRA(2007), 주 베트남 대사관.

유교, 도교, 불교는 중국인 민간신앙 및 베트남인들의 고대 정령 신앙과 융화되어 3개의 종교로 땀짜오를 형성하며, 베트남 불교라고 불린다. 베트남의 공용어로는 베트남어이다. 한편 북베트남은 하노이어가 공용어이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남베트남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경제가 성장하면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 한국 · 베트남 관계[9)]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이후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2001년 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시 양국관계를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ASEM 정상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6위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 장비류, 직물, 정유, 봉제 등이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은 수산물, 원유, 섬유, 목제품, 고무 등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이며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경제 · 통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관계를 이룩하고 있다. 현재 약 1,500개의 우리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20~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 영화 · 드라마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상품을 고급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은데 쌀이 주식인 점과 구정과 추석명절을 즐기는 점, 성명은 보통 3글자로 성이 첫머리에 위치하는 것 등이 있다.

마. 태국

1) 국가개요

태국은 불교의 나라로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외국인들에게는 사이암(Siam)으로 잘 알려져 왔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교차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미얀마, 북동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그리고 남쪽

9)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으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표 2-5> 태국 개요

	내 용
공식국가명	타이왕국(The Kingdom of Thailand)
위치	동남아시아 위도상 북위 5.6°- 20.7°, 경도상 동경 97.3°- 105.7° (방콕: 북위 13.5°, 동경: 100.5°)
면적	514천㎢(한반도의 2.3배)
기후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건기: 11～2월, 우기: 7～10월, 열대기후: 3～6월)
수도	방콕(Banhkok)
인구	6,650만명(2007년말 추정치)
주요도시	방콕, 치앙마이, Nakhon Ratchasima, Nakorn Srithammarat, Ubon Ratchathani, Udon Thani
민족(인종)	순수 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11%)
언어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종교	소승불교(90%), 회교(6%), 기독교(2%), 기타(2%)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 2007.12.23 총선 실시
시차(표준시)	GMT + 7(한국보다 2시간 늦음)
교민수	약 15,000명(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100명, 체류자 약 14,900명)

자료: EIU 자료, 태국중앙은행, 주 태국 대사관(2007).

지리적으로 태국은 6개의 주요지역으로 나뉘다. 코끼리가 숲에서 일을 하고 겨울철 기온이 딸기나 복숭아와 같은 과일을 재배하기에 알맞은 북부 산악지대, 5,6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문명이 번성하였으며 주로 메콩강에 접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의 고원지대,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쌀과 좋은 과일을 재배하는 중앙평원, 아름다운 해변을 지니고 있으며,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동쪽의 해안평원, 수력발전을 하기에 알맞은 서쪽의 산악 지역과 계곡, 주석 채굴 고무경작, 어업의 중심지인 아름다운 남부지역 등이 있다.

2) 한국 · 태국 관계[10)]

태국은 한국의 우방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95년 양국간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고 2002년 해운협정이 수립되었다. 태국은 한국의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의 중간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시장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태국은 우회 수출기지로서 중요한 국가이다.

한편 태국은 1987년 이후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간 균형적인 교역확대를 위하여 한국측에 농산물 수입확대, 열대과일 수입금지 조항인 검역제도 개선, 설탕 및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바. 캄보디아

1) 국가개요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7대 불가사이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오염되지 않은 에머랄드빛의 해안과 풍부한 관광 자원, 소박한 국민이 있는 나라이다. 1993년 시하누크를 국왕으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정치적 불안과 내전을 불식시키며 관광입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처럼 삼모작이 가능하고 열대성 정글과 우림, 그리고 넓은 평야가 있다. 지리적으로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과 남동쪽으로 베트남, 북쪽으로는 바다인 시암만에 접해 있다.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 반도의 국가들을 1시간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

10)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2) 한국 · 캄보디아 관계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주요 유 · 무상 원조 대상국가로서 캄보디아 일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최근 한국기업이 직접투자 진출이 급격한 증가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관계도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있는 과정이다.

1997년「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은 이후 2001년「EDCF공여기본협정」까지 협정을 맺어오고 있다. 2006년 한국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으로 한국은 보다 많은 유 · 무상 원조를 약속한바 있어 앞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표 2-6> 캄보디아 개요

	내 용
공식국가명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 -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 북위 10-14°, 동경 103-107°
면적	181,035㎢(남한의 1.8배) -동서580㎞, 남북 450㎞,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기후	고온다습한 열대몬순기후 -20-40℃의 기온 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 -대체로 5～10월은 우기, 11～4월은 건기
수도	프놈펜(Phnom Penh)
인구	약 14.8만 명
주요도시	Phnom Penh(1,400천명), Sihanouk Ville(400천명), Battambang(300천명), Siem Reap(200천명)
민족(인종)	크메르(80%), 베트남(10%), 화교(5%), 참족(2%) 등 30여 인종
언어	크메르(Khmer)어 -지식층 및 비즈니스계의 중심으로 불어 및 영어 통용 -화교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어 통용
종교	불교(국교)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시차(표준시)	GMT + 7(한국보다 2시간 늦음)
교민수	약 4,000명(선교사 가족 포함), (프놈펜 3,000명, 시엠립 1,000명)

자료: 캄보디아 대륙별 국가정보, KOTRA(2007), 대한상공회의소.

사. 미얀마

1) 국가개요

미얀마의 공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이며 원래의 국가명인 버마에서 바꾼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부의 의미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미얀마 국민과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서방 민주 국가와 방송매체들은 아직도 버마로 호칭하고 있다.

언어는 미얀마어가 공용어이며 종족별로 고유의 언어가 있어 고유 언어로 의사를 주고받기도 한다. 미얀마에는 약 242개 언어가 존속하고 있으며 긴 영국 식민지 역사의 영향으로 미얀마어를 모르더라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인도, 중국, 태국 등 주변 국가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얀마는 북서쪽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 북동쪽으로 중국, 동쪽에 라오스, 남동쪽으로 태국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지형은 동부 고원지대, 중부 평야지대, 서부 산악지대, 뱅갈만 해안지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중부의 평야지대는 광대한 평야로서 동남아 3대 쌀 생산지이다.

2) 한국 · 미얀마 관계[11)]

미얀마는 네윈정권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에서 남북 등거리 외교관계 유지를 표명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한국문제 제기시 북한에 알렸었다. 미얀마 사회주의계획당 제5차(1985년) 전당대회 정치보고서에는 '평화통일 지지 및 외세의 간섭 없는 한국민의 자결이 반도 통일에 긴요'하다고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였다. 현 군사정권에서의 한국관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당사자 관련 국제문제에 대

11)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해서는 가급적 불개입·불표명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얀마는 1964년「무역협정」을 이후로 2002년「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에서 미얀마로 수출하는 주요 교역물품은 직물, 산업기계, 석유화학제품, 철강, 플라스틱제품 등이며, 미얀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교역물품으로는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임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이다. 2007년 9월 누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얀마 투자건수는 65건, 총 투자액은 1억 9천 282만 달러이다.

<표 2-7> 미얀마 개요

	내 용
공식국가명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
위치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적	676,577㎢(한반도의 3.5배)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수도	네삐도(Nay Pyi Daw)
인구	5,320만명(2004년 기준)
주요도시	양곤, 만달레이, 삔마나, 빠떼인, 바고, 삐등
민족(인종)	미얀마족(70%), 소수족(25%), 기타(중국계, 인도계 등 5%)
언어	미얀마어, 소수민족 고유어 - 정부, 기업인, 호텔종사자들은 영어구사
종교	불교(89.4%), 기독교(4.9%), 이슬람교(3.9%), 힌두교(0.5%), 토속신앙(1.2%), 기타(0.1%)
정부형태	군사정부
시차(표준시)	GMT + 6.5(한국보다 2.5시간 늦음)
교민수	총 교민수 약 800명

자료: 미얀마 투자핵심가이드(KOTRA), 한국 외교통상부(2007).

아. 라오스

1) 국가개요

라오스는 고온 다습한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서 각종 풍토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유아 사망률이나 평균 수명 면에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도시 주민의 35%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라오스에서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92년이며 에이즈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곳은 수도 비엔티안, 보케오주, 챰파삭주 등이 꼽히며 이들 지역은 모두 태국과 교통이 빈번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라오스 정부는 '에이즈예방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 캠페인 실시 등 대책에 나서고 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1.1배 정도 되지만 인구는 590만 명에 불과하다. 공업화 기반은 거의 없으며 철도도 식민 지배를 하였던 프랑스가 부설한 7㎞ 구간이 전부이다. 라오스는 건국되면서 종교는 크메르의 영향을 받아 소승불교이다. 라오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왕정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서 보호받고 있었으나. 공산화되면서 Marx-Lenin주의에 입각한 활동 특히 교육 분야에서 공헌을 요구받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국민의 95%가 불교신자일 정도로 라오스인의 사고방식 속에 불교사상이 잠재되어 있다.

라오스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라오스를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부분 국경에서 라오스 비자를 받는다. 한국에서 라오스까지 직항 편은 없다.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여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루앙 프라방으로 들어간다.

<표 2-8> 라오스 개요

	내 용
공식국가명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위치	동남아시아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내륙국가
면적	236,800㎢(한반도 전체의 약 1.1배)
기후	열대 몬순기후 - 연 평균 기온: 26.5도 - 연 평균 강수량: 2045㎜ - 우기(5월~9월) 및 건기(10~4월)
수도	비엔티엔
인구	약 53만 명
주요도시	비엔티엔, 사바나켓, 팍세, 루앙프라방
민족(인종)	라오룸(50%), 라오퉁(30%), 라오숭(10%)족 등 총47개 종족
언어	성조어(6성)이며, 태국어와 유사(라오스어와 태국어간 사호 의사소통 가능)
종교	불교(90%), 정령신앙, 기독교
정부형태	대통령제(임기 5년, 국회에서 선출)
시차(표준시)	GMT + 6(한국보다 2시간 늦음)

자료: 주 라오스 대사관(2006).

2) 한국 · 라오스 관계[12)]

지난 수십 년간 한국과 라오스의 교류보다 북한과 라오스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북한과 라오스는 1968년「과학기술협정」을 비롯하여 2001년「이중과세방지협정」,「문화교류협정」,「보건협력협정」까지 체결된 협정이 다수 존재한다.

북한과 라오스의 협력관계에 비해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 관계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라오스의 부아손 부파반 총리(이하 부아손 총리)는

12) 주 라오스 대사관.

2008. 6. 18~20 한국의 한승수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공식방한을 하게 되어 양국 총리 회담을 가졌다. 금번 총리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오스는 우리 관광객과 투자자들의 라오스 입국 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 국민에 대해 15일 이하 단기비자를 면제키로 결정하였으며 양국은 한·라오스 직항노선 개설을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검토할 예정이다. 라오스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13] 역할을 수행하는 2009~2012년 동안 다방면에서 한·아세안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 소결

동남아시아 주요 8개국의 경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생산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필리핀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인도네시아는 노동인구가 풍부하며 문화가 다양하다. 말레이시아는 연중 내내 여름이고 다인종 국가이며 베트남은 최근 경제성장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 투자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적 유사성을 띤다. 태국은 지리적 위치상 중간 거점형 투자가 기대되고 캄보디아는 관광입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얀마는 다양한 고유 언어가 있으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동남아 3대 쌀 생산지이며, 라오스는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지이며 한국과 라오스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협력관계가 전개될 전망이다.

---

13) 대화조정국은 ASEAN과 한·중·일 등 대화 상대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ASEAN측 내부 입장 조율 및 대화상대국과의 교섭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시장 진출이 용이 하지 않아 태국이 중간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 3국과의 교류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3국으로의 새로운 투자의 귀추가 기대된다.

2. 투자 대상 국가 경제지표

대상국가 8개 중 GDP가 가장 높은 곳은 인도네시아가 PPP환율로 843.7 십억 달러이다(2007). 반면에 G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캄보디아다. GDP 구성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농업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나라는 미얀마, 라오스이고, 산업분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태국이 40%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필리핀이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동인구는 109.9백만 명으로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다. 특징적인 부분으로 캄보디아의 인플레이션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 국가는 한자리수이다.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최근 물가와 관련해 캄보디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2-9> 투자 대상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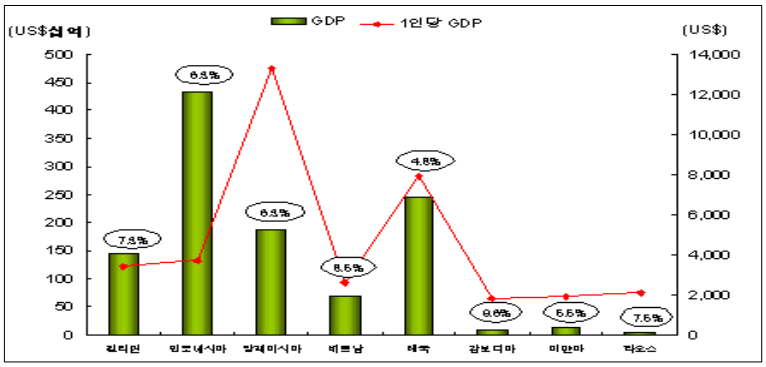
(단위: US $ 십억)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GDP	$300.1	$843.7	$361.2	$222.1	$521.5	$26.19	$91.13	$12.8
GDP 증가율	7.3%	6.3%	6.3%	8.5%	4.8%	9.8% (2008)	5.5%	7.5%
1인당 GDP	$3,400	$ 3,700	$13,300	$2,600	$7,900	$1,800	$1,900	$2.100
GDP 구성	농업: 13.7% 산업: 31.4% 서비스업: 54.8%	농업: 13.8% 산업: 46.7% 서비스업: 39.4%	농업: 9.9% 산업: 45.3% 서비스업: 44.8%	농업: 19.5% 산업: 42.3% 서비스업: 38.2%	농업: 11.4% 산업: 43.9% 서비스업: 44.7%	농업: 31% 산업: 26% 서비스업: 43%	농업: 50% 산업: 17.6% 서비스업: 32.4%	농업: 41.3% 산업: 32.2% 서비스업: 26.5%
노동 인구	36.22 백만	109.9 백만	10.94 백만	46.42 백만	36.9 백만	14.8백만 (2008추정)	29.26 백만	2.1백만 (2006추정)
노동 인구 구성	농업: 35% 산업: 15% 서비스: 50%	농업: 43.3% 산업: 18% 서비스: 38.7%	농업: 13% 산업: 36% 서비스: 51%	농업: 55.6% 산업: 18.9% 서비스: 25.5% (2005.7)	농업: 49% 산업: 14% 서비스: 37% (2000추정)	농업: 75% 산업: NA 서비스: NA	농업: 70% 산업: 7% 서비스: 23% (2001)	농업: 80% 산업・서비스: 20% (2005추정)
실업률	7.3%	9.6%	3.2%	5.3%	1.4%	2.5% (2000추정)	10.2%	2.4% (2005추정)
인플레이션률	2.8%	6.4%	2.1%	8.3%	2.2%	4.7% (2008)	34.4%	4.5%
환율 (per US$)	46.148	9,056	3.46	16,119	33.599	4,122 (2008)	1,296	9,658

주: 2007년 추정 자료임, GDP는 PPP 환률로 계산한 것임.
자료: CIA - The World Factbook,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그림 2-1>에서 보면, 대상국가 중 GDP의 1인당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7.3%로 필리핀이다. 대상 국가의 GDP가 높다고 해서 1인당 증가율도 높은 것은 아니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타대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GDP를 보인다.

<그림 2-1> 투자 대상 국가의 GDP 및 그 증가율과 1인당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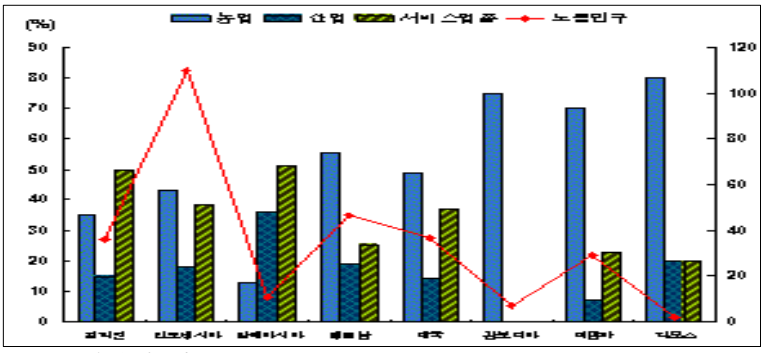


주: 2007년 추정치임.
자료: CIA - The World Factbook.

<그림 2-2>은 대상 국가의 노동인구구성 및 노동인구수를 나타낸 것으로, 라오스는 노동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GDP가 낮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노동 인구 구성이 농업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으며, 3차 산업인 서비스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수치를 보인다. 노동인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순이고 라오스가 가장 적은 노동인구수를 보인다.

<그림 2-2> 노동인구구성 및 노동인구수

(단위: 백만 명)



주: 2007년 추정 자료임.
자료: CIA-The World Factbook.

3. 투자 대상 국가 FTA 현황[14)]

가. 필리핀

1) 한 · ASEAN FTA

2006년 5월 16일에 한국 · 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필리핀은 2007년 11월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이 협정이 통과되었고, 2008년 1월 1일에 상품 FTA가 발효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서비스 무역협정을 타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2007년 2월 협상이 개시된 한 · 아세안 서비스 투자협정에 집중하고 있다.

상품군의 경우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철강 등이 무역협정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벼, 사탕수수당, 시동 전동기, 와이어링 세트는 초민감 품목으로 양허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필리핀의 광산개발 서비스 개방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풍부한 필리핀의 광물자원(금속성 광물 자원 총 8억5천톤으로 추정) 개발을 위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레스토랑, 호텔업, 레저(여행) 사업의 개방으로 필리핀 관광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호텔업 및 여행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었으나 한 · ASEAN FTA 승인 후에는 100%로, 외국인 순수 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2) 필리핀 · 일본 FTA 체결

필리핀 · 일본 FTA는 2006년 9월에 체결되었다. '일본 · 필리핀 경제협력

14) 코트라 국가정보 외교통상부 FTA 내용을 참고하여 집필하고 그 외 참고사항은 따로 표기하였음

협정(Japan · 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PEPA)'이라는 큰 틀 아래 체결된 이 협정은 필리핀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철강(Iron and Steel),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 의류, 과일(포도, 배)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향후 10년 내에 폐지 또는 삭감해야하며, 필리핀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일본 투자자에게 비-FTA국과 차별화되는 혜택(Incentive)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인도네시아

1) 한 · ASEAN FTA

2007년 6월에 발효된 ASEAN과 FTA에 따라,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 분야에는 관광, 항공, 법률, 통신(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이 기존보다 넓은 개방화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2) AFTA(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15)]

AFTA는 아세안 국가들(인도네시아를 포함 10개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 자유무역협정이다. 1992년 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15) 코트라 국가정보.

AFTA 설립이 공식 합의되었다. 1992년 12월 자카르타에서 AFTA 평의회가 개최되어 역내 관세 인하 프로그램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실무협정이 체결된 후 1993년 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AFTA 결정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국가이다.

3) 중 · ASEAN FTA

중 · ASEAN FTA는 2002년 12월 캄보디아에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4년 11월 중 · ASEAN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하였고,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시작되었다.

4) 일 · ASEAN EPA

일본과 아세안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위한 경제협력협정(EPA)에 인도네시아는 2007년 8월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08년 7월에 발표되었으며, 협정 발표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대일본 수출품 중 80%가 무관세가 되었다.

다. 말레이시아

1) 한 · ASEAN FTA

2004년 8월 말레이시아 총리의 한국 방문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 · 아세안간의 FTA 협상 타결로 2007년 6월 1일부로 관세인하가 발효되었다. 말레이시아측은 2000cc 이상 승용차 등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 기타 차량 관세

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양국 FTA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ASEAN과의 협상이 모두 끝난 후 협상 진행 예정에 있다.

<표 2-10>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 현황

체결 완료	협상 중
일본('05.12), 파키스탄('07.11)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한국, 인도

자료: MITI(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2) 말레이시아·일본 FTA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FTA는 2003년 11월 본격적인 협상 착수에 들어가 2006월 7월 13일에 협정이 발효되었다. 양국의 FTA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말레이시아·파키스탄 FTA

2005년 2월 FTA 협상 착수를 시작해 2008년 1월 1일 발효하였으며, 2012년까지 말레이시아는 전체 관세품목의 74.5%, 파키스탄은 43.2%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5년마다 당사자간의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4) 말레이시아·호주

2005년 4월 양국 수상회담에서 FTA 협상 착수에 합의하여 이후 4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조달시장,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로 난항

을 겪고 있다.

5) 말레이시아 · 뉴질랜드

2005년 4월 양국 수상회담에서 FTA 협상 착수에 합의하여 6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정부 조달시장, 노동 및 환경문제로 협상이 연기되었다.

6) 말레이시아 · 미국

2006년 3월 양국은 2007년초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 착수에 합의하였다. 2008년 7월에 8번째 협상이 진행 되었으며 쌀, 정부 조달시장 개방 및 노동관련 이슈로 난항을 겪고 있다.

7) 말레이시아 · 인도

2005년 1월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하여 공동연구가 완료되었다. 2008년 2월에 콸라룸푸르에서, 6월에는 뉴델리에서 협상이 있었으며, 협상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8) 말레이시아 · 칠레

2006년 10월에 말레이시아 총리와 칠레 대통령이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4차례 공동연구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베트남

1) 한국 · ASEAN FTA

한국 · 베트남(ASEAN)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분야 협정이 2007년 6월 1일부로 완료된 상태이며 투자분야에 대한 타결과 발효를 추진 중이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WTO 가입 당시 양허 수준이 높아 중 · ASEAN과의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2) 미 · 베트남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수립

베트남이 국제 경제로 진입한 후 가장 마지막 단계는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2006년 11월 베트남의 WTO 가입에 이어 2006년 12월 미국 의회로부터 미 · 베트남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승인을 얻었다.

3) 아세안(ASEAN) 가입에 따른 AFTA[16)]

베트남은 1995년 7월 28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제7번째 ASEAN의 회원국이 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부터 전체 상품 중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역내관세를 0~5%로 적용하고 있다.

4) ACFTA(ASEAN · 중국 FTA)

ASEAN과 중국은 2002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The

16) 아세안 공식 홈페이지(www.asean.org).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에는 상품무역협정(The Agreement on ASEAN · China Trade in Goods)을 체결함으로써 관세인하 및 철폐 수행에 합의하였다. 2006년 전체 상품의 26.6%가 한국이 적용받는 최혜국관세(MFN)보다 낮은 AC(ASEAN · China) FTA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베트남은 다자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국제 경제에 편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마. 태국

1) 한국 · 아세안 FTA

한국 · 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태국은 제외된 상태이다.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 불가 한다면 태국은 철강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양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아세안측은 추후에 태국이 한 · 아세안 FTA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표 2-11> 한 · 태국 상품교역부분 협상 진행상황

구	기간	장소	비고
1차	2007.4.8～13	서울	한 · 아세안 17차 협상기간 중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합일점은 찾지 못함.
2차	2007.6.5～8	하노이	한 · 아세안 18차 협상기간 중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합일점은 찾지 못함.
3차	2007.8.14～17	라오스	한 · 아세안 20차 협상기간 중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태국 관세인하연장 대상품목을 태국에 제시하지 않아 관련 추가 협의사항은 없었음. 이 협상에서 양국간 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대신 화장품, 철강, 냉동식품의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음.

자료: KOTRA.

2) 태국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태국은 활발한 FTA 협정 추진을 통해 세계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태국정부는 섬유와 전자공학 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효과가 가져다 줄 자국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표 2-12> 태국의 국가별 FTA 추진동향

체결 완료	협상 중	검토 중
인도('04.7월) 중국・ASEAN('05,1월 발효) 호주('05.1월 발효), 뉴질랜드('05.7월 발효), BIMSTEC('06,7월 발효) 일본('07.4월 체결, 11월 발효)	미국(잠정 중단 중) 페루 EFTA(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파키스탄

주: BIMSETEC은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부탄, 네팔 등 7개국을 말함.
자료: 태국 상무부.

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2003년 WTO 가입 승인을 받고 2004년에 정식 회원국에 되어 WTO의 148번째의 멤버가 되었다. 캄보디아와 한국은 한・캄보디아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캄보디아는 ASEAN의 한 회원국으로 무역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 미얀마

1) 한・아세안 FTA

2007년 6월 1일부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의 회원국인 미얀마도 동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중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양허안의 이행 시기가 다소 연장된다. 미얀마는 일반품목이 2018년까지 관세 철폐되고, 민감품목은 2024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2007년 11월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정으로 미얀마는 회계・감사, 엔지니어링, 광고, 출판인쇄, 통번역, 영화제작 및 상영, 토목건설, 금융(손해사정・보험계리, 대표사무소), 통신(전자 및 음성 메일, 전자데이터교환, 텔렉스), 해운(여객 및 화물 운송), 운송(화물처리 및 창고), 항공(유지보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예약) 등의 분야를 개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에 혜택이 많을 것이라 평가된다. 이는 GATS 대비 23개의 신규 양허가 포함된 것으로 시장 개방화에 있는 미얀마 진출에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2) 중・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는 2007년 7월경에 발효 되었으며, 일반 품목에 대해 아세안 6개국은 2010년까지 나머지 4개국(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04년에는 우선 개방품목(Early Harvest Program)을 지정하여 2006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얀마를 포함한 CLMV 4개국은 2009년까지 관세 철폐를 합의하였다. EHP에 포함되는 품목은 농수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 라오스

1) 한·아세안 FTA

2008년 10월 1일부터 라오스와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대라오스 교역물품 중 티셔츠, 신발 등 1만 6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반면에 수입증가로 우리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쌀, 쇠고기, 고추류 등은 특혜관세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동시에 우리 상품의 대라오스 수출품도 10월 1일부터 관세혜택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는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17]

4. 투자 대상 국가의 주요 산업 현황 및 정책

가. 투자 대상 국가의 주요 산업 및 정책

1) 필리핀

가) 전체 산업 구조 개관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GDP 5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에너지사업에서의 성장이 저조한 반면 광업과 채광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17) 코트라 국가정보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러나 1차 산업의 경우 성장률이 불안정하다. 대다수의 인구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재배기술의 약후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

나) 산업별 통계[18)]

제조업 비중이 약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50%가 넘는 소비위주의 경제이다. 제조업은 대부분 외국인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전자산업 및 의류산업 등 재수출용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소비위주 경제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내수 대상 제조업은 식품 가공업, 음료, 통신업 등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표 2-13> 산업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경상가격 GDP기준)

(단위: 십억 페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림 수산업	631	734	777	855	937.348
광공업	1,373	1,538	1,754	1,907.6	2,083
-광업, 채광업	44	53	64	75.6	99.26
-제조업	1,004	1,115	1,259	1,381	1,460.70
-건설업	188	214	234	235	290.67
-전기, 가스, 수도	137	156	197	216	232.11
서비스업	2,289	2,554	2,848	3,270	3,621.24
-수송, 통신, 창고	313	367	412	446	478.24
-trade	603	682	777	878	997316
-금융	188	215	268	312	359.90
-부동산	270	292	320	351	374.52
-민간서비스	538	605	664	830	939.52
-공공서비스	377	394	408	453	481.91
GDP	4,293	4,826	5,379	6,032	6,651
GNP	4,591	5,168	5,796	6,070	7,274
1인당 GNP($)	1,035	1,104	1,234	1,470	-

주: 소수점 첫 자리 반올림

자료:. National Accounts of the Philippine 2007.

18)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다) 가전산업

필리핀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은 내수 지향적이며 판매량의 대부분이 내수용이다. 최근 들어서는 현지에서 거의 가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제조업 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지고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낮아져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 2-14> 주요 가전제품 수입관세율

품목명	HS CODE	2006년		2007년	
		MFN	CEPT	MFN	CEPT
WHITE LINES					
- Refrigerator	8418.21	10	5	10	5
- Freezer, Chest Type	8418.30	5	5	5	5
- Freezer, Upright Type	8418.40	10	5	10	5
- Washing Machine	8450.11	5	5	5	5
- Air-Conditioner, window or wall type	8415.20	5	5	5	5
- Parts for Refs & Freezers	8414.90	5	3	5	3
- Parts for Air-Con	8415.90	10	5	10	5
- Parts for Washing machine	8450.90	5	0	5	0
BROWN LINES					
- Audio	8527.13	15	5	15	5
- Color TV / Video	8528.21	15	5	15	5
- Microwave Ovens	8516.50	3	0	3	0
- For Kitchen, Others(range, stove, rice cookers)	8616.8030	5	5	5	5
- Electric Fans(table, floor, qall, ceiling type)	8414.51	7	5	7	5
- Parts for TV/Video, Audio	8529.1090	5	0	5	0
- Parts for Kitchen Appliances	8516.9090	5	0	5	0

주 1) 대한 수입관세율-MFN 적용.
2) 아세안 회원국-CEPT 적용.

라) 광업[19]

필리핀은 중요한 광물매장국가로서 동, 니켈, 금 등의 매장량이 세계 8위로 추정되는 자원 보유국이며 자원이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900만ha 지역에

19) 코트라 국가 정보·상품산업.

광물 매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하자원도 풍부하나 낙후된 기술과 자본력 미약, 외국인 단독투자 불허 등으로 매장량 조사가 절반도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된 경제성 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표 2-15> 주요 자원별, 연도별 생산량

자원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Copper							
Concentrate	DMT	129,755	98,065	79,213	80,821	70,578	75,300
Gold	kg	36,511	33,792	35,846	39,008	35,464	37,500
Nickel	kg	1,023,381	1,290,524	1,200,204	872,923	874,193	1,106,900
Cement Raw Materials	MT	22,264,100	21,535,100	20,524,400	17,555,300	20,514,000	20,862,800

주: DMT(Dry Metric Ton).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6(NSCB).

마)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에 대한 종사인구는 전체 인구의 35% 정도이며 필리핀 농림수산업은 규모에 비해 단위당 생산성이 영세하여 앞으로 개발 필요성이 많은 분야이다. 현재는 쌀,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쌀 생산량은 비슷한 데 비해 인구가 매년 2% 이상 증가하고 있어 쌀 자급도는 농업부문의 획기적 생산증대가 따르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생산작물은 옥수수, 코코넛, 사탕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망고, 담배, 아바카, 고무, 카사바, 고구마, 망고 등이며, 특히 열대과일류는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바) 농기계 산업[20)]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조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우선 투자분야에 농기계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필리핀 농기계 산업은 기술부족에 시

20)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달리고 있다. 수요의 약 90%를 필리핀 국내산으로 조달하며 나머지 품목의 경우 국내 자급률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0% 수입의존 품목은 엔진(가솔린 및 디젤), 사륜 트렉터, 전기 모터 등으로 디젤 엔진의 경우 한국산 대동 및 국제 등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전기모터의 경우 LG모터가 판매된 바 있다.

사) 석유화학 산업

필리핀의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 플라스틱 가공, 직물 등에 필요한 합성수지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원유를 주로 수입하고 있고 제조업을 꺼리는 필리핀 특유의 산업구조 때문이다.

<표 2-16> 석유화학제품 생산동향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생산량	114,486	94,439	88,242	73,367	79,255
Aviation Turbo	4,825	5,050	5,024	4,584	5,576
Premium Gasoline	5,540	5,523	-	6,939	5,037
Regular Gasoline	-	-	-	-	-
Premium Unleaded	12,194	11,213	9,967	5,821	9,021
Kerosene	3,625	3,227	2,802	1,776	1,672
Diesel Oil	33,872	29,758	28,731	21,719	24,843
Fuel Oil	32,241	26,104	25,970	23,419	23,170
LPG	5,544	5,019	4,604	3,064	3,817
Asphalts	651	199	-	1.70	-
Hydro/Solvents	135	115	157	102	99
Naphtha	6,080	4,158	4,496	1,800	1,032
Mixed Xylene	209	541	731	852	979
Base Stocks	747	148	0	-	-
Secondary Products	-337	-110	0	-	-
Waxes	-18	-5	0	-	-
In-Process Loss	9,180	3,498	466	(3)	621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6, DOE/Oil Industry Mgmt Bureau

<표 2-17> 합성수지별 제조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생산능력 (1,000 MTPY)
PP	Petrochemical Corp. of Asia-Pacific*	225
	JG Summit Petrochemical Corporation	180
PE	JG Summit Petrochemical Corporation	175
	Bataan Polyethylene Corp.**	275
PVC	Phil. Resins Industries, Inc.	140
PS	D & L Industries, Inc.	18
	Phil. Petrochemical Products, Inc.	14
Alkylbenzene	LMG Chemicals Corporation	25
Phthalic Anhydride	RI Chemical Corporation (formerly Resins, Inc.)	14
Formaldehyde	Borden International Phils., Inc.	28
	RI Chemical Corporation (formerly Resins, Inc.)	40
Emulsion Polymers	Borden International Phils., Inc.	25
	D & L Industries, Inc.	
	Kemwerke, Inc.	
	Pacific Products, Inc.	
	Polymer Chemicals	
Polyester (unsaturated)	D & L	10
	RI Chemical Corporation	
	PPPI	
	Kemwerke	
	Pacific Products	
Polyamide	Pacific Products	1
Nylon 6 Fibers	Fibertex	14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및 해당업체 문의, 2007년 1월.

아) 에너지 산업[21)]

필리핀은 자국내 유전에서 소량의 원유생산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해외수입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발전소 확충작업이 미뤄지면서 루손섬에도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

21)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조달 능력이 없는 현 정부로서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발전소 등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BOT법 등 관련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높으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가격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발전설비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송배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총 송배전 연장 길이는 17,000ckt/km 정도로 설비의 노후화, 관리 부실로 최고 40%까지도 전력 누수율이 심각하다. 과거 90년대 초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발전소를 설립할 때 정부가 민간 전력 생산업자들(IPPs)과 맺은 계약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소비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일반 전기사용자들의 저항이 일어났고, 이에 전력요금을 일부 인하함에 따라 전력공사(NAPOCOR: NPC)의 재정 적자가 100억 달러까지로 늘어나는데 일조하였다.

한국전력은 지난 12월 16일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와 일리한 발전소에 이어 세부 발전소를 착공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한국과 필리핀 정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세부지역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으로 한·필간 에너지 협정조약 체결로 한국 가스공사가 말람파야 발전소 개발에 참여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자동차 산업

필리핀 자동차 산업은 일본 자동차 조립 회사들이 이끌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40% 정도 가동되고 있다. 주요 제조사인 TOYOTA, HONDA, NISSAN, MITSUBISHI, ISUZU 등 5개 일본 조립업체들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다. 그 외에 FORD, COLUMBIA MOTORS (MAZDA, DAIHATSU 조립) 등이 있다.

필리핀인들은 가족 수가 많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소형 승용차보다는 봉고형 승합차(Asian Utility Vehicle: AUV)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와 기아는 스타렉스와 카니발을 선두로 필리핀 시장점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점유율이 미흡한 상태이다. 필리핀 자동차 자체생산은 없으며, 대중들의 교통수단인 지프니는 중고 엔진을 이용하여 지프니 제작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프니 생산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지프니를 베트남과 인도로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수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 2-18> 자동차 조립 생산업체

자동차업체	생산 차종	점유율	설립연도	투자국
Toyota Motors Phils.,Inc.	승용차, 상용차	35.87%	1988	일본
Honda Cars Phils.,Inc.	승용차, 상용차	14.02%	1992	일본
Nissan Motor Phils.,Inc.	승용차, 상용차	3.04%	1997	일본
Mitsubishi Motors Phils.Inc.	승용차, 상용차	12.47%	1996	일본
Ford Motor Company Phils.	승용차, 상용차	7.97%	1999	미국
Isuzu Phils.Corp.	상용차	14.06%	1996	일본

자료: CAMPI. July 2006.

차) 자동차 부품 산업[22)]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자동차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부분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며 필리핀 생산업체들은 단순한 비핵심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천여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며, 현지 부품업계가 공급하는 부품은 15%에 불과하다. 과거 현지 자동차 조립시 적용되던 Local Contents(현지 산 부품사용)비율은 2003년 7월에 폐지되었다.

22)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카) 정보통신산업

(1) 전반적인 시장현황

이동전화 이용자 및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 닷컴 기업 및 인터넷 관련 기업수의 증가, IT부문으로의 국내 ·외 투자 증가로 동 산업은 필리핀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관련 인프라는 점점 다양화되고 확산추세에 있으나 정부조직에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전산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열악한 상황이며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이다.

(2) 유선전화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Bayantel, Globe Telecoms 등 주요 전화회사가 시장을 분할 점유하고 있으나 PLDT가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전화서비스 회사별 회선 수 및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9> 주요 전화서비스 회사별 회선수

사업자명	회 선 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PLDT	2,933,145	2,933,555	2,912,129	2,926,515
GLOBE	790,291	-	-	-
DIGITEL	618,271	633,190	633,190	634,345
BAYANTEL	488,684	443,910	443,910	443,910
ISLACOM	693,978	693,978	-	-
INNOVE	-	-	1,507,197	1,507,197
OTHERS	1,389,866	2,546,748	976,625	1,026,420
총계	6,914,235	6,557,403	6,473,051	6,538,387

주: PLDT가 제1의 서비스업체(자회사인 SMART 포함)이며 GLOBE TELECOM이 제2의 전화서비스 업체이다. ISACOM 은 2003년에 Globe에 합병되었다.

자료: Phil. Statistical Yearbook 2006, NTC.

<표 2-20> 주요 전화서비스 회사별 점유율

사업자명	가 입 자 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PLDT	2,092,539	2,098,453	2,115,561	2,043,816
GLOBE	134,803	-	-	-
DIGITEL	389,967	391,605	412,618	410,661
BAYANTEL	185,506	227,057	227,057	227,057
ISLACOM	73,491	-	-	-
INNOVE	434,627	582,206	352,347	355,810
OTHERS	-	-	329,908	329,908
총계	3,310,182	3,299,361	3,437,491	3,367,252

주: PLDT가 제1의 서비스업체(자회사인 SMART 포함)이며 GLOBE TELECOM이 제2의 전화 서비스 업체이다. ISACOM 은 2003년에 Globe에 합병되었다.
자료: Phil. Statistical Yearbook 2006, NTC.

최근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로 유선전화는 오히려 보급률이 낮아지고 있다.

<표 2-21> 연도별 전화보급률(100명당 전화 회선수)

구분	보급률
2001	8.91
2002	8.70
2003	8.0
2004	7.83
2005	7.76

자료: Phil. Statistical Yearbook 2006, NTC

통계상으로 볼 때 많은 발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필리핀 통신 산업은 아직까지 많이 낙후되어 있으며 통신이용자수의 증가, 통화질의 향상, 고비용 통신비용의 개선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낮은 PC 보급률로 인해 최근 인터넷카페(PC방)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초고속 통신망 보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이동통신

약 4개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사별 가입자 수 현황은 <표 2-22>와 같다. 이동통신 회사인 Smart Communications와 Globe Telecom은 이미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동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가입자 수는 300~500백만 명 정도로 필리핀 전체 단말기 사용자에 10~20%선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2>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별 가입자 수

사업자명	가 입 자 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SMART	4,893,844	6,825,686	10,080,112	14,595,782	15,424,196
GLOBE	5,405,415	6,572,185	8,800,000	12,513,973	12,500,000
PILTEL	1,483,838	1,773,620	2,867,085	4,612,450	4,984,425
ISLACOM	181,614	181,614*	N/A	Closed	-
EXTELCOM	194,452	29,896	29,896*	13,670	10,374
DIGITEL	-	-	732,467	1,200,000	1,860,000
총계	12,159,163	15,383,001	22,509,560	32,935,875	34,778,995
인구수	77,898,196	79,476,271	81,054,271	82,652,000	84,215,000
100명당 보급률	15.61	19.36	27.77	39.85	41.3

주: PLDT가 제1의 서비스업체(자회사인 SMART 포함)이며 GLOBE TELECOM이 제2의 전화 서비스 업체이다. ISACOM 은 2003년에 Globe에 합병되었다.
자료: Phil. Statistical Yearbook 2006, NTC.

GSM 방식을 사용하고 단말기는 보급품의 저가 기종이 대부분이며, 후불제보다는 선불카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통신 회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 및 소액 재충전 서비스 도입 등으로 가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말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3천 5백만 명에 달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4) VoIP

현재는 기존 유선통신 사업자들에게만 사업권이 허가되어 있으나, 관련 업계의 규제해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최근 규제를 해제하여 유선통신

뿐만 아니라 무선통신사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5) 인터넷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업체도 크게 늘어났다가 대미달러 환율의 급상승, 경기침체, 기존 유선망 사업자인 PLDT와 GLOBE까지 ISP시장에 가세하는 바람에 경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ISP 사업자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ISP 업체들간 경쟁 과열로 네트워크 능력을 초과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바람에 네트워크 과부하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수는 200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00여개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수는 1999년 95만 명, 2000년 190만 명, 2001년 310만 명이었고, 2002년 340만 명, 2003년에는 400만 명, 2005년에는 782만 명으로 2년 동안 약 2배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주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기적 사용자'는 2002년 965천 명에서 2003년 1백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주로 유선전화 보급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40% 가량이 Pre-Paid Card 사용자로, 휴대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인구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선전화 보급 부진, 높은 유·무선 전화이용료, PC 보급 부진 등이 인터넷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WiFi 무선랜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커피전문점(Starbucks, Coffeebean), 호텔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 중이다. 아직까지 Dial-up 방식이 주류로, 최대속도는 56K이나, 인트라 부실로 인해 실제 접속 속도는 이보다 느리다. ISDN의 경우 유선전화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64K, 128K가 서비스되고 있고, 기업용으로 한정되어 E1급(30채널)이 주로 보급되고 있다. ADSL은 광섬유 라인이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되고 있고, 기업용은 512K, 1M, 2M가 가능하며, 월 사용료 600달러로 사용료가 비싸서 일부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6) PC 보급

장기적으로 개인 PC보급은 늘어날 전망이나 인구의 80%가 월 소득 27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이 IT 보급 확산의 장애 요인이다. 2004년도 필리핀 정부가 인텔사와 약정을 맺고 '국민형 PC(PC for the people)'를 도입, 학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세계 2위의 마이크로칩업체인 AMD(Advanced Micro Devices Inc.)와 다시 약정을 맺고 저가 PC 보급을 시작하였다. 인텔의 국민형 PC는 판매가격이 대당 17,600페소(약 320달러)로, 리눅스가 설치된다. 필리핀에 부품 형태로 반입되어 조립, 판매・부품 조달처는 중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코스타리카 등으로 알려져 있다. AMD는 인텔보다 낮은 가격인 대당 16,500페소(약 300달러)에 칼라 잉크가 장착된 프린터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AMD는 2005년에 1만대를 필리핀에 공급하였고, 판매 대상은 학교 및 공무원으로 인텔사와 같다.

(7) 필리핀의 IT산업

필리핀 정부가 육성하려는 필리핀 IT 산업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으로, 그 가운데 특히 콜센터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세계 콜센터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내지 7년 후에는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콜센터 기지로서의 필리핀의 장점은 사업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구사 인력이 풍부하며 통신 인프라 여건이 비교적 좋다는 점이다. 또한 필리핀인들의 미국 선호가 강한 덕분에 미국 문화와 친숙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현재 필리핀에는 미국의 유수 콜센터들인 Convergys, West Tele Services, Sykes, ICT, APAC Customer Services가 있으며, 메트로 마닐라, 클락, 세부 등에 60여 개의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8) IT Park 육성

기존 제조업 중심의 공단조성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IT 단지 및 건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상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개발, 하드웨어 디자인 및 시제품 생산, 컴퓨터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 연구개발 및 IT 제조 등이다.

2) 인도네시아

가) 전체 산업구조 개관[23)]

2007년에 들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물가안정과 수출증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대출 금리 인하로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07년 초 9.5%에서 8.0% 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석탄, 석유, 가스, 팜 오일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인구 2억 4천만 명이 받치고 있는 탄탄한 내수 시장이 경제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자원,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인니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수출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고용 증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현재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로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고, 주요 분야는 직물 및 직물제품, 신발,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석유화학, 철강, 양식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자본축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실질적이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3)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나) 농업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시행으로 농업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농업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물론, 농업 생산양식이 이 나라 문화, 종교,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네시아 농업은 농업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쌀과 관련해서는 Bulog이라는 특별 기구를 두고 있다. 농업개발의 주요 목표는 식량자급을 위한 미곡 증산과 수출 농산물의 증산 및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하여 작물의 집약재배 토지의 집약적 이용, 품종개량, 비마스(BIMAS), 인마스(INMAS) 사업의 확대, 농업금융의 확대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경지 면적 구성을 보면 벼농사가 총 경지면적의 42%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옥수수 15%, 천연고무 11%, 카사바 6%, 두류 3%의 순이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바이오디젤이 대체 가능 연료로 급부상하면서 전국 각지에 팜농장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향후 자트로파(피마자) 농원이나 카사바 농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인도네시아 농업은 전통적인 벼농사보다 팜, 자트로파 등 바이오디젤과 카사바, 사탕수수, 옥수수 등 바이오에탄올 원료가 되는 농작물들이 주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천연고무나 카카오, 커피 등 인도네시아 주요 농산물의 국제시장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농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제조업[24)]

(1) 섬유산업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전자산업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산업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0년대에 외국인

24)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고 우리나라 봉제기업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대거 진출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생산단가는 오히려 높아져 후발 개도국들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시장의 약 8%를 점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섬유관련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원료에서부터 의류완제품까지의 연관업체간 수직계열화가 미비하여 원자재 조달에 시간 및 코스트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세계섬유교역이 자유화되게 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한창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6년부터 노후화된 설비교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2007년 4월부터 섬유설비교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과 EU로부터 앞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섬유쿼터에 묶여있는 동안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섬유산업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2006년부터는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중고 섬유설비 교체자금의 대출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재정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2007년 하반기에만 약 3억달러의 섬유/봉제 설비투자가 이루어졌고 2007년에는 약 5억달러 규모의 설비교체 시장이 형성되었다.

중국에 진출하였던 봉재/섬유업계가 서서히 동남아지역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데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섬유산업 중장기발전전략까지 구축하면서 적극적으로 섬유/봉재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봉재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의 수출 봉재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봉재산업을 뒷받침해 줄 고급 원사 및 원단 등 섬유산업이 따라준다면 한국 섬유/봉재산업의 제2전성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전지 및 전자산업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산업은 연평균 25%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 발전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이 전자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생산품목이 크게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전제품 이외에 컴퓨터 관련제품과 산업용 전자제품 등 보다 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생산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은 주로 일본기업들의 진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현지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3) 자동차 산업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속히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도에 시행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은 현재 완성차용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후 조건 및 도로사정, 정부의 조세제도에 의해서 승용차보다는 승합차 부문이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한국, 유럽,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동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자동차 부품업계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부품용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시켜주는 한편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인도네시아 제조법인 설립을 적극 장려해 가고 있는 중이다.

(4) 항공 산업

항공 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의 항공 산업발전은 하비비 주도하에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IPTN은 스페인의 CASA, 독일의 Messersch mitt, 네널란드의 Fokker 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와 기술협력 기술이전의 형태로 공동제작을 하면서 항공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에 CASA와 공동개발한 35인승 프로 펠러기(CN 235)를 시발로, 1990년 50인승 중형 수송기, 최근에는 64인승 터보프롭제트기(N235)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N235기의 성공에 고무된 IPTN은 현재 130인승 초음속 제트여객기인 N2130을 개발하고 있다.

(5)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이후 석유화학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료, 비누, 고무제품, 농약, 합성세제 등 농업용 및 소비자용 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단계였으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전자산업 및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있다. 또한 원유 천연가스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드라마유 지역에 지난 2007년부터 한국 SK와 합작으로 '윤활기유'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유 정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6) 철강 산업

인도네시아의 철강 산업은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 중점육성 전략산업의 하나로 지정되어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 제철공장건설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국영기업 PT. Kratatau Steel사가 인도네시아 전체 철강생

산량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소규모 민간업체가 주로 하청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 건설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철강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자국생산량은 수요의 30%에 불과,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등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Kratatau Steel사의 시설확장을 통한 제강능력을 추가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내 철강석 산지인 칼리만탄 지역에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는 등 철강산업 육성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7) 목재 가공 및 제지산업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2위의 임산자원의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목재가공 및 펄프 제지업은 경제수준의 낙후, 수요의 부족, 관련 산업의 미발달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국제 석유파동이 발생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원목의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제한과 목재 가공의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목재, 합판, 제지 등의 목재 가공 산업이 활기를 띠어 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벌목을 대대적으로 통제하면서 최근에는 목재 가공 분야에서 원목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벌목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못지않게 보호림 조성을 통한 삼림보호 및 육성으로 '기후협약' 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적극 유도해 보려는 정책을 전개 중이므로 목재가공 및 제지산업의 활성화와 배치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3) 말레이시아

가) 전체 산업구조 개관[25)]

(1) GDP

2007년은 6.3% GDP 성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관광, 도소매, 금융, 부동산관련 서비스부문 등 서비스업 GDP 성장률이 9.7%로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2007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2007년 관광객은 20백만 명으로 전년도 17백만 명을 크게 넘어섰으며 숙박업, 외식업, 운송업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호황을 누렸다.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대외수출은 증가세가 감소되었으나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탄탄한 국내수요 증가가 높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2008년 GDP 성장률을 6.0~6.5%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미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중국, 인도 경제의 고성장, 수출지역의 다양화, 투자유치 및 국내소비의 촉진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무역수지

2007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4.8% 증가한 6,051억 링깃, 5,046억 링깃으로 1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1,005억 링깃(약 30조)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던 전기전자 산업의 부진에 따른 것이다.

(3) 주식시장

말레이시아 주가지수인 KLCI(Kuala Lumpur Composite Index)는 최근의 말레이시아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였다. 2007년 2월 7~8일 연속 상승하던 KLCI는 1,248.83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지수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2007년 12월 17일 1,391.61을 기록하였다.

---

25)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1998년 초 주가지수인 262.7 대비 5배가 넘게 올랐으며 전체 주식 시장의 자본 가치도 3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조와 함께 한층 개선된 상장기업의 실적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말레이시아 주가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반적으로 주가수준이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되며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계속 증가된바 있다.

(4) 인플레이션

2007년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0%의 소폭 상승으로 최근 3년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중앙은행은 2008년 2.5~3.0%의 물가상승을 예상하였는데 국제 원유 가격 및 현지화(링깃) 가치 등의 변동이 수입 물가를 비롯한 올해 물가에 커다란 변수가 되었다.

나) 산업별 통계

(1) 주요 산업별 성장률

2007년 말레이사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3%를 기록하였다. 이밖에 제조업 및 건설업이 각각 전년대비 3.1%, 4.6% 성장을 기록하였다.

<표 2-23> 주요 산업별 성장률

(단위: %)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5.2	5.9	6.3
농수산업	2.5	6.4	2.2
광업	0.8	-0.2	3.2
제조업	5.1	7.0	3.1
건설업	-1.6	-0.5	4.6
서비스업	6.5	6.5	9.7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2) 주요 산업 생산지수

2007년 1~10월 전체 산업 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는

전년 동기 대비 1.9%의 소폭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로 대외수출 증가세 완화에 따라 제조업(1.4%) 부문이 낮은 생산증가를 보인데 기인한다. 제조업 관련 86개 품목 중 54개 분야에서 성장을 보였는데 이 기간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5개 세부산업은 <표 2-24>와 다음과 같다.

제조업 이외에 전기 분야는 높은 전력 생산의 증가 속에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하였고 광업 분야는 주석(-15.2%)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유(3.6%) 및 천연가스(3.2%) 부문의 성장을 바탕으로 소폭 증가세(3.2%)를 기록하였다.

<표 2-24> 제조업 지수

산업구분	제조업 지수		증가율(%)
	2006년(1～10월)	2007년(1～10월)	
동, 구리, 주석 및 알루미늄 제품생산(210)	78.6	103.1	31.2
기타 전자부품 생산(32109)	119.2	152.0	27.5
산업용 가스 생산(24111)	120.5	150.0	24.5
정제 석유제품 생산(23200)	158.2	166.5	5.2
반도체 장치 생산(32101)	184.2	190.8	3.6

자료: 통계청.

(3) 주요 제조업 매출액

<표 2-25> 주요 제조업 매출액

	2005년(10억 링깃)	2006년(10억 링깃)	증가율(%)
제조업 전체	418.5	168.4	11.9
전기전자 제품	173.4	192.2	10.8
화학 및 석유제품	115.7	131.7	13.8
나무 및 목재품	17.4	19.8	13.8
철강제품	16.9	16.8	-0.6
차량운반구	13.3	13.3	0.0
식품	11.9	13.0	9.2
고무제품	8.5	10.4	22.4
섬유 및 의류	8.1	7.6	-6.2

주 1) 2006년 평균환율은 1$=3.67링깃
2) 위의 수치는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한함.
자료: 통계청.

나) 산업현황[26)]

(1) 팜 오일 산업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 오일 생산국으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상회(1995년 51.3%)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급성장으로 인해 현재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 세계 팜 오일 생산량의 85.7%(2005년, 말레이시아는 44.9%)를 차지한다. 2007년에 들어서는 팜 오일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생산량은 1,278만 톤으로 전년(1,318만 톤)에 비해 3.1% 감소하였다. 하지만 당초 생산량 추정치였던 1,544만 톤에 비해서는 실제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MPOB는 추정하고 있다.

팜 오일 산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팜 오일 경작면적(2006년)은 447만ha로 2005년 405만ha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며, 팜 오일은 1,588만 톤을, 야자씨는 413만 톤을, 야자 씨 오일은 196만 톤을, 야자씨 가루는 220만 톤을, 그리고 기타 화합물은 210만 톤을 생산하였다.

<표 2-26> 세계 주요국의 팜 오일 생산 추이(2000～05)

(단위: 천 톤)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말레이시아	10,842	11,804	11,909	13,355	13,976	14,962
인도네시아	7,050	8,080	9,370	10,530	12,350	13,600
나이지리아	740	770	775	785	790	800
콜롬비아	524	548	528	527	632	662
코트디부아르	278	205	240	220	270	260
태국	525	625	600	640	668	685
파푸아뉴기니	336	329	316	326	345	350
에콰도르	218	228	241	247	263	298
코스다리카	137	150	128	155	195	195
온두라스	101	130	126	158	170	178
브라질	108	110	118	129	142	160
베네수엘라	70	52	55	41	63	66
과테말라	65	70	86	85	87	90
기타	873	883	900	913	958	1,020
합계	21,867	23,984	25,392	28,111	30,909	33,326

자료: MPOB(Malaysian Palm Oil Board).

26)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표 2-27> 말레이시아의 팜 제품 생산량

구분	단위	Crude Palm Oil	Palm Kernel	Crude Palm Kernel Oil	Palm Kernel Cake	Oleochemical Products
2006년	만 톤	1588	413	196	220	210
2005년	만 톤	1496	396	184	210	202
증가율	%	6.1	4.1	6.1	5.0	4.0

자료: MPOB(2007).

팜 오일은 1,440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야자 씨 오일은 93.3만 톤, 야자 씨 가루는 212만 톤, 기타 화합물은 216만 톤을 수출하였다. 팜 오일의 평균수출 가격은 2005년 톤당 20,033.7RM에서 2006년 22,653.4 RM으로 13.1% 상승하였다. 팜 오일 산업의 라이센스 발급상태를 보면, 총 13만 8,242개(2007년 10월말 기준)가 발급되었다. 팜 오일의 경작에 대해서는 13만 4,181개가 발급되었으며, 팜 오일 가공은 584개, 관련 비즈니스서비스는 3,355개, 서비스는 122개가 발급되었다.

<표 2-28> 말레이시아의 팜 제품 수출량

구분	단위	Crude Palm Oil	Palm Kernel	Crude Palm Kernel Oil	Palm Kernel Cake	Oleochemical Products
2006년	만 톤	1,440	93.3	212	216	420
2005년	만 톤	1,345	85.1	203	183	391
증가율	%	7.1	9.7	4.5	17.7	7.4

자료: MPOB(2007).

(2) 바이오디젤 산업동향

바이오디젤에 대한 R&D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었지만, 바이오디젤의 상용화는 2005년 NBP가 마련되면서 처음으로 바이오디젤 공장이 건설되었다. 2005년 초 9개의 회사가 라이센스를 발급 받으면서 바이오디젤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는 바이오디젤이 에스테르화 공정의 부산물로서 생산되

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고, 소비량이나 수출량 또한 많지 않다.

2005년 NBP가 마련되기 전에는 생산된 메틸에스테르의 전량을 수출하였으나, BD5의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되면 메틸에스테르의 상당량이 내수로 전환될 전망이다. MPOB의 전망에 따르면, 2006년에는 14만 톤의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2007년에는 30만 톤의 설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당국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여 내수용으로는 RBD Palm Olein 5%와 일반디젤 95%를 혼합한 BD5(말레이시아 내 일명 Envo-diesel)를, 수출용으로는 메틸에스테르인 B100의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는 신규 바이오디젤 공장들이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6년 3월과 8월에 각각 MPOB의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공장이 처음 준공되었다. MPOB는 Envo-diesel의 내수시장 유도를 위해 그동안 공공기관의 차량 및 산간지방 버스 등에 시범 사용하며 문제점 파악에 주력하여 2007년 초부터 도입코자 하였으나, 바이오디젤 법안의 상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수시장에의 도입 또한 늦어지고 있다.

(3) 셀랑고르 정수처리 시설사업

야당이 집권한 Selangor 주 정부는 전 정부가 Puncak Niaga사와 체결한 Sungai Sireh 정수처리시설 운영 계약이 총선을 위하여 주 의회가 해산된 이후에 체결된 점을 들어 동 계약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Khalid 주지시가 밝혔다. 그러나 동 정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1년 전에 양자 간 합의가 있었고 이미 2007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단지 공식적인 서명만이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주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어서, 이번 사례가 총선 이후 기존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수도사업 부문을 주 정부로부터 연방정부로 이관하려는 수자원부의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예산의 경우 연방정부 수입

이 연간 1688억 링깃에 이르는 데 반하여 가장 경제력이 크다는 Selangor주의 연 수입이 13억 링깃에 불과할 정도라서 주 정부의 주요 사업도 연방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주 정부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4) 말레이시아 은행산업 현황

말레이시아의 은행은 총 42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상업은행은 22개, 투자은행은 10개, 이슬람은행은 10개가 있다. 금융서비스산업이 GDP의 10~12% 구성하고 있다.

22개 상업은행 중에서 13개 외국계 은행이 법인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 중이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이 말레이시아 총 은행 자산(RM 1,525bn, GDP의 350%, 2006년 기준)의 약 30%를 통제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에 대하여는 국내 지점 수의 제한, 지점 설치 지역의 제한, ATMs 설치 지역의 규제,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의 규제가 다수 있다. 그러나 2001년 금융부문 종합계획(Financial Sector Master Plan)에 따라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은 은행진입, 영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대출한도 규제 폐지, 2007년 4개 지점 추가 신설 허용 등) 외국계 은행은 주로 영미계 은행이 진출해 있으나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계 은행도 다수 진출하고 있다.[27]

로컬 은행의 대형화, 국제화가 추진 중이다. IMF 이전에는 71개의 로컬 은행 그룹이 있었으나 현재는 9개의 로컬은행으로 축소되었다.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은 은행의 인수, 합병을 통해 로컬 은행의 대형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06년 Bumiputra Commerce Holdings(GLC인 CIMB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Sourthern Bank 인수하였다. CIMB Group의 Nazir

27) 외국계 은행: ABN AMRO Bank Berhad, Bangkok Bank Berhad, Bank of America Malaysia Berhad, Bank of China (Malaysia) Berhad, Bank of Tokyo-Mitsubishi UFJ (Malaysia) Berhad, Citibank Berhad, Deutsche Bank (Malaysia) Berhad, HSBC Bank Malaysia Berhad, OCBC Bank (Malaysia) Berhad, Standard Chartered Bank Malaysia Berhad, The Bank of Nova Scotia Berhad, J.P. Morgan Chase Bank Berhad, United Overseas Bank (Malaysia) Berhad

Razak 회장은 장기적으로 로컬은행이 6개로 줄어들어 더욱 대형화가 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5)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산업 현황

이슬람 금융은 1985년에는 시장규모가 5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니치마켓 금융상품이었다. 중동자본의 축적과 성장에 힘입어 이슬람 금융은 연평균 15~20% 성장하는 국제금융의 한 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 World Bank는 이슬람금융의 시장 규모를 3~4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80년 말 소규모의 이슬람 금융을 담당해 왔으나 2001년에 국제시장의 틈새를 파고들기로 결정하면서 이슬람 법체계(샤리아)에 맞는 규정 제정, 추진기관 설립,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베트남

가) 산업별 통계[28)]

(1) 산업 부문별 생산액 및 증가율

<표 2-29> 산업 부문별 생산액 및 증가율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총계	16.8	193.7	16	224.9	17.2	263.0	17.0	306.8	17.1	359
국영부문	11.9	74.7	11.8	83.6	8.7	90	9.1	97.6	10.3	107.6
민간부문	23.3	49.7	22.8	61.1	24.1	75	23.9	92	20.9	111.2
FDI 부문	18	69.3	15.7	80..2	20.9	97.7	18.8	117.2	18.2	138.3

주: 증가율은 당해 연도 환율기준(기준환율: '03년 15,750, '04년 15,740, '05년 15,850, '06년 16,000, '07년 16,050VND).

자료: 베트남 통계청.

28) 코트라 국가정보·상품산업.

(2) 섬유산업

베트남 최대 제조업, 제2의 수출 품목으로 베트남 전체 GDP의 38%, 고용의 24%,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제품 총 생산량 비중은 베트남기업이 45%, 외국인투자기업이 55%이다. 주요 외국투자국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

원자재의 5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직물 및 원단 등은 80% 이상, 염료는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도 베트남 섬유의류 원부자재 전체 수입액은 22억 달러에 이른다.

<표 2-30> 베트남 섬유직물 산업 생산현황

제품	단위	2006	2007
Textiles	Million ㎡	559.62	630
Garments	Million unit	1270.62	1491.5

자료: 베트남 통계청.

(3) 신발산업

베트남 제2의 수출 제조업으로, 연간 39.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다. 최대 수출 시장은 유럽으로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1> 주요국별 신발수출 현황

주요 수출국	2003		2005		2007	
	금액(천달러)	%	금액(천달러)	%	금액(천달러)	%
EU	1,600,738	70.6	1,975,729	65	2,100,000	50
미국	282,452	12.5	611.050	20.1	659,000	20.1
일본	61,593	2.7	93,721	3.1	112,000	2.8
기타	322,599	14.2	359,083	11.8	887,000	27.1
총계	2,267,382	100	3,039,583	100	3,999,000	100

자료: 베트남 신발협회

(4) 석유화학산업

산유국이지만 정유공장이 없어 생산된 원유를 전량 수출하고 정유된 연료 및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연료 및 석유화학제품 50.2억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향후 3년간 수입 수요는 지속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4.4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여 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중부 쭝꾸엇 지역에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정유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2008년 완공되면 연간 650만 톤 정유능력, 베트남 총수요의 40%를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2> 베트남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현황

연도	원유(백만 톤)	천연가스(10억 m^3)
2004년	20	6.27
2005년	18.5	6.3
2006년	16.8	6.8
2007년	15.5	7.1

자료: 베트남 통계청.

(5) 철강산업

연간 약 425만 톤을 생산하나 일관 제철소 부재로 연간 29억 달러 수입 수요가 존재한다. 한국은 연간 2.3억 달러 수출하여 8%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2-33> 베트남 철강생산 현황(2007년 기준)

제품	연 생산량(천 톤)	비중
전체	4250.3	100 %
Vietnam Steel Association(VSA)	3228.1	80 %
Other companies	1022.2	20 %

자료: 베트남 철강협회.

베트남에는 총 40개의 철강 공장이 있으며 베트남 철강공사(VSC) 산하에 14개 자회사 및 14개 합작 회사(7개는 외국기업과 합작사)가 운영되고 있다. 광산 철광석과의 사업 연계 등에 기인하여(철광석, 아연성분 높아 고로 사용 불가) 2007년 F/S 완료되었다.

(6) 이동통신산업

최근 베트남은 통신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50~80%의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 성장률 39%, 아시아지역의 35%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시장으로 보인다. 베트남 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에 따르면 2007년 10월말 기준 베트남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2,4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에는 3,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나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시장을 개방하며 외국투자자 지분도 49%로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의 개방만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7) 건설산업

건설 및 관련업종의 GDP 기여율은 약 18~19%(110억달러)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고 석유자원 개발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업체의 진출 증가 및 산업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건설시장 규모는 1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대형 원조사업과 일본 진출이 활발한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발주 대비 민간발주 비율은 50:50이다.

<표 2-34> 베트남 건설 시장규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7.3	7.7	8.4	8.2	8.5
GDP(백만달러)	39,641	45,552	52,965	60,999	71,500
건설업종 GDP 비중(%)	18.0	18.0	18.2	18.6	19
건설시장 규모(백만달러)	7,135	8,193	9,663	11,337	11,648

자료: 베트남 통계청 및 무역관종합.

(8) 전력산업

2007년 8월까지 베트남 전력생산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80억 kWh를 생산하였으며 전체 10,044,849가구에 공급하였다. 전체 생산전력의 49%는 산업 및 건설용 수요로 41.5%는 일반소비 용도로 공급되고 있다. 전력공급망을 살펴보면 도심 인근지역 98%, 외곽 농촌지역이 97.8%의 전력공급 혜택을 보고 있다. 28개 주요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1,540M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2006년 현재 전력생산 비율은 수력 40%, 석탄 13%, 천연가스 38%, 중유 9%이며, 2010년까지 수력 41%, 석탄 24%, 천연가스 29%, 중유 6%로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발전소는 석탄(8개), 중유(4개), 천연가스(8개), 수력(8개)발전소가 있으며, 매년 15%씩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2010년 25,000MW, 2020년 44,000MW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5) 태국

가) 주요 산업 동향[29)]

(1) 농업

태국 농업 인구는 1,3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37%(2006년 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농업 생산은 GDP 구성 비율로 볼 때 전체 GDP의 10% 수준에

29)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불과하다. 태국의 주요 농업 생산물은 쌀, 고무,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코코넛, 담배 등이다. 태국은 세계 14번째 쌀 생산국이자 1위 수출국으로서 주로 중부 평원에서 생산하고 있다. 연평균 2,2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750만 톤 가량 수출되고 있다.

(2) 수산업

태국의 수산업은 전체 GDP의 약 1 %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 인구는 약 45만 명이고, 2005년 전체 생산량은 88만 톤이다. 주요 수출 수산물은 새우, 바닷가재, 오징어, 참치 등이며 특히 냉동새우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다.

(3) 광업

광업 생산은 전체 GDP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중요 광물은 갈탄, 주석, 아연, 석고 등이며, 최근 들어 태국만의 원유와 천연 가스 채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광 및 구리광도 발견된 바 있다. 주요 보석은 사파이어, 루비, 가넷, 제다이트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등이다.

(4) 제조업

태국의 제조업 종사자는 5,587만 명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15.47%에 해당하는 인구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은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 분야는 전자, 자동차, 섬유, 식품, 철강, 화학 등이다.

(5) 자동차 산업

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략육성 산업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5개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조립생산을 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비 4.58%증가한 117만 6000대를 생산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전자부품 다음의 수출품목으로 전체 생산량의 2/3 가량이 수출되고 있다. 한편 태국 자동차 시장의 95% 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6) 식품 산업

식품 산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태국 최대의 제조업이었다. 공업화의 진전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늦어 1970년대 제조업 중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20%에서 1990년대 9%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식품산업은 태국의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 가공 기술도 발달해 냉동, 통조림, 건조식품 등은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냉동 새우, 가공 닭고기, 과일 통조림 등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품목이다. 섬유 및 의류 산업 역시 태국의 중추 제조업이다. 태국에는 4,500여 개의 섬유 및 의류 공장이 있으며, 제조업 고용 인구(560만 명) 중 100만 이상의 인력을 섬유산업에서 흡수하고 있다. 태국의 섬유산업은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발전해 왔으나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등의 부상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태국의 섬유 및 의류 제조업자들은 이제 새로운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태국의 철강 산업은 97년 경제 위기 전인 90~96년 사이 호황기를 누렸으며 97년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2005년 철강 생산량은 전년대비 0.63%증가한 962만 톤을 기록하였다. 생산 제품은 steel sheet이 57%, steel bar, wire rod, structural steel 등이 32%, 기타 제품이 11%를 차지한다. 국내 수요는 부족분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high carbon wire rod, silicon steel sheet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도소매업은 전체 GDP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의 유통망은 현대적인 유통망과 재래식 유통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식 유통망은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 현대적인 시설과 체인망을 갖춘 유통망이고, 구식 소매망으로 재래시장을 들 수 있다. 교통 통신 분야는 전체 GDP의 7% 정도를 차지한

다. 특히 통신 분야는 최근 무선 통신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2006년 기준 무선전화 가입자는 3200만 명이 넘는다.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집계한 통계는 없지만 숙박요식업의 경우는 GDP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업은 태국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성장 중인 산업이다. 2006년 중 태국 방문 관광객 수는 1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 관광객 수는 1,42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6년 중 태국을 방문한 주요 국가는 말레이시아(11.8%), 일본(9.7%), 우리나라(9.4%) 순이었다.

<표 2-35> 전체 산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P
Agriculture	16.61	18.21	22.18
Agriculture, Hunting and Forestry	13.95	15.49	19.18
Fishing	2.66	2.72	3.00
Non-Agriculture	144.54	157.99	184.27
Mining and Quarrying	4.35	5.53	6.77
Manufacturing	55.51	61.14	72.46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5.24	5.47	6.30
Construction	4.83	5.37	6.19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24.11	25.81	29.27
Motor Vehicles, Motorcycles and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	-	-
Hotels and Restaurants	8.30	8.61	10.19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12.23	12.90	14.95
Financial Intermediation	5.80	6.51	7.47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4.67	4.93	5.51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7.35	8.09	9.23
Compulsory Social Security	-	-	-
Education	6.18	6.98	8.34
Health and Social Work	2.90	3.36	3.96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	2.86	3.07	3.40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0.20	0.21	0.23

주 1) 2008.3.14일 현재 획득 가능한 최신 정보.
2) 연도별 평균 환율: 2003년 US$1=THB41.53/2004년 US$1=THB40.27/2005년 US$1=THB 40.27/2006년 US$1=THB37.93.
3) p=preliminary based on annual figure.
자료: 태국경제개발국(www.nesdb.go.th).

6) 캄보디아

가) 주요 산업 개요[30]

캄보디아의 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국한되어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GSP 혜택을 겨냥한 의류 봉제업을 제외하면 아직도 이렇다 할 산업이 거의 전무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2차 산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 정도로 그 중 65% 정도가 실제 제조업이며 나머지는 건설업 등이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 12월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을 설립하였다. SEZ에는 수출 처리구역과 자유무역 구역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SEZ 설립의 주된 근거는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인프라와 보조적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캄보디아 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기회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촉진 및 증진을 위한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가 촉진시키고자 하는 산업 영역은 의류 산업, 다른 노동집약적 활동력 강화, 농기계 산업, 식량처리기술, 제조 산업, 전기 및 전자기계 산업이다.

SEZ의 주요 지역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역인 Poipet과 Koh Kong,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경지역인 Bavet과 Phnom Den, 그리고 Phnom Penh, Sihanoukville 지역이다. 특히 Sihanoukville는 항만설비와 국제 경제 통로로서의 경쟁력 있는 발전된 건항(干港)이 있는 곳이다.

나) 주요 산업 동향[31]

(1) 봉제 산업

봉제분야는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섬유쿼터제 철폐 이후 세계 섬유시장이 무한경쟁체제로 접어들면서 캄보디아의 봉제산

30)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 대한상공회의소.

31) 코트라 상품산업.

업도 다소 고전이 예상되었으나, 쿼터제 폐지 이후 미국 및 EU의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 확대 조치로 오히려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말로 예정된 중국산 섬유류 규제 해제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캄보디아 봉제 산업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봉제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거의 유일한 2차 산업으로서 2007년 2월 현재 약 300개 공장이 수출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중국계 공장이며 한국 봉제공장도 31개사 정도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진출 봉제공장들은 캄보디아 섬유 제조업체 협회(GMAC: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 이라는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광 산업

관광분야는 2004년 처음으로 방문 관광객 수가 1백만 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도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3) 농림 수산업

농림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이며 전체 노동인구의 80%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관개시설 확충과 영농방법의 개선, 유기농의 확대 등으로 2005년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수산물 어획량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경제성장에 일조를 하였다.

캄보디아는 비교적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메콩강과 그 지류들, Tonle Sap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 주변의 퇴적 지대에 양호한 농지들이 분포해 있다. 농업의 중심 작물은 쌀인데 전체 경작지의 90%를 사용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국민 칼로리 섭취량의 75%가 쌀로 충당되고 있다. 쌀 이외의 작물로는 슈가팜, 캐슈넛, 등나무, 옥수수, 타피오카, 콩, 사탕수수, 고무, 후추 등

이 재배되고 있다. 2005년도 제1차 산업 생산총액은 GDP의 32.4%, 전체 노동 인력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랜 내전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낙후,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근대화, 농업기반시설 및 품종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양호한 기후조건, 정부 주도의 관개시설 정비에 힘입어 16.6%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농산품인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20% 증가, 일부 수출하게 되었다.

<표 2-36> 산업별 경제동향

(단위: 10억 리엘, %)

	2004년			2005년		
	생산량	비중	성장률	생산량	비중	성장률
Agricultiure, Fishery & Forestry	6,538	30.9	1.2	8,208	32.4	16.6
Crops	3,356	15.9	1.7	4,537	13.9	28.0
Livestock &Poultry	940	4.4	4.5	1,192	4.7	5.8
Fisheries	1,754	8.3	-1.7	1,892	7.5	5.6
Forestry &Logging	488	2.3	2.2	586	2.3	3.4
Industry	5,536	26.2	16.4	6,412	25.3	12.1
Mining	74	0.3	24.2	95	0.4	24.5
Manufacturing	4,054	19.2	17.6	4,583	18.1	9.7
Electrucity, Gas & Water	120	0.6	4.6	129	0.5	4.4
Construction	1,288	6.1	13.2	1,605	6.3	20.1
Services	7,920	37.5	11.7	9,385	37.0	12.1
Trade	1,920	9.1	5.5	2,259	8.9	8.4
Hotel &Restaurants	893	4.2	23.4	1,072	4.2	17.3
Transport & Communications	1,364	6.5	7.5	1,690	6.7	13.1
Finance	232	1.1	20.7	294	1.2	19.3
Public Administration	419	2.0	-6.4	464	1.8	5.9
Real Estate & Business	1,327	6.3	12.6	1,459	5.8	6.9
Other Services	1,765	8.3	20.1	2,147	8.5	17.7
Total GDP	21,141	100	7.7	25,350	100	8.4

자료: 캄보디아 재경부 자료, 비중은 생산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장률은 실질성장률(%)

(4) 제조업 산업

제조업 분야는 최대 수출산업인 섬유의 경우 미국 및 유럽의 중국산 섬유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영향으로 당초 기대하였던 것 보다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강화해가고 있다.

(5) 건설 산업

건설분야는 주택 및 호텔 신축 붐으로 급성장 추세를 유지하면서 봉제산업에 이어 또 하나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남부해안에 인접한 깜뽓주에 15번째 경제특구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신항구 건설(건설비 총 3,500만 달러 규모, 2009년 완공목표, 말레이시아 자본 참여)이 추진되고 있다. 상기 깜뽓 신항구는 현재 캄보디아 유일의 시하누크빌 항구에 이어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2개 항구(깜뽓, 코콩) 중의 하나로, 향후 캄보디아 물류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근지역에는 보꼬 국립공원(Borkor National Park) 등 관광자원 및 역사유적지가 많다. 캄차이 수력발전소 건립 및 편리한 교통, 양호한 농가공 입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내 및 국도 인접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토지 등기 미비 및 지방도로 등 기본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투자 진출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6) 서비스 산업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 수준이며 전체 노동인력의 약 1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도 폭증하는 관광객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9~2005년간 서비스산업은 6.2%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주요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성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단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 제약 의료 산업

일부 원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약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호주 등이다. 연간 4천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수입 및 밀수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부입찰은 연간 6백만 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일부 의약품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역수출(밀수)되기도 한다. 캄보디아는 반제품 수입 후 포장만 하는 1개 제약사와 단순히 원재료를 수입하여 항생제 정도를 제조하는 4개의 현지 제약회사가 있는 것이 고작이다.

종합병원은 정부 운영 위주이며 일부 외국 병원(프랑스, 싱가포르) 프놈펜을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고, 정부가 관장하는 종합병원은 21개 주에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 전문의는 프놈펜 의과대학교 및 극소수 프랑스에서 유학한 의사들이며 장비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가 낙후되어 있다. 프놈펜대학교 약학과 출신의 약사는 극소수이나 대부분 종합병원의 검사실, 약제실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약국을 개업한 약사는 거의 없다. 대부분 약국은 정부에서 주는 허가증(100~200달러 수준)을 받고 개업하거나 무면허 약국이 60~70%가 넘는다. 현재 약사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약국 숫자의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나 대략적으로 프놈펜 시내 약국이 약 200~400개, 지방까지 합쳐 약 3,000~4,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 산업 전반적 평가[32)]

캄보디아의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절대

32) 주 캄보디아 대사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 분야의 경우 섬유쿼터제 철폐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신규진출 둔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산 섬유류 규제 움직임으로 오히려 진출이 증가하고, 여타 분야도 정정불안 해소 및 WTO 가입 등의 영향으로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생산성이나 경쟁력은 베트남, 중국 등의 봉제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원조국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개혁은 여전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시기를 놓쳐 원조국 및 외국인기업이 등을 돌리게 되면 캄보디아의 세계 최빈국 탈출은 그 만큼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원유가 인상, 베트남의 WTO 가입 등 대외요인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있다. 국제 원유가의 상승으로 경제성이 낮은 태국만의 유전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10년대 초반부터 산유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2006년 WTO 가입으로 캄보디아의 경쟁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경우 이와 경쟁해야 하는 캄보디아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7) 미얀마

가) 전체 산업구조 개관[33]

미얀마는 지난 26년간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민간의 대외무역을 금지해 왔다. 1988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으나 현재까지 규모가 큰 공장과 주요산업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국영기업 거의 대부분이 외화 부족에 따른 원료수입 곤란, 노후기계 교체 지연 및 수리불량 등으로 가동률이 현격히 낮은 상태이다.

현재 미얀마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력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33) 코트라 국가정보 · 상품산업.

산업이며, 특히 해상천연가스전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원 개발 분야가 전통적인 농수산업, 임업 등과 함께 미얀마 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산업별 GDP 비중은 농업이 54.6%, 제조업·광업이 13%, 서비스업이 32.4%를 차지하여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1) 광업 및 에너지 개발업

미얀마는 동,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철, 석탄, 석유, 보석류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갖고 있으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1994년 새로운 광산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업체의 광물자원 개발 사업이 허용되었으나 아직도 생산과 수출은 미얀마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Monywa 구리광산은 미얀마 광업 1부와 캐나다 광물개발업체 Ivanhoe Mines가 50:50으로 합작하여 개발 생산하고 있다. 루비, 제이드와 같은 보석류 역시 미얀마의 주요 외화 소득원이다. 천연가스는 Yadana 천연가스전, Yetagon 천연가스전 개발로 2001년부터 미얀마 최대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외화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농림수산업

농업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GDP 비중 면에서, 외화 소득원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쌀은 미얀마의 주식량으로서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미얀마 쌀 생산량은 생산농지와 산출량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6월경부터 미얀마 정부는 쌀 수출을 금지하고, 특정 지역(Deep water)에서 생산할 쌀만 수출을 허용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농지에서 생산된 쌀도 수출이 허용되어오다가 2006년부터 실질 규제가 강화되면서 쌀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다. 미얀마 쌀 생산은 비료 및 우수종자, 토지의 개간이 부족하며 열악한 저장시설 및 운송수단으로 인해 쌀 생산량은 생산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또한

쌀 품질이 낮아 미얀마 쌀 수출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고, 가격 또한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표 2-37> 미얀마 쌀 수출

회계연도	수출량(천톤)	수출액(백만 짜트)
2002～03	793.5	632.6
2003～04	168.5	130.4
2004～05	182.0	180.2
2005～06	180.0	214.0
2006～07	14.5	18.0

주 1)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임.
2) 짜트는 미얀마 현지화이며, US$1 = 1,280 짜트(2007년 12월)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국(CSO).

미얀마는 전 국토의 약 80%가 산림(전체 산림면적 40,161 평방마일)으로 덮여 있어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 제3위의 산림자원 보유국이다. 주요 임산자원인 티크(Teak) 원목의 경우, 보유면적이 647,992 에이커에 달한다. 티크 원목은 관리 산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목 자체로는 수출을 거의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나 가공 목제품의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표 2-38> 티크와 경목의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Cubic ton)

Year	Teak Extraction	Teak Export	Hardwood Extraction	Hardwood Export
1999～00	260,966	234,000	850,639	335,300
2000～01	250,500	218,200	950,600	329,400
2001～02	276,067	200,500	1,135,821	285,600
2002～03	297,979	205,600	1,072,734	308,000
2003～04	-	281,100	-	390,800
2004～05	-	319,200	-	496,800
2005～06	-	333,100	-	636,700
2006～07	-	347,400	-	637,400

주: 회계연도는 4.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임.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국(CSO).

2005년 기준, 양곤 시와 해안 지역에서 수산물을 냉동·냉장 형태로 생산하는 업체는 13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얀마의 수산물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호주, UAE 등 약 40여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업체는 약 150개 정도가 있다.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10% 정도이며, 지난 10년 동안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새우 등 갑각류와 다양한 종류의 생선이다. 특히 새우의 품질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39>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2004~05)

순번	품목명	수출량(Ton)	수출액(US$ Million)
1	Sea Water Shrimp	21,798.7	100.8
2	White Pomfret	6,727.8	19.6
3	Hilsa	13,016.5	19.1
4	Rosy Jew Fish	9,393.2	13.1
5	Ribbon Fish	15,618.6	12.6
6	Yellow Croaker	5,613.9	7.8
7	Long Tongue Sole	4,414.5	4.4
8	Sea Water Fish	5,571.4	4.2
9	Cuttle Fish	2,247.8	3.4
10	Sea Eel	3,540.3	3.3

자료: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Department of Fisheries.

미얀마 정부는 수산물을 크게 민물어류, 바다어류로 분류한다. 민물어류는 Culture Fishery(양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 Leasable Fishery(양식 이외의 허가된 조업), Open Fishery(양식 이외의 무허가 조업) 3가지로 나뉜다.

<표 2-40> 연도별 수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회계연도	총계	Culture Fishery	Leasable Fishery	Open Fishery	Marine Fishery
2001～02	1474.46	190.12	95.95	158.93	1029.46
2002～03	1595.87	252.01	109.53	180.61	1053.72
2003～04	1986.96	400.36	122.28	331.98	1132.34
2004～05	2217.47	485.22	136.79	366.75	1228.71
2005～06	2562.36	563.14	151.85	478.43	1368.94

자료: Department of Fisheries,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3) 전력산업

미얀마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해서 수도 양곤조차도 단전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송배전 설비가 낡아 전압이 일정치 않고 전력 손실률은 35%에 이른다. 미얀마 정부는 이를 15%대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전력산업발전을 위한 3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은 6차례의 5개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5개년 계획이 2000～01년부터 2005～06년까지, 6차 5개년 계획은 2030～31년에 완료된다.

미얀마의 2006～07년도 발전용량은 6,154백만KWH 이며 발전설비별 생산량은 수력발전이 3,319백만KWH로 가장 크다. 디젤과 증기발전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연료(석유)부족 때문이며 외환사정 악화로 연료수입이 어려워 향후 상당기간은 수력 또는 가스발전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에서는 고온 건기인 여름철에 수량이 바닥상태에 이르러 수력발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전력난, 특히 여름철의 전력난을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41> 미얀마 설비별 발전용량

(단위: kwh)

Fiscal Year	Thermal	Diesel	Hydel	Gas	Total
2002/03	641.48	28.50	2,111.02	2,286.95	5067.96
2003/04	634.31	31.45	2,407.81	2,685.31	5425.88
2004/05	404.72	33.23	2,407.75	2,762.54	5608.24
2005/06	588.54	33.73	2,996.79	2,395.89	6014.5
2006/07	787.65	32.16	3,319.84	2,014.54	6,154.19

주: 회계연도는 4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임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국(CSO).

(4) 제조업

미얀마 제조업은 농림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대부분이며, 식음료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냉장설비투자 증가는 수산물을 주요한 외화 소득원으로 만들었고, 정제공장 투자증가는 정제설탕생산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아울러 미얀마는 합판, 베니어, 가구 등 임업관련 제조업 또한 내수용 및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하였다.

농림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 이외에 최대 제조업 분야는 수출을 전제로 한 봉제분야이다. 봉제분야는 제조업 중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로 2003년 7월 미국의 미얀마제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약 300개 봉제공장에서 35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봉제 산업 분야는 극한 침체상태를 맞은바 있다. 다만 미국대신 유럽, 일본 등을 대체 시장으로 발굴하면서 2003~04년 극도의 침체기를 거친 미얀마 봉제 산업은 2005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주문량 기준으로 미국 경제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봉제 산업의 호조로 원부자재인 면사, 직물의 제조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봉제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여전히 가족중심의 소규모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분야는 원가부담 증가와 자금조달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얀마 제조업은 열악한 인프라, 인

권문제를 이유로 일반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중국, 태국, 인도 등 인접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한 저가 제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국내제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

8) 라오스

가) 전체 산업구조 개관[34)]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해서 경제 개방 및 시장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세계 경제 편입에 도약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산업구조는 농업이 국내 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취업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 경제는 기후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라오스는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규모가 큰데, 세계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유·무상 원조가 라오스 GDP의 20%정도가 되는 실정이다.

(1) 농업

1차 산업인 농업은 라오스 경제의 근간이다. GDP의 약 50%를 차지하며, 쌀농사가 농업의 80%를 차지한다. 총 재배면적은 717.577헥타르 정도이다. 200년에는 총 215만 톤의 쌀을 생산해서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연초, 사탕수수, 커피 등 상업 작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2) 서비스

서비스분야는 2000년 라오스 GDP의 총 26%를 기여하였다. 증가하는 관광수입과 휴대전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투자 집중화와 항공, 우편 분야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

34) 코트라 국가정보·상품산업.

(3) 천연자원

라오스는 칼륨, 철, 금, 귀금속, 주석,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자원을 개발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이 분야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9) 소결

대상 국가의 주요 산업 현황은 각 국가가 가진 자원의 종류 및 노동인구 분포, 인프라구조 등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필리핀은 GDP의 1/2이상이 서비스산업이며 중요한 광물매장국가로서 광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외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과 에너지, 통신, 자동차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농업,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 철강, 목재산업 등이 있다. 또한 1970년 이후로 시작한 항공산업은 인도네시아의 산업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꼽힌다. 2007년 9.7%의 GDP성장률을 보인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팜 오일 생산국이다. 또한 바이오디젤 관련 산업에 10년 이상 투자해 오고 있으며, 정수처리 시설 산업과 금융 및 은행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베트남은 섬유와 신발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전력산업을 꼽을 수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식품산업, 자동차산업이 주요 산업이다. 캄보디아는 봉제업, 농림수산업, 제약 의료 산업과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관광산업 및 호텔 신축과 관련 해 건설업도 핵심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6년간 미얀마식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모든 산업을 국유화 해온 미얀마는 다종의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광업 및 에너지 개발업, 농림수산업이 주요 산업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라오스는 1986년부터 신경제제도를 도입해 개방 시장의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1차 산업인 농업이 라오스 산업의 근간이다.

나. 기타 관련 정책

1) 필리핀

가) 에너지 정책[35)]

(1) 개요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혁 및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석유 및 가스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부채 상환 및 자원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영석유회사(Philippine National Oil Company: PNOC)의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전기료를 낮추고 전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영전력회사(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 보유 발전소를 민영화하고 전력판매에 대한 경쟁 도입을 추진 중이다.[36)]

급등하는 유류가격을 감안하여 수입에 60%를 의존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리핀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의 경제성을 타진하는 한편, 지구 온난화 등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료 의존율을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바이오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여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개발 촉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의 동향으로는 2008년 1월말 대통령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범국가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Energy Summit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고유가 위기에 대응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한 바 있다.

---

35) 코트라 국가정보.

36) 2008년 2월 26일 13개의 발전소 추가 매각 일정을 발표.

(2) 에너지 산업구조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에너지 분야 정책을 총괄하며 그 산하에 에너지 생산, 송전 및 규제와 관련된 각종기관이 있다. DOE의 가장 대표적인 산하기관은 많은 자회사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국영석유회사(PVOC)로서 1998년 이후 필리핀 에너지 분야 민영화의 일환으로 PNOC 자산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 중에 있다. PNOC의 대표적인 자회사는 PNOC_EC(Exploration Company)로서 99%의 지분을 PNOC가 소유하고 있으며 0.22%의 주식이 주식시장에게 거래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에는 2007년 중반 회사 자산의 60%를 매각할 것을 발표한 것을 기초하여 매각이 이루어졌다. 탐광, 개발분야(Upstream)에는 국영회사 뿐만 아니라 Shell, Chevron, Total, BG Group 및 여타 해외 민간회사들이 PNOC와의 Joint-Venture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PetronChina 및 러시아의 Gazprom사가 PNOC-EC 자산 취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송, 정제, 판매 분야(Downstream)에 있어서는 종전 PNOC의 석유 판매를 전담하였던 Petron이 부분적으로 민영화됨으로써, PNOC가 40%, Saudi Aramco가 4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주유 소매업은 Petron외에 60개 이상의 국내 및 외국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DOE의 전력분야 산하기관은 종전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전력 생산회사인 국영전력회사(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 송전을 전담하는 국영송전회사(TransCo)등이 있다. 1990년대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이 제정됨으로써 동 전력회사를 점진적으로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 발전소는 민간참여를 통하여 건설토록하고 있다. 지열발전소 건설은 PNOC 자회사인 PNOC_EDC(Electricity Development Company)에서 담당하여 약 60%의 지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소를 2008년 중에 민영화하기로 되어 있다.

(3) 에너지 자급률 확대 계획

DOE는 2014년까지 현재 에너지 자급률 40%에서 6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필리핀 에너지계획 2005~14'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필리핀 에너지 생산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 국내 생산량은 2006년 240만 톤이며 석탄 730만 톤을 호주,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였다. 석탄이 타 화석연료인 석유, 가스보다 가장 가격이 저렴하므로 당분간 필리핀은 석탄사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에너지 계획에서는 20%의 수입 감소를 계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석탄 개발을 상정하고 있다. 필리핀 에너지 계획은 화석연료 생산 증가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재생에너지(지열, 수력, 풍력, 태양열)를 사용한 전기 생산을 현재보다 100% 증대(9.1 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

필리핀은 전력 공급 증대와 전력요금 인하를 위하여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전력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전력가격 인하 및 안정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Electronic Power Industry Reform Act)을 제정하고 2007년까지 NPC의 전력생산시설의 약 50%를 매각하였으며 전력배전시장 경쟁체제 도입준비를 완료하였다. 전력산업개혁법에 따라 2001년 효율적으로 전력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TannsCo를 통하여 독점 공급하던 전력을 전력도매시장(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WESM)을 고안하여 생산자가 WESM을 통하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건 미성숙으로 2006년 6월 WESM을 통한 최초의 거래가 착수될 때까지 동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NPC 발전소에 대한 민간의 매입도 소극적이었다. 2006년에 이르러 비로소 WESM을 통한 전력거래가 시작

되어 시장이 작동하자 2007년에 NPC 소유 발전소의 50%가 국내 및 해외투자자 콘소시엄에 판매되었다.

<표 2-42> 발전소별 매각일정

발전소	매각일정
225 MW Bataan 화력발전소	5월
0.8 MW Amlan 수력발전소	6월
146.5 MW Panay 디젤발전소 22MW Bohol 디젤발전소 620 MW Limay 디젤발전소	7월
192.5 Palinpinon 지열 발전소	8월
112.5 MW Tongonan 지열발전소	9월
114 MW Iligan 제1,제2 디젤 발전소 150 MW Bacman 지열발전소	10월
116 MW Subic 디젤 발전소	11월
108 MW Aplaya 디젤발전소 22.3 MW General Santo 디젤 발전소	12월

지열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영 PNOC-EDC(Electricity Development Company)는 자산의 60%를 필리핀 제1의 민영 발전사업자인 First Gen과 Iceland Reykjavik Energy Invest 콘소시엄에게 13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였다. 2008년 2월 26일 필리핀 정부는 285MW급 Tiwi 지열발전소 및 458.5MW급 Makban 지열발전소 매입 의향서를 3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동시에 2008년 발전소 매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송전회사인 TransCo의 송전시설 운영권도 2008년 중 민간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전력산업개혁법에 의한 의무사항인 NPC 자산의 70% 매각이 완료되어 경쟁시장이 형성되면 비로소 전력 수요자가 전력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Open-Access Market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1단계 Open-Access Market에서는 월 1MW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2년 후에 750kw로 하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일반가정의 소량 사용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5) 대체 에너지 개발

2007년 필리핀 바이오 연료법(The Philippine Biofuels Act)이 제정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201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바이오 연료법은 2007년 법안 발효 3개월 후 모든 디젤연료에 대하여 최소 1%의 Biodiesel 첨가를 의무화하고 2008년까지 2%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가솔린에 대해서는 2009년에 5%의 Bioethanol 첨가를 의무화하였으며 2011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영석유회사의 대체에너지 회사(PNOC-AFC)를 설립하여 대체 에너지 개발, 사용 및 상업화를 촉진시키도록 하였다. PNOC는 Biodiesel 생산을 위하여 1500ha의 Jatropha를 식목하였으며 2010년까지 700,000ha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6) 전망 및 평가

2008년 1월말 개최된 필리핀 Energy Summit에서의 화두는 고유가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즉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필리핀 화석연료 개발이 고유가로 인하여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범세계적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추세를 감안하여 바이오 연료 개발에 유리한 필리핀의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조속한 전력산업 민영화를 통하여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력가격 인하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반 소비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필리핀 에너지 당국의 목표이다. 에너지 자원 증산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보가 관건이라고 본다. 필리핀의 석유자원은 채굴의 곤란 등으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타 인근 석유자원 생산국에 비하여 불리한 광업권 부여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관료주의 및 부패의 탈피를 통하여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업계의 의견이다.

전력공급 확대 및 가격안정 문제는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을 통하여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형성되느냐가 관건이다. 오히려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력가격이 더욱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필리핀 정부는 70%의 NPC 발전소가 매각되면 경쟁이 발생하여 시장이 작동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월 1MW 이상 사용 외국계 제조업계(Texas Instrument, Hitachi, Fujitsu, Toshiba, NEC, Philips, Samsung 등)에서도 Open-Access Market 기법이 적용되면 현재 국영전력회사인 Napocor가 공급하는 P3.52/kwh보다 전력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의 기후 여건 및 유휴 토지를 감안할 때 대체 에너지원을 생산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대체 에너지 추출을 위한 정제시설 및 바이오 에너지 판매를 위한 주유소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과제다. 한편 빈곤층이 많은 필리핀의 경우 바이오 에너지 개발로 인한 식량 생산 감축 및 식량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원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으로서는 바이오연료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까지의 필리핀 에너지 정책은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국영 자산의 민영화의 가속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의 완전한 경쟁의 실현 및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확대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및 투자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외국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필리핀의 정치적 불안정, 중앙정부의 영향력 미흡, 관료주의 및 부패 등 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필리핀의 자원개발과 전력산업 개혁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환경세 부과, 빈민 및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프니)에 대한 연료 가격할인 쿠폰제 도입 등, 분배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 광업정책[37)]

(1) 개요

필리핀 광업은 1980년대 이전 세계 제1의 채굴량을 기록한 바 있으나 1980년대 이후 비우호적인 개발환경 및 제도 부재로 침체되었다. 그 후 1995년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산법(The Philippine Mining Act of 1995)이 통과되었는데 동법을 광업에 투자하는 경우 제세감면, 시설 도입시 면세 통관 등 제반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여 광업을 진흥하려는 의지를 담아 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채굴의 경제성이 낮아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재정위기,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에 대한 위헌판결, 원주민보호법 제정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 등 복합적 요인으로 많은 광산이 폐광하는 극심한 침체를 겪어 필리핀 정부로서는 난국에 봉착하였다. 2003년 출범한 아로요 정부는 광산업 재활성화를 선언하고 광산업 촉진을 위한 광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재심요청에 따라 2004년 말 대법원에서 1995년 광업법 중 재정 및 기술지원 계약(FTAA)의 경우 외국인 회사가 광산 개발권 및 개발 지분의 100%를 소유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1995년 광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된 것으로서 종전의 위헌판결을 뒤집어 정부의 환영을 받았다. 또한 필리핀 광산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로서 제도적 장애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다만, 환경단체, NGO, 지역민, 카톨릭 교구 및 반군의 개발반대 또는 반대급부 요구 등 여전히 많은 반발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장애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국제 광물가 급상승에 따라 많은 광산업자들의 투자 재개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필리핀 광업산업의 부활이 예상된다.

37) 주 필리핀 대사관.

(2) 광물 매장량

필리핀 정부 추정에 따르면 13개의 금속성 광물 71억 톤과 29종의 비금속성 광물 51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 금속성 광물 매장량은 구리가 금속성 광물 전체의 67.5%인 48억 톤이고, 금은 7억 9천 5백만 톤, 니켈은 5억 3천 4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 외 플라티늄, 철, 망간, 납, 아연, 몰리브덴, 수은, 알루미늄이 매장되어 있고, 비금속성 광물의 경우 석회석이 전체 매장량의 57%인 290억 톤, 대리석이 16.5%인 85억 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석탄, 소금, 모래, 자갈, 마그네사이트 등 다양한 비금속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3) 광업정책의 변화

2003년 출범한 아로요 정부는 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광산업 재활성화를 선언하고 대통령 집행명령 EO-270을 공표하여 DENR(환경자원부)을 통하여 광업촉진계획(Mineral 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광산업 재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왔다.

<표 2-43> 광업촉진계획 4대 전략

4대 전략
이해관계자간(광산업체, 정부, 지역공동체) 이익의 정당하고 공평한 분배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배려,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의 강화
광산운영기간 및 폐광 이후 엄격한 환경기준의 적용
광산투자자 권리 보호 및 투자환경 확보를 위한 경쟁적 투자여건 조성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보유 광물자원의 총 가치를 84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추정하고 중기적으로 61억6천만 달러의 투자를 확보하여 연평균 50~70억 달러의 광물을 생산함으로써 170~230억 페소의 정부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23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감소와 빈곤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광업권의 종류

탐사허가(Exploration Permit: EP)는 광물을 탐사하는 작업으로서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하며 탐사작업을 통하여 광물개발 가능성을 입증하게 되면 광업권 신청을 할 수 있다. 40%까지 외국회사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생산물공유협약(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MPSA)은 정부가 생산자와 광산 생산물을 공유한다. 기본적인 계약 형태는 정부는 광물을 소유하고 회사는 광산을 운영하여 광물을 채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공동생산계약(Co-production Agreement)은 정부가 지하광물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공동 생산하는 방식이고, 민관합작 방식(Joint Venture Agreement)은 민간회사가 공동 투자하여 자산을 공동 소유하고 정부는 자산소득과 총생산물로부터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40% 까지 외국인 회사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재정기술지원협약(Finalcial Technical Assistant Agreement: FTAA)은 대규모 탐사, 채굴 및 활용을 포괄하는 계약으로서 대규모의 광산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광업권이다. 최소 자본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100% 외국인 지분 참여 또는 소유를 허용한다. 타 광업권은 환경자원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나 동 협약은 대통령 승인사항이다.

<표 2-44> 광업권 종류 및 그 내용

광업권	허가범위	기간	신청자격	이익분배
Exploraton Permit	32,000ha(내륙) 81,000ha(해저)	2년, 최대 8년까지 갱신 가능(비광물 4년, 광물 6년)	개인, 필리핀 회사, 외국인 회사	조사자료 수집
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16,200ha(내륙) 40,500ha(해저)	25년, 25년 추가 가능	개인, 필리핀 회사	40% 회사, 60% 정부
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81.000ha(내륙) 324,000ha(해저)	25년, 25년 추가 가능	필리핀 회사, 외국 회사	40% 회사, 60% 정부(최초 운영준비비용 보전이후)

광업권 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대량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442,268.72ha의 광업권 설정 지역에는 209건의 광물 생산 공유협약(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MPSAs), 19건 탐사허가(Exploration Permit), 2건의 재정기술협약(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과 310건의 광산임차 또는 특허권 등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현재 MPSA가 1,318건, FTAAs가 56건이 진행되고 현재 많은 광업권 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5) 광산개발 장애요인

필리핀 정부의 광업 촉진정책 및 광물가격 급등 등 개발의 호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폐쇄된 광산운영이 재개되고 투자가 증가하는 한편 추가개발을 위한 광업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필리핀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른 다양한 국가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타진 중에 있다. 필리핀의 광산개발에 있어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우호적인 방향의 광업정책 변화 가능성이다. 종전 광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강화,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의 철폐, 정부의 이익배분율을 45%로 상향조정, 초기투자비용의 회수 후 배분 조항의 철폐 등 투자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둘째, 환경운동, 종교단체 등의 비우호적인 활동[38]이다. 광산개발이 근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환경단체의 반대활동, 외국 및 외부자본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조상 전래의 생활근거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38) 필리핀의 대표적인 환경 및 사회단체는 Greenpeace Southeast Asia, PhilDHRRA, Kalikasan-People's Network for the Environment,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the Philippines and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 Center 등이 있다. 또한 필리핀은 국교가 천주교이며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매우 큰 바, 종교단체들이 전통적으로 낙태 및 광산개발 저지를 두 가지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을 정도로 광산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지금까지 다수의 광산 Project들이 좌초된 바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카톨릭 교구의 활동, 반군지역의 혁명세 납부요구, 채굴활동 방해 등 정치 사회적으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셋째, 관료주의로 인한 기회비용이다. 탄광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기까지 하다.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던 허가권한을 중앙정부인 환경자원부(DENR)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현재 1,000개 이상의 신청이 계류되어 있다. 문제는 광업권 획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기도 불확정적이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광물 발견이후 개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광업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으나, 관료주의 및 과잉규제로 인해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확실하여 권리확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넷째, 기술자가 부족하다. 과거 광업산업의 부진으로 그간 대학에서 기술자 배출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기술자들도 대우가 좋은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최근 광업 활성화에 따른 인력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자율규제 및 광산 재개발 등 새로운 이슈의 등장이다. 최근 광업업체들은 종전 광업개발자들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지역사회를 황폐케 하였던 결과로 광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보의 일환으로 자율규제를 규율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 광산 폐지 및 재개발 문제 등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6) 필리핀 광업에 대한 전망 및 평가

필리핀이 보유한 방대한 광물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한편, 광물자원의 수요급증에 따른 가격상승을 감안할 때 필리핀 정부의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 여부에 따라 필리핀 광산업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광산의 안정적 개발을 위해서는 해외 대규모 광산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정적 투자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인가가 필리핀 정부의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자로서도 적극적으로 필리핀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단체 등 NGO, 지역주민 및 전문가 집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한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성패의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중국, 인도의 광물수요에 따른 국제 광물가격 급상승과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 광업 촉진 정책시행에 맞물려 필리핀 광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필리핀의 광산개발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로부터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대량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대한 투자 리스크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고 장기간의 회임기간이 소요되는 탄광개발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크지 않았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기존 투자지분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계기로 미개척의 필리핀 광물개발에 우리나라도 본격 참여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광산개발 Fund,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등을 활용한 광산지역 인프라 구축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진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인도네시아[39)]

가) 바이오에너지 원료산업정책

푸르노모 에너지 광업부 장관은 바이오 연료 개발 및 생산업자의 초기 투자자에 대해 허가 수속 간소화와 물자 수입 관세 경감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동 장관은 우대 조치는 바이오 연료 산업개발 초기라는 시점 때문에 투자자의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바이오 연료 가격은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의 시세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리터당 생산비가 US$0.4~0.5 수준에 불과하므로 바이오 연료 개발은 유망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006년 1월에 발포된 국가에너지 정책에 관한 대통령령 '2006년 제5호'는 2025년 바이오 연료의 에너지 이용 구성비를 5%로 목표하고 있으나, 푸르노모 장관은 2010년까지 2%(72만 킬로리터), 2015년까지 3%(150만 킬로리터), 2025년까지 5%(270만 킬로리터)의 석유연료 대체를 목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유숩 부통령은 바이오연료 원료로 이용되는 팜 오일, 옥수수, 사탕수수, 고무 등의 작물의 대규모 경작에 총액 USD220백만을 투입한다는 구상을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약 50만 헥타르의 팜 오일 경작 계획은 연내에 착수 가능하며, 수마트라와 깔리만탄이 제일 유력한 후보지이며, 그 다음으로 술라웨시섬이 뒤를 잇는다고 설명하였다. 헥타르당 소요 투자액은 USD2천2백 계상하여 있으며, 50만 헥타르에 투자자금은 USD110백만 규모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옥수수에는 USD100백만을 투입하고, 사탕수수는 경작지 면적을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14% 정도의 대출 금리를 10%로 경감하는 우대책 등을 가까운 시일내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똔 아프리안또

39)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노 농업부장관은 말레이시아 국경 주변에 조성할 계획이던 세계 최대 팜 오일 농장 조성 면적을 당초 계획의 10분의 1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당초 투자계획은 "계획은 중단하지 않는다"며 보호림이나 산악지대를 제외한 면적은 18만 헥타르에 머문다고 설명하였다. 당초에는 200만 헥타르를 팜 오일 농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당초 계획은 칼리만탄의 국립공원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국·내외 환경단체로부터 무분별한 계획이라는 비난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2010년까지 국내에 200~300만 헥타르의 팜 오일 농장을 조성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바이오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팜 오일 농장 및 CPO 가공공장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의 일부 국가들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팜 오일, 사탕수수 등 농장 대상지 및 생산량 측면에서 세계적인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이들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는 물론 외국의 투자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합판용 원목 천연림 사업정책

(1) 개요

2006년 5월 2일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내 합판업체가 천연림으로부터 원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림목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표명하였다.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원목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이러한 정책이 법제화되면 합판 기업은 조림을 하거나 시설장비 교체 등의 생산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2) 산림부의 산업조림 계획

2009년까지 500만ha(연간 목재 생산량 5,300만㎥), 2014년까지 900만ha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 말 산업조림 실적은 250만ha이었다.

(3) 관련 업계 동향

인도네시아 합판협회(Apkindo)의 아바스 부회장은 산업조림의 성장기간이 8년 정도이므로 2014년에 조림목을 합판용 원목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산업 조림의 국내 진출 기업은 코린도 그룹에 조림 사례에 따르면 펄프 및 칩 생산용 조림은 생산할 때까지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6~8년이 소요되나 합판용은 15년 내외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합판용 원목을 조림목으로 공급하는 정책 방향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4) 앞으로의 전망

최근 천연림 벌채 할당량 감소(2006년 820만㎥)와 벌채 비용 증가로 인한 원목 구입난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합판 업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자재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림은 불가피한 투자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상황과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외의 조림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림지 확보에 대한 국·내외의 경쟁이 심화될 것을 예측되는 바,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조림 진출 기업 또는 잠재 투자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책(조림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말레이시아

가)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40]

(1) 주요 육성정책

말레이시아는 바이오디젤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유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 세계 최대 팜 오일 산업의 새로운 수요처 발굴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에 따른 팜 오일의 신규 수요증가는 전통적인 수요처인 중국·인도의 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대처법이 될 수 있어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랜 기간 팜 오일을 활용한 바이오디젤의 개발을 장려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해 비용 측면에서 대체연료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현재 팜 오일 가격구조에서는 팜 오일이 다른 바이오에너지 원료(사탕수수, 콩, 옥수수 등)에 비해 원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말레이시아정부는 2005년 8월 10일 바이오에너지를 말레이시아의 5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NBP)을 발표하였다.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NBP)의 수립에는 유럽에서의 광범위한 바이오에너지 사용[41] 과 미국·브라질·일본·중국·인도 등과 한국·태국 등의 바이오 에너지 프로그램 및 바이오디젤 사용목표 설정 등이 자극을 주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NBP)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화학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시킬 수 있는 대체연료의 사용, 안정적이고 수지가 맞는 팜 오일 가격유지를 통한 농업과 관련 산업 관계자의 번영과 행복 두 가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 같은 NBP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

---

40)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41) EU의 바이오디젤 수요는 2005년 기준으로 약 300만 톤이며, 2010년에는 1,000만 톤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NBP)

하고 있다.

첫째, 5% 바이오디젤과 95% 석유디젤의 혼합인 BD5의 생산 및 사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젤 사용자 대부분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 부문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보일러, 건설장비의 연료, 발전소 등 산업계에서도 BD5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벤처캐피탈 포함)의 공동 재원마련에 의한 바이오디젤 R&D 및 바이오디젤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바이오에너지의 활성화 움직임에 상응하기 위한 바이오연료 생산·수출의 촉진 및 장려이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통한 화석연료 고갈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에의 대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NBP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고유가 지속의 부정적 효과를 일정부분 완화, 디젤수입의 대체를 통한 외환절약,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한 CO_2 감축, 팜 오일에 대한 신규수요 창출, 팜 오일의 가격[42]상승에 따른 관련업계 이익 증가 및 세수의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해 NBP는 6개의 단기과제, 4개의 중기과제, 2개의 장기과제 등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주유소나 정유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통해서 바이오디젤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도록 장려, 바이오디젤의 품질에 대한 산업표준 확립, 라부(Labu), 네게라(Negeri), 셈빌랑(Sembilan)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팜 바이오디젤 공장 건립 등이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출시장을 겨냥해 추운 기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시험 연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원료인 팜 오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플랜테이션 기업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42) 말레이시아 정부는 5% 혼합을 통해 연간 50만 톤 상당의 팜 오일 신규수요가 창출되며, 이는 팜 오일 재고량의 DIF 40~50%에 해당하는 양으로 톤당 100RM의 가격상승을 가져와 연각 1,000만 톤 수출에서 총 10억 RM의 추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2-45> 말레이시아의 NBP 실행과제

단기과제
- BD5에 대한 품질기준(표준) 확립 - 정부기관 차량(일부에 한함)에 의한 BD5의 사용 - 민간의 BD5사용을 위한 주유소(일부 주유소에 한함)의 설치 - 산업계 일부 수요자에 의한 BD5의 자발적 시험 - BD5의 사용에 관한 공공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 BD5의 채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발적 사용자 모니터링
중기과제
- 수출과 내수용 메틸에스테르(methylester) 바이오연료 기반의 팜 오일 품질표준 설정 - 엔진제작자의 BD5 사용에 대한 보증 확대노력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BD5 실험 확대 - BD5의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바이오에너지 수출촉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상업적 메틸에스테르 공장의 설립촉진 및 민간협력에 의한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을 위한 MPOB의 촉매적 역할 수행
장기과제
- 석유 디젤과 바이오디젤의 배분비율 상향조절 -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촉진

자료: 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 of Malaysia(2005).

(2) 인센티브

바이오디젤은 투자촉진법(1986년)상의 투자촉진 품목 및 활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바이오디젤 프로젝트는 개척자지위(Pioneer Status)의 적격대상에 해당하며, 투자세액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대상이기도 하다. 개척자지위 또는 투자세액 공제 수혜여부는 부가가치의 수준, 사용기술 수준, 산업연관성 수준과 같은 평가지표들에 의거 판단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권장사업(promoted activity)', '권장품목(promoted product)'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략적 또는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자원기반 산업의 공공기관 R&D 연구결과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

(3) 주요 법령

현재 팜 오일 산업에 관련된 법률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바이오에너지 산업법(The 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2007: ACT666)'이 유일하며, 동 법률도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산업법'은 당초 2008년 중 시행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내각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원인은 원료인 Crude Palm Oil의 국제가격이 최근 급상승한 결과, 바이오디젤의 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BD5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7년 말레이시아의 전체 팜 오일 생산량은 200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팜 오일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당분가 동 법률의 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투자 승인 담당부서인 MIDA(통상산업부 산하의 산업개발청)를 대신하여 플랜테이션사가 바이오디젤의 생산 및 수출에 관한 하이센스 발급 취소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함께 바이오디젤에 대한 사용의 의무화,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바이오디젤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주유소에 대한 바이오디젤 직접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 바이오디젤 법안이 확정되면, 더 많은 해외투자가 바이오디젤 사업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4) 지방정부

사바(Sabah)주는 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하여 말레이시아 전체 팜 오일의 35%를 생산하며 1,200만 ha의 팜 오일 플랜테이션을 보유하여 바이오디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Sabah 주정부는 라하드다투(Lahad Datu) 지역을 최초의 팜 오일 산업단지(Palm Oil Industrial Cluster 이하 POIC)로 지정하였으며 2008년까지 약 RM 10억이 투자되어 100만 톤의 바이오디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11월까지 현지기업과 미국·호주·한국 등 외국기업을 포함한 8개 기업이 POIC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호르(Johor)주 역시 480ha 규모의 탄중랑삿 바이오연료단지(Tanjung Langsat Biofuel Park)를 2006년 8월 개장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를 유치하고 있다. 연간 700만 톤 규모로 17개 업체의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2개의 대형항구와 대형 저장시설이 있어 원료접근성 측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나) 바이오에너지 시장 현황과 전망[43)]

(1) 바이오에너지 산업 특징

말레이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중 에탄올에 관한 국가계획이 없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이는 바이오에너지 중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산업적 육성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먼저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2006년 1,588만 톤의 팜 오일(crude palm oil)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전 세계 팜 오일의 85%를 생산하는 최대 팜 오일 생산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1위의 바이오디젤 생산국이 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팜 오일은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원가가 저렴하여 바이오디젤 원료로서 경쟁력이 있는 바,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5년 8월에 국가 바이오 연료정책을 발표하여 팜 바이오디젤 산업을 부양하고 전 세계바이오디젤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팜 오일의 일부를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할 경우 과잉 생산된 팜 오일의 재고 처리 등 세계 시장에서 팜 오일 가격의 안정 및 이로 인한 팜 오일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바이오디젤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은 일부 업체의 소위 '에스테르화(trans-esterification)'라고 부르는 공정을 통해 글리세린(비누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산물의 일종)과 함께 생산되는 메틸에스테르를 말한다. 그간 팜 오일을 처리하여 다른 물질을 생산하는 과

43)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정에서 부산물로 메틸에스테르를 얻어 생산량이 많지 않았으나,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4) 베트남[44)]

가) 통화정책

베트남 중앙은행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긴축통화정책 시행을 적절히 결정하고 있다. 2007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경제성장율(8.5%)보다 훨씬 더 높은 12.6%를 기록한데이어 2008년에 들어서도 국제원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신동경색 및 미국의 경기 후퇴 조짐 등 대외적 요소와, 2007년도 대규모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 유입, 해외 이민자 및 근로자들로부터의 송금, 시중은행의 대출확대(2007년도 통화량 35% 증가)등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의 영향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통화정책 실시한다. 즉, 중앙은행은 2008년 1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1%로 인상하고, 2월 1일부터는 기본이자율(8.25% → 8.75%), 재할인율(6.5% → 7.5%), 할인율(4.5% → 6%)을 모두 인상하는 한편,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약 13억달러 규모의 정부 채권을 시중은행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 및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긴축통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 은행부문 금융개혁 정책

베트남 정부는 i) 국영 상업은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ii) 민간 시중은행의 구조개혁, iii) 정책적 대출과 상업적 대출의 분리, iv) 대출시 담보조건

44) 주 베트남 대사관.

명확화, v)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 수립 등 법적 감시체계 개선, vi) 국내외 은행 간의 차별 철폐 및 경쟁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 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경영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2007년 4월부터는 100% 외국계 은행 설립도 허용한다. 단, 외국 모(母)은행의 총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 이어야한다. 2010년까지는 국영 상업은행을 모두 주식화할 계획이며 현재 30%(개인 또는 법인이 최대 10%까지 주식 매입 가능)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한도는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Vietcom Bank와 Mekong Housing Bank가 먼저 주식화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36개의 민간 시중은행이 영업 중인데, 이중 1위 규모인 Sacombank가 2006년 7월 호치민 증권거래 센터에 상장되었고 2위 규모인 아시아 상업은행(ACB)이 2006.11월 하노이 증권거래 센터에 상장되었다. 은행 상장 요건은 5년 이상 영업 및 최근 2년간 연속 흑자 경영, 3% 이하의 불량채권 등이다.

다) 국영기업 개혁 정책

(1) 현황

주재국 기획투자부(MPI) 산하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측에 따르면, 2005년도의 경우 총 933개의 국영기업이 구조조정 되었으며 그 중 693개가 주식회사화 되었다. 이는 총 구조조정 기업의 74.2%에 해당하며, 당초 목표의 70% 정도만 달성된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민영화된 국영기업은 대부분 자본금 50억VND(약 3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며, 자본금 200억VND(약 125만 달러) 이상의 국영기업으로서 민영화된 경우는 Vinamilk, Song Hinh-Vinh Son 수력발전소, Thac Ba 수력발전소, Pha Lai 화력발전소 등 수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2년 이래 2005년 말 현재까지 민영화된 국영기업은 숫자로는 50% 이상이나, 자본기준으로는 전체 국영기업의 12%에 불과하다.

현재 국영기업은 약 2,000여개가 남아 있으며, 2005년 현재 전체기업의 수

적인 측면에서는 약 3.6%정도이나, GDP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 달하였다.

(2) 주요 정책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i) 민영화 또는 청산, ii) 인수·합병, iii) 국영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 노동자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i) 각 국영 기업 간 부채 청산 문제, ii) 국영기업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장비에 대한 평가 문제, iii) 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 문제 등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500여개의 국영기업을 추가로 구조조정 할 예정이며, 2010년에 국영기업의 수는 550여개로 축소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주로 주식회사화를 통한 국영기업 개혁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06년 8월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및 주식회사화 된 국영기업의 국가자본을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투자공사(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SCIC)를 설립하였다.

라) 금융정책

베트남 중앙은행은 2.6자 결정(07/2007/QD-NHNN)을 통해, 3.1자로 그동안 법인의 달러화 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1.5%로 제한해 오던 것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중앙은행은 베트남 dong화와 개인의 달러화에 대한 예금 이자율(각각 8.25%와 5%)에 대해서는 저금리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의 달러화 은행 예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이래 미 연방준비은행(FED)의 이자율에 기초하여 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해 왔는바, 6개월 이상 예치시 기준으로 2001년 2% → 2002년 1% → 2003년 1.5%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1.5 상한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 등을 통해 얻은 달러 수입금을 낮은 이자로 예치하든지, 아니면 베트남 dong화로 환전하여 예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택하든지

하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였다. 은행측으로서는 달러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는바, FED가 2004년 이후 이자율을 5.2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중앙은행이 1.5%이자율을 고수하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상기 조치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시장을 국제적인 관행에 적응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달러화의 공급이 이미 충분하여 동화 대비 환율이 안정적이 추세에 있고, FED의 이자율이 상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등의 이유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은 달러화 대비 동화 환율 조정폭(exchange rate margin)을 기존의 ±0.25%에서 ±0.5%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WTO 가입시 양허한 바에 따라, 외국은행 지점들도 베트남 현지인들로부터 dong화 예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마) 환율정책

베트남은 1999년 2월 이래 하루 최대 환율 변동폭을 전날 은행간 거래 환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점진적 연동 환율제도(crawling peg system)를 도입,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한편 점진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대외경제력 유지 및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1997~98년간에는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화 환율이 10~13% 절하되었다.

2000년도에는 급격한 수입 증대에 따른 외환 부족현상으로 베트남 동화의 절하 요인이 있었으나, 원유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예산으로의 전용과 신용장 사용제한 완화를 통한 대금 지체 등의 정책을 통해 대달러 환율을 3.4% 절하 수준에서 방어하여, 2001~05년간 연평균 2.2% 평가 절하 하였다. 현재의 환율제도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rate regime)라고 칭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은 2007년까지

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동화(VND)의 대달러화 환율이 1% 이내에서 절하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2-46> 환율 변동추이

(단위: 연말 기준 Dong)

시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환율 (1$당)	11,175	12,985	14,018	14,504	15,070	15,368	15,645	15,740	15,875	16,091	16,114

그러나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추세 및 외국 직·간접 투자자금의 유입, ODA 자금유입, 해외 이민자 및 근로자들의 국내송금 급증 등 요인으로 인해, VND의 대달러화 환율이 절상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 태국[45)]

가) 단기자본 유입에 대한 예지의무제 폐지

(1) 30% 외환의무예치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태국 바트화에 대한 투기와 단기 외환 유입을 억제하여 바트화의 단기적인 급변동 현상을 방지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중앙은행은 시장 참여자의 비용 감소를 위하여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인 완화조치를 시행하였다.

(2) 30% 외환의무예치제도 폐지 배경

2007년 4분기 및 2008년 1월 중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수요가 크게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예상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제의

45) 주 태국 대사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2008년 1월 중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로 외환 유출입이 다소 균형을 회복하였으며, 해외투자가 증가하였다. 2008년 2월초부터 거주자들의 외환예금 허용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실물 및 수출부문이 외환 헤지, 생산성 제고, 시장다변화 등의 조치를 통해 그동안의 바트화 절상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다. 또한 중앙은행법 개정에 따라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정능력이 제고되었으며, 추후 시행될 공공부채운영법(Public Debt Management Act)은 자본 유출입 균형을 증진시킬 전망이다.

최근 시장내에 30% 외환의무예치제 폐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러한 기대에 따른 시장참가자의 행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외환의무예치제의 실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3) 30% 외환의무예치제도 폐지 후 보완 대책

증권사, 뮤추얼펀드 및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한도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바트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완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금융기관이 1천만바트 한도 내에서 투자 및 실물거래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바트화 한도를 축소한다. 둘째, 국내 금융기관이 3억바트 한도 내에서 투자 및 실물거래 없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바트화 한도를 확대한다. 셋째, 비거주자 자금의 원활한 모니터를 위해 기존 4개의 계좌를 '증권투자를 위한 비거주자 바트화 계좌(NRBS)'와 '비거주자 바트화 계좌(NRBA)' 등 2개 계좌로 통합·운영한다.

(4)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임시 보완 대책

3년간 금융기관을 통해 총 400억 바트를 중소기업에 장기저리대부(soft loan)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매각한 외환선물에 대해 6개월간 재매입 편의 제공한다.

나) 태국 최저임금 인상 정책

태국 정부는 근로자 최저 임금을 최소 2바트에서 최대 11바트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부측은 금번 인상은 최근 농산물 및 유가 급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금년 중 두 차례에 걸쳐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인상폭은 지역별로 최소 3바트에서 20바트, 평균 5.1% 인상률을 나타냈다.

두 차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및 노동단체에서는 전체적인 인상폭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서민생활 악화를 해소하기에는 좀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금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3.9%로 지난번의 1.2%보다는 높아졌으며, 지역별로도 푸켓과 페차부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상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유가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높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금년 중 총 인상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달되었다.

<표 2-47> 최저임금 인상률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7	2008		
				12월	2월	3월	4월
2.7	4.5	4.7	2.2	3.2	5.4	5.3	6.2

자료: 태국 상무부.

금번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방콕지역의 월 최저 임금은 30일 기준으로 할 때 2007년 5,730(171,900원 수준)에서 6,090바트(182,700원 수준)로 상승하였다. 신흥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한편, 관광 관련 보안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여 수출 및 관광산업을 진흥할 계획이다.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투자를 포함한 예산규모의 확대는 민간 수요를 대체, 경제 성장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부와 공기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되, 특히 자급 경제 전략(Sufficiency Economy Approach)을 뒷받침하는 복지전략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 물류 발전 및 철도 등 대중교통시스템 등에 관련된 투자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뭄 문제를 완화·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농촌)지역 및 단체의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NGV 및 가솔(Gasohol) 등의 공급확대를 통한 대체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태국 FTA, 대중교통 및 물류 개발, 통합 수원관리,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투자 등 교역 및 투자 기회의 증가에 대한 지원제도의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하락은 태국의 수출과 관광수입 증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세계 경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긴축정책 영향으로, 2007년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3.5% 성장이 예상된다.

6) 캄보디아[46)]

가) 제13차 관민합동회의(Government-Private Sector Forum: G-PSF) 개최

훈센 총리는 이후 최근에 실시한 정부 정책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시행된 9개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주 캄보디아 대사관.

<표 2-48> 정부 주요 정책

정책	내용
공무원 급여 인상	- 2008년도에 20% 인상함 - 장기적으로 연 20% 인상 예정
공무원 가족 수당 등 인상	- 2008년 4월부터 재직자 및 퇴직자 수당 인상 - 노동자 최저임금을 월 56달러로 인상 - 최저임금은 2010년도에 재조정
최소세 면제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	-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세 면제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
원유 수입에 대한 원조	- 석유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
EDC에 대한 원조	- 발전을 위한 연료가격 보조, 소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한 원가 이하의 가격정책
관개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 확대	-
국내 쌀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미소 지원	-
쌀 가격 안정화 조치	- 일시적 수출 금지, 정부 비축미 방출
필수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제	-

또한 미래 시행할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을 채택시에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반 외부 여건을 고려하고 농업부문의 취약성, 건설 경기 호조 등 대내적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총리가 설명한 향후 경제정책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통화정책으로는 지불 준비율 변경을 통해 통화량 조절, 환율의 안정화 유지, 고위험분야(부동산개발)에 대한 은행 대출 규제, 국채 발행 및 통화공급 통제를 하여 상업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으로는 기본적으로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수입이 부족할 경우 불요불급한 비용을 감축한다. 조세정책으로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제세금 인하 또는 면제(사치품, 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한 높은 세율 유지)하고 식량 확보를 위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취한다. 공한지세, 등록세 등에 대한 징수 강화(명의 이전 없이 전매되는 사례가 많고, 매매가격도 낮추어 탈세하는 현상 방지)한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지원정책으로 통화, 재정 정책을 유

지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한다. 각종 허가권 발급 관련된 관리 업무 강화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 및 처리 능력의 확대시키며 종자개발, 농업관련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강화한다.

7) 미얀마

가) 주요 경제정책[47)]

(1) 정책기조

미얀마에는 특별히 언급할만한 경제 정책이 없다. 미얀마 정부는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대신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취해왔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임시방편정책은 2004년 상반기 취해진 쌀 수출금지 조치로써 당시 무섭게 치솟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하였지만 농가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바 있다. 2005년 10월에는 정부의 보조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보조 기름 가격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8배 이상 인상한바 있다. 이로써 휘발유는 180짜트에서 1,500짜트로, 경유는 160짜트에서 1,500짜트로 인상되었다. 2006년 4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무원 및 군인의 임금을 5~12배 인상하였으며 이는 환율불안 및 물가상승 등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바 있다. 또한 2007년 8월 15일에도 갑작스런 기름값 인상(약 2~5배)으로 민생고에 따른 반정부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나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최근 특별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47) 주 미얀마 대사관.

(2) 재정정책

미얀마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4%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통한 정부지출이 지속될 전망이다. 회계연도 2006~07년(2006년 4월~2007년 3월)에는 전년대비 세수가 5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차입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재정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미얀마정부가 세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또는 여권을 만들 때 문제가 된다면 이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 교육부문의 정부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문의 과다 지출, 비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신수도(네피도) 건설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은 지속될 전망이다.

(3) 통화정책

미얀마 중앙은행은 재무 세입부(Ministry of Finance & Revenue)산하에 있으며, 중앙은행으로써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명목금리는 고정되어 있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이며 이러한 중앙은행의 비효율적인 통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4월 1일부로 미얀마 정부는 갑작스럽게 금리를 2%씩 인상하여 예금 이자율을 10%에서 12%로, 대출 이자율을 15%에서 17%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너무 미미하고 때늦은 조치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 대외경제정책

미얀마는 외환부족 및 이의 타개를 대외경제정책 수립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어 수출입정책도 외환부족 타개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 1997년부터 강화된 수입규제조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정상무역관련 외환취급

가능 은행은 MFTB, MICB 등 국영은행 2곳이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건별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수입이 허용되는 등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수출시 수출대금의 10%를 수출세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국가와 판이하게 다른 미얀마의 독특한 제도이다. 수출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일종의 혜택을 받던 봉제업체를 중심으로 한 CMP(Cutting, Making, Packing) 업체 또한 2003년 10월부터 수출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대신 이들 CMP업체들은 CMP 대금을 일반 수출업자와 마찬가지로 Export Earning으로 활용 중이다.

8) 라오스[48)]

가) 광산개발 산업 동향

라오스 Bounthavy Sisouphanthong 기획투자위원회 부의장은 2007년 2월 17일 개최된 외교부 공보국 주최 회견에서 라오스 광산개발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허가 절차를 늦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부의장은 라오스가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광산개발 분야에서 양허가 이루어진 180여 건이 대부분 탐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 중 100여개가 탐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규 사업 신청을 늦추는 한편, 기존 양허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Bounthavy 부의장은 금번 조치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광산개발 촉진이라는 라오스 정부 정책의 방향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기획투자위원회 투자진흥국과 에너지광산부 등 실무부서에서 광산 허가 절차 검토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라오스 정부가 신규 광산개발 허가를 중단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던바, 금번 회견은

48) 주 라오스 대사관.

동 소문을 일단 불식시킴과 동시에 광산개발 신청의 난발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라오스 광산개발이 관심을 받으면서 실질적 투자능력이 없는 브로커들이 광산개발의 양허권을 획득하고 이를 장기 보유하면서 중간 커미션을 얻기 위해 악용하거나, 실질적 투자자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소결

대상국 각각은 자국 경제의 취약성 및 예민한 사항을 바탕으로 그러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된 정책을 세워 실천하고 있는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는 에너지 고갈 및 전력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영 투자유치도 함께 시행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산업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인 팜 오일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팜 오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개발을 장려해 오고 있으며 '국가 바이오 연료 정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로 편입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자국의 안정된 통화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다. 태국은 바트화에 대한 투기와 단기 외환 유입을 억제하여 바트화의 단기적인 급변동 현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미얀마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정책이 없으나 우선 자국 경제 안정화를 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써 통화정책 대외경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라오스는 최근 광산개발과 관련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와 관련해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은 라오스 정부의 동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4. 투자 대상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가. 주요 투자 국가

1) 필리핀

가) 투자환경[49]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보다 낮은 문맹률(6.6%, 2003년 기준)과 높은 영어 사용률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노동력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문화·종교적 이질감이 적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진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출가공지대 및 민간공단 입주시 전력, 통신, 용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현재 필리핀은 4개의 투자진흥공사를 통해 투자기업들에게 소득세, 영업세 면제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와 수출입시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임금상의 우위보다는 풍부한 노동력 및 노동의 질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동력관리 문제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필리핀의 노조도 매우 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해고가 어렵다.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필리핀인들은 외국인 투자의 증가를 필리핀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 표시로 간주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

49) 코트라 필리핀 투자핵심가이드. 대륙별 국가정보. 주 필리핀 대사관.

<표 2-49> 외국인투자 장려 내용

내 용
- 필리핀인의 생계와 고용을 확대하는 행위 - 농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 - 필리핀 소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 - 수출품의 범위, 질, 양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농업, 광업, 공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련기술을 공급하거나 향상시키는 행위

다)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산업에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내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순위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에 해당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구비된 공단 등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 및 민간이 개발한 산업공단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필리핀은 아직까지 낮은 소득 등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므로 수출산업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투자시행 전에 목표시장 설정과 투자전략 수립시 필리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채산성 확보 등을 위해 공장가동시 필리핀 현지에서 관련 원부자재 조달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인근 타 국가에 비해 임금상의 우위는 별로 없으나 풍부한 노동력 및 노동의 질이 다소 우수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전력요금 문제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 업체의 신규투자는 별로 없으며, 기진출한 업체들도 베트남, 태국,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한 산업에의 투자는 필리핀 내수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상품을 필리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타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유망한 품목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현지진출 투자가들의 필리핀 투자매력도 평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주요 기업들이 평가하는 필리핀의 투자매력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9월 필리핀 주재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주요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들이 투자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관료적 형식주의, 즉 부패(85%)를 꼽았고, 다음이 경제적 불안정성(76%), 정책의 일관성 결여(73%), 정부태도(65%), 빈약한 도로 수송망(57%), 외화 송금의 애로 및 불안정한 환율(53%), 정치적 불안정성(51%) 등을 지적하였다.

필리핀의 투자 매력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교육수준(90%), 영어사용 능력(84%), 중간관리자 및 기술자의 수완 수준, 현지생활 여건(51%) 등이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응답 업체들이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50>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내용

내 용
-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줄일 것 - 투자자에 대한 세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합리화하여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것 - 전력공급능력 확충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할 것 - 사업 환경을 자유롭게 하고 보호주의적 태도를 중단할 것, 공공사업을 민영화할 것 - 합법적 사업 환경에 법원이 끼어드는 일을 최소화할 것 - 공공부문 적자와 부채문제를 즉각적이고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것- 필리핀인의 생계와 고용을 확대하는 행위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들 주요 기업들은 아시아에서의 투자 선호지역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을 꼽았고, 필리핀은 일곱 번째로 꼽아, 투자확대를 고려할 경우 필리핀에서의 사업 확장 보다는 다른 나라로의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 외국기업 투자 동향

2007년 3/4분기까지 필리핀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1,126억 페소로 전년동기대비 24.2% 감소하였다(2006년 총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1,659억 페소).

<표 2-51>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페소)

	2004	2005	2006	2007(1～9)
투자액	173,895.2	95,806.8	165,880.0	122,620.3

자료: KOTRA 대륙별 국가정보.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도 대필리핀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을 볼 때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 신고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전체 산업 중 약 54%를 차지)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필리핀은 전기, 수도, 가스 시설과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체 기술력이 미흡하여 외국기술, 즉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2006년 대비 2007년의 투자 신고액이 감소한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익성 논란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을 100% 오픈하면서 2008년에는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2> 2007년 국가별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분기별)

(단위: 백만 페소)

국가	Q1 2007	Q2 2007	Q3 2007	금액
일본	6,864.50	5,975.00	21,651.50	34,491.00
미국	3,584.50	22,768.70	2,411.90	28,765.10
노르웨이	0.7	11,172.20	2.4	11,175.30
대만	32.1	10,249.40	158.8	10,440.30
네덜란드	4,272.00	1,062.10	1,399.20	6,733.30
한국	185.1	3,236.20	2,707.70	6,129.00
기타	490.2	2,848.90	739.8	4,078.90
싱가포르	543.9	13.1	1,811.40	2,368.40
영국	905.9	873.2	346.2	2,125.30
독일	34.6	-	1,383.10	1,417.70
중국	356.7	23.6	876.6	1,256.90
홍콩	447	421	108.9	976.9
호주	0	242.5	442.8	685.3
영국연방	11	567.6	91.3	669.9
프랑스	-	0	603.5	603.5
말레이시아	147.7	154.7	41.9	344.3
태국	-	186.6	-	186.6
투자액	17,875.90	58,809.90	34,934.50	112,620.30

자료: KOTRA 대륙별 국가정보.

<표 2-53> 산업별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분기별)

(단위: 백만 페소)

산업별	1Q 2007	2Q 2007	3Q 2007	TOTAL
농업	2	-	-	2
광산업	104.3	486	921	1,511.30
제조업	12,529.00	28,278.50	-	40,807.50
-전자	-	11,120.60	-	22,120.60
-가스	-	-	533.4	533.4
-수도	-	-	-	-
건설	88.5	8.4	32.6	129.5
무역	126.8	7.5	60.2	194.5
운송	35.8	36.5	142.2	214.5
보관	-	948.6	268	1,216.60
통신	-	-	-	-
금융	35.6	1,435.00	3,253.20	4,723.60
부동산	447	421	108.9	976.9
서비스	4,954.00	6,488.80	2,973.50	14,416.30
투자액	17,875.90	59,809.90	34,934.50	112,620.30

자료: KOTRA 대륙별 국가정보

바) 한국의 투자현황

(1) 개황

1998년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는 한국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9~2000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2001년에 급증한 후 200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5년 한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2004 년 대비 약 30% 증가)로 인한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투자 반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투자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 1/4분기에 한국이 주재국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진 중공업의 수백만 조선소 건립을 위한 직접투자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2-54> 직접투자 신고금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체	당해년도	1,053.38	884.71	2,730.68	1,674.46	1,145.48
	누계	8,420.26	9,304.97	12,035.65	13,710.11	14,855.59
한국	당해년도	18.16	12.31	13.70	17.15	54.35
	(순위)	(10위)	(13위)	(10위)	(8위)	(5위)
	누계	130.17	142.48	156.18	173.33	227.68
	(순위)	(9위)	(10위)	(11위)	(11위)	(11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당해년도	892.42	627.00	3,103.05	1,717.88	1,223.73
	누계	15,748.01	16,375.01	19,478.06	21,195.94	22,419.67
한국	당해년도	26.06	13.14	58.18	194.16	996.15
	(순위)	(6위)	(7위)	(5위)	(5위)	(1위)
	누계	253.74	266.88	325.06	519.22	1,515.37
	(순위)	(-)	(-)	(-)	(-)	(-)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7(NSCB). Foreign Direct Investments - First Quarter 2007

(2) 우리 주요 투자 기업 리스트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는 전기전자, 섬유,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 건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국기업은 주로 CAVITE, BATAAN등 경제특구에 위치한 공단에 분포되어 있다.

<표 2-55> 주요 투자업종 및 업체

회사명	모기업	투자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시기
한전필리핀	한전전력공사	에너지	-	단독법인	186(23)	199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업	-	지점	26(12)	1973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조업	CD/DVD RW	단독법인	1390(9)	2001
삼성전기 필리핀법인	삼성전기(주)	제조업	MLCC, Tantal, Chip-R, X-Tal	단독법인	3068(29)	1997

2) 인도네시아

가) 투자환경[50]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진행된 투자관련 법령 정비는 의회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마침내 2007년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4월 26일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신투자법이 발효되었다. 신투자법은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 19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인니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섬유, 기계 등 15개 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규정 이외에 퇴직금 관련 노동 규정을 사회보장보험(잠소스텍)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 기타 투자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며, 비록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여 임가공 수출을 위한 투자대상지로 아직 매력이 있다. 특히 2005년 말부터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환영하지 않고 있고 또 인건비도 크게 오르는 추세이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베트남도 인건비 상승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체지역으로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인니는 2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대 인구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로의 투자의 긍정적 요소는 정치 경제적 안정화, 풍부한 천연자원,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꼽을 수 있으며, 부정적 요소는 노동의 유연성

50) 코트라 인도네시아 투자핵심가이드. 대륙별 국가정보.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족 및 인건비 상승, 인프라 부족,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잦은 테러로 인한 안전에 대한 불안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1) 2007년 외국인 투자실현

인도네시아의 2007년 외국인투자 실현은 982건의 투자프로젝트에 103억 4천 9백 6십만 달러를 기록하여, 투자실현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6년에는 867건 59억 7천 7백만 달러의 투자실현이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116건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73.2%가 증가하였다. 주요 투자국의 최대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교통 및 운송보관분야에 8건 28억 2천 3백 9십만 달러, 영국은 화학 및 제약분야에 4건 13억 1천 2백 6십만 달러, 한국은 금속・기계 및 전자분야에 27건 3억 5천 8백 7십만 달러, 일본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분야에 16건 2억 4천 2백 4십만 달러, 대만은 제지 및 인쇄분야에 2건 4억 1천 7백 9십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표 2-56> 외국인투자 실현실적

	2006년		2007년		증감	
투자실현	건수	금액 (백만달러)	건수	금액 (백만달러)	건수(건)	금액(%)
	867	5,997.0	983	10,346.6	116	73.2

주: 금융 및 석유가스분야 투자통계 제외
자료: .인니 투자조정원(BKPM)

<표 2-57> 2007년 주요 국가별 투자실현 동향

순위	국가	건수	금액(백만달러)	점유율(%)
1.	싱가포르	124	3,748.0	36.2
2.	영국	63	1,685.8	16.3
3.	한국	164	627.7	6.1
4.	일본	113	618.2	6.0
5.	대만	33	469.7	4.5
6.	세이셀	3	281.0	2.7
7.	마우리티우스	7	223.9	2.2
8.	말레이시아	56	217.3	2.1
9.	호주	26	195.3	1.9
10.	브라질	2	165.1	1.6
전체		983	10,349.6	100

자료: 인니투자조정원(BKPM).

(2) 2007년 외국인 투자승인

2007년 외국인 투자승인은 1,976건 401억4천5백8십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의 1,718건 156억5천9백1십만 달러와 비교하여 약 2.5배나 증가하였으며, 투자실현과 마찬가지로 1967년 투자승인 통계 집계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표 2-58> 2007년 외국인투자 승인실적

투자승인	2006년		2007년		증감	
전체	1,718	15,659.1	1,976	40,145.8	258	156.4
신규	1,468)	4,627.5	1,689	16,308.8	221	252.4
증액	420	5,919.0	467	9,916.8	47	67.5
변경	250	5,112.6	287	13,920.2	37	172.3

주: 금융 및 석유가스분야 투자통계 제외, 건수는 신규+변경 / 금액은 신규+증액+변경.
자료: .인니 투자조정원(BKPM).

국가별로는 미국 38건 133억1천8백9십만 달러, 상가포르 308건 55억7천1백4십만 달러, 말레이시아 202건 23억5천6십만 달러, 세이셀 9건 16억1백4십만 달러, 영국 112건 10억3천4백6십만 달러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은 400건 8억9천5백3십만 달러로 전체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화학 및 제약분야에서 131억6천54십만 달러의 투자승인을 받는 등,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체 투자 승인액의 55%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매년 1억에서 4억 달러 정도의 투자승인만 받아서 인니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으나, 2007년 투자승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표 2-59> 2007년 주요 국가별 투자승인 동향

순위	국가	건수	금액(백만달러)	점유율(%)
1.	미국	38	13,318.9	33.2
2.	싱가포르	308	5,571.4	13.9
3.	말레이시아	202	2,350.6	5.9
4.	세이셀	9	1,601.4	4.0
5.	영국	112	1,034.6	2.6
6.	중국	121	899.5	2.2
7.	한국	400	895.3	2.2
8.	네덜란드	57	645.0	1.6
9.	일본	56	603.4	1.5
10.	태국	7	328.3	0.8
	전체	1,976	40,145.8	100

자료: 인니투자조정원(BKPM).

(3) 투자동향에 대한 평가

2007년 외국인투자는 실현 및 승인 부문 모두 건수나 금액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호조는, 투자 실현부문에서는 싱가포르의 교통 및 운송보관부문(28억2천3백9십만 달러)에 대한 투자와 영국의 제지 및 인쇄부문(13억1천2백6십만 달러)에 대한 투자가, 투자

승인 부문에서는 미국의 화학 및 제약부문(131억6천54십만 달러)의 대형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표 2-60> 연도별 외국인 투자실현 및 승인 동향

연도	투자실현		투자승인	
	건수	금액($백만)	건수	금액($백만)
2001	454	3,509.4	1,390	16,375.4
2002	442	3,082.6	1,253	9,991.3
2003	469	5,445.3	1,246	14,300.8
2004	547	4,572.1	1,253	10,470.1
2005	908	8,916.9	1,649	13,635.8
2006	869	5,977.0	1,718	15,659.1
2007	983	10,349.6	1,976	40,.145.8

자료: 인니 투자조정원(BKPM).

2008년에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나 인도네시아 경제는 6.2~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등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7%까지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법과 광산법 등 투자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투자 진출시 유의 사항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의 문제점은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높은 해고비용[51])), 급격한 인건비 상승(초과근무수당의 누진제 적용), 인프라 부족(도로, 항만 등 인프라 설비 부족 및 낙후),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잦은 테러로 인한 치안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시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합작파트너 선정시 주의해야 한다. 합작투자가 불가피할 시 합작투자자의 회사 재산 횡령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서의 구체화 내지 모

51) 인도네시아의 근로자 채용 및 해고 용이성은 OECD 국가에 비하여 2배 정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 투자시 기술을 전수받은 후에는 결별 선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세부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공장부지로 선정할 경우에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으며, 인근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노무관리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큰 소리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가르쳐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시 가급적 실용신안, 상표출원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미리 받거나 대비책을 세운 후 상품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판매관리 면에서는 어음, 수표대금 결제 시 자주 부도가 발생되고, 부도시 우리나라와 같이 큰 구속력이 없으므로 수표 거래 시 주의가 요망된다.

투자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유능한 한국 직원을 파견하여 단기간 내에 조직 및 관리에서 경영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노사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를 현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추후 분쟁 시에 대비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토록 항상 신경을 써야한다.

라) 한국의 투자현황

(1) 최근 투자동향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승인은 400건 8억 9천 530만 달러, 투자실현은 164건 6억 2천 77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61> 연도별 한국의 대인니 투자실현 및 승인동향

연도	투자실현		투자승인	
	건수	금액($백만)	건수	금액($백만)
2004	60	63.1	212	420.4
2005	101	429.5	309	417.3
2006	140	475.7	312	887.2
2007	164	627.7	400	895.3

자료: 인니 투자조정원(BKPM)

우리나라의 대인니 투자는 양국가의 경제협력 강화활동과 맞물려 실현 및 승인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우리나라기업의 인도네시아 관심 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투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투자 분야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101건, 5억8천만 달러였으며, 서비스 산업 분야는 59건, 4천만 달러, 1차 산업 분야는 4건, 7백5십만 달러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규모로는 금속/기계/전자산업이 27건, 3억 5,870만 달러로 최대 투자업종이었으며, 이어서 화학/제약산업이 3건, 1억2천만 달러, 섬유 36건, 5,300만 달러로 뒤를 따랐다. 투자건수로는 무역서비스 부문이 44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건수를 기록하였다.

<표 2-62> 2007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현황(실현기준)

산업분야	투자건수	투자금액(USD 천)
Food Crops & Plantation	-	100
Livestock	-	-
Forestry	-	-
Fishery	1	500
Mining	3	6,900
1 차산업 소계	4	7,500
Food Industry	3	4,900
Textile Industry	36	53,000
Leather Goods Industry	7	20,200
Wood Industry	4	3,200
Paper & Printing Industry	2	4,900
Chemical & Pharmaceutical	3	120,500
Rubber & Plastic Industry	9	4,800
Non Metalic Mineral Industry	1	1,000
Metal, Machinery, Electronics Industry	27	358,700
Vehicel & Transport Equipment	2	2,700
Other Industry	7	5,500
2 차산업 소계	101	580.200
Construction	2	2,400
Trade & Reparation	44	27,600
Transport, Storage	4	1,400
Real Estate, Industrial Estate	1	2,300
Other Service	8	6,300
3 차산업 소계	59	40,000
전 체	164	627,700

자료: 인니 투자조정원(BKPM).

(2) 주재국내 한국투자진출 기업동향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은 인도네시아 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원, 건설, SOC 등 기간산업 분야에 이어 최근 들어 IT 분야에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3) 주재국 한국투자진출 기업의 영업특징 및 패턴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생산, 해외수출이 인니투자 초기형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 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내수판매의 경우에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서부 자바 일부에 판매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둘째, 현지진출 대기업과 동반진출이다. LG, 삼성 등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동 업체에 부품 및 중간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동반 진출한 경우도 100개 업체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초기에는 현지 진출 대기업에만 납품하는 형태였으나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수 및 해외로 시장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셋째, 내수시장 공략 형태이다. 최근 인니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소비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소비자 구매력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을 통해 현지 소비 계층의 분화에 대비하고 아울러 전국적 판매망 확보 및 판매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현지화 강화 형태이다. 필요시설과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조달, 조립, 생산하는 경우,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현지 투자수요 및 기호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인니의 공업화와 함께 단순조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산업분야는 부품과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니 투자도

인니에서의 R&D 비중을 높이고 현지부품 조달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현지 시장 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아울러 투자기업의 중요 직책(중간 관리자 등)에 현지인을 채용하고 현지인들은 관리하는 등 경영의 현지화도 진척되고 있다.

(4) 한국기업 유망 투자 분야 및 진출 전략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에 대한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인건비 및 노동법 문제로 현재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충분한 양질의 노동력이 상존하는 만큼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선별적 투자 허가,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대체 지역으로 투자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

현지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제조업 투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석유 화학, 식품 가공, 전기, 전자, 금속 가공, 목재 가공 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쟁우위 분야인 IT, 통신 분야, 관광, 운송,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시장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도로 등 인도네시아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 사업이나 발전소, 정유소 등도 유망 투자분야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05년 초에 인프라 개선을 정부의 우선과제로 삼고, 주요 프로젝트를 대통령 주재하의 인프라서미트 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2006년에도 제2차 인프라서미트를 준비 중에 있다.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원유, 천연가스, 석탄, 동광, 주석 등 지하자원과 목재, 팜 오일 등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산림 및 농산자원을 개발하는 자원개발 투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투자진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및 유통전략 혁신으로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함께 소비시장이 확대추세에 있으며 소비자 구매력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공략을 위하여 다양한 가격

대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지 소비계층의 분화에 대비하고, 아울러 전국적 판매망 확보 및 판매 전략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화로 사업기반 정착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공업화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순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외국기업에게 부품과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괄생산 방식으로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R&D 비중을 높이고 현지부품 조달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현지시장 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아울러 투자기업의 주요 직책(중간 관리자등)에 현지인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현지인들을 관리하는 등 경영의 현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역내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장 확대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제3국에 판매하는 단선적 생산 및 판매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AFTA 발효 등 아세안내 역내분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투자진출 업체의 생산 및 판매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장에서 한국기업이 동남아 각국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분산시키는 네트워크형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남아 각국별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각국에 알맞은 투자부문을 찾아내고, 생산 및 판매도 동남아 전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검토함은 물론, 나아가 연구개발 기능까지 통합하는 방향으로 투자방식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말레이시아

가) 투자환경[52]

(1) 개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 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규제 철폐는

52) 코트라 말레이시아 투자핵심가이드. 대륙별 국가정보.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물론 투자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여 투자액이 2006년 57.3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로 76.2% 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의 2004년 FDI 유입액은 47.3억 달러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0여개국의 다국적기업들이 3,000 개 이상의 제조 프로젝트에 투자하였고 5,000개사 이상의 외국인투자업체가 현재 진출해 있다.

<표 2-63> 최근 외국인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외국인투자액	4,731	5,730	10,098

자료: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2) 기업 우호환경 정도 및 개선노력

세계은행(World Bank)의 2008 사업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사업경영환경 평가에서 178개국 중 24위를 차지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투자가보호 평가항목에서는 4위를 차지하는 등 사업 환경이나 투자환경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개업은 74위, 면허(라이센스)의 처리는 105위, 자산 등록은 67위 등 행정절차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어 행정절차가 느리고, 불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입 선적 비용이 지역 대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의 투명성을 포함한 투자가 보호, 자기거래에 대한 책임, 직권남용 경영진을 고소하는 주주 권리 등은 지역대비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의 만연에 따른 투자 진출시 시간 지연, 불필요한 비용 소모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 증가로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료주의 개선을 위해 말레이어로 비즈니스 지원 태스크 포스팀을 의미하는 'Pemudah'를 2007년 2월부터 가동하였다. 이 태스크 포스팀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월내 관료주의 개선안을 제출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Pemudah'의 활동을 통해 관료주의 개선,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나) 외국인직접투자 개황

2005~06년에는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말레이시아 유전 탐사 및 석유화학 산업 투자 증대와 대중국 진출 외국인투자자들의 일부 말레이시아 복귀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투자가 다시 급증하였다. 2005년의 경우 2004년 대비 36.6% 증가한 총 179억 링깃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고 2006년에도 이러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202억 링깃을 기록하였다.

<표 2-64> 1억 링깃 이상 투자 프로젝트 현황

(단위: 링깃)

산업	건수	국내투자(링깃)	해외투자(링깃)	총 투자액(링깃)
석유(석유화학포함)	5	10,806,960,000	600,000,000	11,406,960,000
전기・전자	18	913,240,000	7,908,488,331	8,821,728,331
화학 및 화학제품	27	2,782,696,283	1,705,216,515	4,487,912,798
기초 금속	2	138,470,975	2,091,445,982	2,229,916,957
비금속 광물	2	-	801,380,944	801,380,944
식료품 제조	4	122,784,000	650,057,140	772,841,140
운송 기계	3	636,389,271	113,200,000	749,589,271
섬유류	2	530,000,000	100,375,000	630,375,000
과학측정기기	2	26,102,760	581,420,640	607,523,400
합성금속	2	172,725,000	357,775,000	530,500,000
가구 및 가구류	3	268,372,000	214,228,000	482,600,000
기계 및 장비류	3	-	364,150,000	364,150,000
종이, 인쇄 및 출판	2	213,042,700	-	213,042,700
고무 제품	1	69,690,000	81,810,000	151,500,000
플라스틱 제품	1	-	124,113,000	124,113,000
합계	77	16,680,472,989	15,693,660,552	32,374,133,541

주: 환율 US$ 1=RM 3.4(2007.5월).
자료: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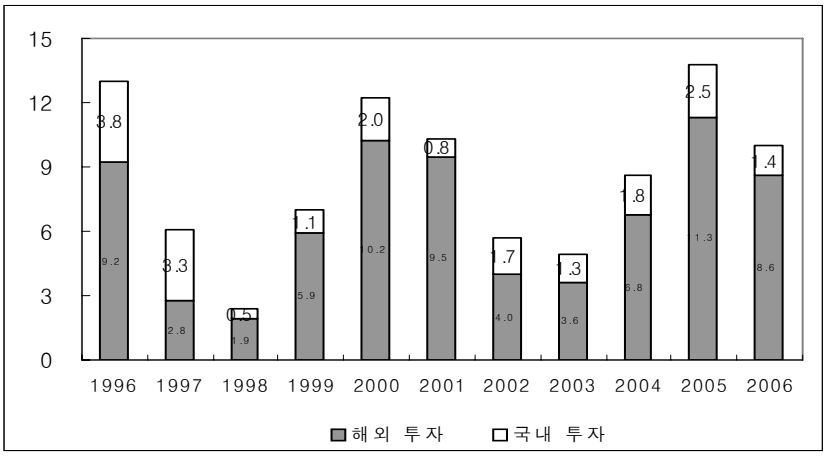
다)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1) 전기·전자산업, 외국인투자의 43% 점유

2006년도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43%에 해당하는 86억 링깃을 기록하였고 그 동안의 누적 외국인투자는 800억 링깃을 초과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기・전자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페낭주 전기・전자 복합단지 및 세렘반주의 지방 산업단지조성과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3> 최근 10년 간 전기·전자 산업의 투자 승인 현황

(단위: 십억 링깃)



자료: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2)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표 2-65> 2005/2006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 링깃)

주요 산업	2005		2006	
	외국인투자	전체 투자액 (국내투자 포함)	외국인투자	전체 투자액 (국내투자 포함)
전기·전자	11,319	13,794	8,601	10,024
화학 및 화학제품	869	1,721	3,032	9,144
기초금속	430	3,205	2,288	2,724
광물	596	922	962	1,167
음식	532	1,457	895	1,620
플라스틱	595	1,180	757	1,135
과학측정기기	1,364	1,427	665	781
기계	570	1,027	657	1,267
합성금속	251	759	616	1,326
석유(석유화학포함)	133	735	605	11,438
투자총액	17,883	31,057	20,228	45,993

자료: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표 2-66> 최근 5년간 산업별 제조업 투자 누계(국내 및 외국인투자)

(단위: 백만 링깃)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2006
식료품 제조	1,221	1,077	1,116	1,457	1,620	6,492
음료 및 담배	98	16	377	94	63	648
섬유 및 섬유제품	197	293	824	374	821	2,509
가죽 및 가죽제품	41	6	18	9	1	75
나무 및 나무제품	459	1,085	897	360	983	3,785
가구류	305	313	344	512	411	1,884
종이, 인쇄, 출판	314	254	4,723	954	688	6,933
화학 및 화학제품	919	955	3,009	1,721	9,144	15,748
석유 및 석유화학	4,866	444	1,902	735	11,438	19,385
고무	382	211	385	773	715	2,466
플라스틱	536	877	683	1,180	1,135	4,412
비금속 광물	476	454	775	922	1,167	3,792
기초 금속	364	8,711	1,925	3,205	2,724	16,929
가공 금속	475	1,295	1,195	759	1,326	5,049
기계 제조	707	639	407	1,027	1,267	4,047
전기 전자	5,651	4,978	8,627	13,794	10,024	43,073
운송장비	698	6,979	1,324	1,416	1,448	11,866
과학측정 장비	95	463	82	1,427	781	2,848
기타	74	97	159	338	237	904
합계	17,878	29,145	28,773	31,057	45,993	152,845

자료: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3) 2006년 국별 대 말레이시아 제조업 투자 동향

2006년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부문 총 해외 투자 유치액은 202억 링깃을 기록하였는데, 일본(44억 링깃), 네덜란드(33억 링깃), 호주(26억 링깃), 미국(25억 링깃), 싱가포르(19억 링깃) 등 투자규모 상위 5개국의 투자 총액은 146억 링깃을 기록해, 전체 투자 유치액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67>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제조업 부문

(단위: 백만 링깃)

주요 투자국	2004		2005		2006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일본	85	1,011	84	3,672	81	4,411
네덜란드	9	99	26	1,674	13	3,284
호주	12	117	12	156	20	2,560
미국	27	1,059	43	5,155	38	2,477
싱가포르	161	1,515	130	2,920	130	1,885
Cayman Island	3	57	2	154	2	861
British Virgin Islands	6	115	3	13	6	648
영국	11	151	11	99	17	642
레바논	-	-	-	-	1	562
한국	25	325	24	674	18	438
투자총액	-	13,144	-	17,883	-	20,228

주: 위는 2006년도 기준

자료: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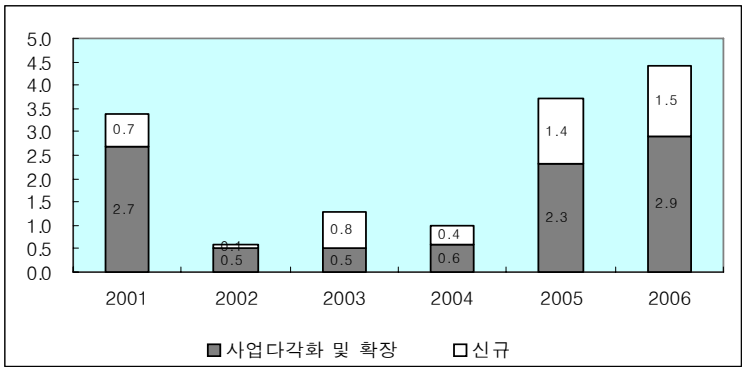
라) 외국기업 투자 동향

(1) 일본, 제조업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

일본은 2005년 36억7천만 링깃을 말레이시아에 투자해 51억6천만 링깃을 투자한 미국에 이어 투자 규모면에서 2위를 기록하였다. 2006년 투자액은 44억1천만 링깃을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약 50% 이상 투자액이 감소한 미국을 크게 추월하면서 말레이시아 최대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고 연도별 투자액은 2004년 10억 링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 일본의 투자액 44억1천만 링깃은 1996년 이래 최대 규모로 일본이 참여한 총 81건의 프로젝트 중 20건(15억 링깃)이 신규투자이며, 61건(29억 링깃)은 재투자 및 사업다각화 투자이다.

<그림 2-4>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제조업 부문

(단위: 십억 링깃)



자료: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마) 한국의 투자현황

(1) 산업별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 통계

<표 2-68> 산업별 대말레이시아 투자통계

(단위: RM)

산업	2007년(1～9월)		2006년		2005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전기・전자	9	825,653,807	3	23,322,984	9	449,559,787
석유제품	0	0	0	0	1	90,896,000
운송장비	1	6,496,833	1	3,258,912	6	48,695,000
기계제조	1	2,730,000	0	0	1	34,260,000
플라스틱	1	525,000	0	0	3	25,745,401
기초 금속제품	1	15,200,000	4	50,524,035	2	18,318,469
목제 및 목재관련	0	0	1	150,220,000	2	6,117,600
종이, 인쇄, 출판	1	47,500,000	0	0	0	0
화학 및 화학관련	0	0	2	195,827,500	0	0
고무제품	0	0	0	0	0	0
비금속 광물제품	0	0	1	1,900,000	0	0
합성금속제품	1	4,300,000	4	9,228,950	0	0
식품	2	2,910,600	2	3,532,733	0	0
합계	17	905,316,240	18	437,825,114	24	673,592,257

주: 환율 1$=3.3305 RM(2007.12.17).

자료: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4) 베트남

가) 투자환경[53]

(1) 일반 투자환경

베트남은 최근 세계적 생산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적격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각 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의 투자환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2-69> 유망시장 20개국의 부문별 지수 현황

순위	제조 부문		서비스 부문	
	지수	국가	지수	국가
1	95	베트남	95	아랍에미레이트
2	95	중국	70	사우디아라비아
3	94	폴란드	61	한국
4	93	칠레	56	체코
5	93	말레이시아	55	헝가리
6	91	태국	54	폴란드
7	89	인도	39	러시아
8	90	남아공	36	칠레
9	89	헝가리	32	카자흐스탄
10	88	사우디아라비아	32	말레이시아
11	86	러시아	29	멕시코
12	86	브라질	22	브라질
13	85	인도네시아	20	남아공
14	82	카자흐스탄	17	중국
15	80	멕시코	17	태국
16	75	터키	16	터키
17	64	체코	5	베트남
18	62	아르헨티나	5	인도
19	42	한국	5	인도네시아
20	26	아랍에미레이트	5	아르헨티나

자료: The PwC EM20 Index, July 2007

PwC(Price water houseCoopers)가 유망시장 20개국의 투자여건을 조사, 발표한 EM20 Index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국가 중 베트남이 가

53) 코트라 베트남 투자핵심가이드. 대륙별 국가정보. 주 베트남 대사관.

장 유망한 제조업 투자지로 선정되었다. 낮은 비용에 따른 높은 생산 경쟁력, 높은 수익 가능성이 1위 요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저렴한 인건비,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에 따른 안정성, 8%대의 고도성장, 8천 6백만에 이르는 인구로 인한 빠른 내수시장 확대 등이 있었다.

즉, 베트남 투자의 장점은 정치사회적 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 노동관리 및 환율의 변동성, 풍부한 천연자원과 무한한 잠재성, 우수한 인적자원 및 미래형 인구구조(문맹률 10% 미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장려 분야인 첨단기술산업, 수입대체 산업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법인세 우대 등) 등이다. 베트남은 2007년 초 WTO 공식 가입, 미국의 대베트남 PNTR(항구적 무역 정상관계) 지위 부여로 대선진국 수출 전진기지 및 ASEAN 시장의 생산거점지로 유망하다.

베트남 투자의 단점은 최근 파업으로 인해 노동관리 부분이 미약해졌으며 연구 및 기술자, 사회간접자본, 기반 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반면 종업원 의사소통 능력, 조세제도, 투자규정의 투명성 등은 중국보다는 우위이나 아세안/인도에 비해서는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0> 투자 여건 비교표

비교 항목	아세안 / 인도	베트남
정치사회적 안정성	+ 48.0	+ 73.8
노동 관리	+ 31.3	+ 48.3
환율 변동성	- 3.4	+ 28.1
종업원의 의사소통 능력	+ 43.6	+ 20.3
조세 제도	+ 28.8	+ 7.0
투자규정의 투명성	+ 37.6	+ 6.9
지적재산권 보호	+ 23.9	- 6.9
통관 절차	+ 29.9	- 7.0
연구 및 기술인력 수준	- 10.1	- 20.7
사회간접자본	+ 1.8	- 74.6
기반 산업	- 31.1	- 85.2

주: 중국과 비교하여 우위일 경우 +, 열위일 경우 -로 표시.
자료: JETRO 아세안 6개국 투자환경보고서 2006.

(2) 일본 JETRO의 평가

아직까지 베트남 정부기관이나 서비스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이 낮은 상태이며, 투자환경의 개선과 동시에 관련법과 규정의 투명하고 일관된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각종 부품 등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기반 산업의 낮은 수준이 베트남으로의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증가함에 따른 앞으로 생활 및 경영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JETRO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6개 산업 중 4개 산업(전기전자부품, 전기전자장비, 운송기기, 플라스틱산업)에서 태국과 베트남이 인기였다. 베트남은 특히 전기전자장비 부문에서 1위, 운송기기 및 플라스틱산업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운송기계 부품 분야에서도 상위 3개국 안에 포함되었으나, 화학산업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외국인 투자 동향

(1) 최근 동향

베트남으로의 외국인투자는 누계기준으로 2007년 10월까지 총 8,166건 74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간으로는 2007년도 10월 현재 1,144건, 97.5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328건 24.2억 달러로 외국투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 대만, 일본, 홍콩 등이 있다.

<표 2-71> 연도별 외국인의 대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0)
투자건수	752건	723건	798건	833건	1,144건
투자금액	1,928.5	2,222.15	4,002.7	7,839.0	9,753.5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표 2-72> 국가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1998~2007. 10. 22 누계			2007. 1~10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한국	1,655	11,546.03	2946.3	328	2,442.02	897.13
싱가포르	529	9695.53	4,068.67	71	1,377.31	444.34
대만	1,739	9,655.48	3,172.62	169	975.32	405.17
일본	903	8,772.11	5,202.94	131	657.48	223.59
홍콩	432	5,685.21	2,326.12	48	162.53	70.08
버진아일랜드	323	,5,160.64	1,443.54	43	1,737.74	683.02
미국	361	2,652.22	784.72	50	258.64	139.89
네덜란드	81	2,582.04	2,241.94	9	144.34	101.56
프랑스	191	2,396.23	1,152.94	15	136.09	93.84
말레이시아	232	1,854.74	1,136.17	32	152.31	91.32
합계	8,166	74,766.00	30,961.46	1,144	9,753.53	3,809.27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3) 국가별 투자동향

싱가포르와 일본의 프로젝트 단위별 투자금액이 높다. 싱가포르의 경우 호텔, 공단 개발 등 부동산 개발관련 투자가 많고 일본은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자본집약적 제조부문 투자가 높은 것에 반해, 한국, 대만의 경우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2-73> 대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US$백만)

국가명	2006. 12. 20 현재 누계			2006.1～12.20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대만	1,550	8,112.35	2,972.20	115	218.14	124.33
싱가포르	452	8,076.01	3,685.79	52	270.47	93.84
한국	1,263	7,799.43	2,606.05	207	2,426.00	936.54
일본	735	7,398.91	4,823.54	137	996.22	378.76
홍콩	375	5,279.52	2,132.56	21	1,142.01	396.08
버진아일랜드	275	3,225.64	1,366.20	18	338.28	83.51
네덜란드	74	2,365.34	2,029.34	11	100.91	38.17
프랑스	178	2,197.72	1,128.42	18	36.11	18.01
미국	306	2,111.46	657.25	51	769.76	512.53
말레이시아	201	1,648.35	995.62	18	16.53	10.44
기타	1,404	12,258.96	6,386.31	185	1,524.57	715.64
합계	6,813	60,473.69	28,783.28	833	7,839.00	3,307.85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4) 분야별 투자현황

한편 누계기준 업종별 외국인 투자 비중을 보면 중공업이 189억 달러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공업이 97억 달러로 16%, 아파트 및 오피스 건설업이 44.3억 달러로 7%, 건설 산업이 41.7억 달러로 7%로 나타났다.

<표 2-74> 대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US$백만)

		2006. 12. 20 현재 누계			2006. 1 ~12. 20		
연번	구분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투자금액	법정 자본금
I	공업, 산업	4,602	38,010.68	19,858.30	552	5,267.06	2,202,35
1	석유, 가스 산업	31	1,993.19	5,452.56	4	106.60	106.60
2	경공업	1,933	9,702.13	3,484.31	244	4,161.82	1,656,70
3	중공업	2,007	18,897.27	6,826.90	250	801.09	369,17
4	식품공업	275	3,252.94	1,958.63	14	77.36	25.00
5	건설업	356	4,165.16	2,135.89	40	120.19	44.88
II	농업, 수산업, 임업	831	3,884.83	1,914.77	59	127.19	71.43
6	농업, 임업	718	3,558.31	1,749.01	57	124.06	70.10
7	수산업	113	326.52	165.75	2	3.13	1.33
III	서비스업	1,380	18,578.18	7,010.22	222	2,444.75	1,034.08
8	수송 및 통신업	186	3,373.43	720.97	21	449.88	118.11
9	호텔, 여행업	164	3,289.11	2,316.77	14	609.19	426.52
10	금융업	64	840.15	729.87	2	17.00	16.00
11	교육, 건강, 문화산업	226	980.10	381.56	23	65.75	37.98
12	신도시 개발	6	3,077.76	51.29	2	56,18	16.55
13	아파트, 사무실 건설	120	4,433.35	1,859.67	2	526.09	154.24
14	산업단지 개발	20	1,067.35	573.07	11	478.52	157.66
	기타	594	1,516.93	377.01	146	242.15	107.02
	합계	6,764	59,066.48	28,686.12	833	7,839.00	3,307.85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5) 지역별 투자동향

노동집약적 투자의 경우, 최근에는 대부분 빈증, 동나이 등의 위성 산업도시(호치민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집중되고 있다. 호치민, 하노이는 인건비, 토지 값 상승 등으로 기술 집약적 투자 및 서비스투자가 주를 이룬다. 바리아 붕따우는 원유 개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75> 주요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US$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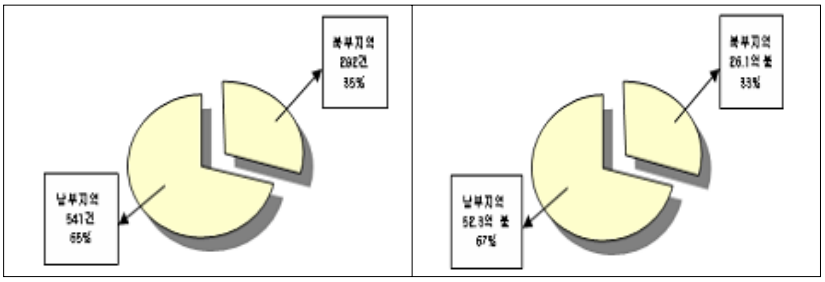
지역	누계(1998~2005)			2005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투자금액
북부지역					
Hanoi	654	9,320	3,402	113	1,280
Hai Phong	185	2,035	1,228	23	203
Vinh Phuc	95	774	414	26	99
Hai Duong	77	720	375	11	86
Thanh Hoa	17	712	410	3	7
Quang Ninh	76	575	312	13	51
Ha Tay	43	426	220	5	4
Phu Tho	40	287	206	1	1
Bac Ninh	41	268	158	14	60
Nghe An	17	255	109	4	10
Thai Nguyen	19	210	23	-	-
Hung Yen	56	188	117	12	16
소계	1,491	16,324	7,112	246	1,867
남부지역					
Hochiminh City	1,869	12,240	6,056	281	430
Dong Nai	700	8,495	3,842	91	431
Binh Duong	1,083	5,032	1,862	168	392
Ba Ria-Vung Tau	120	2,896	1,254	14	722
Long An	102	766	331	15	65
Da Nang	75	483	164	17	89
Kien Giang	9	454	584	-	-
Khanh Hoa	62	402	305	8	10
Tay Ninh	108	397	184	29	60
Phu Yen	34	248	68	5	83
Quang Nam	37	235	57	2	7
소계	4,512	32,802	15,332	675	2,380
해안지역					
Offshore oil-gas exploitation	27	1,891	5,542	1	20
소계	27	1,891	5,542	1	20
합계	6,030	51,018	27,986	922	4,268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2006년도 대베트남 외국인투자는 투자승인 금액기준, 남부지역이 52.3억 달러로 67%를, 북부지역이 26.1억 달러로 33%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5년도 외국인투자가 북부지역 위주로 투자된 것과는 대비된다. 또한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도 전체 외국인투자 건수 총 833건 중 약 65%에 달하는 541건이 남부지역에 투자되었다. 나머지 35%인 292건이 북부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승인 금액기준 주요 지역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외국인투자의 최대 투자 지역은 바지아 붕따우(Baria-Vung Tau) 지역으로 21%가 투자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호치민시가 15%, 빈증엉이 10%로 남부 주요 투자지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2006년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지역별 비중(건수, 금액 기준)



반면 북부지역 중에는 하노이 인근 하떠이(Ha tay) 지역이 10%, 하노이와 하이즈엉(Haiduong) 지역이 각각 10%를 차지하였으며 중부 꽝아이(Quang Ngai) 지역은 케이먼 군도의 5.6억 달러 규모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힘입어 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6> 2006년도 베트남 주요 지역별 외국인투자현황

지역명	투자금액(백만 달러)	투자건수
Baria-Vung Tau	1,694	19
HCMC	1,203	195
Hatay	805	17
Binh Duong	769	169
Quang Ngai	556	1
Hanoi	541	115
Haduong	511	32
Dong Nai	274	69
Lao Cai	208	6
Da Nang	203	9
Other Area	1,075	201
TOTAL	7,839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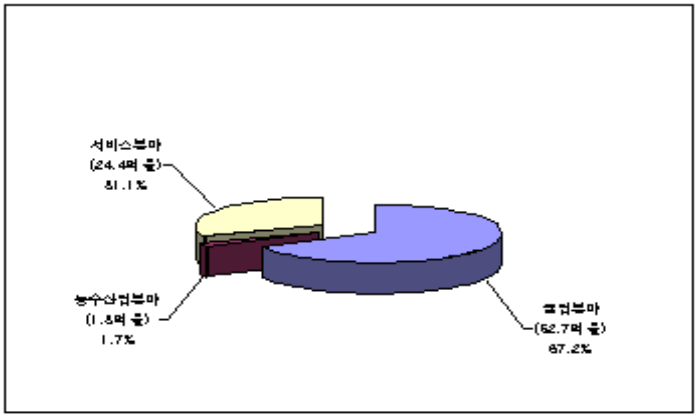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투자계획부(MPI).

(6) 2006년 투자동향

2006년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는 신규투자가 78.4억 달러로 2005년도의 40억 달러 대비 96%가 증가하였으며 재투자의 경우도 26억 달러로 2005년도의 18억 달러 대비 44.4%의 증가를 보여 사상 최고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 따라서 신규투자와 재투자를 모두 합할 경우 베트남의 2006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104.4억 달러를 보였다.(베트남 정부는 12월 18일 기준, 102억 달러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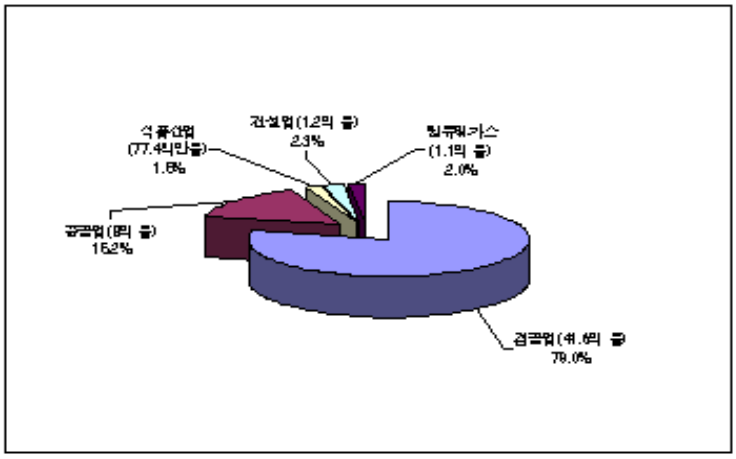
베트남 투자국 중 한국은 2006년도 한해 26.8억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투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홍콩이 11.4억 달러로 2위, 일본이 10억 달러로 3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투자액은 28.4억 달러인데 이는 홍콩을 경유하여 투자된 금호타이어 투자실적 1.6억 달러가 홍콩 투자실적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베트남 투자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의 경우 7.7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도의 1.5억 달러에 비해 무려 5배의 투자증가를 보였다.

<그림 2-6> 2006년도 베트남의 분야별 외국인 투자비중



2006년도 외국인투자는 공업 분야에 52.7억 달러로 연간 총 투자의 67.2%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의 60% 및 2004년도의 62% 비중보다 증가하여 2006년도 대베트남 외국인투자가 제조업 등 공업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 분야에는 31.1%인 24.4억 달러가 투자되어 2004년도의 24%보다는 높지만 2005년도의 37%보다는 낮아졌다. 아울러 농·수산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1.7%에 그쳐 2004년도의 14%, 2005년도의 3%에 이어 투자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공업 분야 중에서는 경공업 분야 투자가 전체의 79%를 차지하여 아직도 대베트남 외국인투자가 싼 인건비를 활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업종별로는 중공업이 15.2%, 건설업이 2.3%, 원유 및 가스산업이 2%, 식품산업이 1.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2-7> 2006년도 베트남의 공업분야 외국인 투자현황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호텔 및 관광분야 투자가 6.1억 달러로 24%를 차지하여 외국인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 건설이 5.3억 달러로 22%를 차지하였다. 산업공단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도 4.8억 달러로 20%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국의 투자현황

(1) 최근 동향

2007년 10월말 현재 328건, 24.4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7년 한 해 뿐만 아니라 1988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도 베트남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WTO 가입, 한베(아세안) FTA 체결 등의 무역환경 개선, 그리고 중국의 상대적인 투자환경 악화로 인하여 향후 우리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7> 최근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0)
건수	149	171	170	190	207	328
자본	269.5	343.6	377.4	551.6	2,683.0	2,442
평균자본	1.8	2.0	2.2	2.9	12.9	6.7

<표 2-78> 국가별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과 실행금액

(단위: 건, 백만 달러)

국가명	1998~2007.10.22 누계			2007.1~10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한국	1,655	11,546.03	2946.3	328	2,442.02	897.13
싱가폴	529	9,695.53	4,068.67	71	1,377.31	444.34
대만	1,739	9,655.48	3,172.62	169	975.32	405.17
일본	903	8,772.11	5,202.94	131	657.48	223.59
홍콩	432	5,685.21	2,326.12	48	162.53	70.08
버진아일랜드	323	5,160.64	1,443.54	43	1,737.74	683.02
미국	361	2,652.22	784.72	50	258.64	139.89
네델란드	81	2,582.04	2,241.94	9	144.34	101.56
프랑스	191	2,396.23	1,152.94	15	136.09	93.84
말레이시아	232	1,854.74	1,136.17	32	152.31	91.32
합계	8,166	74,766.00	30,961.46	1,144	9,753.53	3,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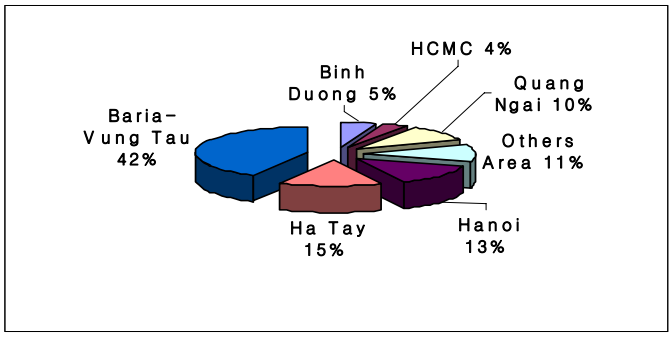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

2006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금액의 67%인 18.1억 달러가 남부지역에 투자되었으며, 33%인 8.8억 달러가 북부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OSCO 제철소 건설 투자 및 두산 중공업의 중공업공장 건설투자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남부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투자지역을 살펴보면 제철소 건설투자가 예정된 Baria-Vung Tau(바지아 붕따우)지역이 전체 투자액의 4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북부 하타이(Ha Tay) 지역이 15%, 수도인 하노이 지역이 13%의 비중을 보여 투자 1~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호치민시는 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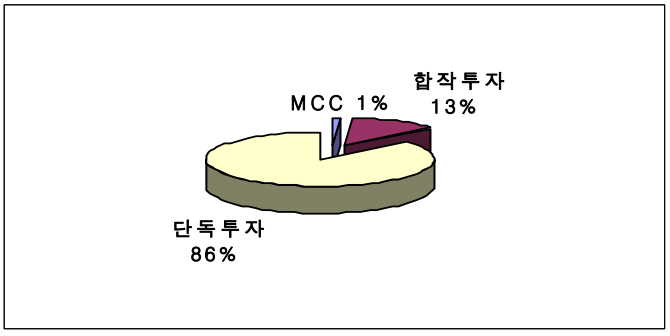
2006년 한국의 베트남 투자지역별 비중(금액 기준)을 보면 Baria-Vung이 42%로 가장 큰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13%로 Hanoi, 10%의 Qaung Ngai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2006 한국의 베트남 투자지역별 비중(금액기준)



2006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지역별 비중은 베트남의 남부에 67%를, 북부에는 33%투자하여 남부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유형을 살펴보면, 단독투자가 86%로 집계되었으며, 합작투자가 13%, MCC 형태는 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2006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유형



<표 2-79> 2006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지역별 투자현황

투자지역	투자건수(건)	투자승인액(US$)
북부지역		
Bac Giang	3	4,000,000
Bac Ninh	2	5,500,000
Ha Nam	3	7,400,000
Hanoi	34	341,087,463
Ha Tay	7	413,301,667
Hai Duong	3	7,800,000
Hai Phong	3	31,989,008
Hung Yen	13	56,792,840
Phu Tho	2	2,200,000
Quang Ninh	1	5,000,000
Thanh Hoa	1	650,144
Vinh Phuc	3	9,556,321
북부지역 소계	75	875,721,122
남 부 지 역		
HCMC	48	109,762,639
Dong Nai	18	82,304,688
Binh Duong	48	143,338,068
Binh Phuoc	8	31,485,440
Baria-Vung Tau	2	1,133,000,000
Danang	2	42,083,459
Lam Dong	2	1,300,000
Long An	2	3,500,000
Quang Ngai	1	260,000,000
Tay Ninh	1	500,000
남부지역 소계	132	1,807,274,294
총 계	207	2,682,995,416

자료: 베트남 투자계획부(MPI).

한편 2006년 우리나라의 베트남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전체투자의 55%가 제철소 건설, 철 구조물 공장 건설 등 중공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다음으로 신도시 건설 투자가 20%를 차지하였고 호텔 및 아파트 건설 분야도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3개 분야가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80> 2006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업종별 투자현황

투자업종	투자금액(백만 달러)	투자건수(건)
중공업	1,483,247,884	44
경공업	219,234,205	85
식품산업	4,660,000	6
서비스산업	99,046,652	29
우편통신교통 분야	3,500,000	2
호텔, 관광업	23,000,000	2
농수산업	15,416,000	10
문화보건의료산업	11,139,500	6
건설산업	36,520,000	16
신도시건설분야	526,090,672	2
호텔 및 아파트 건설분야	261,140,503	5
총계	2,682,995,416	207

자료: 베트남 투자계획부(MPI).

2006년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액 26.8억 달러 중에서 11개 주요 프로젝트 투자액은 21.2억 달러로 전체 투자에서 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11개 주요 프로젝트 투자 업종을 보면 신도시 건설, 철강, 철구조물, 아파트 건설,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유통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 프로젝트의 베트남 지역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금액 기준 71%가 남부지역에 투자되었으며 29%가 북부지역에 투자되었고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총 11건 중 6건이 북부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1> 2006년도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투자기업명	투자형태	투자금액 (백만 달러)	투자업종	투자지역
THT International Co.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s, Daewon, Dong Il, Keangnam, Kolon	단독	314.12	Construction of New urban area, area:207.66 ha	Ha Noi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Co:Ltd	Doosan	단독	260	Steel	Quang Ngai
Daewon antavil	DAEWON Co., Ltd.	단독	30	Construction of appartment	Da Nang
Viet San Auto Assembly & manufacturing JV	P & H Inc.,	합작	20.6	Assembling truck	Hung Yen
Felix Handicraft Co.	NA	단독	20	thuË cao	Hai Phong
PhuMy Development Co.	SeoulElectronic Distribution Corporation; Electro Land Co:Ltd	합작	36	Golf course "Twin Doves Golf Clup & Resort" and appartment	Binh Duong
DKENC Vietnam	DKENC;Kim'sDevelopm e nt Co.; Fine AM-	단독	22	Golf couse 36 holes	Ha Tay
CTLD Lotte Vina Shopping	LOTTE Shopping Co., Ltd.	합작	50	Wholesales And retails	HCMC
Posco- Vietnam Co.,Ltd.	Posco Co., Ltd,	단독	1,128	Steel	Ba Ria-Vung Tau
Booyoung International Appartment	Booyoung	단독	171,15	Constructon of high-class appartment 30 stories	Ha Tay
An Khanh NewResident Area Co; Ltd	POSCO	합작	60	Construction of new urban area	Ha Tay
소계(11개 프로젝트)			1,118.7		

자료: 베트남 투자계획부(MPI).

5) 태국

가) 투자매력도[54]

태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AFTA가 발효되어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 실시로 인근 국가로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전략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태국 인접 사회주의 국가 시장 진입에 우회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며, 인구 6,524만 명(2004년 말)으로 노동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아세안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2004년 기준 약 2,533달러)으로 내수판매 확대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 외국인투자가들이 수출산업에 집중되어 일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세율 생활용품의 경우 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국은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및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시장개방의 오랜 역사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태국 국민들이 외국투자업체로부터 습득한 기술을 자기 기술화하여 경쟁상대로 부각되는 경향이 적어 외국인기업 운영환경이 여타 아세안 국가보다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1998년 6월 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의 콘도 및 사무빌딩 100%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유통업, 수경농업, 자동차 수리업을 투자혜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태국이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제한 33개 업종을 개방하

54) 코트라 태국 투자핵심가이드. 대륙별 국가정보. 주 태국 대사관.

였다. 태국 내각은 지난 20년 이상 외국인 사업법에 의해 외국인에 금지되었던 33개 업종 개방에 대한 상무부 안건을 1998년 8월 18일 승인하였다.

외국인에 신규로 개방된 업종 중 제조업은 주류 및 음료, 얼음, 성냥, 의류, 내수용 신발, 직물, 비단제품, 전구를 포함한 유리제품, 문방구류, 인쇄용 종이, 흰색 또는 보통 시멘트 및 관련제품, 주방용 그릇 등 14개 업종이다. 서비스 업종은 미용 및 미장원, 냉장창고업, 오락, 사진 및 프린팅, 세탁, 양복점, 골동품을 제외한 경매, 순수 예술 및 수공예, 동물사육, 제재, 낚시, 설탕정제, 소매, 광석 교역, 케이터링, 수출업 등 17개 업종이며, 농산물 선물거래 등 중개업과 건설업도 개방되었다. 그러나 중개업은 초기 투자가 50백만 바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프라 및 통신 시스템과 같이 고기술 및 복잡한 기계 또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건설업은 초기 외국인 투자자본이 50백만 바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참여가 제한된 업종은 48개로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참여제한 1그룹은 치안, 환경, 무기매매, 광고, 출판, 신문발행, 부동산 거래, 제약, 전통공예 등이며, 이들 업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하나 지분의 50% 이상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 참여제한 2그룹은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 법률업, 일반 중개업 등 17개 전문 직종으로 외국인이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태국정부는 외국인 참여제한 업종에 대해 매 2년 1회 이상 개방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월 태국정부는 태국 상업부는 한 회사의 국적을 정의할 때 소유 지분뿐 아니라 주주총회의 의결권도 따져 자국기업인지 외국기업인지를 가리기 위해 외국기업법 개정 추진을 제안,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냈다. 태국은 그동안 주식 소유 구조만을 따져 자국기업인지 여부를 가려왔기 때문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태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태국에는 겉으로는 태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소유와 경영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처럼 '무늬만 자국회사'인 외국계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태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지분과 주주총회 의결권을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외국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정최고자문기관인 '국가안보평의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국내 기업의 소유지분이 50%를 넘는 외국인투자가는 1년 안에, 주주총회 의결권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의결권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다)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

태국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개방도가 높다는 평가이며,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서 외국인투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설립을 컨설팅 하는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내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법규정 확인을 통한 설립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외국인 단독투자가 제한된 업종의 경우 현지인 명의로 기업설립을 추진하는데, 이와 같이 불법적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한다. 현지 종업원 명의로 기업을 설립하였다가 종업원이 공무원과 결탁하여 투자기업에 해를 끼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야 한다. 또한 태국은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하여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근 아세안 국가와의 가격경쟁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IMF이후 임금의 상대적인 안정과 환율 상승(1달러당 25바트 → 35.6 바트, 2007년 2월)으로 인해 노동단가로 인한 투자기업의 경쟁력 저하 현상은 상당히 낮아졌다. 한편 노동법이 1999년 8월 노동자보호법으로 개정되어 노동자 권익보호 정도가 강화되어 고용계약 체결 전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현지기업의 법인세 탈루방지를 위하여 투자기업과 모기업간 이전가격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기업 재무제표 작성

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태국 정부는 투자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BOI를 통한 투자 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법인 설립 후에도 각종 행정적인 절차와 부가세 환급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BOI를 통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태국 투자청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개 핵심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를 선정하였다. 동 분야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농산물가공, 패션사업, IT 및 고부가 틈새산업 등이 있다. 외국기업이 동 분야에 투자 시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태국정부는 투자청에 보다 많은 투자유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그 동안 시행해왔던 지역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던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철폐하고, BOI에서 임의적으로 투자자와 협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003년 11월에 제정하였다.

라) 태국 투자의 장점

태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경쟁국 보다 외국기업의 활동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치의 안정도 및 경제의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 활동비용 및 생활물가로 경쟁국 대비 우위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내 항공·해상운송의 중심지로서 교통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투자에 있어 유리한 세금제도 및 정부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 외국인투자 규제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조사된 모든 항목에서 태국이 경쟁국 대비 월등한 것은 아니나 숙련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및 그에 따른 높은 효율성,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의 삶의 질 측면 등에서 투자지로서 주변 경쟁국보다 월등한 조건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마) 외국기업투자 동향

(1) 주요 국가별 투자동향

2007년 1~9월 중 태국 투자청의 총 투자승인 건수는 625건, 총 투자금액은 약 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투자 국가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었으며 한국의 투자 금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중 가장 특기적인 것은 일본의 투자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2006년 기간 중 일본의 대태국 투자금액은 약 30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43%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태국을 동남아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가공식품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 외 주요 투자국가는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등 유럽 국가들이 있다.

<표 2-82> 태국에 대한 국가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승인 기준					
	2005		2006		2007(Jan～Sep)	
	건수	투자총액	건수	투자총액	건수	투자총액
외국인 투자총액	782.00	8,091.12	751.00	7,030.13	625	9,717.37
외국인 100% 투자	414.00	3,455.97	404.00	3,276.97	354	4,485.91
일본	354.00	4,255.14	353.00	3,037.29	244	2,736.38
ANIEs						
- 대만	57.00	408.64	63.00	276.10	38	220.43
- 홍콩	18.00	55.18	18.00	264.47	10	34.68
-대한민국	31.00	36.88	24.00	106.12	38	149.24
Asean	105.00	883.37	95.00	607.22	82	1,010.69
- 싱가폴	69.00	358.14	62.00	494.35	54	578.30
- 말레이시아	36.00	506.73	35.00	141.53	24	314.06
- 인도네시아	1.00	25.40	5.00	15.48	4	117.66
- 필리핀	1.00	3.72	1.00	1.77	1	2.63
- 미얀마	1.00	2.98	-	-	-	-
PRC.	15.00	56.77	16.00	64.75	19	146.81
North America						
- 미국	48.00	215.77	46.00	1,882.67	42	1,850.46
- 캐나다	6.00	149.89	2.00	1.19	5	437.30
Australia						
- 호주	13.00	30.05	13.00	13.55	19	32.52
- 뉴질랜드	-	-	3.00	2.11	-	-
European Union	108.00	803.88	104.00	351.63	107	848.32
All Europe	131.00	1,192.26	118.00	558.26	117	877.80
- 영국	26.00	116.79	23.00	45.88	18	44.86
- 독일	19.00	174.37	18.00	32.46	24	64.33
- 스위스	20.00	375.02	11.00	208.76	7	18.42
- 프랑스	14.00	10.18	9.00	10.86	14	17.89
- 벨기에	7.00	3.15	3.00	27.16	4	31.76
- 이탈리아	8.00	10.06	9.00	12.68	9	35.96
- 네덜란드	17.00	368.12	28.00	164.89	16	301.16

주: 승인기준, 해외자본 10%이상 투자기준.
자료: BOI(태국투자청), 2007. 12.

(2) 주요 산업별 투자동향

최근 5년간 투자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화학, 금속가공 및 전기전자 분야로 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1~6월 중에도 총 398건 중 금속이 93건, 전기전자가 88건을 차지하였다. 한편 최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도 두드러진다. 2007년 1~6월 중 서비스 분야 투자건수가 99건으로 종전 금속분야를 제치고 최고 수위를 차지하였다.

<표 2-83> 태국에 대한 산업별 외국인투자동향

(단위: 백만 바트)

분야	2006		2007.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업	39	11,151.8	23	7,938.5
광물, 세라믹	21	2,544.3	16	17,898.4
경공업 / 섬유	75	9,300.7	35	7,475.0
금속제품, 기계	232	54,239.3	93	32,782.1
전기, 전자제품	166	57,938.2	88	43,826.4
화학, 제지	81	100,696.4	44	15,790.7
서비스	137	30,772.9	99	69,926.1
총계	751	266,643.6	398	195,637.2

주 1) 승인기준, 해외자본 10%이상 투자 기준.
2) 2005년 평균환율: 미$1 = 40.3 바트, 2006년 평균환율: 미$1 = 37.87 바트, 2007년 12월21일 환율: 미$1 = 33.6 바트.
자료: BOI(태국투자청), 2007.12.

금속가공 및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투자집중 현상은 일본의 자동차, 전자산업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도요타, 혼다를 위시한 대부분의 일본 승용차 메이커가 태국에 진출해있으며, 태국은 내수 및 아세안 역내시장을 겨냥한 전진 생산기지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태국이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FTA 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태국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들 일본 업체들의 對태국 추가투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3) 지역별 투자동향

태국의 투자 지역은 1~3지역으로 구분되며, 방콕외곽의 Zone 2지역의 촌부리, 라용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촌부리, 라용지역은 방콕항 및 람차방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한국 투자기업도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촌부리지역, LG전자는 라용지역에 진출해있으며, 관련 협력업체의 투자도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 2-84> 투자 Zone별 투자 건수(2006~07)

(단위: 백만 바트)

지역	2006		2007. 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Zone 1	230	32,730.4	125	38,519.8
Zone 2	382	187,669.9	181	120,102.5
Zone 3	139	46,243.9	82	37,015.2

주1: 승인기준, 해외자본 10%이상 투자 기준.
주2: 2005년 평균환율: 미$1 = 40.3 바트, 2006년 평균환율: 미$1 = 37.87 바트, 2007년 12월21일 환율: 미$1 = 33.6 바트.
자료: BOI(태국 투자청), 2007.10.

바) 한국의 투자현황

태국은 우리나라 아세안 투자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국 투자가 가장 활발한 기간은 1997~98기간 중이었으나 이후 양국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가 급감하였다. 최근 다시 태국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삼성이나 LG와 같은 가전 업체의 투자확대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 대태국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87.8% 증가한 1억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총 33건의 투자신청 중 24건이 승인되었으며 총 24개 투자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전체 승인액 중 38.9%에 해당하는 15억6510 바트를 TV부문 720,000대 생산라인에 확대 투자하였다. 그 뒤를 이어 Allied digits사가 14.9%에 해당하는 1억 바트를 전기전자 부문에 투자하였다. 2007년 중 우

리나라 대태국 직접투자는 총 46건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1억7천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85> BOI 승인건수 및 투자액

(단위: 백만 비트)

구분	2004	2005	2006	2007
승인건수	42	31	24	46
투자액	6,630.8	1,485.5	4,024.8	5,985.0

주: 연평균환율; 미$1 = 41.5(2003), 40.2(2004), 40.3(2005), 37.87(2006), 34.6(2007).
자료: 태국 투자청(BOI), 2007.12월.

<표 2-86> 연도별 한국의 대태국 투자프로젝트(BOI 승인 기준)

(단위: 백만 비트)

산업	2005		2006		2007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농업	1	12.2	-	-	-	-
광물, 세라믹	1	95.0	-	-	3	598.8
경공업/섬유	3	101.4	1	30.5	-	-
금속제품, 기계	7	328.1	6	701.8	12	1,548.5
전기, 전자제품	8	669.6	13	3,191.0	22	1,570.5
화학, 제지	10	277.8	2	54.0	6	283.5
서비스	1	1.4	2	47.5	3	1,983.7
합계	31	1,485.5	24	4,024.8	46	5,985.0

자료: 태국 투자청(BOI), 2007. 12월.

<표 2-87> 우리나라의 대태국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건수	금액
1989 이전	26	19,627
1990	16	12,806
1991	16	32,488
1992	9	26,362
1993	18	36,686
1994	14	27,192
1995	10	21,722
1996	17	24,140
1997	13	186,196
1998	7	92,868
1999	13	7,008
2000	17	29,409
2001	17	22,195
2002	33	76,500
2003	40	87,000
2004	42	165,400
2005	31	58.000
2006	24	106,120
2007	46	172,977
합계	409	1,204,696

주 1) 2002~05년은 승인액 기준임.
2) 2005년 평균환율: 미$1 = 40.3 바트, 2006년 평균환율: 미$1 = 37.87 바트, 2007년 평균환율: 미$1 = 34.6 바트.

자료 1)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 년도.
2) 2002~2007은 태국 투자청 통계월보.

6) 캄보디아

가) 투자 매력도[55]

우선 캄보디아는 내수 인구가 1,400만 명으로 너무 적고 그 중 85% 이상이 1인당 GDP 450달러 이하에 허덕이는 세계 최빈국이다. 캄보디아 내수 시장을 겨냥하여 제조업에 진출하기에는 그다지 매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태국과 베트남을 국경으로 접하고 있으므로 캄보디아내 내륙지방에서 반입하는 것보다 국경을 통한 물류 이동이 오히려 용이하므로 국경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국경통과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채 간이 통관되므로 대부분 현지 생산 공산품의 경우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가격 싸움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한편 투자 고려시 주요한 포인트로 꼽히는 사회 간접자본 중 도로, 전기, 용수 사정이 원활하지 않다. 인건비 역시 크게 저렴한 편이 아니므로 사전에 엄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전기의 경우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은 전력 사정이 원만치 않아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 생산에 임하고 있다.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지하수에 의존해야 하므로 역시 사전 투자 대상 지역의 지하수 사정을 점검해야 한다. 적은 인구에 비해 남한의 약 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으므로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품이던 천연고무, 타피오카, 쌀, 콩, 고구마, 야자유, 캐슈넛 재배 등의 농업 생산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 진출 한다면 향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투자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55) 코트라 캄보디아 투자핵심가이드. 대륙별 국가정보. 주 캄보디아 대사관.

나) 투자환경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전략적 요충지에 소재하고 있어 가장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의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캄보디아의 대아세안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세는 2010년까지 0~5%로 인하되며, 2018년에는 역내교역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AFTA)가 창설되면 동 시장은 인구 17억명의 최대시장으로 탄생하게 되며, 아세안은 현재 여타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캄보디아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가 2003년 기준 170개국 중 35위에 기록될 정도로 폭넓은 시장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태국(40위), 말레이시아(72위), 인도네시아(99위), 베트남(135위), 라오스(153위) 등 인근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저개발국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빈약한 사회 인프라 문제는 캄보디아도 동일한 실정이나, 여타 저개발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빠른 속도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추세이다.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라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로서 앙코르와트 방문객이 2006년에 1천 7백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방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캄보디아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화가 초기단계에 있어 숙련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임금 수준은 태국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

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56)]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수상실 직속으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를 설치하여 신규 투자 신청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 관세 면제 및 세금 면제, 비자와 노동 허가증 발급, 회사 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 허가 등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있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득세를 6~9년에 걸쳐 20%까지 낮춰준다. 또한 재투자를 하는 경우 특별히 세금을 감가해주고 있다.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며 투자기업이 기업 활동을 종료하거나 철수할 때는 투자개발위원회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내방을 하여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적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재무성에 증명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 해산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다. 사용 년도가 5년 미만으로 면세로 수입된 기계, 기기는 해당 수입 관세를 납부 후에 처분 가능하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제정·공포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은행을 통하여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와 관련된 제반 재무적인 의무사항 완료 후 아래 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 수입대금 지급
- 국제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 로얄티 및 관리자 경비의 지급
- 이익의 송금
- 일정 조건에 부합한 투자자본의 송금

56) 코트라 캄보디아 투자핵심가이드.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에 토지 관련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며, 임차기간은 최장 7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다.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라) 투자 이점[57]

캄보디아 정부는 열린 경제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거시경제 환경이 건실하며 경쟁력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One-Stop-Service로 인해 빠른 투자허가 과정(28일 소요)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잘 되어 있다. 낮은 인건비와 ASEAN과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이 좋다는 점도 투자의 이점이 된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우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인 지리 조건은 캄보디아 투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게 하는 요소이다.

마) 투자 인센티브 제한

캄보디아의 투자 장려 업종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수출 지향적 처리 및 제조 산업, 관광관련 산업 등이다.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무역업, 운송서비스업, 면세점, 상점 등은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57)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CDC). 대한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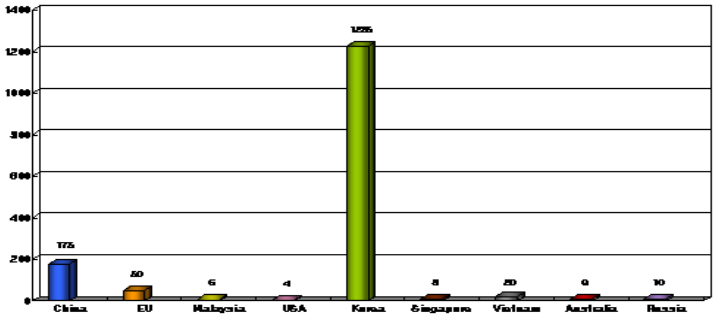
<표 2-88> 투자 장려 및 제한 업종

투자 장려 업종	투자 제한 업종
- 농업 및 농기계 산업 - 운송, 전기통신의 시설기반 산업 - 에너지와 전기 부문 - 노동집약적 산업과 수출 지향적 처리 및 제조 산업 - 관광관련 산업 - 인적자원 개발 산업 - 광산업 - 무역 촉진 산업	- 무역업, 운송서비스업, 면세점, 상점 - 음식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클럽 등 유흥업종 - 라디오, TV, 신문 등 매스컴 관련 산업 -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바) 외국기업 투자 유치 현황

캄보디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도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는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관광업과 서비스 업종의 투자승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8년 상반기에는 서비스 업종의 투자승인이 62%에 이르렀다. 한국은 2008년 상반기 캄보디아의 투자건수를 올리는데 1위를 차지하였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림 2-10> 2008년 상반기 캄보디아 투자건수



자료: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2005년도의 경우 CDC 승인액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10억 4천 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4년의 2억 3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 이후 부동산개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봉제분야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투자가 매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바이오 연료 생산, 건축자재 생산 등 제조업에서도 투자의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

<표 2-89> 2008년 상반기 제조업 분야 투자승인

	프로젝트 수(개)	규모(US$)	노동자수(명)
의류	569	1,086,275,743	680,342
섬유	10	85,204,583	12,687
신발	33	78,553,023	46,175

자료: CDC/CIB and GMAC(캄보디아 투자 위원회).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4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베트남에서의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투자액의 2%를 투자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2005년초부터 폐지함으로써 투기자본 형태의 외국자본이 상당히 많이 유입된 것도 최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주요국별 대캄보디아 투자는 1994~2006년간 누계 투자금액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한국이 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캄보디아를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진출은 30여개의 봉제공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증하는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업 및 양호한 토양을 이용한 농업분야 등 투자진출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관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누계

기준으로 2006년까지 총 65건, 약 13억 6,34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10억 9천 8백만 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다.

<표 2-90> 국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미국	12.7	5.9	3.2	-	5.6	9.8	67.5	581.4
EU	21.9	2.0	1.6	6.2	4.9	14.0	314.6	706.6
중국	28.4	5.0	24.1	34.1	83.1	452.0	717.1	1,578.8
한국	19.4	2.1	79.0	2.4	6.2	56.0	1,009.8	1,362.1
일본	0.2	-	2.2	-	2.2	-	2.1	22.4
대만	18.9	57.0	6.8	1.3	13.7	10.4	47.7	574.2
홍콩	4.9	1.2	1.6	5.5	-	1.4	4.1	247.1
ASEAN	51.8	66.3	26.2	15.7	39.0	132.6	171.1	2,737.5
기타	59.9	65.1	93.1	186.1	75.8	372.0	2,080.9	4,387.2
계	218.1	204.6	237.8	251.3	230.5	1,048.1	4,414.8	12,198.1

주: 누계*는 1994~2006년간 CDC 승인기준 누계치임.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분야별로는 봉제분야가 섬유 쿼터 철폐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 제조업 분야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앙코르 와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분야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91> 주요 분야별 직접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분야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94-2006
농업	9.8(5)	0.4(1)	40.3(6)	3.7(2)	12.4(2)	26.8(5)	514.2(20)	911.1(114)
제조업	59.4(40)	85.9(28)	52.1(19)	86.6(29)	126.4(48)	761.1(70)	888.3(61)	3,773.5 (721)
인프라, 서비스	69.1(8)	44.6(4)	98.2(6)	46.4(6)	35.9(5)	35.5(2)	2,650.4(9)	3,569.5(82)
관광업	79.8(8)	73.7(6)	47.2(3)	114.6(10)	55.8(5)	102.6(6)	362.0(10)	2,816.2(97)
계	218.1(61)	204.6(39)	237.8(34)	251.3(47)	230.5(60)	1,050.3 (104)	4,414.8 (100)	12,165.7 (1,222)

주 1) 1994-2006년간 CDC 투자승인기준
2) ( )는 건수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사) 한국의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진출은 1997년 양국간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승인 기준 1994~2006년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 실적(누계)은 약 13억 6,211만 달러로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제3위 투자국이었다. 2006년도에는 CDC 투자승인 기준 10억 982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제1위 투자국이었다. 한편 요식업, 관광업(여행사 포함), 도·소매업, 미용업 등 현지인과의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진출한 영세규모의 투자진출(CDC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투자 진출 건수가 매우 높았다.

<표 2-92>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 추이(2006년 6월, 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06.06)
18(14)	2(5)	9(7)	9(6)	8(7)	8(9)	33(10)	8(9)	108(35)	84(21)	303(13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은 건수

한국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진출은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업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광산, 식당, 호텔, 관광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6년부터 다수의 봉제공장이 진출함으로써 대 캄보디아 투자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여타 제조업, 건설, 농가공, 조림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분야가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캄보디아에 일고 있는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건설분야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투자 이외에 자원 활용형 농업분야의 투자비중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진출은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가 선호되는 특징을 보였으나, 최근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7) 미얀마

가) 투자환경[58]

미얀마는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사회주의적 요소가 산재하고 있다. 미얀마는 농산물, 광물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임,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다. 경제개발의 초기단계로 향후 본격적인 개발수요가 기대되는 등 향후 투자유망지로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 불안, 인프라 미비, 고질적인 외환부족, 선진국의 경제제재 조치, 정부행정의 불투명성 및 예측불가능성, 정부의 외국인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은 투자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을 1988년 11월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가 외국인투자유치를 관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장려분야는 수출촉진 및 확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 개발, 첨단기술 습득,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재화 및 용역생산 지원, 고용기회 창출,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사업개발 등이며 이들 분야에 대하여는 비교적 투자승인을 받기가 쉽지만 통신 등 정부규제분야는 외국인 진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얀마투자위원회는 민간참여가 제한되는 분야, 소관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다.

58) 코트라 미얀마 투자핵심가이드. 대륙별 국가정보. 주 미얀마 대사관.

<표 2-93> 민간 참여 제한 및 인허가 필요 분야

	내 용
민간참여가 제한되는 분야	- 티크목 벌채와 그 판매·수출 - 가정소비용 땔나무, 장작을 제외한 식림 및 삼림 관리 - 석유·천연가스의 채굴·판매 - 진주·비취 그 외 보석의 채굴·수출 - 물고기·새우의 양식 - 우편·통신사업 - 항공·철도사업 - 은행·보험사업 - 라디오·TV 방송사업 - 금속의 채굴·정련과 수출 - 발전사업 - 치안·국방상 필요한 물품의 생산
소관 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	- 호텔업 또는 가옥임대업 - 관광업 - 금융업

나) 투자 이점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잠재시장으로 평가된다. 최근 위성 방송 및 외국 드라마 시청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의식이 급속도로 개방화되면서 전통 의상 착용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서구 모방적인 다양한 문화 활동과 상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한국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얀마는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 인도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으며, 동남아 최대 잠재시장 중 하나이다.

미얀마는 저임의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지로 적합하다.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수준으로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른다.

다) 투자 장애 요인

물류의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양곤 이외에 지역은 투자시 물류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인해 양곤시 조차 하루에도 수차례 단전이 발생하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8시간 이상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에서도 자가 발전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통신의 보급률이 낮고 정부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용상 통제가 심하다.

2003년 7월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인권 문제를 이유로 금융 및 무역거래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였으며,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동조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 없이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4년 쌀 수출금지 조치, 2005년 말 갑작스럽게 진행된 행정수도의 이전 등이 있다.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통신, 수도 및 기타 시설 사용시(국내 항공료, 골프장 그린피 등) 내국인과는 달리 달러화를 징수함으로써 5~70배에 이르는 차별적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외화를 불법 유출한다는 이유로 외국 무역 법인의 신규 등록 및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얀마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아직 미체결되어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절차 및 서류가 매우 복잡하고 내국민과 동등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외국인 투자동향

미얀마는 풍부한 농산물, 광물자원, 값싼 노동력, 중국, 인도, 태국과 접한 지리적 이점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가스, 전력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미얀마의 민주화, 인권, 마약문제 등을 이유로 미얀마 군사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 미얀마 군사정부가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얀마 직접투자금액 누계는 2억 4천만 달러로로 9 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2006년 3월말 태국이 60억 달러의 수력발전소 건설 투자를 신고하였고 9월에는 러시아가 미얀마 석유·가스 개발에 투자신고 하였다. 제조업 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미얀마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동 지역은 수출자유화 지역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물론 수출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전망이어서 향후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해상 천연가스 개발 성공으로 투자유망지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미래 투자지역으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미비, 고질적인 외환부족, 선진국의 경제제재 조치, 정부행정의 불투명성 및 예측 불가능성, 정부의 외국인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 등은 투자진출의 장애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94> 미얀마의 외국인투자유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국별	투자액	비중(%)	산업별	투자액	비중(%)
태국	7,376	50.59	전력	6,311	43.29
영국	1,861	12.76	석유/가스	3,106	21.31
싱가폴	1,515	10.39	제조업	1,610	11.04
말레이시아	661	4.53	부동산	1,056	7.25
홍콩	504	3.46	호텔/관광업	1,035	7.10
중국	475	3.26	광업	535	3.67
프랑스	470	3.23	축산/어업	324	2.22
미국	244	1.67	교통/통신	313	2.15
한국	243	1.67	공업단지건설	193	1.32
인도네시아	241	1.66	건설	38	0.26
네덜란드	239	1.64	농업	34	0.24
일본	212	1.45	기타서비스	24	0.16
총계	14,580	100.00	총계	14,580	100.00

주: 투자허가기준(2007. 5월말) 누적치.
자료: 미얀마투자위원회(MIC).

<표 2-95> 국가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태국	0	22.0	29.0	6034.4	0
영국	0	27.0	0	0	240.7
싱가포르	6.1	0	0	0	160.8
말레이시아	62.2	0	0	0	0
홍콩	12.9	3.0	0	0	0
중국	0	2.8	126.6	0.7	281.2
한국	0.3	34.9	0	0	37.0
기타	5.4	1.5	2.7	30.6	33.0
합계	86.9	91.2	158.3	6065.7	752.7

주: 회계연도기준(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료: 미얀마 중앙 통계청, Selected Monthly Indicators.

<표 2-96> 산업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전력	0	0	0	6030.0	281.2
석유, 가스	44.0	54.3	142.6	35.0	471.5
제조업	13.1	2.8	3.5	0	0
부동산	0	0	2.7	0	0
호텔, 관광업	0	0	3.5	0	0
광업	3.4	1.5	6.0	0.7	0
교통, 통신	0	30.0	0	0	0
축산, 어업	26.4	2.6	0	0	0
합계	86.9	91.2	158.3	6065.7	752.7

자료: 미얀마 중앙 통계청, Selected Monthly Indicators.

마) 한국의 투자현황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5월말 기준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는 37건, 2억4천 3백만 달러이며 미얀마 투자순위 9위로 전체투자의 1.7%를 차지하였다. 반면 한국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7년 9월말 기준 실제 투자 규모는 7,987만 달러이며, 2004년 이후 한국의 대미얀마 신규 투자는 미미하다.

<표 2-97>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현황

(단위: 건, US 천)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14	65	192.819	168	79,870

주: 2007년 9월말 기준(누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 대부분은 의류 봉제업으로 대우 봉제, 오팔, 미얀스타 등 약 40여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투자 업종인 봉제업은 2003년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 제재로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위기를 맞이한바

있으나 2005년부터 유럽, 일본으로부터 오더가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가발 제조업체인 하이모는 2005년부터 미얀마에 현지 공장을 시험 운영하면서 중국내 생산 공장을 미얀마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얀마 최초의 투자진출은 1990년 대우전자가 가전제품 생산에 투자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대우계열사의 투자가 전개되었다. 현재는 봉제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부터는 신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도되어 에스콰이어, 써니 상사 등 두 개의 정장화(신발) 생산업체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조치로 대미 의류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한국 봉제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투자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한국업체의 미얀마 투자가 급속히 침체되었다. 2002년 이후 현대종합상사, CJ, 대우전자 등이 철수하였으며 미얀마에서 건재자용 아연강판을 생산하던 포스코는 2005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07년 다시 재개한바 있다.

의류봉제 및 신발봉제 이외에 일반 제조업으로는 대우목재(합판), 더원(등나무 가구 및 소품), 머큐리레이스(PVC 호스) 삼공(고무보트), 미원쉐타진(PVC파이프, 플라스틱 연포장재), 예스박스(카톤박스), UPI(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소규모 개인무역 업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식 외국인투자 절차를 밟지 않고 미얀마인 명의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표 2-98> 우리나라 주요 투자기업 현황

회사명	업종	제품명	진출형태	진출연도	종업원수	모기업
대우무역	무역업	일반상품	지사	1995	50	(주)대우인터내셔날
효성	무역업	철강, 화학제품	지점	1995	7	효성
대우목재	제조업	합판	합작	1992	1000	(주)대우인터내셔날
대우봉제	제조업	의류봉제	합작	1991	2700	(주)대우인터내셔날
미원쉐타진	제조업	PVC파이프	합작	1994	230	대상
포스코	제조업	아연도금강판	합작	1997	140	포스코
머큐리레이스	제조업	PVC호스	합작	1999	130	
삼공물산	제조업	고무보트	단독	1996	200	삼공물산
UPI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합작	1995	80	
더원	제조업	등나무가구	단독	2002	110	더원
써니	제조업	가죽구두	단독	2000	600	
태평양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9	800	태평양물산
세계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합작	1990	800	에스지위카스
제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6	1300	스타일러스
해외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8	750	해외무역

8) 라오스[59)]

가) 투자환경

라오스의 총 투자와 관련해 FDI는 2005년 기준 35.8%를 차지하였다. 1994년에 개정된 외국인투자 유치법은 외국인 기업의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규정하며, 라오스 경제에서 외국 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투자유치법 적용에 있어 내용이 수차례 수정이 되어오고

59) 라오스 투자 컨설팅 회사(Laowindows www.laowindows.com).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오스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필히 최신의 법률 개정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라오스 기획협력위원회(CPC: Committee for Planning and Cooperation) 산하 내 외국인 투자 증진 관리국(DDFI: Department for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이 관장하고 있다. 또 최근 라오스 내 태국과 이어지는 최초의 철도 건설이 완공될 예정으로 유통분야 등에서도 인프라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99> 투자유치법의 주된 내용

내 용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이윤세 20% 일괄 징수 ○ 외국인투자사업 승인 여부는 60일 내에 결정 ○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과 합작투자 2가지 형태로 크게 규정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생산장비 및 자재에 대해 1%의 수입관세를 부과함

나) 외국인 투자 동향

최근 라오스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회사가 라오스 사바나켓주에 석유 및 천연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라오스정부로부터 획득하여 2009년부터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기업은 라오스 보리캄사이주에 펄프공장을 설립하는데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라오스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5만 헥타의 땅에 유칼립투스나무를 심고 있다. 2009년 SEA-GAME이 개최되는 것을 바탕으로, 중국회사가 메인스타디움을 지어주기로 하고 라오스 수도 근처에 차이나타운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9) 소결

이상과 같이 대상 8개국은 각각의 인프라구조, 산업 환경 등을 바탕으로 외

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해 특징적인 제도 및 현황을 보았다. 필리핀은 높은 영어 사용률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노동력의 보유로 외국투자자들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진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인의 생계와 고용을 확대하는 행위, 필리핀 소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투자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의 부족으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세금 감면 외에도 규정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켜주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및 서비스 분야도 점차 개방하는 추세이다. 베트남은 최고의 투자지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낮은 비용 대비 높은 생산 경쟁력과 높은 수익 가능성이 그 원인이다.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미국과도 정상적인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태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투자자와 관련해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치안, 환경, 광고와 같은 분야는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캄보디아는 좁은 내수로 제조기업의 진출에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One-Stop-Service와 같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다. 미얀마는 사회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천연자원개발, 첨단기술 습득과 관련 산업을 개방하고 있다. 라오스도 199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 유치법을 바탕으로 외국인기업의 자유로운 과실송금 등을 규정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남아시장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임금이라는 매력적인 시장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구조 및 정책의 변화로 투자 유치가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진출 계획을 가진 기업은 투자 대상국 각각의 정책 및 산업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100> 대상국가의 주요도시 투자환경

(단위: 달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마닐라	자카르타	쿠알라룸프르	페낭	하노이	호치민	동나이	롱안	빈증	라용	촌부리	씨엠립	양곤
세제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휴일	5 (6)	0 (8)	7.5 (3)	7.5 (3)	5.5 (5)	0 (8)	0 (8)	0 (8)	0 (8)	8 (2)	0 (8)	9 (1)	3 (7)
	법인세율(%)	35 (1)	30 (2)	26 (10)	27 (9)	28 (4)	28 (4)	28 (4)	28 (4)	28 (4)	22.5 (11)	22.5 (11)	20 (13)	30 (2)
	부가가치세율(%)	12(1)	10(2)	0(9)	0(9)	5(4)	5(4)	5(4)	5(4)	5(4)	0(9)	0(9)	10(2)	0(9)
법정 최저 자본금		102 (6)	2198(5)	0 (7)	0 (7)	0 (7)	0 (7)	0 (7)	0 (7)	0 (7)	56,753 (2)	56,753 (2)	50,000 (4)	500,000 (1)
임금·노무관련	사무직(일반, 대졸초임, 월급여)	201 (6)	357 (3)	570 (1)	500 (2)	175 (7)	175 (7)	165 (9)	125 (11)	165 (9)	356 (4)	356 (4)	70 (12)	70 (12)
	생산직(일반, 초임, 월급여)	201 (5)	165 (6)	715 (1)	650 (2)	90 (7)	55 (9)	48 (10)	45 (12)	48 (48)	496 (3)	496 (3)	90 (7)	30 (13)
	생산직(중견, 월급여)	1500 (1)	330 (8)	1500 (1)	1400 (3)	600 (6)	250(9)	250 (9)	200 (12)	250 (9)	937 (4)	937 (4)	375 (7)	100 (13)
	주당 법정근무시간	48 (1)	40 (13)	48 (1)	48 (1)	48 (1)	48 (1)	48 (1)	48 (1)	48 (1)	48 (1)	48 (1)	48 (1)	44 (12)
	법적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	권장	권장	0	0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수	필요 없음

주: ( )는 순위임.

자료: 해외직접투자 총계연보 2007, 한국수출입은행

<표 2-100> 대상국가의 주요도시 투자환경_계속

(단위: 달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마닐라	자카르타	쿠알라룸프르	페낭	하노이	호치민	동나이	롱안	빈증	라용	촌부리	씨엠립	양곤
제반비용	공업단지 매입가(㎡)	55.1 (3)	225 (2)	308 (1)	30 (7)	0 (12)	55 (4)	35 (5)	34 (6)	18 (8)	17.74(9)	14 (10)	13 (11)	0 (12)
	공업단지 임차료(㎡, 월)	0.47 (10)	2 (5)	4.73 (1)	4.73 (1)	1.2 (9)	4 (3)	1.5 (7)	1.6 (6)	2.75 (4)	0 (12)	0 (12)	1.5 (7)	0.09 (11)
	사무실 임차료(㎡, 월)	9.8 (7)	21 (5)	1815 (1)	1100 (2)	30 (4)	40 (3)	0.048 (12)	2.4 (10)	0 (13)	4.89 (9)	5.5 (8)	2.1 (11)	12 (6)
	산업용전기요금 (1Kwh당 요금)	0.19 (5)	0.07 (11)	0.013 (12)	0.0125 (13)	0.075 (8)	0.08 (6)	0.3 (3)	0.075 (8)	0.075 (8)	5.4 (2)	6.29 (1)	0.22 (4)	0.08 (6)
	산업용가스요금 (월 기본요금)	7.24 (1)	5 (4)	0.85 (6)	0.85 (6)	0.79 (8)	0 (10)	0 (10)	0.625 (9)	0 (10)	7.1 (2)	7.1 (2)	0.86 (5)	0 (10)
	산업용수도요금 (공업용수, 1㎥)	5.36 (2)	0.75 (3)	0.65 (4)	0.63 (5)	0.28 (9)	0.28 (9)	0.3 (1)	0.25 (12)	0.28 (9)	0.54 (6)	0.45 (7)	0.3 (8)	0.096 (13)
	일반 휘발유(1L)	0.75 (2)	0.62 (8)	0.4 (11)	0.4 (11)	0.6 (9)	0.7 (5)	0.69 (7)	0.56 (10)	0.7 (5)	0.73 (3)	0.73 (3)	0 (13)	0.8 (1)
	경유(1L)	0 (10)	0.59 (4)	0.55 (5)	0.55 (5)	0 (10)	0.54 (7)	0.54 (7)	0.69 (3)	0.54 (7)	0 (10)	0 (10)	0.93 (1)	0.7 (2)
운송·통신	컨테이너 내륙운송(FEU 기준)	0 (13)	197.8 (3)	570 (2)	162 (7)	187.5 (4)	150 (9)	117 (11)	175 (5)	130 (10)	164 (6)	156 (8)	2,070 (1)	50 (12)
	해상운송(FEU 기준,)	300 (11)	600 (4)	400 (9)	400 (9)	700 (3)	565 (8)	570 (5)	570 (5)	570 (5)	113 (12)	113 (12)	1,920 (1)	850 (2)
	특급우편(현지-서울,DHL, 1개(1kg이하))	35 (11)	75 (1)	35 (11)	35 (11)	67.14 (4)	67.14 (4)	67.14 (4)	67.14 (4)	67.14 (4)	72.64 (2)	72.64 (2)	58 (9)	46 (10)

주: ( )는 순위임.

자료: 해외직접투자 총계연보 2007, 한국수출입은행

나. 주요 투자업종

1) 필리핀

가) 주요 업종별 필리핀 투자동향

(1)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60]

2006년도 대필리핀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을 볼 때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 신고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전체 산업 중 약 54%를 차지)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필리핀은 전기, 수도, 가스 시설과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체 기술력이 미흡하여 외국기술, 즉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표 2-101>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통계(신고기준)

(단위: 백만 페소)

	2003	2004	2005	2006	
				금액	증가율(%)
제조업	20,634.0	43,811.7	67,730.4	112,665.3	66.34
무역	760.5	52.5	107.3	19,590.6	18,157.78
서비스	4,609.3	29,606.0	8,783.1	17,385.9	97.95
금융/부동산	900.9	290.7	203.1	7,626.5	3,655.05
통신	1,187.8	0	0	2,962.9	100.00
농업	25.3	5.1	290.5	2,381.2	719.69
교통	192.3	26.6	391.4	1,325.2	238.58
광업	855.6	229.5	7,312.9	724.1	-90.10
전기	103.4	2,039.8	10,863.5	439.0	-95.96
건설업	2,566.8	1,137.9	33.9	765.9	2,159.29
창고업	347.3	171.6	0.5	13.3	2,560.00
총계	34,010.3	173,895.2	95,806.8	165,880.0	73.14

주: 금액: 필리핀 4대 투자진흥공사 신고 기준, 2006년 평균 환율: P51.31/US$1
자료: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Philippines(NSCB)

60)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코트라 상품산업(DB).

2005년 대비 2006년의 투자 신고액이 급증한 것은 제조업 투자의 66.34% 증가와 2005년까지 미약하였던 무역업 분야 투자의 급증에 기인하고 있다.

(2) 광산산업 고속성장 전망

필리핀 환경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는 최근 자료를 통해 광산업 분야에서 2011년까지 5배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필리핀은 2004년 24개의 광산개발 및 16개의 탐사 프로젝트를 승인해 2007년까지 14억 달러의 투자가 2008년부터 대규모의 광산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011년까지 추가로 90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어 총 투자액이 1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1995년 필리핀 광업법(Philippine Mining Act 1995)을 제정해 외국인들의 광산개발을 유도하였다. 2004년에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규제가 합리화되었으며, 세제 및 이익분배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본격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해졌다. 우리 기업의 대표적인 진출사례는 2005년 7월에 LG 상사와 광업진흥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Rapu-Rapu 광산개발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해 26%의 지분으로 참여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분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필리핀은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특히 금속성 광물은 8억 50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자원은 전체 매장량의 0.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 현 정부도 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광물자원개발 사업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정치·정책적 변화·사회 인프라를 포함한 개발여건·중앙 및 지방정부의 우호도·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현지 법규를 준수하면서 진출을 모색할 경우 사업 타당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IT분야

(1) PDP LCD TV

필리핀의 PDP/LCD TV의 보급은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불과 2~3년 사이에 PDP TV는 2,201대, LCD TV는 2,594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소비자들의 신개념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를 감안하더라도 동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타 가전제품에 비해 고가인 탓에 잠재 수요층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현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인구 8,5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발표 가구 수는 1,700만 가구이며, 이중 PDP/LCD TV와 같은 고가제품 구매 가능 규모는 약 3%에 해당하는 493,000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DP/LCD TV의 현지생산 기반은 전무한 탓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브랜드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지에 소개된 제품은 PDP TV의 경우 40~49인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LCD TV는 40~50인치급과 39인치 이하급이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다. 한국 PDP/LCD 기업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37.7%로 파악되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의 PDP/LCD TV 구입은 연말보너스가 있는 4분기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현지 진출 가전 업계에서는 연중 판매실적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제품이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Sony, JVC, Samsung, LG 등 일본 및 한국의 주요가전업계에서는 현지소비층의 소비특성상 체면을 중시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욕구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향후 PDP/LCD TV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유망시장으로 평가된다.

(2) 모바일 컨텐츠

199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필리핀 모바일 시장은 최근 수년간 모바일 기계의 기능 향상과 신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모

바일 컨텐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3~5년간 주재국의 모바일 시장 규모는 약 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재국의 모바일 컨텐츠는 주로 컨텐츠 Provider에 의해 일반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Globe Telecom, Smart Telecommunication, Sun Cellular사 등 3개사 위주로 컨텐츠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3개사의 2005년 Annual Report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총 34.6백만 명이며 이중 약 30% 정도만이 게임, 음악, 벨소리 및 이미지 정보 공유와 같은 모바일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향후 신규 개발 가능한 모바일 컨텐츠의 잠재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지에서 널리 선호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는 2세대 단말기에서 이용 가능한 SMS(Short Message Service)와 벨소리(Ringtone)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화질 이미지 전송, 동영상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여 아직 시장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최근 Globe Telecom 사와 Smart Telecommunication 사를 중심으로 3G 서비스를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3G 서비스의 수요 및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라 3G 컨텐츠 부가서비스의 내·외국 기업 진출이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 모바일 컨텐츠 사업자의 보다 빠른 시장 진출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주재국의 동 분야에 조기 시장 진출시 향후 서비스 가격 선점 및 후발 기업에 대한 로열티 회수와 같은 '선발자 이익(First Mover Advantage)'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아로요 정권의 정치적 혼란이 끝난 현재 필리핀의 모든 경제 활동이 낙관적으로 전망되어 외국투자 자본의 유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사무 분야와 관련된 컴퓨터, 모니터 등의 수요가 증가 예상된다. 시력 저하 및 피로를 유발하는 CRT 모니터에서 눈에 부담이 없는 LCD 모니터로 발전하는 등 현대 공학의 발전은 사무 환경 및 여러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까지 PDP 모니터 시장은 활기를 띄고 있지 않고, 필리핀에는

모니터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필리핀 시장의 소비자는 저가 고성능의 제품을 선호하여 가격이 저렴한 대만,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해외 공장을 설립 및 운영하여 중국과 대만의 기업들과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필리핀 컴퓨터 시장은 매년 350,000대 정도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 가정용 PC는 20%, 사무실용 PC는 80%를 차지한다. 필리핀의 PC 보급은 전체인구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국의 PC 보급률이 53.3%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소수의 필리핀 국민들만이 PC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C의 분포는 대부분 중산층이다. 구입 방식은 보통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금 거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산층의 경우 월간 수입이 600달러에 불과하여 200달러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LCD 모니터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현지 컴퓨터 시장의 유행은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조립식 컴퓨터이다.

LCD 모니터를 포함한 PC 제품은 현지 화교 상인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큰 수입업자이자 도매업체는 Pronton Microsystem이다. 이 회사는 필리핀 전국에 75개의 대리점이 있으며 네트워크 관련 제품도 취급하고 있다. Pronton Microsystem 다음으로는 SM Appliance Center(26개점), Automatic Centre(23개점), Abenson(29개점), Western Marketing Corporation(14개점) 등이 있다.

(4) 핸드폰

무선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휴대 전화 관련 시장이 최근 5년간 급성장하였다. 최근 관련 분야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 규모는 8억 2천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46%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의 경우, 2001년 휴대 전화 가입자가 약 1천 2백 명이었으나 2005년 통계

에 따르면 3천 5백만 명으로 지난 4년간 34% 성장하였다. 유럽형 GSM 방식을 채택하고 올해 3G 서비스의 시작으로 휴대전화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상기한 기술적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도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유럽 시장의 휴대전화 대중화는 2001년에 시작되었고, 다음해인 2002년에 ASEAN 국가에서 휴대 전화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3과 2004년에 휴대 전화 강국으로 군림하였으나 최근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다소 주춤하고 있다.

대다수의 통신 가입자들은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 전화를 구입하며, 백화점 및 전기 제품 상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현지 주요 통신 회사들로는 Globe Telecom, Smart Telecommunication, Digital Mobil Philippines 등이 있다. 휴대 전화 관련 업계에서는 핀란드의 Nokia가 필리핀 시장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중 75~80%의 휴대 전화 사용자가 Nokia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Nokia 이외에도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및 여러 국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Motorola(미국), Samsung(한국), O2(영국), Sony Ericsson(일본)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 의약품

의약품은 필리핀의 주요 필수품 중의 하나이며, 2003년부터 GDP의 3.4%를 의약품구매로 지출하고 있다. 지난 2005년까지 의약품 수입은 매년 6~8%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15% 증가한 4.3억 달러(FOB 기준) 상당의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006년 필리핀 보건 복지부(BOH; Bureau of Health)로부터 의약 제품 수입 및 판매 허가를 받은 국내외 제약업체는 246개이며, 의약품 상인은 391개, 도매상은 3,450개, 소매상은 23,901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Mercury Drug Corporation은 필리핀 Top 7000 기업 중 13위이며, 의약품 업체 상위 7개 업체가 100대 기업에 속해 있다. Mercury Drug Corporation의 경우, 필리핀 전지역에 500개가 넘는 대리점과 직영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

시아에서 500대 매출 기업에 속한다.

최근 현지 정부에서 의료 관광(Medical Tourism)을 주요 국가 전략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폭넓은 지원과 홍보를 통해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의료 관광 규모는 2005년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필리핀은 약 90억 달러의 의료 관광 수입을 위해 투자 및 시설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신약 특허 4위의 특허강국이며 일부 주요 제약사에 의하여 신약 연구 기반이 확보되어 있으나 유럽과 미국, 일본의 세계적인 제약사에 밀려 현지 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도 미비하다. 지난해 필리핀으로 수입된 한국 의약품은 17.2백만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입량의 4%에 불과하다. 원료 34.9천 달러, 완제 112.9천 달러, 의약외품 8.4천 달러, 화장품 14.9천 달러 상당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필리핀 현지 생산업체는 총 29개로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으로 분류된다. 현지 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OEM방식으로 생산 후 국내외로 유통시키고 있다. 독자적인 신약연구 및 국제적인 자국 제약사가 없는 필리핀과 다른 동남아시아는 해외에서 전량을 수입하거나 현지에 투자 설비된 다국적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다. 의약품 경쟁이 치열한 국가로의 무리한 진출과 투자보다는 해외 제약사에 의존하는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필리핀은 미국과 유럽(스페인)에 의해 300년 이상 지배를 받아 이들의 문화가 융합된 국가로서 국제 시장 흐름 파악과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실험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바이오연료

2008년 국제유가의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하면서 천연 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진 공업국들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

다. 2005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 디젤 생산량은 4백만 톤이며 이중 75%는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1990년대 들어 버스 등에 연료로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바이오 디젤 생산량은 21.6백만 톤이 될 것이며, 유럽 국가의 생산 점유율이 45%로 감소하고 북미와 아시아의 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인접국가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대두유(68%)와 폐식용(32%)이다. 폐식용의 경우,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지만 대두유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오연료와 관련된 필리핀 현지법으로는 바이오연료법(RA 9367)이 있다. 이는 2006년 7월 24일 국회 승인을 통과하였으며, 2007년 1월 12일 아로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본 법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바이오연료 관련 법안으로서 필리핀이 바이오연료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지 유통되고 있는 바이오연료는 Chemrez사의 BioActive, Flying-V사의 Envirotek, Senbel Fine Chemicals Co. Inc.사의 Estrol, Seaoil Philippines사의 E10 시리즈(E10 G5 X-TREME/Unleaded)와 Shell(Pilipinas Shell Petroleum Corporation)의 Shell Super Unleaded E10이 있다.

필리핀내의 바이오디젤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에너지청의 에너지 개발계획서에 의하면, 2007년에는 78백만 리터, 2010년에는 173백만 리터, 2015년에는 209백만 리터로 예상된다. 바이오연료법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에 투자청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중점투자유치계획(IPP)에 바이오 연료를 투자 허용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바이오 연료 산업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을 준수해야 한다. 2007년에는 바이오 디젤의 경우 6억 5000만 페소,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94억 5000만 페소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그 판로 개척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시장 진출보다는 투자를 통해 국내 또는 타국가로의 판매 전략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식품과일음료

필리핀은 300여 년간(1571~1898)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문화 전반에 걸쳐 타 식민지 국가인 멕시코와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 신자수가 대략 전체 인구수의 80.9%이며 연간 공휴일이 가톨릭의 축제 또는 축일을 기점으로 화려하고 거대한 행사들을 치루고 있다. 필리피노(Filipino; 필리핀 현지인)는 남녀 구분 없이 하루에 세 번의 주식(主食)과 두 번의 간식(間食)시간을 가진다. 두 번의 간식시간은 아침과 점심 사이(9~11시)와 점심과 저녁사이(3~4시)이며, 이를 불러 Merienda Time(미리엔다 타임)이라 불리며 주류를 제외한 모든 음료와 스낵(식품류 포함)에 대한 수요가 이 때 급증한다. 필리핀에서 미리엔다(스페인어)의 뜻은 Late-afternoon snack이며 현지에서는 그 의미가 다소 바뀌어 간식을 통틀어 말한다. 타갈로그(Tagalog; 필리핀 현지 언어)의 많은 단어와 문법들이 스페인어와 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음료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프트드링크(Soft Drinks)와 주류(Alcoholic Drinks), 온음료(Hot Drinks)로 구분된다. 소프트드링크와 온음료는 대개 식사시간과 간식시간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에는 야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주류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주류 소비가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여성에 의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주류 업체들은 여성 기호에 맞는 깔끔하고 다양한 맛을 첨가한 주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프트드링크의 경우 필리핀 사회가 지식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茶)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열대성 기후

인 필리핀에서 온음료의 구매는 상점에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게 커피숍,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류 판매량은 전체 음료 시장에서 큰 부분이지만 그 성장률이 1.40%로 나타났다. 반면 소프트드링크 시장의 성장률은 29.01%, 온음료 시장의 성장률은 4.40%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소프트드링크와 온음료의 경우 필리핀 평균 인구 증가율 2.35%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두 항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프트드링크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물에 대한 소비 증가는 236.4% 성장하였고, 냉차 음료는 58.76%이다. 반면 탄산음료(청량음료)의 성장률은 1.44%로 2006년부터 음료시장에 다양한 브랜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C2(Cool and Clean)라는 제품의 판매가 코카콜라보다 많아졌다. 현재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음료 중 차(茶), 에너지 드링크, 건강음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C2 녹차의 제조사인 Universal Robina Corporation은 5억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반면 2003년 필리핀 코카콜라사의 판매액은 5.53억 달러로 제품출시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C2 녹차는 현재 5가지 맛의 제품(딸기, 키위, Lychee, Forest Fruits, Gold)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 동아 오스카와 롯데칠성의 제품들을 슈퍼마켓과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지속적이며 차별화된 전략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료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4년도에는 비주류 76,048 달러, 주류 160,418달러를 수입하였다. 지난 2005년부터 음료 제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면서 작년 2006년에는 비주류의 경우 439.240달러, 주류의 경우 435,966달러를 기록하였다. 음료시장의 성장률은 현재 370.12%이며, 비주류는 577.58%, 주류의 경우 271.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2-102> 대한 필리핀 음료 수입 동향

(단위: US$)

분류	2006년	2005년	2004년
전체수입	51,773,684,174	47,418,182,554	44,039,212,444
대한수입	3,199,573,108	2,294,420,377	2,740,490,162
가공커피	5,332	0	100
가공 코코아	0	4,583	4,889
음료	875,206	676,913	236,464
- 비주류	439,240	419,162	76,048
- 주류	435,966	257,751	160,416

주: FOB 가격 기준.
자료: Primary Source of Data: National Statistics Office(NSO).

2) 인도네시아

가) 모바일콘텐츠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6,500만을 넘어섰다. 젊은 층이 휴대폰을 보유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 2007년까지 시장 성장률이 15%에 보급률 30%를 달성하였다. 2009년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모바일 콘텐츠 시장 자체는 아직 초기 성장단계이다. 2006년 말에 링백톤 서비스 사용자 3백만 명, 배경화면(Wallpaper) 사용자 1백만 명, 모바일게임 사용자 30만 명에 전체 시장 규모가 3,500만 달러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링백톤이나 월페이퍼 같은 저렴한 비용의 모바일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6년 말부터 3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휴대폰을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계속 발굴되고 있다. 대용량 온라인게임 등도 활성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200여개의 모바일 콘텐츠 공급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중에서 인도네시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Code Jawa, PT

Semesta, Tirta Antara Raya, Iguana가 있다.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모바일 콘텐츠는 주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모바일 콘텐츠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Wallpaper나 Java게임 등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수입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외국계 선도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국내 업체들을 콘텐츠 배포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본 투자를 통한 지분을 획득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맞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대해 가는 전략을 사용한다.

나) 화장품

Euro Monitor International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규모는 12조 2천 루피아였다. 2007년 예상 시장 규모는 17조 3천 루피아이다. 인도네시아 화장품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 수입시장은 40~5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최소한 350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Unilever, P&G 등 외국계 화장품 업체와 Martha Tilaar, Mustika Ratu 등 국내업체가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피부가 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어 이를 보완하는 미백이나 노화방지용 기능성 화장품이 선호되고 있다. 주로 스킨케어쪽의 화장품이 시장을 주도하는 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의 고객 중에서 유망 타깃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젊은 도시 직장인 층으로 25~35세의 남성을 지칭하는 'Metro sexual'이다. 이들에게는 열대지방의 기후 특성을 살려 '수용성' 화장품으로 공략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화장품 유통에 관한 규정은 국가 식약청이라고 할 수 있는 BPOM(Indonesia's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에서 주로 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화장품 유통체인으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HERO나 MATAHARI, 까르푸 등 현대식 도소매유통업체이다. 이들을 직접 공략하는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적절한 광고와 홍보 전략이 가미되어야 한다.

다) 정수기 및 필터

인도네시아의 상수도 시장은 2004년까지 1억 4,200만 달러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정수 분야이다. 인도네시아 식수 수요량은 연간 130억 리터에 달하고 있어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식수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Aqua, Vit, Ades 등 병생수와 Sosro, Coca Cola 등의 음료수 시장이다. 정수기 회사들은 전시회나 광고 등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고급 수요층 개발에 집중해 왔다. 특히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프랑스, 싱가포르 정수기 브랜드들의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다. 산요와 같은 브랜드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공대인 ITB(반둥 공과대학)과 협력해 가정용 정수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에 기사를 올리는 홍보 전략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판매업체나 마케팅전문회사와 연계해 마케팅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두 가지 정수 기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역삼투압(Reverse osmosis) 방식이나 필터방식이라고 하며,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물을 거른 뒤 'UV 필터'를 통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정수기들은 전문점이나 백화점 또는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브랜드나 품질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고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상수도 시장은 2004년까지 1억 4,200만 달러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정수 분야이다.

라) 헬멧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에게는 오토바이가 가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중・상류층의 경우 교통 체증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토바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인니 정부에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5~60만 루피아에 안전장치가 있는 좋은 품질의 헬멧을 구매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대의 헬멧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고, 헬멧을 따로 둘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헬멧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아, 부담 없는 가격대를 고객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헬멧은 크게 싱가포르와 중국 수입 헬멧과, 현지 생산 헬멧이 경쟁을 하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충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몇 업체들은 현지 생산 공장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헬멧을 제조 중소기업들은, 오토바이 제조사에 헬멧을 납품하며, 이 경우, 헬멧에는 오토바이 상표를 붙이게 된다. 모든 오토바이 구매시, 한 개의 헬멧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매년 오토바이만 4백만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현지 제조 헬멧이 많이 판매됨에 따라, 고객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 결과 헬멧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디자인도 외국 최고급 제품들을 카피해서 만들어 냈다. 인도네시아 헬멧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되고 있다. 수입되는 헬멧은 주로 인니제품 보다 저렴한 중국산이며,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 인도네시아에 한국 제품은 중국 제품이나 현지 제품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판매 대상 선정,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등이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3) 말레이시아

가) 컴퓨터게임

말레이시아의 게임 산업은 PC와 인터넷 사용인구 증대, 경제성장에 따른 여가활동 인구 증가 및 정부의 IT 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해 왔다. 말레이시아 컴퓨터 게임시장은 온라인 게임과 PC 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이용료 수입이 2005년에 전년대비 46%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800만 달러(3,000만 링깃)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온라인 게임시장 전체의 이용료 수입은 2004년 10.9억 달러를, 2005년에는 26% 증가한 1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IDC는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게임시장의 성장속도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더욱 빠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4년간 말레이시아 온라인 게임시장에 대한 IDC의 복합연평균 성장률 예측치는 39%이며, 2009년에는 시장규모가 1,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말레이시아의 PC 게임은 PC와 각종 하드웨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플랫폼으로 정착하였다. 하지만 PC 게임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불법 복제품의 범람으로 인해 시장이 매우 제한적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의 성장성 및 경제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인터넷 환경 등 전반적인 IT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정부의 IT 산업,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 노력 등에 힘입어 게임 산업도 전반적으로 성장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게임업체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업체들이 말레이시아 업체들과 제휴할 경우 유리한 계약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한

국 게임업체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절감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외국계 게임 업체들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과 벤처기금 투자 등의 지원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승용자동차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2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자동차 시장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아세안 최대의 승용차 시장으로, 자국 자동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현재 60~70%를 상회하고 있다. 2006년 3월, 국가 자동차 정책(National Automotive Policy)의 발표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정책을 제시하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대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데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처음에는 정부의 보호아래 있었지만 이후 꾸준한 성장 속에 현재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차량을 생산해 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여전히 정부의 보호막에 의존하는 면이 큰데, 최대의 국영 자동차 회사인 프로톤(Proton)사는 최근까지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점차 수입차들에게 시장을 내어주고 있다. 또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프로톤사와 외국 메이저 자동차 업체간에 제휴 협상이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 같은 AFTA의 가맹국이면서 인접 경쟁국인 태국의 경우, 자국 자동차 브랜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차 부문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현재 전체 차량 생산량 면에서 말레이시아의 2배를 생산하는 등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남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허브가 되고자하는 말레이시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해외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은 말레이시아 시장공략을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산업 보호정책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자동차 정책(NAP), 프로톤사의 구조조정 작업 등이 앞으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 휴대폰

말레이시아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핸드폰 사용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물려 시장도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휴대폰 보급률은 8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제일 높다. 말레이시아의 휴대폰 시장이 급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경제력 증가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선불카드 제도의 도입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휴대폰 이용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부담스러운 월 이용료 대신에 소액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입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 휴대폰 시장에는 노키아, 삼성,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엘지 등이 진출해 있으며 시장 점유율 1위는 노키아로 약 4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삼성이 20%, LG가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노키아의 경우, 저가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삼성, LG는 현지에서 고가폰으로 인식된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3대 이동통신사는 Maxis, Celcom, Digi 사로 이중 Maxis 사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말레이시아의 휴대폰 시장은 현재 80%에 가까운 보급률로 인해 시장이 포화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층과 시골 지역 인구의 휴대폰 사용 확대, 3G 서비스 실시로 인한 신규 휴대폰 구입 및 주기적인 교체 등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 휴대폰의 경우 현재까지 고가폰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있으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겨냥한다면 저가 시장에서도 신규 모델 출시를 늘려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 제품이 디자인, 기능, 기술력 등에서는 현지에서 최고로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의 통화품질에 대해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구성 측면에서 노키아 제품에 비해 다소 약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산 휴대폰의 말레이시아 시장점유율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2007년 더 확대될 것이다.

라) 정수기 및 필터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가장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현재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정수기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왔다.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의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2억 달러이상으로 추정되며, 시장점유율 1위 업체는 Diamond사로 전체 시장의 32%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경쟁 업체로는 Amway, Nesh, Delcol, Elken, Joven, Panasonic 등으로 이외에도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해 있다.

한국 업체로는 웅진코웨이가 2006년 11월 말레이시아 시장에 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확보해 가고 있다. 이외 국내 정수기 부문 2위 업체인 청호나이스 정수기도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2006년 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국내 정수기 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식수 사용형태는 생수 음용이 45%, 정수기 사용이 36%, 수돗물 음용은 16%로 나타났다. 특히 생수 판매가 지난해까지는 두드러진 현상을 보였으나 2006년에는 정체를 보

인 가운데, 정수기 사용 및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지 정수기시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여러 단계의 정수과정(4~6단계)을 거치는 제품, 역삼투 정수방식(Reverse Osmosis)의 제품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경제력에 따라, 기본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저가형의 정수기 또는 필터 등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박테리아, 미생물, 중금속과 불순물 등에 대한 강력한 제거가 가능한 역삼투압 방식의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UF(Ultrafilteration) 방식, UV(자외선) 살균방식, 증류식(distillation), 이온 교환수지방식(Ion exchange resin), 은나노방식(silver Ionized Method) 등 각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도 시판되고 있다. 향후 말레이시아의 정수기 시장이 더욱 팽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요망된다.

마) 모바일 컨텐츠

매년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 중인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시장은 2006년 말 기준으로 무선전화 가입자가 1,9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3G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G 이용자 수는 현재는 40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0년 말에는 4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사용인구의 약 16%가 3G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G 사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향후, 모바일 게임과 기타 콘텐츠 시장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모바일 게임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에서 모바일 게임의 초기 유형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싱글형 캐주얼 게임 위주였으나, 현재는 대작 RPG나 네트워크 모바일 게임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게임에도 커뮤니티 그룹이나 매니아층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高)사양 단말기 보급과 함께 3D 게임 단말기의 보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게임이 일반화되면서, 현지에서는 모바일 게이머들이 모바일 게임의 완성도에 따라 통신사를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모바일 게임시장이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게임은 주로 미국과 유럽산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캐주얼 게임에서부터, 스포츠, RPG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시장을 고르게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레이시아 모바일 게임시장의 주요 경쟁업체로는 EA Mobile, Game loft, I-play, Digital Chocolate 등 대부분 해외 유명 모바일 게임업체들이다. 말레이시아 현지 모바일 관련 업체는 약 10개사로(MDEC에 MSC 등록회사) 조사되었으나, 자체 개발 활동이 미약함에 따라 주로 Ozura나 glu 등과 같은 해외개발 업체에서 게임 타이틀을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지 업체로는 Macera Technology Sdn Bhd, Unreal Mind Interactive Bhd 등이 자체개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산 모바일 게임은 현재로서는 시장 점유율이나,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향후에는 시장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가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 게임 시장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마케팅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4) 베트남

가) 승용자동차(호치민)

베트남은 아직 소득 수준이 낮아 8,300만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 수요 규모가 작은 편이다. 2006년 말 기준, 베트남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96만 5,455대인데, 이중 약 절반이 승용차이다. 베트남의 경우 차량 생산이 대부분 조립 생산이기 때문에 CKD 또는 SKD 부품 및 부분품 수입이 상대적

으로 많은 편이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이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낙관한 토요타, 미츠비시, 대우,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미 베트남에 자동차 조립공장 또는 판매 에이전트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혼다, 현대, 푸조, 랜드로버 등 세계 유명 브랜드는 물론, 저가 사양의 중국 브랜드들도 베트남으로의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수입 승용차에 대해 80%의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현지에서 조립 생산한 차량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시장의 90% 이상을 현지 생산차량이 점유하고 있다 신차 승용차의 경우 현지 공식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의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연평균 승용차 수요는 약 3만대 수준이지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 승용차 시장은 8,400만 명 이상의 인구, 연간 8% 이상의 경제 성장률, WTO 가입에 따른 세계화, 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

나) 자동차부품(호치민)

베트남의 경우 차량 생산이 대부분 조립 생산이기 때문에 CKD 또는 SKD 부품 및 부분품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이다. 베트남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태국, 인도네시아산 제품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저가품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들은 대 베트남 자동차 부품 수출시 0~5%의 관세만 납부함으로써 여타 국가들보다 관세 면에서 5~30%나 유리한 위치에 있다. 현지 조립생산 차량을 일본 차량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 일본산 부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볼트, 안테나, 스프링, 브레이크, 연료탱크, 배터리, 램프 등의 경우, 중국산 부품을 널리 사

용하고 있다. 한국산의 경우 각종 필터, 에어컨 부품, 엔진 부품, 기어 박스 부품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베트남의 경우 자동차를 대부분 현지 조립생산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고정 공급선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신규 공급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비해 A/S용 부품의 경우는 신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의 진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9년 1월 1일부터는 서비스 부문이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되어 직접 무역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직접 자동차 부품 유통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구매자들의 소득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자동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 플라스틱원료(호치민)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정부의 육성책에 힘입어 연평균 30%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플라스틱 원료 국제 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베트남의 플라스틱 원료 수요는 400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산업 발전과 함께 PE/PP 레진 등 플라스틱 원료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2007년 PE 레진 수요는 70만 톤, PP 레진 수요는 6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베트남의 경우 플라스틱 원료 수요의 일부만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베트남 플라스틱 원료 주요 수출국은 대만, 태국,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등이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강점은 중국계 베트남인들에게 언어 장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국은 국제 플라스틱 브로커들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의 주요 생산품은 가정용품이나

플라스틱 포장재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원료는 PE/PP 레진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6년 기준 베트남이 수입하는 플라스틱 원료는 30가지가 넘지만 PE/PP 레진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원료는 제품 특성상 항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의 비즈니스 추진이 중요하다. 플라스틱 원료 유통 경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현지 무역상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법과, 실수요자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직수입하는 2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한국 공급업체들의 경우 현지 무역상을 통할 수도 있고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서는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두는 것이 좋다.

라) 사료제품(출산, 어류)(하노이)

베트남 내에는 약 600만 마리의 소, 2700만 마리의 돼지, 약 2억만 마리의 가금류 등이 사육되고 있다. 이 가축, 가금류에 적용되는 각종 사료의 약 70%를 내수에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수입에 의존한다. 2006년도까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는 241개 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5,000톤 이하의 생산량을 가진 소형 공장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중형 공장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도 5,000톤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 145개가 있었는데, 2006년도 122개로 23개 줄었다. 반면 5,000톤 이상의 대·중규모 공장들은 104개에서 119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베트남내 가축 사료원료 생산 방식 또한 현대화되지 못하여 타 국가에 비해 면적 대비 생산량이 2/3 정도된다. 주원료인 60% 질소, amino acid 등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이 타 국가에 비해 10~20% 정도 사료 값이 비싸다.

최근 농업개발부산하의 축산업국에서 각 공장에서 생산된 샘플 408개를 채취하여 품질 테스트를 하였다. 그 중 200개는 공장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것이고, 그중 116개의 샘플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였다. 약 208개의 샘플은 내수시장에서 직접 채취하였는데 그 중 172개 샘플이 품질이 적합하지 않았다. 이

에 따라 각 업체에 실험실 설치 및 품질 자체테스트를 통하게끔 지시하였다. 2010년까지 약 30% 각 사료공장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된 생산라인을 설치될 것이다. 70%의 사료공장에는 각종 테스트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베트남은 사료분야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공급량, 품질이 후진국 수준인 관계로 여러 가지 각종 질병(구제역, 조류독감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료 및 첨가제, 산업용 사료 제품이 지속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03> 가축 및 가금류 생산량

구분	생산량(1000마리)		2006/2005(%)
	2005	2006	
물소	2922.2	2921.1	99.96
소	5540.7	6510.8	117.51
돼지	27434.9	26855.3	97.89
가금류	219910.6	214564.5	97.57

자료: 베트남 농업개발부(MARD).

마) 밸브 및 피팅류(하노이)

베트남의 밸브, 피팅 시장은 아직 계량기(미터기),밸브, 펌프, 실린더, 파이프와 같은 기체, 기름, 물과 같은 물질들을 운반하는 물자설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서 여전히 이러한 설비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베트남 몇몇 로컬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상수도 파이프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다. 반면 실린도, 펌프, 밸브와 같은 중요 부품들은 갈수록 수입의존도가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바) 모터사이클(하노이)

베트남 경제는 1986년 "도이머이(Doi Moi;刷新)" 정책(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그 결과 2001년부터 7%, 2005년부터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까지 9~10%의 고도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WTO 체제가입 및 대미수출 전략기지로서의 중요성 부각 이후 외국인투자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여 본격적인 경제 호황기를 맞으며 아시아 최빈국에서 신흥유망국가(Emerging Market)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 오토바이 산업은 세계 오토바이 운행대수 기준으로 8%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며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와 맞물려, 매년 20%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84백만 인구의 내수시장은 물론 동남아 수출전략기지로서 향후 베트남 주력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 오토바이 제조업체는 일본(Honda, Yamaha, Suzuki), 대만(VMEP), 중국(Lifan) 등 7개 외국 투자기업, 22개의 국영기업, 23개의 민간기업 등 총 52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2006년 연간 생산대수가 3,130,000대로 집계되고 있다.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2000년 이후 국내 및 외국기업간의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경쟁시장에서 품질경쟁시장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낮은 국내 민간 기업이 퇴출 및 업종변경을 속속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일본투자기업인 Honda와 Yamaha사는 기존 공장증설 및 신규투자를 통해 2008년까지 현재 베트남 전체 생산규모에 버금가는 3백만대 규모의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06년 베트남 오토바이 등록대수 기준 18.7백만대의 시장으로 2010년까지 25백만대, 2015년까지 31백만대의 대형 오토바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전문가의 경우, 2008년 도시지역 포화상태 도달, 2012년 국내 시장포화상태 도달을 전망하면서도 이와 같은 외국 및 국내기업의 공격적인 공

장설비 투자확대로 향후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및 ASEAN시장을 타깃으로 아시아의 오토바이 전략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CKD중심의 단수부품 수출에서 로컬 컨텐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국내 생산부품에 대한 수출비중을 대폭 확대해 2015년까지 도시지역 전체 오토바이 수요의 90%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베트남을 동남아 오토바이 생산 및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적극 업체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동 마스터 플랜은 2010년까지 300백만 달러, 2015년 500백만 달러, 2020년 1,000백만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설비 확대 및 R &D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및 부품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 타이어(하노이)

베트남 타이어 산업은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 및 수입시장 확대와 함께 풍부한 천연고무 자원과 84백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향후 베트남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타이어 생산량을 살펴보면, 자전거용은 20백만 개, 오토바이용은 16~18백만 개, 자동차용은 8~10백만 개의 생산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은 국내생산으로 전량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용의 경우 국내생산이 전체의 40~50%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베트남 타이어 국내시장은 국영기업 Vinachem의 자회사인 DRC, SRC, Casumina 3개사와 외국기업 2개사를 포함 총 5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여 베트남 타이어 시장에는 약 20개 브랜드의 타이어와 튜브가 판매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태국(Camel, Hihero, Siam), 대만(Kenda, Shinfa), 일본(Falken, Ohtsu), 한

국(한국, 금호) 등 외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으며 유명 브랜드들은 Michelin, Bridgestone, Falken, Hankok 등이 고급 타이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 Kenda, Shinafa, Veloce, Camel 같은 브랜드들이 중급 타이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타이어 제조업체는 지속적인 설비 및 기술 투자로 인해 국내 시장 공급뿐만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 향상을 이루었고 수입 타이어에 비해 저렴한 가격, 편리한 A/S 등 외국 타이어에 비해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고무 처리 기술력 낙후로 인한 원자재 재수입, 외국 타이어 수입 관세 완화, 국민들의 자국 제품에 대한 신뢰성 결여 등의 문제로 국내 시장에서 외국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 헬멧(오토바이용)(호치민)

베트남은 전체 운송수단의 95%가 오토바이이며 2006년 말 기준 1,840만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운행 중에 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만대씩 오토바이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 9월 15일부터는 헬멧사용이 의무화되어 헬멧 수요가 대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2월 15일 이전까지 헬멧 수요는 4,000만 개에 달할 전망이며 정부가 헬멧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수요가 유지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지산 제품 및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베트남 북쪽 국경을 통한 밀수품이 범람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직 가격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한국산 제품의 수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헬멧시장은 고가품 시장과 저가품 시장으로 양분되는데 저소득층은 안전보다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가품을 선호한다. 현지산 유명 브랜드는 Honda, Protec, Zeus 등 외국인투자기업 제품들인데, 특히 Honda 헬멧은 현

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Honda 오토바이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다.

한편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은 착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half-faced 타입의 헬멧이며 여성 및 젊은층을 겨냥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 디자인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 헬멧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홍보, 마케팅, 유통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유력 에이전트 발굴 및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현지에서 헬멧 마케팅을 위해 활용 가능한 광고 수단으로는 TV 광고, 신문 광고, 관련 전시회 참가 등이 있다.

헬멧이 베트남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현지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막론하고 과학기술부 및 과학기술부 지방사무소에 표준품질등록을 하고 품질인증 스탬프(Quality stamp)를 부착해야 한다. 베트남은 한국산 헬멧 수입시 20%의 관세와 10%의 VAT를 부과한다.

자) 철강판(평판압연제품)(호치민)

베트남 경제 발전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판압연제품 수요는 연평균 15~20%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아직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베트남의 1인당 연간 스테인리스강 소비량은 2kg으로 대만의 30kg, 일본의 50kg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은 평판압연제품 생산이 아직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대만, 일본, 한국, 인도, 중국, 태국, EU 등이다. 베트남 평판압연제품 시장은 아시아 국가들 제품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제품 인도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중국산은 저가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및 EU산은 고가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산은 대만 및 인도산과 함께 중가품 시장에 속한다. 2005년 기준 한국 평판압연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10%로 대만 및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평판압연제품은 포스코 등을 통해 품질 면에서 바이어들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의 추가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평판압연제품 사양은 식품 및 음료가공 산업용의 304 시리즈 및 가전제품용의 430 시리즈인데, 전체 평판압연제품 소비량의 80%를 차지한다.

베트남 평판압연제품 유통시장에서는 외국계 무역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평판압연제품은 대부분 외국 업체의 대표사무소나 현지 판매 에이전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들은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업체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평판압연제품 제조업체들은 직접 바이어를 발굴하고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지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 무역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호치민시나 하노이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활동 중인 한국 무역업체들은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제품 특성상 신문, 라디오, TV 등 광고는 적합하지 않으며 잠재 현지 바이어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지 철강전문잡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베트남은 평판압연제품 수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하며 5%의 VAT만 부과된다.

5) 태국

가) 발전기

2006년도 태국 발전기 시장 전체 규모는 약 600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태국 시장내 발전기 사용은 구매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산업용 공장, 대형 마트, 대형 방갈로, 호텔 등에 ISO(국제표준화기구) 획득을 위해 구매하고 있으며, 동시에 발전기 제조 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태국 시장에 유통되는 엔진은 모두 수입산인데 반해 발전기의 경우 로컬 제품의

생산율이 높은 편이다. 태국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는 미국산 Caterpillar 제품이며, 유럽산 발전기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로 인기가 있으나, 미국산 Caterpillar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 발전기의 경우 아직까지 현지 시장에 브랜드 이미지의 인지도가 없어 수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산 전기, 가전제품의 인기 급상승으로 인해 주요 시장 진입 시기에 있다.

<표 2-104> 국가별 디젤 발전기세트 태국 시장 점유율

국가	시장점유율(%)
미국	50
유럽	30
일본	10
기타	10

자료: Thai Generator and Engineering Co.,Ltd.담당자 인터뷰.

나) 영화

2006년도 태국 전체 영화 시장 규모는 약 1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2007년도는 약 1억 3천만 달러로 전망된다. 태국 영화시장은 지난 2~3년간 국내외 영화 제작 및 수입 수가 크게 증가하고 동시에 대형 영화사의 체인 확장 등 영화관 산업이 발전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성장세가 가속화된 2006년도 기준 태국 영화산업 규모는 약 1억 달러 수준이며 매년 6~7%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2-105>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Thai movie	21	25	28	43
International movie	73	75	75	87
Total Market value	94	99	103	130
Growth rate of overall market value(%)	-	5.4	3.5	26.4

자료: Business Week Newspaper, May 21~27, 2007,(page 1281), Kasikorn Research Center

태국은 자국 영화 제작만으로 국내 시장에서 약 290만 달러의 연간 수익('06년도기준)을 올리고 있다. 대형 수입유통사의 해외 영화 수입이 매우 적극적이며, 전체 영화시장내 해외 영화의 비중은 약 75% 선이다. 해외 영화 가운데 헐리웃 영화가 약 63%('06년도 기준)를 차지하였다. 흥행작과 상영일 부분에서도 헐리웃 영화가 독보적이다. 태국내 개봉되는 아시아계 영화 중 한국영화의 비중은 약 39%('06년도 기준)로, 흥행과 홍보면에서 가장 상품성이 있으나, 헐리웃 영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5년도까지 한국영화의 태국 전체 영화산업 시장내 비중은 약 1%미만 수준이었다. 지난 2~3년간 한국 드라마, 음악, 스타 등 한류 붐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한류 스타의 출연작품 수입을 매우 선호하는 편이다.

다) 보안기기(CCTV, DVR)

태국 보안기기 시장은 지난 몇 년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도 전체 보안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약 30% 가량 증가한 약 1억 달러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안보위협 요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 시장의 최대 수요자인 정부에서 잠재적 위험 지역에 대한 보안 시스템 투자를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태국 안보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진 사회 분위기도 보안기기 시장규모 증가에 기여하였다. 태국 남부 이슬람 세력에 의해 일어난 태국 공항, 남부 쇼핑센터, 2006년 12월 31일 방콕 도심 폭탄 테러 등 각종 테러 사태가 정부 및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보안 사업 확대를 재촉하여, 사태 이후 CCTV, 금속탐지기의 매출 증가가 바로 나타났다. 현재 태국의 일반적인 CCTV의 타입은 가장 사용이 용이하고 효과적이며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CCD카메라 타입이다. 또한 태국 보안기기 고가 시장 소비자 공략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브랜드 인지도, 가격, 제품 AS여부이다.

태국 보안기기 최고급 제품시장은 미국의 Honeywell, 유럽의 Bosch, 일본

의 Sony 제품이 대부분 차지한다. 일본 제품의 경우 미국, 유럽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급 품질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중·저가 제품시장은 대만의 KND, Fujiko와 한국의 Wonwoo, Terascan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약 3~4배 정도 저렴한 편이다. 저가 시장은 값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 제품에 비해 수명이 매우 짧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의 경우 정부기관 등의 대형 바이어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파트너사 업무협력은 성공적인 태국 시장 진출에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언어, 각종 승인 문서작업, 현지 마케팅 원조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선정하여 독점권을 주지 않고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시장 규모면에서 크지 않으나, 융통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며, 특별 프로젝트나 시장 진출이 용이한 편이다. 한국 수출업자들의 진출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먼저 교역 경험이 많고, 현지 시장에 밝은 태국 에이전트 혹은 디스트리뷰터를 선정하는 것이다.

라) 위성수신기(셋톱박스)

태국 공중파 TV 방송 사업은 the Mass Communications Organization of Thailand (MCOT), the Public Relations Department of Thailand (PRD), and the Royal Thai Army Radio and Television (RTA) 3개의 정부기관 산하에 있다. 현지 주요 공중파 채널 3사가 위 사업자 소유이다.

공중파 외 TV방송 사업자의 경우, CATV, MMDS, 위성방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최대 사업자는 현지 대기업인 CP(Charoen Pokphand)Group의 계열사인 True Vision으로 태국 MCOT로부터 CATV 수신 허가를 받아 방콕에 최대 CATV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위성방송(DSTV)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태국의 TV 보급률은 매우 높은 수치인 98%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따라 정부는 현재 6개 공중파 채널에서 60개 채널로 확대하여, 각 채

널의 새로운 디지털 Sub-Channel을 확산시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위성수신기(셋톱박스) 및 다른 수신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TV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동 산업 강국인 한국 업체의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송시장 트렌드에 따라 위성기기 로컬 제품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로컬 브랜드 가운데 최대 브랜드인 DYNAMIC SATCOM CO. LTD.의 DYNASAT를 비롯하여 INFOSAT CO. Ltd.의 INFOSAT, PSI HOLDING CO. LTD.의 PSI 등의 브랜드가 로컬제품의 가격 조절을 위해 치열한 가격 경쟁 중에 있다. 로컬 브랜드는 미국,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수입 품목 가운데 셋톱박스의 경우, 한국, 중국, 대만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시장 진출한 상태이다. 그 결과 고성능의 북미,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산 브랜드인 Huwei가 한국산 브랜드 Homecast, Humax, Topfield와 함께 셋톱박스 수입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의 진출시 현지 시장경험이 많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현지 에이전트와 거래해야 하며, 태국 정보통신부의 규정에 적합한 통신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가 중요하다. 그 밖에도 True Vision과 같은 태국내 대형 사업자와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도 현지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True Vision의 구매기간은 주로 9~10월 연말 시즌)

6) 캄보디아

가) 건강식품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380달러 정도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건강식품의 소비가 미비하다. 그러나 소득수준 대비 구매는 기대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건강식품에 대한 구매가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구매가 강한 화교가 정치경제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건강식품의 소비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을 배경으로 구매계층은 계속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캄보디아의 건강식품 시장은 구매계층이 확실히 구별되는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시장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방식에 의해 과학적인 검증 없이 재래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국내생산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디자인 조잡하고, 품질수준도 그다지 신뢰성이 없어 저가에 재래시장을 통해 팔리고 있으며, 주요 구매계층은 농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수입품은 국내생산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장 및 디자인이 깔끔하고, 내용물도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어 도시거주 중상류 계층이 주요 고객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수입품은 고가 기능성 건강식품의 경우 프랑스 및 미국 등의 제품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 범용 건강식품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된다. 판매장소도 다소 차이를 보여 고가제품 주로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중저가 제품은 슈퍼마켓을 통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산 건강식품은 주로 인삼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들에 잘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인삼 관련제품이 주로 수입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면서 점차 한국산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인삼 관련 제품을 비롯한 한국산 건강식품의 현지 진출여건은 밝은 편이다. 시장선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진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나) 금고

캄보디아의 소비자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 은행 이용도가 낮은 편이다.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 보다는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귀금속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아직까지 은행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은행을 안전한 재산보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파산시 예금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현금 및 귀금속 보유능력이 있는 중상류 계층의 가정은 적어도 1개 이상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무실에도 금고 보유가 일반적이다. 특히 치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금고사용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세계 최빈국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캄보디아 시장은 품질보다는 가격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품 구매시 품질이 아무리 월등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경우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증가에 따른 중상류 계층의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중소기업 설립 증가,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 와트 관광객 방문 폭증에 따른 호텔 신축 붐을 배경으로 캄보디아의 금고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다) 전기부품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전기사정이 가장 좋지 않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전력인프라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 공급기반 확충대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및 태국으로부터 전력수입을 위한 고압송전선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계획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의 전력공급 전망은 밝은 편이다.

캄보디아의 전기부품 시장은 전력이 공급되는 프놈펜 등 대도시에 국한되어 시장수요가 있었으나, 전력공급이 농촌지역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전기부품 시장이 과거와 비교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전기부품 생산기반이 전무하여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캄보디아의 전기부품 시장은 중국, 프랑스,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 범용부품은 저가의 중국산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으나,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필요한 부품은 프랑스, 한국 등의 제품이 아직까지 시장우위를 지키고 있다.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의 전기부품 시장은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라) 화장품

캄보디아 국내 화장품 생산이 거의 전무하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캄보디아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의식주 해결을 우선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기업 투자진출이 급증, 두자리수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제는 서서히 미용에 관심을 갖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캄보디아의 화장품 시장은 전망은 밝은 편이다. 고가 화장품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프랑스, 미국 및 한국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다. 저가품은 태국산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등 고가·고품질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소비층인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은 화이트닝(whitening) 로션, 자외선 차단 크림 및 로션 등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이며, 메이크업 화장품은 결혼식 및 파티 등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화장품 시장은 크게 저가·저품질 제품 시장과 고가·고기능성 제품 시장으로 구분된다. 중산층 소비자들은 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범용 화장품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일부 제한된 상류계층은 품질 위주의 구매 양상을 보인다. 현지에서는 다양한 고가·고품질 화장품을 접하기 어려워 주로 태국 및 싱가포르 등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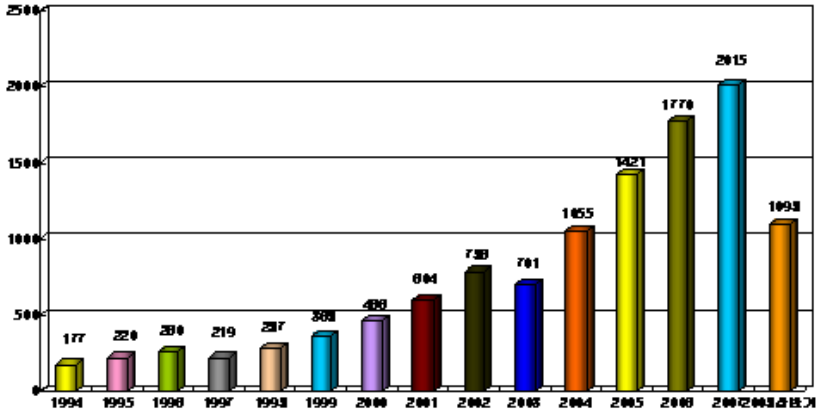
국가로 출장 시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고가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저가 화장품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서서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기능성 고가 제품 시장을 공략함이 바람직하다.

마) 관광업

캄보디아는 천연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의 유산과 유물이 많다. 신비로움에 쌓인 곳으로서 관광 산업이 해마다 발전하고 있다.

<그림 2-11> 캄보디아 관광객 수

(단위: 천 명)



자료: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CDC), 대한상공위원회.

캄보디아는 관광업에 있어 2010년에는 3,120,000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비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관광업 10대 투자국으로는 한국, 베트남, 일본, 미국, 중국, 태국, 대만,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순이다.

관광업으로의 투자지로는 Phnom Penh, Siem reap, Sihanoukville, Bokor 등의 지역이 관광업을 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Phnom Penh은 국제 컨벤션 센터가 있는 곳으로 최고급 호텔들이 있는 곳으로 오직 대륙을 잇

는 호텔과 래플만 있다. Siem reap에도 국제 컨벤션 센터가 있으며 최고급 호텔들이 있다. 또한 각종 놀이공원과 레크리에이션 및 3개의 골프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Sihanoukville은 최고급 호텔들이 있으며 골프 코스가 있다. Bokor는 국립공원 안에 Hill 리조트가 있다. 호텔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왔다.

7) 미얀마

가) 제지류

미얀마의 제지류 수요는 미얀마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198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미얀마에서 제지를 생산하는 공장은 정부산하에 5개, 민간공장은 10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제지는 대부분 품질이 낮은 재생제지로 고급 제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얀마 전체 제지 소비량은 약 13만 5,200톤이며, 이중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약 20개 제지류 수입업체가 있으며, 주요 수입업체로는 Deco Land, Grate, Myanmar Win, Aung Minglar 등이 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다. 제지류 중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는 Wood Free(60g), Art Paper(85g), Duplex(270g) 등이 있다. 제지의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지난 5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미얀마에서 일부 제지는 계절성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 급 학교의 교재가 만들어지는 4~6월과 달력이 만들어지는 9~11월 사이에 수요가 급증한다. 마케팅을 위해 노트 등 일부 제품의 경우 TV광고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제지류는 개별 판매를 위주로 있어 도매상, 소매상 등 중간 유통업자 관리가 더 중요하다. 수출을 위한 비관세 장벽은 별도로 없으며, 수입관세 또한 3%로 낮은 편이다. 수입관세 이외에 10%의 상업세가 부과된다.

나) 발전기

1990년대 중반부터 미얀마에서 발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Denyo는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발전기 브랜드이며 아파트나 사무실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독점 판매상이나 에이전트가 없어 거의 모든 수입상들이 Denyo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발전기의 주요 수요처는 가정용(10KVA이하), 아파트 및 사무실용(10KVA~100KVA), 공장용(100KVA이상) 등 3가지로 구분되며, 가정용 발전기 수요가 전체수요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기 수입 및 판매업체들은 양곤 디렉토리, 만달레이 디렉토리(한국의 전화번호부와 비슷함)와 같은 종합품목 디렉토리에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판매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판매상에 따르면, 기존고객의 입소문을 통해 대부분의 신규 고객이 창출되고 있다.

발전기의 가격은 환율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관세 또한 1%로 매우 낮은 편이다. 수입관세 이외에 상업세가 20% 부과된다.

다) 타이어

1988년 시장개방 이전에는 미얀마 공업2부(Ministry of Industry 2)에서 타이어를 생산하였으나, 시장개방이후 현재까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제품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의 타이어 시장은 가격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일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구매자가 있긴 하나 이는 전체 판매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열악한 도로 상태로 인해 내구력이 우수한 타이어를 선호한다.

타이어 수입상 및 판매업체들은 양곤 디렉토리, 만달레이 디렉토리(한국의 전화번호부와 비슷)와 같은 종합품목 디렉토리에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

부분 개별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판매상에 따르면, 기존고객의 입소문을 통해 대부분의 신규 고객이 창출되고 있다.

라) 자동차부품

미얀마 자동차 산업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트럭 등 일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 Isuzu, Suzuki 등과 합작으로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나 대수는 그리 많지 않다. 자동차 부품은 라디에이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품질이 낮고 수량 또한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얀마에 등록된 자동차의 80%이상이 중고 일본차들이며,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도 가격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 일제 부품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세관 단속강화로 중고 부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

미얀마의 자동차 부품시장은 일본, 중국, 태국, 한국 등이 경쟁하고 있다. 도로 체계가 우리나라와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마) 디지털 카메라

미얀마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는 미얀마의 카메라 총 판매량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미얀마 수입대리점과 판매상들은 월 평균 최소 2,000개 정도의 디지털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판매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대는 200~400달러 선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카메라의 카메라 시장 잠식은 약 5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향후 10년까지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미얀마는 자국에 디지털 카메라 생산업체가 없으며 전량을 일본과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고 있

다. 수입되는 제품은 소니, 캐논, 삼성, 니콘, 파나소닉, 미놀타, 올림푸스, 후지, 팬택스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과 다양한 중국산 제품이 있으며 어느 브랜드도 완벽한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바)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미얀마 경제는 농업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산업부분은 약 15%, 서비스업과 무역업의 비율은 각각 12%와 22%를 차지한다. 무역규모는 회계연도 2006~07기준으로 79.3억 달러이며 수입은 29.2억 달러, 수출은 5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중요한 미얀마의 교역국이다. 미얀마는 37.34백만 달러를 한국으로 수출, 83.10백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그것은 미얀마 총 수출입의 각각 1.05%, 4.2%를 차지한다. 미얀마의 컴퓨터 시장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컴퓨터의 약 85%는 일반 사무실과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2년 이전까지 컴퓨터는 정부기관,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으나 2002년 미얀마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무실과 일반 가정을 중심으로 컴퓨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미얀마는 국내에 컴퓨터 및 관련부품, 주변기기 생산업체가 없으며 전량을 주변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되는 제품은 주로 중국과의 국경을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 들어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는 불법 유입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보증, 수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며 정상 수입된 제품은 보통 1년에서 2년의 품질보증 기간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미얀마에 수입되는 컴퓨터는 완제품 상태로 수입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 부품상태로 수입 되어 현지에서 조립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노트북 컴퓨터의 판매율은 5% 미만이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판매가격은 모니터 포함 500,000짜트(미얀마 현지화,

US$1=1,280짜트)에서 700,000짜트 사이가 가장 많으며 노트북 컴퓨터의 가격은 1,500,000짜트 이상으로 미얀마의 물가수준에 비해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9) 소결

대상 국가의 주요 업종별 투자동향을 살펴보았다. 필리핀의 경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업의 자체 조건의 미흡함으로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광산산업, PDP LDC TV, 모바일 컨텐츠,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 핸드폰, 의약품, 바이오 연료에도 많은 투자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식품과일음료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음료의 브랜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층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의 필수품인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로 헬멧에 대한 수입과 수출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제품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가장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경제 성장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맞춰 컴퓨터게임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와 휴대폰도 떠오르는 투자대상이다. 세계 경제시장에 문을 연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근 떠오르는 투자대상 최상위국가에 걸맞게 다양한 산업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 종류로는 자동차부터 플라스틱 원료, 사료제품, 모터사이클, 타이어, 헬멧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태국은 영화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위성수신기도 시장내 경쟁이 치열하다.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에 속하지만 건강식

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 금고관련 산업에도 투자가 유치되는 실정이다. 그 외 주목할 만 점은 세계적인 유산인 앙코르로 꾸준히 증가하는 관광업이다. 국내 문제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는 제지, 발전기, 타이어 등이 주요 투자산업이고 최근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주변기기도 유망 산업에 속한다.

다. 투자 유치제도[61)]

1) 필리핀[62)]

필리핀은 1976년 자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인센티브법(Investment Incentive Act)'을 제정하고, 이듬해 이 법을 바탕으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을 신설하여 내·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7년에는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을 제정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투자 관련 법규를 통합하여 내외국인의 투자 인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필리핀 투자청(BOI)은 매년 상반기 '종합투자법'을 바탕으로 투자 우대 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중점투자유치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을 토대로 투자정책을 추진하였다. 필리핀 정부의 '중점투자유치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은 투자유치 확대분야(Preferred Activities), 제한 투자유치 확대분야(Mandatory Inclusions-자국 내 분야별 관련 법규에 근거), 수출확대장려분야(Export Activities), 외국인투자 확대 유도 프로그램(Projects under Retention,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Program), 상품 및 서비스 설비 이전에 대한 우대조건(Relocation Activities) 등의 5개

61) 각 국의 투자 유치 제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KOTRA의 「투자핵심가이드」를 참조하여 보면 주요투자우대분야, 투자유치 확대분야, 제한적 투자유치 확대분야, 수출확대 장려분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적용분야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62) 코트라 필리핀 투자핵심가이드. 주 필리핀 대사관.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1991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외국인투자 제한항목(Negative List)'을 제외하고 100%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63]

2006년에는 노동법 개정추진 실패, 세법개정안의 국회심의 지연, 투자법안의 국회심의 지연 등 투자환경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음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저조하였으나, 2007년 3월 29일 개정투자법이 발효되면서 투자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투자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 내국인투자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국내외 투자자 차별을 철폐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제정되었다.

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는 산업구조 고도화로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렵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5만 5천 링깃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1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서비스, 유통업은 물론 제조업에 대해서도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단독투자를 제한하였으나 2003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63) 코트라 인도네시아 투자핵심가이드.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종전의 수출 비중이나 팜 오일, 플라스틱, 목재 등 말레이시아 전통산업 투자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업에 관한 한 100% 외국인에 의한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금융업과 유통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 업종에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지분제한 규정이 있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그 동안 말레이시아계가 전체 지분의 70% 이상(외국인 30%)을 소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4년 말부터 유통업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되다. 즉 전체 지분의 30%는 말레이시아 국민 중 말레이계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Bumi Putra정책)이외의 모든 제한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말레이계의 30% 이상 지분 의무 보유 외에 외국인투자 지분 50% 이하의 제한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

4) 베트남[64)]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7월 1일부로 발효하였다. 구법과 신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64) 코트라 베트남 투자핵심가이드. 주 베트남 대사관.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표 2-106> 외국기업 관련 구법과 신법 주요 차이점

차이점	구법(舊法)	신규법(新規法)
목적	- 2006년 7월 1일 이전, 즉 새로운 투자법과 기업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외국 회사는 투자법에서 정한 회사 방식만을 선택할 수 있음	- 2006년 7월 1일자로, 외국 기업도 기업법에서 정한 모든 종류의 회사를 베트남 기업과 일하게 설립할 수 있음
투자허가서 (IC) 발급기관	- 3개의 기관: 중앙정부 계획투자부(MPI), 지방정부 계획투자부서(DPI),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BOM) - 투자 자본금(1000만 달러 이하)과 관련하여 성이나 시정부에 제한된 권한을 부여함	- 2개의 기관: 지방정부 계획투자부(DPI)와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BOM) - DPI와 BOM은 투자허가서(IC)의 발급을 위해 수상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에 한해서 IC를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중요한 사업은 투자 자본금에 상관없이, 또는 투자 자본금이 1조 5천억동(9,375만 달러) 이상인 사업일 경우, 수상의 승인이 필요
토자허가서 발행조건	- 투자 자본금 - 토지 면적 - 프로젝트 유형	- 투자 자본금 - 프로젝트의 유형: 수상의 비준이 필요한 프로젝트에만 해당
투자허가서 취득 절차	- 평가 또는 등록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승인허가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더욱 간단해져 평가 또는 등록. - 조건부 프로젝트 혹은 수상의 비준이 필요한 프로젝트만 지도계획투자처 혹은 관리 위원회에 투자 승인 허가서 관련서류를 제출
투자허가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	-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은행잔고 증명 또는 최근 2년간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함	- 은행잔고증명이나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 투자자는 개인적으로 재정능력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함
투자형태	- 베트남 정부가 국내 회사(공공 전자/통신/방송/교통/운송업 서비스 등)를 통제 또는 보호하고자 하였기에 BCC 또는 합작 회사의 형태로 투자하여야 함	- 정해진 투자 형태는 없음 - 그러나 여전히 조건부 프로젝트의 경우, 합작 필수 사항 존재. 베트남 정부는 세부적인 필요조건에 관한 관계 시행령이나 회람(통지부)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
정관자본 법정자본	- 제한: 외국 기업의 법정자본은 최소한 총투자 자본의 30%를 차지해야 함 - 기존법에서는, "법정자본금"이란 투자자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을 뜻함 - 외국 투자법 제16조에서, 법정자본금을 감자하는 것은 금지하였음	- 제한 없음: 투자법의 어느 조항과 시행령 No.108에도 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 신규법하에서, 투자자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을 "법정 자본금"이란 개념대신 "정관 자본금"으로 표현 - 정관 자본의 감자에 대한 제한 없음(1인 유한회사의 경우 규제조항 있음)
만장일치 승인 조건	- 외국 투자법의 제14조에서, 합작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 즉 대표이사의 임명과 면직, 합작 회사 정관의 수정이나 추가 사항 등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됨	- 만장일치 승인 필수사항 삭제. 이는 기업법에서도 마찬가지임.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원이나 주주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없음 - 중요 사안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주주)이 정관 자본의 최소 65~75%를 소유하는 경우, 이들이 내린 결정은 유효함

5) 태국[65]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세제 지원 등 BOI의 각종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태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한하며, BOI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결과를 BOI에 보고해야 한다. 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국 산업의 질 및 생산 기준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천만바트(약 2억 5천만원) 이상의 투자는 반드시 ISO 9000등 유사한 국제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 및 국산품 이용 규정 철회는 국제 교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 준수를 위해 협정에 위반되는 생산품의 수출 비율 및 원료의 국산품 이용 규정은 철회된다. 또한 지역의 균등 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투자 우대를 하는데 저소득 및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특별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형 투자를 중시하여 최소 1백만바트(25백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는 중소형 투자도 BOI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 장려 분야인 농업 및 농업생산품, 고도기술 및 인적자원개발, 공익 및 사회기반시설, 환경보호. 기타 정부지정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6) 캄보디아

가)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66]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1인당 GDP 450달러 정도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장려와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뉴욕협약(1958)'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상업 중재에 관한

65) 코트라 태국 투자핵심가이드. 주 태국 대사관.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66) 코트라 캄보디아 투자핵심가이드. 주 캄보디아 대사관. 코트라 대륙별 국가정보.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 외국인투자법 제정·시행 및 개발위원회(CDC)를 통한 투자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단,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 외국인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외국인투자법에 규정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입법 조치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

캄보디아는 1989년 7월에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법을 입법하였으나, 이 법은 총 44개의 개략적인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은 1994년 8월에 새로이 채택되었는데, 이 법은 ① 투자승인 기업체 법인세 면제기간 부여, ②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제, ③ 이윤 송금 자유화 등 대폭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8월 제정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이 지연되면서(1998년 1월 시행령 제정) 그동안 정부당국의 임의적 재량권이 남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7월 제3기 연립정부 출범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개혁추진과 함께 입법, 사법, 행정 부문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법의 시행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위임하여 투자 승인과정 단축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상 특별우대는 없으나 세제 측면에서 집중 우대하고 있으며, 외환 송금에 전혀 제약을 두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정부 우선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최장 9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최소한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는 수출산업, 특별진흥구역(SPZ) 내의 공장 보유 기업, 관광, 고용창출, 임가공, 기간산업, 농업, 에너지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100% 면제된다.

7) 미얀마[67]

미얀마는 1998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FIL)을 제정, 공표하였다. 동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투자형태로는 단독투자나 합작투자가 가능하며 합작 파트너로는 개인, 민간기업, 정부공공기업 등이 될 수 있다. 합작 투자시 외국인투자자는 전체 투자자금의 35%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업종에 따른 최소 필요자본으로는 제조업 50만 달러, 서비스업 30만 달러이다.

8) 라오스

가) 무역정책추진 과제[68]

라오스 정부는 국제기구 및 원조 공여국, 주요 기업 등의 참여하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

67) 코트라 미얀마 투자핵심가이드.

68) 주 라오스 대사관.

나 무역정책의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자체 법체제 정비 등에 있어서 이해 및 의지부족으로 오래 걸리고 원조 공여국 등의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 무역정책 과제[69]

(1) 무역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노력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법령의 재정비 및 이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1994년 기업법(Business Law)을 수정한 2006년 기업법(Enterprise Law)이 발효되었으나 이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법적용 및 집행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여전히 기업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의 승인허가 절차를 규정한 산업절차법(Industrial Process Law)등 제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제거하는 법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1993년 노동법 역시 고용의 원활화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

조세법, 관세법, 외국인투자유치법, 재산권법, 토지법 등 기본 경제관련 법령은 물론 SPS, TBT, 관세 및 세관 및 수출입허가절차 관련 법제도 등 무역관련 법제도의 총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법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한데 더하여 이러한 법을 제대로 집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 중 하나이다.[70]

기업 설립 과정상의 행정비용은 물론 운영과정에서의 관료주의적 개입과 조세부담 등은 행정 관료의 부패와 자의적 운영으로 더욱 불투명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중간 브로커의 활동을 양성하고 피해 외국인투자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국내제도 정비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WTO 가입을 위한 기반이므로 추진에 있어서

69) 주 라오스 대사관.

70) 2004년 라오스에는 기업설립에 평균 53개(지역27)의 절차를 거치고 443일(지역 316일)이 걸리며 총 부채의 30%의 비용(지역50%)이 드는 것으로 집계된다.

국내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2)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핵심 과제

첫째, 물류 체제의 개선이다. 국제운송 자체보다는 저개발된 국내 운송체제, 저발전된 생산 공급망, 체계적인 생산유통체제의 부족,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비능류 등으로 인해 물류체제의 전반적인 비능률이 야기되고 있다.

둘째, 통관절차 개선이다. 번거로운 통관검사 및 인허가 절차, 일선 행정담당공무원의 부패, 지방별로 다른 통관규정 및 제도, 실질적 통제의 미비, 관세평가시스템의 미비 등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검역제도 개선이다. 농축산물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검역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력자원 개발 및 은행 및 금융체제 개선이 요구된다.

(3) 중점 산업 선정 및 지원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이를 위해 우선개발 산업을 선정하고 그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인근국가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나, 관광산업, 경공업(고무, 섬유, 신발, 목재, 가구, 전기제품 등), 농산물(커피 등) 등에서 경쟁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분야에 해당되는 구체적 장애요인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산업을 양성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라오스 정부의 노력으로 2004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등록된 외국인투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6년까지 27억 달러로 2005년 12억 달러에 비해 2배를 초과하였다. 이는 수력발전소 및 광산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체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투자는 승인건수의 1/2 수준인데 이는 거대 프로젝트의 실제 이행까지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실시와 자본유치 협상, 공급협상 등에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MOU체결 후 중도 포기된 프로젝트도 다수 있다.

<표 2-107> 승인 건수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승인기준	54	492	566	533	1,245	2,700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라) 라오스 무역투자 주요 장애 요소

(1) 국제 경제 통상 환경 일반

전통적인 주력 수출품이었던 섬유는 섬유쿼터가 제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 하락 추세이다. 국제 금, 구리 가격의 강세로 라오스의 무역액이 표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환경의 변화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을 야기,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AFTA 이행 의무상 수입관세를 2007년부터 평균 5% 미만으로 인하할 경우, 수입증가 및 관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라오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여전히 세계 무역체제 밖에 있어 무역의 잠재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국내 통상환경상의 장애요인

광산자원 및 전력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라오스로서는 장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정부행정 및 시장체제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무역, 투자 활동 여건이 취약하고 기업 활동상의 비효율성이 심하다. 재산권 보장체제, 금융시스템 등이 불안정하여 자금 유입이 저조하다. 또한 경제 규범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해주기보다는 통제와 지대착취를 야기하고 있다. 기업설립, 공장설립 등 관련 허가,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세관, 통관체제가 지방 분권화되어 있고 기관간 중복되어 있어 중앙집중화 및 통일화 작업이 요구된다. 토지 매매, 저당 등이 거의 불가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집행 능력이 없다. 노동자 고용 및 해고가 어렵다. 80%에 이르는 공공채무로 재정적 부담이 존재한 상황에서 행정, 운송 등 포함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미비하다. 라오스는 내륙국가로 수출입을 위한 운송 측면에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인접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운송 자체보다는 국경운송과 국내운송에서 장벽이 존재한다. 라오스의 수입관세율 역시 최고 40%에서 낮게는 5%이며, 평균관세율이 약 9.5%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수입, 수출허가규제와 절차, 외환 통제, 물류서비스의 낙후 등으로 비관세 무역장벽 및 관세수입 유출 등이 문제이다.

(3) 저조한 지역, 양자 협정 활용도 및 WTO 가입의 지체

라오스는 AFTA, 선진국의 GSP, 미국의 NTR 등 특혜관세, 또는 적어도 MFN 관세혜택은 받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EU에게서 최빈 개도국으로의 무관세혜택을 받으면서 최근 수출 증가하고 있으나 섬유수출에 집중되어 있고, 우회 수출문제와 원산지의 불투명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AFTA 체제하에서도 장기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고 상호주의 원칙 때문에 여타 아세안국가의 저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ASEAN 국가 중에는 태국,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대상 및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으로부터는 2005년부터 NTR(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획득하였고, NTR는 섬유제품의 관세를 기존 50%에서 20%로 떨어뜨려 섬유수출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기타 분야에서 큰 효과는 없다. 라오스는 WTO 가입 협상 과정을 통해 무역관련 규범을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해결과제가 산적하여 목표시점인 2010년에도 WTO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오스는 1998년 WTO 가입을 정식 신청하였으나 2004년 1차 작업반 회의 개최 이후 아직 협상 초보 단계이다.

9) 소결[7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직접투자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업종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의 확보 및 수입규제의 회피를 위한 동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과 진출업종이 매우 편중되어 왔다. 따라서 무역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과 철강 등 일부제조업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업종은 진출이 부진한 상태이다.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도자추종전략(follow the leader strategy)에 따른 중복투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들어 해외직접투자의 분야가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려

71) 이성진.

는 목적보다는 해외시장 확보와 효율극대화를 위해 추진해야만 한다.

셋째, 기술협력 및 공동경영방식 기술습득의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있어 전액투자방식에만 중점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현지합작투자, 그리고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제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M&A 방식에 의한 투자형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의 고용유지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해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단순한 투자 이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섬유, 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주로 동남아의 저임금후발국에 집중된 반면 대선진국직접투자는 자본집약적 업종의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향후에는 대선진국직접투자에서도 중소기업의 진출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부품생산을 담당할 중소기업 등과 함께 동반 진출함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현지 부가가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선진국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정보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겠다.

다섯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투자결정이 최고경영자의 직관적 판단이나 경쟁기업의 모방 투자에 치우쳐 있으며, 과도한 부채와 모기업의 지급보증 위주의 투자자금 조달, 한국식 경영방식의 고수와 현지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은 마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향(완전 신고제 및 OECD 회원국에 대한 자동 승인제 도입 검토, 현행 허가기준 및 허가 소요기간 개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 철폐 등)을 두어야 하며, 설령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

하여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즉, 높은 debt-equity ratio), 특히 해당 투자사업의 수익성에 기초한 자금조달(project financing)을 활용하기 보다는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경영부실이 나타날 경우 국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3

동남아시아 대상 국가별 투자사례

1. 성공사례

가. 필리핀

1) 삼성전기[72)]

가) 투자자 사업개요

여타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이전이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주류로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삼성전기는 기술집약적인 수종사업의 해외 이전을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1992년부터 해외생산기지에 대해 Made in Market(현지생산, 현지판매)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분석하고, 그 사업에 맞춰 생산제품을 결정하고 각 해외기지별로 집중 육성해 왔다. 그 결과 현지생산 매출액 규모가 1억 8천만 달러에 이르러 동남아지역 생산과 글로벌 공급역할을 담당하는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72) 코트라, 2008

<표 3-1> 기업 개요

기업명	삼성전기 필리핀 생산법인(SEMPHIL) (Samsung Electro Mechanics Philippines, Corp.)
진출지역	필리핀 라구나(깔람바 공단내)
진출년도	1997년(공장 가동 2001년)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1억 3만 달러
주요품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칩저항, 탄탈 콘덴서, SAW 필터
종업원 수	3,400명
홈페이지	www.sem.samsung.com

자료: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KOTRA 해외조사팀(2006년도 산업페이퍼).

나) 투자진출 배경

(1) 투자진출 동기

2004년 중 세계 전자산업 생산규모는 1억 2,900억 달러로 전년(1억 1,430억 달러)대비 12.9%의 성장하여 지속적인 생산 확대를 기록하였다. 2004년 세계 전자산업 생산에 있어서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21.3%, 일본 15.5%, 중국 13.9%, 한국 7.1% 순이었다. 미국, 일본은 시장점유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 한국, 독일은 세계 전자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EECA(Europe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자료에 따르면, 세계 전자 부품시장은 2004년 중 미국, 일본이 각각 19%로 전년대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유럽은 18.6%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43.2%를 기록해, 전년대비 3%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전자부품 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 아시아 지역 전자부품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의 경우 국내는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중심, 해외는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구조가 조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내수는 고급전자제품의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격 인하세 속에서 5.5% 증가에 머문 것으로 판단된다.

(2) 투자진출 경위

삼성전기는 1997년에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준공하였다. 제1공장은 2000년 2월부터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칩 저항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 2공장은 2001년 5월부터 탄탈콘덴서와 SAW필터를 생산하고, 제 3공장은 HDD용 스핀들 모터, 수정진동자 및 고압 다이오드 등의 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4년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생산 40억 개를 돌파하였으며, 2007년 4월에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고용창출 부문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2-2>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1997년	삼성전기 필리핀 법인 설립
1999년 12월	현지 제1공장 준공
2000년 2월	MLCC, 칩 저항 양산 개시
2001년 1월	현지 제2공장 준공
2001년 9월	QS 9000 전제품 인증 획득
2004년 3월	탄탈콘덴서 생산 1억개 돌파
2004년 10월	MLCC 생산 40억개 돌파
2007년 4월	필리핀 정부의 '고용창출 최우수 기업상' 수상

다) 현지 투자사업 현황

(1) Made in Market(현지생산, 현지판매) 전략의 Global Outsourcing 추구

삼성전기는 1990년대 들어 신속한 부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후지쯔, 인텔 같은 주요 정보통신 회사들의 잇따른 진출로 매년 부품 수요가 30%이상 급증하고 있는 필리핀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여 생산거점 확보에 나서게 되었다. 삼성전기의 필리핀 진출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주요 해외시장별 경영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별로 권역화하여 Made in Market(현지생산 현지판매) 방식의 Global Outsourcing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지 공장은 마닐라 항공과 3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한 깔람바 공단내에 3만 3,000평 규모로 설립되었다. 이를 통하여 주요 거래선에 대한 물류시간이 기존 1주일 이상에서 최대 2시간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필리핀을 전진기지로 한 인근 동남아지역으로의 직수출을 통해 물류시간 단축은 물론 큰 폭의 물류비 절감효과도 얻었다.

이와 같이 삼성전기는 필리핀 등 주요 시장에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1위, 세계 7위의 전자부품 회사로 성장하였다. 전체 생산품의 58%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전체 제품 중 60%를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필리핀 법인의 2006년도 매출액이 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도 매출 9조원, 이익률 15%를 목표로 세계 톱 3의 종합 전자부품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라) 사업기반 구축요인

현지 시장특성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칩부품은 장치 산업형 구조이면서도 종업원들의 숙련도나 교육수준이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필리핀은 영어와 토착 언어인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경영진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다. 또한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이 용이하며 저렴한 인건비로 양질의 인력 수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엔지니어 계층의 창의성이 매우 높아 자체적인 개선활동이 가능하고, 현장 작업자들은 정해진 룰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와 함께 주요 거래처에 대한 부품 공급에 소요되는 물류시간을 단축시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현지 상위권 5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재 채용 및 종업원들의 육성을 위해 6시그마 활동을 비롯한 사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장치산업의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기에 카톨릭 신자가 80%를 넘는 현지인들을 배려하여 매주 토요일 회사내에 신부를 초빙해 미사를 진행하는 등 인력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현지 종업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우수기업으로 평가하였다.

마)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

앞서 언급한 성공요인에서 시사하듯 해외진출 전략에 부합하는 최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지조건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지인 및 주재국 정부로부터 환영받는 경영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전자부품 생산이라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자칫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동집약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며, 현지 종업원들의 역량을 계발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현지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현지인들이 애정을 갖는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현지진출에 관심을 갖는 우리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도네시아

1) (주)지원산업의 전자제품제조[73]

가) 투자자 사업개요

(주)지원사업은 1978년 2월 지원 산업사로 출발하였다. 1981년 11월 이화학 기재 및 시험 약품판매를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1982년 1월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1985년 6월 사업목적에 전자부품 제조 및 무역업을 추가하여 그동안 카스테레오를 전문으로 생산, 동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하여 온 중소업체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주로 EU(70%), 미주(15%), 기타(15%)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1987년 9,855천 달러, 1988년 12,605천 달러, 1989년 20,231천 달러, 1990년 25,500천 U$ 등 매년 수출신장을 통한 외화획득을 기록하였다. 1990년 1월 주거래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11월 제27회 무역의 날에는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표 3-3> 투자자 개요

업체명	(주)지원산업(1972.2 지원산업사 설립, 1981.11 법인전환)
대표자	박병수
종업원 수	214명
본사(공장)소재지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0-11(TEL: 1457-362-2104)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9-4 지원빌딩(TEL: 02-585-0821/8)
업종 및 주요제품	제조업(가정용 전기, 전자기기), 카스테레오, S.V.R

73) 한국수출입은행, 2004

<표 3-4> 제품 판매 현황

(단위: 천 sets, 백만 원)

제품명	1988.12	1989.12	1990.12
카스테레오 수출 내수	659(9,826) 4(42)	669(13,965) -	774(17,530) -
상품 수출	18(61)	18(56)	86(226)
(카스피커 등) 내수	4(2)	27(31)	-
합계	685(9,931)	714(14,052)	860(17,756)

주: 1) 주요 원재료: DECK, TUNER, PCB, I.C
2) 1992년 수출 목표: 달러4천만(카스테리오: 40%, S.V.R: 60%)

매출액 증가율(순이익 증가율)에 있어 1988년 13.3%(△13.4%), 1989년 41.5%(308.5%)등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주)지원사업의 매출규모는 1990년 26.3%(21.0%), 1991년 6월 1.9%(17.0%)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업계의 과당경쟁과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 및 국내 임금상승 등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산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지원사업은 위성방송 영상수신장치(SVR) 등 비교적 고성장이 기대되는 품목개발을 추진하는 등 품목다양화와 사업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저가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대 및 동남아 수출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한편 1989년 12월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90년 1월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하였다. 1991년 1월 주식공모로 기업을 공개하여 1991년 2월 주권을 신규 상장시키는 등 동종업계에서는 재무와 신용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견실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투자진출 배경

(주)지원산업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선진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으로 수출이 난국에 직면하게 되고,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자 저임의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산제품을 전량 제3국으로 우회 수출하고자 하였다.

진출당시 시장현황분석과 이에 따른 진출방안을 보면, 첫째, 1988년 실적기준으로 카스테레오의 세계시장규모는 공급 4,100백만 달러, 수요 4,080백만 달러로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국내시장 규모는 생산 671백만 달러, 수출 603백만 달러로 국내업체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전자제품 총수출실적 15,612백만 달러의 약 3.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카스테레오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ETR제품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었으며, 저가품 Model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권으로 시장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소수의 외국 합작기업이 카스테레오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단계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저임금으로 제조원가 인하효과가 있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경우 매출 및 수익성 증대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외형 및 수익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둘째, 현재 고가품 Model은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주생산국이며 저가품은 중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가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는 고임금의 국가에서는 저가품 Model에 관한 한 제품경쟁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GSP 수혜축소 및 ANTI DUMPING 문제 등 선진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이를 우회 수출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셋째, GSP 수혜라는 장점, 순수한 인도네시아산 제품과 비교하여 볼 때 품질의 우수성 및 저렴한 가격 등이 기존거래 바이어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판매 또한 Master L/C나 T/S L/C에 의해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판단하에 경영진은 인도네시아에 카스테레오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89년 4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 입안에 착수하였다. 국내외 수급상황 및 시장조사를 마친 후 EU의 한국산 전자제품의 반덤핑 제소준비와 GSP 수혜금지로 인해 EU지역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인도네시아에 현재 생산 공장을 설치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사하였다.

<표 3-5> 사업추진경위

'89. 5~9월	사업타당성 검토
'89. 11. 09	합작투자계약 체결
'89. 12. 29	토지사용권 구입계약
'90. 01. 22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투자허가신청
'90. 04. 04	투자허가 획득(대통령의 투자승인서 SPPP)
'90. 04. 17	현지법인설립(정관작성, 회사설립실행안 작성, 공증인 공증으로 가능)
'90. 05. 31	수출입은행 사전협의
'90. 06. 09	한국은행 해외투자신고수리 (수출입은행에서 융자지원을 받는 경우 수은에서 해외투자신고수리가 가능하였으나 토지 구입대금 지급 등으로 자기자금송금이 필요하여 B.O.K에서 신고수리서 취득)
'90. 06. 19	한국은행 인가받은 영업외의 사업신고수리 ('90.1.18 외국인투자기업인가를 받았으므로 별도허가서 취득)
'90. 06. 20	자기자금 송금(U$180천, 현지 한국외환은행 개설구좌 앞)
'90. 06. 22	건물신축계약서 체결
'90. 06. 27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승인확인서 취득(담보확약서)
'90. 06. 29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 대출 본 승인 신청
'90. 07. 07	본 승인(1,620천 달러, 2년 거치 후 6년간 정기균등분할상환, 연 7% 후취)
'90. 07. 13	해외투자자금 차입 및 현지송금(1,620천 달러)

먼저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관련 자료를 입수, 최근의 정치·경제동향과 외국인 투자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그 외에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역협회, KOTRA 등에서 현지 투자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1989년 중반까지 기초적인 투자관련 조사를 완료하였다. 스타 및 인도네시아 현지업체 등 3개 업체가 카스테레오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수입판매상이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조경험이 적었다. 특히 R&D 및 Engineer 분야가 취약하여 (주)지원산업의 경쟁상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법상 단독투자가 불가능하므로 합작파트너를 선정하여야 하였다.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종합상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P.T.MULIAJAYA ARTHAGUNA사의 대표이사인 Mr. ONNY WIDJONO HARDJANTO를 소개받았다. P.T.M.A.사는 NEW ARMADA GROUP(자동차 판매 및 Car body, Car stereo 등 제조, 약 17개 계열사 보유) 계열사로 업종은 투자유치업이며, 카스테레오 제조경험은 없으나 국제적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였다. 또한 대표이사인 Mr. ONNY가 현지 공업부장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지원산업의 기술수준 및 축적된 경험과 P.T.M.A.사의 대외적인 업무추진력이 결합되면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합작을 추진하였다.

1989년 11월초 기초조사가 끝나고 합작선이 선정되자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자본금 2,250천 달러에 한국측 지분을 80%(1,800천 달러), 카스테레오 제조 4개line 설치가동을 목표로 하여 1989년 11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1990년 1월 B.K.P.M(투자조정위원회)에 투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업체가 대부분 Jakarta 또는 Tangerang 지역에 편재되어 현지 고용인력 스카웃 경쟁에 따른 임금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이 비교적 적고, 자카르타시에서도 약 40km 떨어진 Bekasi시 Cibitung지역에 공장

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합작투자자인 P.T.M.A사와 같은 그룹계열사이자 공장부지의 소유자이기도 한 P.T.BINAB-AKTI MITRASEJATI사와 토지 2.5ha에 대해 m2당 450천 달러에 토지사용권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지급조건은 10% 선수금지급, 3개월내 잔금전액 지급조건이었다. 공장의 입지조건으로서 사회간접시설은 미비한 상태이나, 원・부자재 조달의 용이성, 수송, 용수사정이 비교적 양호하였다.

<표 3-6> 현지 투자사업 내용

사업명	인도네시아 Car-Stereo 제조 합작투자사업
투자방법 및 형태	외화증권 취득(자본금불입), 합작투자(80 : 20)
투자목적	· 각 국의 보호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우회수출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제고 · 원・부자재 수출을 통한 매출 및 이익증대 · 기타 기계설비수출 및 인력송출 등으로 인한 외화획득
투자금액	1,800C천 달러(총 소요금액 2,250 천 달러의 80%)

다) 투자방법

투자 전개시 발생되었던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신축: 종합사무실, 본공장, 창고, 휴게실 및 탈의실 신축

(2) 기계설비: 국내 4개 line, 연간 720천 Sets 생산능력에 비해 약 60% 수준인 4개 line에 연간 420천 Sets 생산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시설, 특히 생산제품의 전량수출로 인한 고품질 수준유지를 위해 성능이 뛰어난 외산기계 사용 불가피

(3) 차량운반구: 현지에서의 차량구입 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임

(4) 집기비품: 공장용 및 사무용

(5) 창업비: 신주발행비(200~300 달러), 법인설・등기비, 교육훈련비 등(주식발행 소요기간 6~12개월)

(6) 운전자금: 영업개시 후 1차년도의 제조원가서상 재료비(5,590천 달러), 노무비(279천 달러), 경비(259천 달러)와 손익계산서상 판매, 일반관리비(240천 달러) 및 영업외 비용(-)의 합계액(6,368천 달러)으로 상여금과 현 금 지출 없는 비용 즉,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및 이연자산상각 등을 공제한 잔액임)에 대하여 약 37일분(동종업종 1회전 운전기간 범위)

<표 3-7> 자금소요 및 조달방법

(단위: 천 달러)

자금	소요	자금	조달
토지사용권구입	450	자본금	2,250
건물신축	455	-(주)지원산업	1,800
기계설비	500	(한국수출입은행자금)	(1,620)
차량운반구	95	(자기자금)	(180)
집기비품	60	- P.T, M.A사	450
창업비	36		
운전자금	654		
계	2,250	계	2,250

주: 토지소유권은 인도네시아인에게 부여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토지사용권 구입, 향후 line 증설감안 2.5 ha(평방 25,000m)구입

라) 현지사업 현황

(1) 현지법인 개황

인도네시아에서의 현지법인 설립은 회사설립 실시안(DE) 승인시점까지 수권자본금의 20%이상 발행, 발행주식의 10% 납입이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그러나 관례적으로는 현지 법인정관인 DE작성 및 공증인의 공증으로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하였다. 1990년 4월, Car-Stereo 제조・판매를 위한 현지법인 P.T. Won Jaya Indonesia가 설립되었다.

현지법인설립이후 1990년 7월부터 공장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를 맡게된 현지 업체는 토지의 소유자이며 합작선인 P.T.M.A사의 관계사인 P.T.BINABAKTIMITRASEJATI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하여 1990년 10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당초계약(대금지불조건: 계약 체결 시 30%, 1개월 후 40%,공사완료시 30%)과는 달리 현지 건축업자의 공사지연과 12월중의 우기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늦어진 1991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장신축이 완료되었다(시험생산을 거쳐 1991년 3월 중부터 정상적으로 조업개시). 공장완공이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기계 선적이 늦어졌으며, 전력, 통신, 용수사정 예상을 크게 벗어나 자가발전시설(Generator)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용수(석회질) 해결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였고, 유선전화설치가 곤란하여 자카르타시내 사무소와 Bekasi Cibitung 공장 간에 무전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비용은 더 들지만 비교적 구입이 용이한 Car-Phone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표 3-8> 현지법인개요

현지법인명	P.T. Jee Won Jaya Indonesia
주소	JL.CIDENG BARAT NO. 7 Jakarta Pusat 10140
대표자	박병수
설립일	설립일: '90. 4. 17, 생산개시일: '91. 3. 15
납입자본금	2,250천 달러(한국측 지분 80%)
총자산	2,370천 달러
임원구성	한국측 3명(상근 1명), 현지측 2명(상근 2명)
종업원 수	총 410명(한국측 관리자 5명, 기술자 7명 파견)
업종(주요제품)	전자제품제조업(Car-Stereo)
공장부지	대지면적 - 8,708평, 건평 - 2,556평
생산능력	연간 420,000 Sets

한편 현지 생산직 종업원은 1990년 11월부터 2월까지 모집하여 약 4~5개월간 부근 학교를 빌려 교육을 시킨 후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다. 본사 파견직원 12명(관리직 5명, 생산직 7명)과 현지직원 398명, 총 410명으로 구성되었다. 생산초기단계(약 1개월간)에는 1개 라인만 가동하여 현 인원의 1/2 수준으로 운영되었으나, 다음해 2개 라인가동으로 인원이 확대되었다.

(2) 현지법인 경영실태

□ 경영진구성 및 조직

(주)지원산업의 이사회는 공동 대표이사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측 대표이사 1명과 관리이사 1명, 인니측 대표이사 1명이다. 다수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측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현지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합작파트너는 형식적인 지분참여에 지나지 않지만, 공동 대표이사로 경영진에 참가하고 있다. 공동 대표이사는 대정부·관공서 업무, 수출업무 및 현지 종업원에 대한 인력관리와 회사의 대외 이미지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Auditor)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지법인의 감사위원회는 한국측 , 인니측 각각 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제·감독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을 비롯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의결방법은 대체로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외국인투자허가서)상 상업생산 개시 후 15년 이내에 최소한 51%이상의 지분을 현지인에게 양도하도록 되어있어 15년 후의 경영권 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 및 판매활동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진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현지 인프라 등의 미비로 인해 생산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공업단지나 수출 보세지역내에 생산기반을 가진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절차 등이 편리하고 사회 간접시설도 비교적 양호하여 공장가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주)지원산업은 이와 같은 공단지역에 비해 전력, 용수 등 사회간접시설이 뒤떨어지는 Bekasi Cibitung 지역에 생산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장 건축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늦어진 1991년 3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은 원·부자재 대부분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원산업은 원·부자재의 40%만을 CKD(Complete Knock Down)방식으로 한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50%이상을 ASEAN 국가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GSP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부자재의 60% 가량은 인도네시아 현지업체와 태국 및 싱가포르 등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운송 문제 및 현지 세관당국의 통관지연 등으로 원·부자재의 적기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지 진출기업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현지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외에서 신규 구입된 것으로, 생산 라인은 완제품을 조립하는 Main line 4개, 현지 PCB 임가공업체가 없어 설치한 TCB Insert 작업 Sub line 6개가 있다. 그러나 1991년 9월까지는 Main 1개 라인을 가동하였고 현재는 Main 2개 라인, Sub 4개 라인을 가동 중에 있다.

라인당 1일 평균 생산량은 약 600Sets이며, 노동생산성은 국내의 80% 수준이다. 생산제품의 품질은 국내 동종 제품의 품질 수준이거나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량률 또한 국내의 2% 수준보다도 낮은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현지법인의 생산라인 가동은 Main line을 기준으로 매 분기당 1개 line씩 가동률을 높여 1992년. 6월말에 완전 가동하였다.

1991년 4월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간 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은 생산초기 현지 종업원의 업무미숙과 원자재 수급상의 차질로 월평균 20~30만 달러 규모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1991년 11월에는 추가생산 라인 가동 및 종업원의 기술숙달 등에 힘입어 월 12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1992년 상반기 중에는 월평균 200만 달러 규모로 점차 확대되었다.

1991년 중 본사의 영업실적은 수출목표액 2,600만 달러, 매출액 이익률 3%

였던 것에 반해 현지의 1991년 중 영업실적은 수출목표액 400만 달러, 매출액 이익률 3%를 기록하였다.

한편 1991년 11월 EU측의 한국산 카스테레오 제품에 대한 덤핑판정으로 국내 지원 산업을 포함한 동업계의 대EU 우회수출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지원 산업(주)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통한 EU 우회수출이 가능하여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생산제품의 전량이 수출되었다. 주요 수출국은 독일, 네덜란드 등 EC 지역이었다. 수출은 통상 L/C를 이용하고, 주로 EU 지역 바이어들의 Option에 의해 상표부착방식(즉, 제조원과 판매원의 구분표시: Semi OEM)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 노동력 및 노무관리

1991년 10월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업체 수는 봉제, 신발, 완구, 화학제품 등의 합작투자기업을 비롯하여 무역업체, 건설업체, 은행 등 총 250여개 업체로 한국 근로자만 1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988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본격 진출한 한국 업체 근로자들의 생활태도와 현지실정을 무시한 노무관리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즉 생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이 현지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생산현장을 관리하여 현지인 근로자들에게 모멸감을 줌으로써 노사분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지원산업은 국내에서도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사훈을 내걸고 회사조직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더불어 '확실한 계획', '착실한 전진', '진실한 평가'라는 회사의 경영방침아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하부 위임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경영내용에 대한 공개와 종신 고용제의 채택,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

한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또한 뚜렷한 소명의식과 철저하고도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춘 자질 있는 직원들이 3~4개월에 걸친 교육(현지 언어교육포함)과정을 마치고 파견되어 현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현지법인을 운영하였다.

근무시간은 일일 7시간으로 2시간의 잔업시간을 합쳐 통산 9시간을 평균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현지 종업원 인센티브로서 국내 본사연수 기회를 부여하였다. 현지법인 설립 전 현지인 27명에 대한 국내연수 실시는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한편 현지 종업원에 대한 채용은 지역 포스터 광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10:1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채용하였다. 인근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급여수준과 좋은 작업환경이 현지 종업원의 이직을 막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현지법인 경영상의 문제점

대부분의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법인 경영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과밀지역 과다진출에 따른 현지 인건비 상승과 인력 스카웃 경쟁심화, 그리고 수주경쟁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 등이다. 또한 현지법인은 투자비율의 제한 및 조세부담의 과중(소득세율 35%, 대외 송금세 10%), 복잡한 수출입 절차로 인한 수출입상품의 통관지연 및 수출기업의 원자재 수입관세의 환급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밖에 쿼터문제, 현지실정 및 시장에 대한 사전조사부족, 합작 상대방에 대한 조사부족, 파견 직원의 현지 적응의 어려움 등도 현지법인의 운영상의 애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지원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겪은 어려움은 현지 공장건축지연과 자가발전시설(Generator)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비용부담을 비롯한 생산초기 운영자금 부족을 들 수 있다.

□ 현지기반 구축요인 및 전망

위에서 살펴 본 바에 비추어 (주)지원산업의 대인도네시아 카스테레오 제조 해외 투자 사업은 성공적으로 그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시장조사에 의해 적기에 과감한 투자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1988년 당사의 주요 수출 지역이었던 EU로부터의 한국산 전자제품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간파, 실제 1989년 EU의 반덤핑 제조 준비, 1991년 11월 덤핑 판정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Dumping rate를 적용받음으로써 사실상 1991년 9월부터는 EU 지역 수출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내의 여타 동종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주)지원산업은 적절한 시기(1990년 투자, 1991년 초 가동)에 과감한 투자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여건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관련 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함으로써 현지 진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즉 EU로부터의 덤핑제소 움직임이 있었던 1988년부터 동남아 국가에 대한 진출가능성과 사업타당성 조사, 국내외 해외투자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투자 인·허가 및 투자절차 자료 입수,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현지 공장입지 및 생산.·판매방법 등 해외투자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 경영진의 정확한 판단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낭비 없이 현지에 비교적 신속한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공장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공사는 현지 합작투자자의 관계회사와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등 해외투자사업 초기부터 합작선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기술지도에 의한 생산 공정의 개선과 QC 활동을 통한 불량률 감소 등으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이룩한 점, 특히 현지인 관리자에게 현지 종업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담당케 하여 마찰요인을 사전에 제거시킨 점 등을 성공요인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넷째, 현지 근로자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지법

인 주재한국인 임직원의 노력으로 국내 본사의 '우리는 한가족' 이라는 사훈과 똑같은 경영방식으로 현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 노무관리에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파견된 현지 근무자는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국내에서 현지어를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파견되어서도 현지어 교육을 3~4개월 시키는 등 현지인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특성 등을 익히도록 하여 한국인 관리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그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현지문화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해하기에는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내에서의 튼튼한 사업기반에 의해 축적된 기술 Know-how와 기존의 자사제품 거래 바이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생산·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외화획득을 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성공요인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스테레오제품에 대한 EC 지역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부하고 저렴한 단순노동력 활용의 한계는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며 그로 인해 경쟁력이나 채산성 악화라는 문제점이 또 다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지원산업은 기업경영의 다각화와 국제화로 선진국을 비롯한 경쟁국가와 경쟁격화 및 지역경제 블록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처를 위해 동남아 국가에 비해 다소 인건비는 비싸지만 선진기술 습득이 가능한 구 동구지역을 비롯한 동구권지역이나 EU 국가에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볼레넷 온라인게임/인터넷 포털산업 진출[74]

가) 투자자 사업개요

2000년에 설립된 볼레넷(PT.BolehNet Indonesia)은 모바일, 인터넷, 게임 등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한국투자 기업으로, 포털/모바일 분야에서 50%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볼레넷은 설립 이후 인도네시아 최초로 MMORPG 게임인 "바람의 나라"를 시작하였으며, 더불어 인도네시아 최초로 온라인 게임 유료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건바운드", "XIAN Online", "팡야" 등 온라인 게임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설립된 현지 인터넷 사업법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표 3-9> 기업개황

기업명	볼레넷(현지법인명: PT Boleh Net Indonesia)
진출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진출년도	2000년
투자형태	합작투자
투자규모	4,970,000달러
주요품목	온라인 게임, 인터넷 포털
종업원 수	111명(한국인 직원 4명)
홈페이지	www.boleh.com

나) 투자진출 배경

(1) 투자지역 선정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크게 늘고 있었다. 2000년 2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1,600만 명, 2006년에는 1,8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터넷 이용자 중 이메일 사용자는 약 80%, 뉴스를 보는 사람은 약 70%, 포털 및 게임 이용자는 약 55%에 이른다. 이 밖에 비즈니스는 45%, 연구는 20%, 쇼핑은

74) 코트라, 2008

7~8% 수준이었다.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게임도 활성화되었다. 2001년 50만 명이던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2005년에는 4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인터넷 속도의 증가 및 컴퓨터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게임 이용자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인도네시아 주요 게임 가운데 볼레넷이 운영하는 팡야가 22%, 건바운드가 17%, 시안이 11%를 차지하는 등 볼레 게임이 50% 정도를 점하였다. 또 휴대전화 가입자가 2005년 4,200만 명, 2006년 6,0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모바일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 투자진출 경위

볼레넷은 2000년 2월 최초의 인도네시아어 이메일계정인 볼레메일을 개설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0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최초 인터넷 데이터센터인 IDC INDONESIA를 공동 설립하였으며, 2001년 3월 넥슨의 '바람의 나라'를 인도네시아 버전인 <NEXIA>로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동시에 TV-Show "BOLEH CONTEST" 라는 TV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 인기 채널인 AN-TV에서 주1회 씩, 총 13회를 방송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기 시작하였다.

2001년 8월에는 ISP사업부가 유니텔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커뮤니티 포탈 WWW.BOLEH.COM을 오픈한 이래 인도네시아 GSM사업자인 인도삿-IM3, ProXL, Satelindo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NEXIA>를 유료화하면서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3년부터 인터넷게임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라그하임, 건바운드, 거상, 팡야 등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콘텐츠 보급에도 나서 현지 GSM 사업자인 인도샛M3 및 최대 통신사인 텔콤셀과 제휴를 맺고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에는 "LAGHAIM"을 베타 서비스 오픈하고 온라인 슈팅게임인 "GUNBOUND"의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이동 통신사 파트너들과 함께 모바일 자바 게임을 공급하였고 인도네시아 최대 GSM 사업자 Telkomsel과 모바일 콘텐츠 공급을 체결한데 이어 CDMA 사업자인 Mobile8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인 MRA와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INDOSAT그룹의 M-Discount(모바일 쿠폰)서비스의 공식 파트너로 채택되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최초 블로그 서비스(BLOG.BOLEH.COM)를 오픈하였다. 또한 PT.TELKOM CDMA 'Flexi'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WORLD CYBER GAMES INDONESIA의 공식 스폰서로 온라인 게임 GUNBOUND로 참여하였다.

다) 현지 투자사업 현황

인도네시아 온라인게임 시장의 50%를 차지하여 이 분야 최대 업체로 성장하였다. 사업영역은 온라인게임을 비롯하여 모바일서비스, 인터넷사업 등이 있다. 이중 핵심은 팡야, 건바운드, 시안 등으로 대부분 한국에서 만든 것이다. 이들 게임을 볼레게임이라는 통합브랜드로 서비스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인 볼레닷컴은 넘버원 포털사이트이자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티 포털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포털사이트는 블로그, 채팅, 영화감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볼레넷의 총자본금은 497만 달러로, 이중 코린도그룹의 콜라오디벨롭먼트가 35%, 장호열 사장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의 벤처캐피털인 AITI와 한국의 벤처캐피털인 일신창업투자 등이 투자하였다.

라) 사업기반 구축요인

(1) 다양한 컨텐츠 제공

볼레넷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서

비스, 다양한 콘텐츠, 적극적인 마케팅 때문이다. 이 회사는 게임대회와 음악 공연 등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고 이것이 젊은층에게 파고들었다. 문화는 다르지만 젊은이들의 취향은 한국과 비슷하였던 것이다. 매출은 2004년 220만 달러, 2005년에는 250만 달러에 달하는 등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2) 유료 세일즈모델 개발

볼레넷의 마케팅 전략은 '아이템 세일즈'이다. 전면 유료화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의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이탈할 것을 예상하여 부분 아이템 세일즈 모델로 유료화함으로써 기존 가입자의 구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입 유료화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 들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3) 현지 홍보

인도네시아에서 발간되고 있는 게임 관련 잡지인 Hotgame, Gamestation, PC game, Game 21, Ultima, Omega 등에 정기적으로 커버 페이지 광고를 내거나 게임 소개 및 설명 등을 스토리 북 형식으로 실어 고객들이 온라인 게임에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홍보 전략도 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4)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

온라인 게임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지화에서 시작된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게임 사업을 할 때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게임의 선정과 함께 선정된 게임을 어떻게 현지화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레넷은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현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현지인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볼레넷은 온라인 게임 선정 시에 우선 기업내의 설문조사로부터 시작하여 현지인 매니저들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게임은 현지인들의 정서에 맞게 번역된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레넷은 현지 직원들의 도움으로 현지에 맞는 표현, 그리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인도네시아 버전 온라인 게임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말레이시아

1) 성진기공(주)의 자동차 배기시스템용 신축이음관 제조[75]

가) 투자자 사업개요

<표 3-10> 투자자 일반 현황

소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01-5
기업구분	중소기업
설립일	1975. 3. 31
종업원 수	320명
주요 생산품목	자동차 배기시스템용 신축 이음관
자기자본	1,600백만 원
총자산	17,885백만 원
매출액	25,380백만 원

나) 투자진출 배경

75) 한국수출입은행, 2004

(1) 투자진출 동기 및 선정

1989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투자진출을 계획하였다. 말레이시아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한 주요 이유는 제3국으로 우회수출이 가능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말레이시아는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이 확보 가능하였다.

(3) 투자진출 경위

1990년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으로부터 투자허가를 취득하였다. 한국에서는 1991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허가를 받았다. 투자자금 1,275천 달러, 자기자금 225천 달러로 투자를 시작하였다.

<표 3-11> 현지투자 진출과정

1990. 9. 6	말레이시아 투자허가 취득(허가기관: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		
1990. 11. 23	현지법인 회사 등록		
1991. 12.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허가	투자자금	총 1,275천 달러
		자기 자금	255천 달러
		국내대출	1,020천 달러(한국수출입은행)

다) 현지 투자사업 현황

(1) 현지법인 현황

현지법인 명은 SUNG JIN MACHINERY(M) SDN,.PHD이다. 1991년 현지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한국인 2명, 현지인 88명, 총 90명으로 시작되었다. 주요 생산품목은 자동차 배기 시스템용 신축 이음관이었으며, 납입자본금은 5,524천 달러이었다.

<표 3-12> 현지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SUNG JIN MACHINERY(M) SDN,.PHD
주소	Jalan Kapar Kapar, 42200 Kelang, Selangor Darol Ehsan, Malaysia
설립 년월일	1991. 11. 1
대표자	나연수
종업원 수	90명(한국인: 2명, 현지인: 88명)
주요 생산품목	자동차 배기 시스템용 신축 이음관
납입 자본금	5,524천 달러(지분율: 51%)
공장부지 및 건물	대지: 9,467 ㎡, 건물: 5,680 ㎡

(2) 조업준비과정 및 조업초기 상황

□ 조업준비과정

설비정비 및 생산기술 지도를 위하여 국내 모기업 직원 2명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공장부지는 매입하였고, 건물은 8개월 걸려 신축하였다. 종업원은 신문광고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기계류 등 주요설비는 한국에서 신규설비 구입하여 마련하였으며 원부자재는 한국과 제3국에서 조달하였다.

□ 조업초기 상황

조업은 1992년 1월 2일 개시하였다. 조업 초기년도의 생산실적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판매호조에 힘입어 계획의 110%를 달성하였다.

<표 3-13> 직원 수 및 급여수준

(단위: 달러)

구분	생산직				노무직			
	조업초기		1995. 9		조업초기		1995. 9	
	인원	급여	인원	급여	인원	급여	인원	급여
남	30	180	100	210	6	800	14	900
여	3	180	20	210	6	800	6	900

주: 급여는 1인당 월평균 금액임.

(3) 현지법인 경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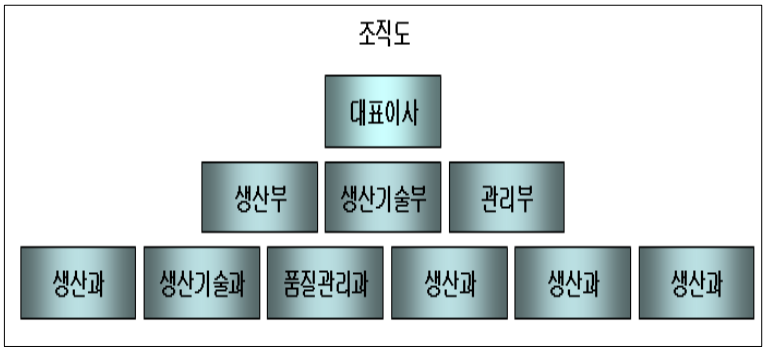
□ 노무관리

현지 종업원은 대체적으로 온순하며 복종심이 강하고 점잖은 편이다. 그러나 주어진 일을 일정한 기일 또는 시간까지 완수하려는 dead line 개념이 부족하다. 급여는 월급제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상시급의 100%, 휴일 근무수당은 상시급의 150%, 보너스는 연 1회 상시급의 400%를 지급하였다. 종업원의 이직률은 조업초기 5%이었으나 최근에는 타업체로 전출하는 종업원이 많아 10%에 달하고 있다.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구내식당을 운영, 무료급식하며, 연 1회 회사가 경비를 부담하여 관광여행을 하도록 하였다. 신입사원은 한국 본사에서 3~6개월 동안 기술연수를 마친 다음 현장에 투입시켰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생활화하였다. 현지 생산직원의 채용 및 관리는 현지 관리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 조직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생산부, 생산기술부, 관리부로 나뉘어 있다. 그 아래로 생산과, 생산기술과, 품질관리과 등으로 나뉘어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그림 3-1> 성진기공 조직도



□ 생산 및 판매활동

제품은 OEM 및 자체브랜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제품 불량률은 조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6일 근무가 기준이며 시간외근무는 주당 26시간 이내, 1일 2~3 교대로 하고 있다. 판매를 위해 신문 및 전화번호부를 통해 연 4~5회 광고하고 있으나 매출신장에 별 효과가 없었다.(광고비용: 연간 매출액의 0.1%)

□ 재무관리

현지금융을 이용해본 적은 없으며 여유자금은 주거래 은행에 단기운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해외송금이 자유로운 편이다.

<표 3-14> 손익 및 송금액

(단위: 천 달러)

구분	1992	1993	1994
당기 순 손익	-172	247	1,238
배당금 송금액	0	0	423

□ 현지법인 경영상 애로사항

1995년 중 주원자재인 스티인레스 스틸 가격이 갑작스럽게 약 20% 이상 상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다) 사업기반 구축요인 및 전망

(1) 사업기반 구축요인

한국측이 대주주인 관계로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말레이시아 측은 한국측을 크게 신뢰하고 매사에 일임하는 좋은 파트너와의 합작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시기가 적절하여 성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현지인

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종업원의 장기 근속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지 당국 및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독립 경영체제 운영을 통한 신축적인 경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2) 향후 사업전망

생산라인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매출 신장이 예상된다. 또한 동남아 자동차시장에서 주도적 제품판매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부품업체로서의 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라)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

첫째,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한다. 세금제도, 환경법, 노동법, 지역선정, 인프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토지・건물, 설비 등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줄여야 한다. 둘째, 합작파트너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현지 중국인(화교)들과 민간차원에서 합작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경영권 및 판매권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급적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과 합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말레이시아는 법치국가로 매사에 교과서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전통적인 영국식스타일로 적당주의나 한탕주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대사관, 한국투자업체 협의회를 방문하여 충분한 투자정보와 도움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2) 차별화된 기술/품질로 지속성장을 추구한 HENIKWON[76)]

가) 투자자 사업개요

1983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한국인 기업이며, 중전기 제품 생산 전문화 업체로서 각종 중전기 제품을 생산하여 아시아, 중동 및 유럽의 36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HENIKWON BRAND의 중전기 부스닥트 시스템은 산업용 전기제품 시장의 선두 주자이며 세계적 BRAND인 SIEMENS, GE, SCHNEIDER 제품과 경쟁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고객 서비스 체제로 경쟁력 우위에서 2001년 이래 중전기 제품 최대 시장인 아시아 시장의 65%, 중동시장의 53%, 유럽시장의 15%의 시장점유율과 대양주 및 남미시장도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표 3-15> 기업개황

기업명	Henikwon Corporation Sdn.Bhd
진출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진출년도	1983년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USD 10백만 달러
주요품목	중전기 부스닥트
종업원 수	250명(한국인 15명)
홈페이지	www.henikwon.com

더욱이 전기 제품 시장에서 외국 제품 진출이 극히 어려움은 물론 세계적인 BRAND인 SIEMENS, GE, SCHNEIDER 제품조자도 공급이 전무한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BRAND의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과 홍콩 첩락콕 국제공항은

76) 코트라, 2008

물론 영국의 히드루 국제공항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술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음으로써 IT산업의 산실인 영국 INTEL공장에 성공적인 공급으로 전 세계의 다른 INTEL공장으로의 판매도 추가 수출이 기대되고 있고 아울러 대만의 최대 IT공장인 RITEK, 태국의 MICROCHIP공장, 인도의 SIMENS공장과 GE공장에도 독점공급하고 있다.

나) 투자진출 배경

(1) 투자진출 동기

현재 4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건설시장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발전에 힘입어 기본적인 인프라 시장인 발전 설비의 투자 및 일반 건설시장이 상승세를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건설 시장의 12.5%를 점유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전기설비 시장에서 전기적 특성상의 품질 우수성과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부스닥트 시스템 시장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업기반 구축요인 및 전망

(1) 사업기반 구축요인

□ 최고와의 경쟁

날로 급성장하는 세계 중전기 제품 시장은 유명브랜드 몇 개가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기술축적과 함께 독자 브랜드 육성 및 홍보를 통하여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기업들에 대한 OEM 납품 등 손쉽게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독자 브랜드로 최고의 기업들과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을 하여 설립 10년 만에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60%를 확보하였다. 아시아 시장에서 이룩한 알찬 경험을 토대로 중동 유럽 남미 시장에 진출하여 똑같은 유명 브랜드와 경쟁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시장을 확보하였다.

□ 소액 다품종 개발 전략(틈새시장 공략)

급성장하는 세계 시장에 힘입어 대형 프로젝트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회사는 이질적 서구 문화로부터 소외된 소형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접근하여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을 주며 성공적인 실적을 쌓아가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세계적인 대형 브랜드 측면에서 보기에는 소액이지만 그래도 소형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십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유명 브랜드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수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지금의 시장 리더가 되는 첩경이었다.

□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

소형 프로젝트이지만 세계 속에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를 우수한 경쟁력으로 성공리에 수주한 경험에 힘입어 세계 속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박람회 그것도 세계적인 브랜드와 경쟁적 차원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출품하여 대등한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아울러 주요 전문잡지에 광고를 게재함은 물론, 주요국 공항 인근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HENIKWON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투자를 한다.

□ 지속적인 연구 개발

제품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에서 출발한다는 단순하면서도 웅변적인 창업자의 경영철학과 엔지니어들의 적극적인 열정으로 부스닥트의 시장 선도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회사 설립 초기 저압용 부스닥트를 제작하며 수많은 선진기업 제품과 공장을 벤치마킹하면서 회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품의 효율과 안정성으로 설정하고 경쟁사대비 우수한 기술을 채택하여 디자인, 엔지니어링하며 회사 제품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생산개발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였다. 저압에서 시작한 사업을 고압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 방위 제품군 체제를 구비하였으며 계속적인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 감동적인 고객 서비스

차별화된 대고객 서비스로 마케팅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행하였다. 영국 히드로 공항 청사 건설에 회사의 부스닥트를 공급한 후, 고객으로부터 제품 설치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게 되자 당일로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고객사로부터 어느 경쟁사도 하지 못하는 최상의 서비스라는 극찬을 접수하였다.

또한 세계 굴지의 영국계 HSBC 은행 인도 데이터 처리 및 고객 대응 콜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서 회사의 엔지니어가 제공한 열정적인 서비스로 인하여 동행의 필리핀과 스리랑카의 건설 프로젝트에 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 구성원의 가치 공유 및 팀워크

모든 회사의 구성원이 도전, 혁신, 팀워크, 고객만족 등 회사가 지향하는 4대 가치를 공유하며 주간 회의에서 사례 발표 등을 통한 반복적으로 체득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HENIKWON의 가족으로 우리 회사라는 주인의식을 함양해 단합된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 종합 중전기 업체로서의 비전

"종합 중전기 생산 전문 업체"의 명확한 비전을 조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 방향으로 응축된 조직의 힘이 발휘되어 아시아 및 중동 시장에서 시장 선도자가 되었고 유럽, 남미 및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다.

라. 베트남

1) (주)레이디스본의 가죽제품제조[77]

가) 투자자 사업개요

본 사는 1989년 현지에 진출하였다. 주요 생산품목은 가죽제품이며 주로 일본에 수출하였다. 자기자본은 700백만 원이었으며, 매출액은 8,578백만 원이었다.

<표 3-16> 투자자 일반 현황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2-3
기업구분	중소기업
설립일	1989. 9. 1.
종업원 수	120명
주요 생산품목	가죽제품(지갑, 벨트, 가방, 핸드백)
주요 수출국	일본
자기자본	700백만 원
총 자산	6,600백만 원
매출액	8,578백만 원

나) 투자진출 배경

(1) 투자진출 동기

투자진출을 모색하던 1993년 당시 동사의 판매 및 수출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양질의 노동력확보의 어려움, 원부자재 조달의 어려움 및 비용 상승, 생산 활동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자 해외의 저렴한 노동

77) 한국수출입은행, 2004

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2) 투자지역 선정

□ 지역선정관련 자료 입수 및 방문기관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였다. 국외에서의 자료 입수는 베트남의 국가협력투자위원회(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 SCCI)로부터 이루어졌다.

□ 조사당시 현지투자환경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였고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가능하였다. 또한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 가능한 중간지의 역할도 가능하였다.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 및 최혜국 대우 예상되어 전망이 밝았다.

(2) 투자진출 경위

1993년에 베트남 국가협력투자위원회로부터 영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1994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허가를 취득하여 진출하였다.

<표 3-17> 진출과정

1993. 11. 9	현지국 외국인투자 및 영업허가 취득 (허가기관: 국가협력투자위원회) 회사등록
1994. 1.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국내 투자허가 투자자금 내역: 총 1,400천 달러 자기 자금: 574천 달러 국내 대출: 826천 달러(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용 계좌개설 은행: First Vina Bank(한국계 은행)

(3) 조업준비과정 및 조업초기상황

□ 조업준비과정

생산기술지도 및 제반 관리를 위해 국내 모기업직원 10명을 현지에 파견하

였다. 공장부지 임차료가 저렴하여 연 10천 달러에 20년간 임차계약을 마쳤으며 건물은 구입 및 신축하였다. 신문광고와 현지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종업원을 모집하였으며, 면접시 학력수준과 숙련정도에 중점을 두었다. 기계류 등 주요설비는 한국에서 신규설비를 구입하였고, 원·부자재는 한국, 현지, 제3국에서 조달하였다.

□ 조업초기 상황

조업개시일은 1994년 4월에 하였으나 초기 교육기간이 예상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되어 조업 초기년도의 생산 실적은 계획의 80% 달성에 그쳤다.

<표 3-18> 직원 수 및 급여수준

(단위: 달러)

구분	생산직				관리직			
	조업초기		1995. 9		조업초기		1995. 9	
	인원	급여	인원	급여	인원	급여	인원	급여
남	50	40	200	50	3	50	10	55
여	100	40	450	50	2	50	6	55

주: 급여는 1인당 월평균 금액임.

(4) 조업초기 애로사항 및 극복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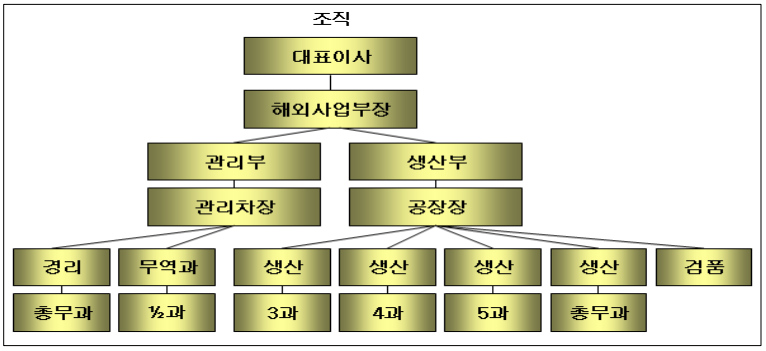
한국어·베트남어 통역관을 구하기가 힘들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 유학생 출신의 통역관을 채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부 원부자재의 현지조달을 위해 현지 생산업체의 지속적 탐방이 필요하였으며 현지화를 위해 현지인을 간부로 등용하고 지역사회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입 근로자는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전에 양성반에서 교육시킨 다음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다) 현지 투자사업 현황

(1) 조직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관리부, 생산부로 나뉘었다. 관리부는 관리차장을 중심으로 경리, 무역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생산부는 공장장 중심으로 업무가 전개되었다. 특히 공장장은 생산관련 총책임자로 생산 계획 설계에 대한 관리, 오더납기 관리, 품질 유지, 생산 각과의 인원관리, 생산인원의 인사고가 기안, 오더별 생산현황 확인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그림 2-2> 레이디스본 조직도



(2) 노무관리

현지 종업원은 대체적으로 손재주가 많으나 여유를 부리는 편이다. 현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내 통역관 고용하였다. 급여는 월급제로 운영하였다. 종업원의 이직률은 조업초기부터 최근까지 0.25%이다. 종업원을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전에 기술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은 의무사항이어서 설립되어 있으나 경영층에 협조적이며 법인 운영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않는 편이다.

(4) 생산 및 판매 활동

제품은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지 타사와의 경쟁관계는 없는 편이다. 제품의 불량률의 조업초기에는 20%였으나 현재는 2%이다. 근무는 1일 8시간 기준이며, 주 6일 근무이다.

(5) 재무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수출대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해외송금은 현재 다소 제한적이다.

(6) 현지법인 경영상 애로사항

전기 전압의 불규칙 등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한국어·베트남어 통역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당국에서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라) 사업기반 구축요인 및 전망

(1) 사업기반 구축요인

무엇보다 투자시기가 적절하였다.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수혜를 받아서 대지 임차료가 저렴하고,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현지 당국·관계기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2) 향후 사업전망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 경제제재를 해제한 후 외교관계는 정상화되고 있다. 최혜국대우를 해 줌으로써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더욱 활발해지리라 예상된다. 동 사는 미주시장의

개방에 힘입어 생산설비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본사에서 진행되는 수출주문 업무를 현지법인에서 모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주)방림[78]

가) 투자자 사업개요

1963년 창립하여 방적, 제직, 염색, 날염 그리고 가공을 포함한 통합된 일관 생산 공장을 갖추고 면과, 면 혼방, 린넨, 레이온, 폴리노직, 텐셀,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및 신축성 직물 등 광범위한 유행 제품 등을 원면상태에서부터 최종 가공까지 자체시설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일본, 독일 ,홍콩, 미국 등 세계 각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신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생산비용 극소화를 위하여 베트남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표 3-19> 기업개황

기업명	(주)방림(현지 법인명: 방림네오텍스(주))
진출지역	베트남 푸토성 벳찌
진출년도	1993년
투자형태	단독투자(합작투자에서 단독으로 변경)
투자규묘	8,000만 달러
주요품목	원사 및 직물을 생산
종업원 수	1620명(주재원 20명, 현지인 1600명)
홈페이지	www.pangrim,.com

78) 코트라, 2008

나) 투자진출 배경

(1) 투자진출 동기

베트남의 섬유・봉제 산업(T&G)은 원유에 뒤이은 베트남 제2의 주요 수출 품목 산업으로 주요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무역부(MOT)자료에 따르면 섬유・봉제 산업은 수출액 2억 달러 이상, 평균 증가율 17%인 5대 산업 분야(원유, T&G, 신발 및 가죽, 목제, 전자 제품) 중 하나에 속한다.

<표 3-20> 생산성

섬유	연간섬유생산 150,000 톤, 1,050,000 롤러
직물	매년 직물 생산 5억 미터 이상
니트	연간 생산량 70,000 톤
Complete dying	연간 3억 8000만 미터
타월	연간 타월 25,000 톤
의류	연간 생산 5억만 톤

(2) 투자지역 선정

2006년에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되면서 쿼터 제한 폐지에 대한 특혜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다국간 섬유 협정(MFA)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미국으로의 베트남 섬유・봉제 수출이 연간 20~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WTO 가입으로 인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저가의 저품질 제품도 경쟁력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만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 정부에 의해 승인된 섬유・봉제 산업의 장기 개발 전략

항목	2005	2010
면섬유	30,000 톤	80,000 톤
합성 섬유	60,000 톤	120,000 톤
실크	8억 sq.m	14억 sq.m
니트	3억 pcs	5억 pcs
의류	7억 8000만 pcs	15억 pcs
수출액	40～50억 달러	80～90억 달러
근로자	고용근로자 250～300만 명	고용근로자 400～450만 명
국내 원・부자재 사용비율	50% 이상	75% 이상

자료: 섬유의류협회(Viernam Textile & Apparael Association). 베트남섬유공사(Vietnam Textile & Garment Corp.)

다) 투자진출 경위 및 현지 투자사업 현황

한국의 섬유산업이 고비용 구조 및 인력난의 심화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한국의 (주)방림은 섬유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 우즈베키스탄 및 동남아등지에 생산기지이전을 모색하였다. 당시 한국의 여타 섬유업체와 마찬가지로 방림도 중국을 투자유력지로 고려하였으나 섬유봉제와 달리 원사 및 직물을 생산하는 당사와 같은 업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해외이전시 최소 10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베트남이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유치정책 및 저렴한 가격의 장기 토지임대 및 세금감면 혜택 등에 힘입어 1992년에 베트남 하노이 북부의 푸토성에 공장설립을 결정하였다. 이듬해 1993년 방적 및 직포공장설립을 시작으로 하여 1995년에는 한국에서의 축척된 기술과 설비를 바탕으로 한 연간생산규모 3,500만 야드에 이르는 새로운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1995년 가공공장 설립이후 초기투자자금의 과도한 부담 및 품질향상의 한계, 그리고 현지영업

의 부진 등으로 초기 수년간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지생산에 대한 경험이 축척되고 한국의 공장에서 운영해온 선진화된 생산기법, 인사관리, 품질관리기법등이 현지 생산근로자들에게 잘 숙지되면서 한국생산제품과 비교시 손색이 없는 베트남공장의 현지화를 3년여 만에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 및 신시장의 개척에도 성공하여 2002년부터는 5년 연속흑자경영을 이룩하였다. 2006년에는 초기 투자차입금인 7,200만 달러에 대한 상환도 완전히 마무리하였다. 이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3년에는 베트남정부로부터 외국계업체로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한 5개업체중 하나로 선정되어 영예스러운 GOLDEN DRAGON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6년 9월에도 베트남 전체 섬유업체중 42개의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공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에는 그동안 한국의 구미공장에서 가동하였던 신 정방 설비 및 AIR JET 직기를 베트남에 완전히 이전함으로 보다 향상된 품질의 제품을 자동화한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표 3-22> 진출과정

연도	내역
1993	베트남 북부 푸토주 벳찌지역에 "방적 및 제직공장" 설립
1995	동 지역에 "신규 염색 및 가공공장" 설립
2003	베트남 정부로부터 수출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GOLDEN DRAGON"상 수상
2004	社名을 "방림유창"에서 "방림 NEOTEX" 로 개명
2005	가공설비 추가 투자(비연속 부문)
2006	우수 섬유업체에 주어지는 "공업부 장관상 " 수상
2008	직기 증설투자 및 최신 정방 시설 투자 완료(US$ 1,000만 달러 규모)

향후 방림베트남공장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PRINT설비투자,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첨단 가공설비 등에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며 유럽의 선진섬유기업과도 PARTNER관계를 구축하여 앞선 서구의 기

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신제품의 공동개발 및 시장진출의 확대 등 외부와의 과감한 제휴를 통해서 전문화된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다.

라) 사업기반 구축요인

(1) 품질안정과 경쟁력확보를 염두에 둔 VERTICAL MILL의 구축

양질의 가공 직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사, 제직, 염색가공"이 동일수준의 품질 관리 기준하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일념 하에 초기 투자비용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자시 과감히 일련 생산 공정이 가능한 "방적, 직포, 가공공장"을 설립 한 것이 안정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현지화 공장에 성공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련 생산 공장을 갖춤으로서 의류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가는 신제품의 개발 및 단기납기의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2) 양질의 노동력과 장기적 안목을 본 공장부지의 선정

앞서 언급한 대로 섬유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양질의 노동력확보 및 임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제품의 가격경쟁력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림이 초기 투자당시 조건이 좋은 중국을 선택하지 않고 베트남의 북부외곽지역에 투자한 것은 현재의 변화된 중국의 환경(=지속적인 임금의 과도한 인상 및 동부해안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중국정부의 공장 이전 요구 등)과 비교해 보면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베트남은 2006년에 외국기업 근무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새롭게 인상되었지만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한 중국의 현재 평균임금과 비교 시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으며, 노동의 질에 있어서도 이직률이 낮고 일에 대한 숙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방림베트남공장의 경우 염색가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좋은 품질의 용주원(用水源)이 되는 홍강을 배후에 둔 것도 성공요인으로 판단된다.

(3) 생산제품의 집중화 및 전문화

과거 방림이 한국에서 생산할 때처럼 시장의 많은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백화점식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에서 탈피하여 현지 설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으면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특히 섬유일반제품은 중국의 저가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국, 유럽, 일본의 기능성 소재를 요구하는 Uniform 및 Working wear Market에서 바이어의 요구조건에 맞는 맞춤제품을 생산함으로서 부가가치의 증대 및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수주확보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된다.

(4) 한국 관련기업의 유치 및 현지화 노력

섬유산업의 경우 관련기업이 한곳으로 모여야만 더욱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일념 하에 초기 투자당시 한국기업이 없던 베치지역에 푸토성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단지역을 조성하게 하고, 한국의 섬유관련 중소기업들에게 꾸준히 유치 권유활동을 함으로서 지금은 40여개의 한국섬유관련단지가 형성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어 현지화 성공뿐 아니라 관련기업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마)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

첫째, 신중한 검토를 통한 조기 투자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해외 이전 검토시 최소 10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당시 투자지로 가장 인기 있던 중국 대신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투자 당시가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시작한 초기라 베트남정부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장기토지임대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비용의 최소화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둘째, 현지 지방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 및 현지화 노력이 지속적인 성

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현지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투자 초기의 각종 어려움 극복하였으며, 현지화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근로 의욕 고취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였다.

마. 태국

1) A텔레콤의 스피커 제조[79)]

가) 투자자 사업개요

A텔레콤은 1961년 12월 설립 이후 스피커 생산에만 주력해온 스피커 전문 생산업체로 약 500여종의 스피커를 생산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 중에서 전축, TV, 라디오 등에 사용되는 콘스피커는 70% 가량, 대외홍보용인 혼스피커가 10% 가량을 차지한다. 1990년 말 총자산 169억원(자기자본 68억원), 종업원 수 323명이며 1990년 중에 매출액 166억 원, 당기순이익 3억 원을 시현하고 총매출액의 58%를 미국, 동남아, 유럽 등지에 수출하였다.

1987년 태국진출을 선두로 1991년 초에는 미국 켄터키주 스피커제조공장을 매입한 후 소량다품종 생산방식으로 고급스피커를 생산하여, '페더럴시그널', '야마하USA' 등에 납품하였다.

나) 투자진출 배경

(1) 투자진출 동기

주요 생산제품인 각종 스피커를 주로 홍콩,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하여 왔으나, 대외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품의 출현으로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으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저

79) 한국수출입은행, 2006

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아세안지역에 대한 시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검토하였다.

(2) 현지법인 개요

현지법인은 단독투자 형태로 이뤄졌다. 납입자본금은 1,250달러이엇으며, 한국직원 5명을 파견하고 현지에서 340여명을 고용하였다.

<표 3-23> 현지법인 개요

법인명	Sound Tech(Thailand) Corp., Ltd.		
투자자	A 텔레콤 (단독투자)	사업내용 (주요품목)	제조업 (스피커 등)
납입 자본금	1,250천 달러	종업원 수	340명 (한국직원 5명)
사업진행 상황	- 1987년 3월: 태국 투자위원회에 투자신청서 제출 - 1987년 7월: 태국투자위원회에 투자허가 취득 - 1987년 12월: 현지법인 설립, 생산개시 - 1989년 12월: SPEAKER 7,500,000 PCS 생산		

(3) 투자지역 선정

투자환경 면에 있어 동남아시아가 정치적으로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여 경제성장률과 수출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및 소재·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투자여건이 보다 유리하다.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만성적인 부족상태를 해소하고 공업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인정책을 펴고 있어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지법인이 소재한 태국은 풍부한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세안 지역의 교통 및 교역의 중심이다. 또한 대 공산권 교역문호를 개방하여 통상 분야에 매우 활동적이며 실리적인 면이 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각종 투자우대 제도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보장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인형, 소형라디오, 전화기, 소형 카셋트 등) 산업에 주력하고 있고, 원자재 산업 부문의 저변이 미약하여 스피커 제조업이 진출하는 데에 적절하였다. 한국 상품에 대해서는 미주지역의 수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지만 태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계수출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산기자재 및 원자재를 수출하여 태국에서 제조 판매함으로써 국산원자재의 수출촉진과 제품의 가력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존의 수출국가,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태국은 관광서비스 산업, 전자조립 산업, 차량 조립산업이 크게 발전되고 있어 스피커 수요가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스피커 생산기반은 미약하여 소규모 투자로도 스피커 시장 기득권 확보가 가능하였다.

다) 현지 법인 경영성과

(1) 조직

사장을 포함한 관리책임자는 7명으로 본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등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본사의 부장급이 Managing Director를 맡고 있다. 현지법인의 총무부장은 현지 근로자의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위해 현지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관리자는 본사에서 대리급이상의 책임자 중에서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현재까지는 현지법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특별부서는 두지 않고 전화 또는 팩스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장이 직접 현지 출장을 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합작투자의 경우 경영방침 등에 대한 의사결정시 파트너와의 의견충돌, 정책결정의 지연 등을 우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독진출을 선택하였다.

<그림 3-3> A텔레콤 현지 법인 조직도

(2) 노무관리

동사에서 해외 파견근무 직원을 선정할 때에는 업무능력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4~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책임자급에서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언어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였다. 2년씩의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신파견근무인 경우 해외 근무기간 중 6개월에 한 번씩 보름 정도의 휴가기간을 주어 본국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지 법인의 인사관리는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책임지고, 현지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숙달된 기능인력을 기술책임자로 승진시켰다.

현지의 단순노동인구는 풍부하나, 이직률이 높고, 성실성, 책임감의 결여 및 기술 미숙으로 숙련된 기능 인력의 확보가 여의치 못하였다. 특히 방콕 기준 70km 외곽지역에 공단이 집중해 있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노동자의 장점은 단체 행동시 강한 단결력과 낙천적인 성격이며, 단점은 겉으로는 온순하게 보이나 자존심이 강하고 게으른 편이며, 자기 개발과 창의력이 부족한 편이다. 대체로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싫어한다. 종업원 채용시 입사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견습 기간 동안 성실성, 책임감, 숙련도 등을 검토한 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태국정부에서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방콕을 중심으로 20~70km반경에 있는 지

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SAMUT PRAKARN은 방콕반경 20km지역으로, 1991년도 최저임금은 일당 100바트이다. 이는 1990년도의 92바트에 비하면 10% 인상된 것으로, 앞으로도 매년 10%정도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시간은 오전 08:00~17:00까지이고,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 근무도 정상 근무 시간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태국 노동법상의 주당 근무시간은 총 48시간이다. 시간외 수당은 평일의 경우 일일급여의 150%를 계산지급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현지법인은 생산직 사원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월 3,000~4,000바트 정도로 차등지급하고, 관리직 사원은 월 5,500~15,000바트를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1년 외국인업체(일본이나 한국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사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와 같은 심각한 노조문제가 몇 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노동조합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생산 및 판매활동

현지법인은 생산 초기년도인 1988년에 3,015천 개를 생산하여 당초 계획대비 143%, 생산능력대비 48%의 실적을 보여 정상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9년에는 6백 40만 개를 생산하여 2,246천 달러의 판매실적을 보였으나, 1990년 중에는 25%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2,134천 달러의 저조한 판매실적을 보였다. 생산제품은 대부분이 미국, 일본 등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태국 현지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생산규모는 현지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연간 6백 20만개의 스피커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태국이 아세안 회원국이며 대공산권

교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여 지금은 연간 1,88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증설하였다. 현지법인의 생산방식은 OEM방식과 자사 브랜드방식을 혼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태국내 거래도 활발하여 연간 매출실적의 35%를 정도를 차지한다. 원부자재의 조달은 전체 원자재의 94%정도를 본사 및 한국의 부품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대만이나 홍콩 등지로부터 4%정도 공급받고 있다. 생산능력은 생산설비 증설 전 연간 6,269천 Pcs였으나 증설 후 연간 13,769천 Pcs로 증가하였다. 현지법인은 1983년 스피커 생산을 개시한 이래 1988년 2,015천 개 생산, 853천 달러 판매, 1989년 6,400천 개 생산, 2,246천 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4) 재무관리

현지법인 설립초기 자본금(180천 달러)은 자기자본(40천 달러)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해외투자자금(140천 달러)으로 조달하였다. 초기에는 최초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였다. 1989년 7월 태국 투자위원회의 공장증설허가를 받은 후 1990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 자본금을 1,250천 달러로 증액하고, 자본금 증액은 현지금융 조달이 어려워 전액 한국에서 조달하였다. 1988년 이후 태국에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여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 지가(地價)가 급등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지법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까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전액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중이다.

라) 향후 사업전망

향후 3~4년 동안은 현지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중국,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와 고부가가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바. 캄보디아

1) 외국기업 - SOC 분야의 SCA사[80)]

가) 투자자 사업개요

캄보디아의 공항시설 운영 및 경영은 1995년에 세워진 Cambodia Airport Management Service Ltd(CAMS)가 맡고 있다. CAMS는 Aeroports de paris Management(ADPM)와 Malaysia Airport Holding Behard(MAHB)간 합작회사로 세워졌으며, 소유권자인 SCA를 대신하여 프놈펜 국제공항과 씨엠립 국제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CAMS의 주요 역할은 관리와 직원 감독을 포함한 상업적, 비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SCA는 프놈펜 공항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 1억 달러를 투입하여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건설하였다. 동 사는 프랑스(70%)와 말레이시아(30%)간 합작회사로서 BOT 기간은 총2 5년이다(SCA: 투자와 건설, CAMS: 경영과 관리).

나) 투자진출 배경

(1) 투자지역 선정

SCA는 인프라 건설분야에 있어서 캄보디아의 장래성을 발견하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공항의 관리와 경영에 있어서 자본과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동 사는 투자와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고용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프놈펜 국제공항은 이미

80) 코트라, 2007

승객 터미널이 추가되었다.

다) 현지 투자사업 현황

2020년에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캄보디아 직원들이 스스로 공항을 경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AMS는 현재 총 83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프놈펜에 631명, 그리고 씨엠립에 1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가 최근에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는 시아누크빌 공항에 파견되었다. 동 사 직원의 약 90%가 캄보디아인으로서 CAMS 총 경영자 Denis Leluc에 따르면 "캄보디아 인적자원은 부족하지 않다. 그들은 단지 훈련이 필요하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며 배움에 있어서도 매우 열심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CAMS는 경험이 없는 젊은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이전의 정부 공무원들도 채용하였는데, 다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른다는 점을 중시하여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CAMS는 사무직원 중 일부를 재정 관리와 공항 안보와 같은 분야에서의 훈련을 위해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프랑스 등 해외로 연수를 보내고 있으며, 캄보디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해 프랑스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충분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적으로 해외에서 기술과 자격증을 습득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

캄보디아의 프놈펜, 씨엠립, 시아누크 빌 공항을 BOT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기 기업은 SOC 분야에 투자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오래 내전을 거치면서 사회간접시설 대부분이 파괴된 채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산업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자본을 이용한 사회간접시설 재건 및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재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도로망 및 전력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철도망 재건을 위한 국제입찰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재정사정이 취약한 캄보디아의 여건에 비추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분야는 외국 민간 기업에 의한 BOT 방식 혹은 유상원조 형태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기업의 참여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미얀마

1) 삼양 라면사[81)]

가) 투자자 사업개요

우리 식품업체인 삼양 라면사는 2001년 5월 10일 주재국 농업부 산하 국영사업(Myanmar Agricultural Service)측에 대해 하기와 같이 기계 및 기술을 무상 제공하고 저렴한 가공 완제품을 수입해 가는 계약방식을 체결한 바, 유사한 사업방식은 주재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사업 개발 시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인 것으로 사료된다.

나) 투자진출 배경

삼양사측은 약 30만 달러 규모의 라면 스프 제조용 기계를 미얀마 농업부측에 기증하고, 동 기계를 사용하여 현지산 채소 등 농산물을 건조 가공시키는 공장(모비 소재)에서 근무할 미얀마 기술자 약 50명을 매년 초청·훈련시키도록 하는 대신, 농림부측은 건조 가공된 스프를 저렴한 고정가격으로 향후 5년간 전량 삼양측에 공급하도록 하였다.(동 가격은 기증된 기계비용을 감안

81) 주 미얀마 대사관, 2002

하여 낮게 책정하였다.)

다) 현지 투자사업 현황

삼양사 측은 지난 3~4년 동안 10만 달러 규모로 상기와 동일한 방식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올린바 있다.

라)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

상기와 같은 사업방식은 주재국과 별도의 합작투자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주재국의 정부부서 중에서 비교적 재량권이 많은 농업부와 직접 계약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입허가 등 제반상황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서 원활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재국에 대해서도 농산물 가공 기계제공, 기술습득 및 수출효과 등을 통해서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조기시장 선점으로 신흥시장 진출에 성공한 UPI

가) 투자자 사업개요

1996년 당시 플라스틱 생활용품 생산 공장이 전무하여 중국, 태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하여 밀수입되던 제품을 미얀마 양곤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과 동시에 판매가 가능하였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뚜렷한 경쟁업체 없이 꾸준히 성장하였고, 지속적인 판매 호조로 인하여 2006년 단독투자 형태의 Utility Plastic Industry라는 칫솔 생산 공장 설립 등 투자를 확대하였다.

<표 3-24> 기업개황

기업명	UPI(United Plastic Industry)
진출지역	미얀마 양곤
진출년도	1996년
투자형태	합작투자
투자규모	120만 달러(초기투자)
주요품목	플라스틱 생활용품(플라스틱 용기, 칫솔)
종업원 수	120명(일용직 포함)

나) 투자진출 배경

(1) 투자진출 동기

1990년대 초·중반 대 미얀마 투자는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봉제 관련 업종이었으나 플라스틱 제품의 구매요구가 증가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미얀마의 시장상황과 제조분야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제조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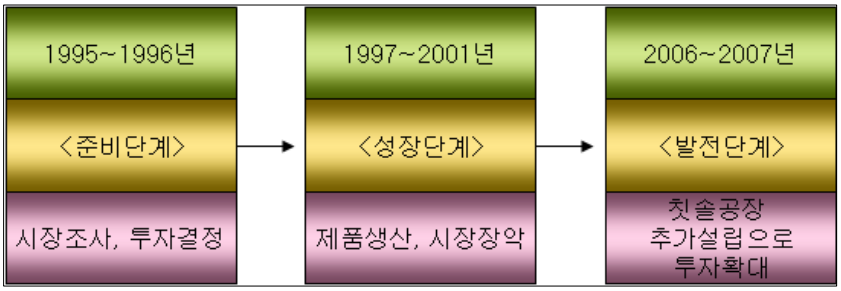
(2) 투자지역 선정

후진 개도국인 미얀마는 국가 경제의 약 50%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비율이 15% 정도로 낮아 생활필수품의 부족 현상이 심하였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저질의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종류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공산품들은 중국, 인도, 태국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열악한 유통인프라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였다. 1996년 United Plastic Industry(이하 UPI)의 진출 초기 미얀마는 플라스틱 생활용품 생산 공장이 전무하였으며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 부족 현상을 보였으며 가격 또한 높았다.

(3) 투자진출 경위

1996년 가정용 플라스틱 용기류를 생산하는 UPI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2001년까지 경쟁업체 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을 늘려갔다. 2002년부터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현지 업체들이 생겨났으며 현지 업체들의 저가공급과 업체 간 경쟁심화로 용기류 생산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점차 낮아졌다. 이에 따라 경쟁이 심하지 않은 새로운 품목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2006년 Utility Plastic Industry라는 단독투자 형태의 플라스틱 칫솔 생산 공장 추가 설립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UPI는 당시 미얀마 유일의 칫솔 생산 공장이었으며 현재까지 미얀마 내 칫솔 생산 공장은 UPI를 포함해서 단 두 곳뿐이다.

<그림 4-4> UPI(United Plastic Industry)의 시기별 미얀마시장 진출 과정



자료: UPI 내부자료

나) 현지 투자사업 현황

<표 3-25> 1996~2007년까지 플라스틱 생활용품(용기류)생산 업체수

	95년 이전	96~2000년	2000~2005	2007
업체수	0	2	5	11

자료: Myanmar Industrial Association

<표 3-26> 2005~2007년 플라스틱 칫솔 생산 업체수

	2006년 이전	2006	2007
업체수	0	1	2

자료: Myanmar Industrial Association

다) 사업기반 구축요인 및 전망

(1) 사업기반 구축요인

첫째, 조기 시장선점이다. UPI가 미얀마 시장에 진출한 1996년 당시 미얀마 플라스틱 생활용품 시장은 제품의 수급을 전적으로 중국, 태국 등 인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UPI는 이와 같은 플라스틱 생활용품 공급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장진출을 결정하였으며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였다.

둘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판매 전략을 추진하였다. 인건비가 저렴한 미얀마에 생산 공장을 설립함으로서 생산 단가를 낮추었으며 국경을 통하여 양곤까지 수입되던 기존 제품에 비해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선점하였고 제품의 대량생산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경쟁업체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현지인들의 플라스틱 생활용품 생산 공장 설립이 이어지면서 저가의 제품들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UPI는 품질 향상과 품목의 다양화에 주력하여 현지인들이 설립한 경쟁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이루었다.

넷째, 현지상황에 따른 접근과 변화에 주력하였다. 고질적인 생활필수품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미얀마의 실정을 파악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선택하였으며, 비교적 설비가 단순하고 추가 투자액이 적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투자하여 적은 투자액으로 사업의 조기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2006년 플라스틱 용기류 현지 생산 공장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자 새로운 품목인 칫솔 생산으로 주력 품목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라)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

(1) 철저한 현지조사 후 진출

현지에 직접 조사단을 파견하여 가격, 유통구조, 정부정책 등 시장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였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미얀마 시장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품목을 선택하였으며 완제품 수입이 용이하지 않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과감히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

(2)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진출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 중점을 두었고 이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등 현지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여야 한다.

아. 소결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크게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전과 진출 후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전략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우선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의 배경으로는 크게 시장 점유율 늘리기, 동남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비용 절감,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분석되었다. 삼성전기, 레이디스본, 지원산업 등 동남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기업이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해외 진출에 앞서 치밀한 시장 분석 및 정보 획득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금제도, 환경법, 노동법 등을 고려해 해외 진출 전략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역을 선정하고 입지조건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대상국에 진출한 뒤에

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현지 근로자를 기업의 일원으로 하기까지의 훈련, 대상 국가의 사회적 배경에 맞는 기업 문화 만들기 등이 진출기업에 성공적인 착지와 도약이 되었음을 전달하고 있다. 셋째, 상위 기업들은 대상국 진출 후 현지화 등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대상국의 변화하는 정책 사안 및 정보를 계속해서 분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그러한 노력은 새로운 환경 변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대사관 및 한국투자업체 협의회를 통한 투자정보와 도움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전체적인 성공 요소 중 기업이 후발 투자자에 대한 도움말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구비하는 것으로 동남아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2. 실패사례

가. 필리핀

1) 현지 정부 공사대금 미회수로 철수하는 K사[82)]

가) 투자진출 배경

동사는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로 진출하여 태국 중앙방송국 타워 신축공사 수주,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로공사 등을 비롯하여, 필리핀 퀘존지역의 한・필 전산훈련센터, Mulayay-San Narciso 도로공사, Puerto Azul 항만 공사 등 여러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82) 코트라, 2008

<표 3-27> 기업개황

기업명	K사
진출지역	필리핀 마닐라
진출년도	1996년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미확인
주요품목	건설업 - 토목, 건축, 도로공사
종업원수	9명
홈페이지	없음

나) 투자 방법

지난 2000년 대우계열에서 분리하여 독자경영에 나섰으며, 2001년 동탑산업훈장 수상, 대아건설(주)흡수합병 등으로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8년에 수주한 필리핀 비콜 지역의 도로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대금 미회수를 계기로 필리핀에서 철수 과정에 있다.

다) 시장 환경

필리핀 지역의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분야의 낙후로 인해 주재국 정부 및 ADB 등의 국제기구, 외국계 지원기금 등에 의존한 정부주도의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 예산의 부족 및 관공서의 부정부패 관행 등으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환경단체와 같은 NGO기구 및 각종 민간단체의 개발 보상 요구 등과 같은 공사에 대한 반발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참여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정부 주도의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외국기업들의 프로젝

트 참여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닐라 신국제공항인 NAIA 3 터미널 공사를 예를 들 수 있다. 독일기업이 수년전에 신공항 청사를 완공해 놓고도 공사과정에서의 비리를 빌미로 필리핀 정부가 대금지불을 거절하는 한편, 오히려 개항 지연 등으로 대외 신뢰악화 및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공사대금 지불 중단 및 공항 운영권을 환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당 독일기업이 계약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의 SOC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일반 주거용 아파트 공사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외국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자본 참여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아파트 건설 후 분양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분양을 전체 가구 수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 건설업체 단독의 아파트 건설시장 참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라) 투자 후 사업의 경과

K사는 필리핀 진출 초기부터 태국 및 중동지역에서의 공사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부주도 관급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대 후반의 활발한 공사 수주실적 및 착공 등에 힘입어 2000년 국내 모기업이 대우계열에서 분리되었음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Bicol 지역의 도로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의 예산문제 등으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사의 현지법인은 동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동 프로젝트 외에도 몇 건의 프로젝트 대금 회수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단행하였다. 대외에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현지에서 철수하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한때, 동사의 현지

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3명이었으나 현재는 1명만이 상주하고 있고, 당관이 입수한 소문에 의하면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 대금 회수 및 청산절차외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활동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28>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1996년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
1996년	필리핀 Puerto Azul 항만 건설공사 수주
1998년	일본 지원기금에 의한 필리핀 Bicol 지역의 도로공사 프로젝트 수주, 착공
1999년	퀘존지역내 필리핀 6차 도로공사 착공(Mulanay - San Narciso 구간)
2003년	Bicol 지역 도로공사, 필리핀 6차 도로공사 완공
2004년	헌・필 전사훈련센터(퀘존, 불라칸지역)착공

마) 후발 투자자들에 대한 도움말

(1) 현지 시장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필리핀의 건설 시장은 아직도 상당부분 외국기업에 대해 폐쇄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기업들이 시장선점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성급하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현지법인만 설립하면 관급공사나 민간부문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판단을 갖고 철저한 시장분석이 간과될 경우, 크게 낭패를 경험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가급적 위험을 최대한 분산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ADB, World Bank,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기금 또는 특정국가가 지원하는 원조자금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가급적 단독 참여하기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현지기업의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수익은 감소하지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권장된다.

최근 들어 필리핀 건설시장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듯 하며, 실제로 일부 건설업체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아파트 건설 및 골프장/리조트 개발, 실버타운 조성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머지않아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기업(G)의 선박기계제조(싱가포르, 필리핀, 1994)[83]

가) 투자진출 배경

이 회사의 공식 창업일은 1935년이지만 실제로 업무를 개시한 것은 1917년부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학교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조명기구와 도로, 교량 등에 설치되는 육상 조명기구를 만들고 판매하는 일이었다. 전쟁 후에는 선박용 내장용품 및 조명배선기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비록 전후 일본의 조선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나, 일본경제와 산업의 급속한 부흥에 발맞추어 일본 조선업은 영국, 미국 등 선진 국가를 추월하여 세계 조선업계에서 제1위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성공 배경은 세계적인 경제 재건과 경기회복에 따른 고도성장, 선박수요량의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이 진보된 일본 조선기술과 제휴하여 일본을 추격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최신 생산설비 등을 유지시켜온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미쓰비시중공업, 석천도파마중공업, 미쓰이조선, 일본강관, 천기중공업 등으로서 모두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소에 속하고, 이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1973년에 발생한 석유위기는 세계경제를 동요하게 하였고 당연히 조선업계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조선 생산량은 최고 호황기 때보다 1/9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조선업계는 이러한

83) 코트라, 2007

심각한 불경기에 대응할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정부에서 수립한 관련대책법으로써 이 난관을 넘겨야만 하였다.

그 이후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해저 석유개발 경기를 맞이하긴 하였으나, 잠재적 선복량 과잉 등에 따른 해운불경기 뿐만 아니라 이웃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조선업계 제3세력의 대두, 대폭적인 선가의 하락 및 선박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이 일본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점점 상실토록 하였다. 이 회사도 선박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하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다만 이 회사는 이미 수년전부터 조선업계에 불황기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감량경영과 철저한 평가분석(V.A.)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또한 냉동화물용 전선과 같은 주변상품 등의 생산에도 성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이미 세계 조선업계에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대조선소 등의 고객이 시작한 조선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제품(예를 들면 관련 산업기계, 설비수선, 원자력발전, 우주개발관련기기 등)생산을 주문받게 되어 안정적인 경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29> 기업현황

소재지	오사카
설립일	1935년 12월
자본금	4,515만엔
업 종	선박용 기계제조 및 판매

나) 싱가포르 진출과정

1970년경 조선업의 급속한 신장은 이 회사 제품의 국내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도 급신장시켜 영업실적을 대폭 향상 시켰다. 그 당시 거래하던 주요 고객들의 동향을 보면 석천도파마중공

업(Jurong Ship Yard)은 이미 싱가포르에 투자하고 있었고, 히다치 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싱가포르 현지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회사도 그러한 고객들과 보조를 같이하기 위하여 1972년 100% 전액출자방식으로 싱가포르에 투자 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사가 설립한 Kokosha Singapore Pte.Ltd.는 선박용 창, 문 및 각종 내부 장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일본 본사로부터 선박용 조명 기기 등을 수입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가의 조선소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현지법인 설립 후 4년간은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현지도 1978년경까지 불어 닥친 석유파동의 영향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요고객인 현지 조선소나 고객의 현지법인들도 경영이 매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현지법인으로서는 이 난관을 넘길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용접 알루미늄제품으로서 냉동화물용 냉동측정기기 등의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그 생산이 본 궤도에 진입하였는데 많은 주문이 쇄도하여 다소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정세와 기초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언제든지 상처를 입지 않고 철수해야겠다는 심정을 굳히고 있었다.

다) 필리핀 진출과정

그 밖에 이 회사는 싱가포르 진출 7년째 되는 1979년 4월경 해외 제2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필리핀에 비철금속주조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현지법인 Kokosha Remms Corp를 설립하였다. 그 현지법인 설립 또한 복잡한 원인과 배경이 있었는데, 첫째는 일본 본사 주조공장 주변이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하여 공해문제로 인한 거액의 공해 대책비 투자가 필수적이었으며, 둘째는 주조 작업을 위한 노동자의 고령화와 고임금뿐만 아니라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노동자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위한 적당

한 지점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필리핀 최대 조선소 Paseco 사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출자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450만 페소로 하고 이 회사가 75%, 필리핀측이 25%를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그 실상은 다음과 같다.

라) 실패요인

(1) 자금부족

실제로 투자금액을 납입할 때가 됐을 때 필리핀측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납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로부터 이미 현지법인설립인가가 나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일본 본사에서 필리핀 측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으로 필리핀측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2) 일본 파견 직원의 해외보수(대우문제)

일본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대우수준이 너무 높아서 현지 합작법인의 엄중한 항의를 받았으나, 이 문제는 일본 측이 기술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상대방을 설득 이해시켰다.

(3) 공장용지

이 회사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이미 공해문제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공장용지를 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신중을 기하였다. 따라서 공장용지는 쌍방 간에 2개월여에 걸친 격론 끝에 마닐라에서 58km 떨어진 조그만 도시로 정하였다. 그리고 공장건물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여 6개월 만에 완성하였고, 바로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해 1980년 3월 영업을 개

시하였다. 이 투자계획은 사전조사를 포함하여 이미 3년여의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투자 상대방인 필리핀 측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일들이 실제로 보고 듣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예상대로 일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4) 일본수준의 품질 유지

일본에서 파견된 기술자가 지도하는 현지 근로자 20명이 만드는 초기 제품에는 벌집과 같은 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생산과정에서 원료배합의 부정확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처방책으로 우선 생산기계를 분석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을 여러 조로 편성하여 3개월마다 일본으로 보내 특별훈련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5) 엔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소요자금의 증가

1983년 합작회사 설립 당시 1달러대 230엔으로 계산된 환율이 실제로 회사운영에 돌입할 시점에서는 1달러 대 210엔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자금부족이 약 20% 발생하였는데, 당초 계획상으로는 1억2천만 엔이 필요하였으나 실제 자금 투입시에는 1억5천만 엔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본 본사의 경영기반이 튼튼하였고 민첩하게 대응책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

(6) 근로자의 이직률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영어권국가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진출하는데 비교적 적합한 지역이었지만, 주조물 제조 기술자수가 많지 않았고 기술수준도 매우 낮았다. 또한 일본에 파견되어 기술연수를 받은 근로자들이 귀국 후 즉시 전직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행은 임금을 올려주고 설득을 하여도 별무효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으며 각종 훈련을 통하여 업적도 점점 향상되어 1983년경까지는 반제품 형태로 일본에 수출할 정도로 기술수준이 진보하였다. 그런데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할 날을 기대하고 있을 즈음 놀랍게도 아키노사건이 발생하여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마) 필리핀으로부터 철수

1983년에 발생한 아키노사건은 필리핀의 경제를 극단적으로 악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신용을 땅에 떨어뜨렸고 페소는 1/3까지 평가 절하되어 수입자재에 대하여 외화를 배정할 방법조차 없었다. 이러한 종류의 국제정치적 위험은 어느 한 기업의 능력을 초월한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생산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었고 계획된 생산부문까지도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는데 1983년 12월 일본에서의 주조물 제품 생산은 점점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안타까움을 더해주었고 근로자들의 안전보장에 대해서조차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는 현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철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된 중요한 점은 당연히 현지 합작 상대방을 설득하여 철수하기 위한 회사방침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필리핀의 격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으므로 이 회사가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회사가 취한 철수에 따른 모든 조치는 업계나 금융계에서도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져 악의에 찬 비판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자금의 회수는 이미 해외투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1994년 발굴자료)

나.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대기업 하청업체 투자 실패 및 철수한 사례[84)]

가) 투자진출 배경

동사는 대기업 S사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전용 모터부품 하청업체로서 2002년에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표 3-30> 기업개요

업체명	인도네시아 E사
소재지	Cikarang, Indonesia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법인(PMA)
진출년도	2002
업종(품목)	전기조립 및 프레스
투자규모	N/A
종업원 수	200명

나) 투자 후 사업경과

2005년부터 VTR 등 가전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 한국산제품이 중국제품에 밀리면서 삼성, LG 등 대기업도 생산라인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소싱 방법을 바꾸게 되었으며, 모터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S사에 납품하였던 동사도 영업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다) 실패요인

2006년에 들어서면서 대기업 S사의 인도네시아 모터 사업부가 없어지면서,

84) 코트라

S사에 부품을 납품하던 동업체도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게 되었다.

대기업 해외공장의 현지 하청업체들은 제품공급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대기업의 사업 계획에 따라 회사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대기업 하청업체들도 특정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납품라인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으나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라) 시사점

하청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인원 및 생산인력만 운용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말레이시아

1) J사의 ADSL 모뎀 수출 실패사례 [85]

가) 투자진출 배경

수출입 무역을 하고 있는 한국의 J사는 1997년 말레이시아에 진출하여 정보통신 및 인터넷 장비의 동남아 수출을 시도하였다.

나) 투자 후 사업경과 및 애로사항

동남아 각국의 바이어들을 접촉한 결과 정보통신 회사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일례로 한국의 ADSL 모뎀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텔레콤 말레이시아(http://www.telekom.com.my/)"를 접촉, 좋은 가격에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텔레콤 말레이시아측은 모뎀 공

85)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2004

급 회사가 외국 통신업체에 수출한 경험이 있는지를 중요시하였다. 외국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제품을 들여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외국통신업체에 대한 수출 실적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가격과 성능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J사는 ADSL 모뎀을 판매할 수 없었다. 또 모뎀 판매 후 3년간의 A/S와 스페어 부품을 요구하였는데, 모뎀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대당 5달러 선으로 3년간의 A/S를 보장하기에는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업체도 해당 수출 건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없었다.

다) 실패요인

현재 말레이시아는 ADSL 모뎀이 약 30만대 이상 필요한 시기이지만, 이러한 가격 수준과 A/S 보장 정도에 맞출 수 있는 한국업체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ADSL 모뎀 한 대당 28달러에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한국업체들의 경우 34달러 선은 되어야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 현지화폐의 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최근 바이어들의 최대 구매결정요인은 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산 대체품으로서 대만, 홍콩산에 대한 수입선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 시사점

한국산의 경우 현지 바이어들 사이에서 가격이 대만산 혹은 중국산보다 다소 비싼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품질 수준 및 내구성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제품의 구매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음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라. 베트남

1) 로컬기업과의 경쟁력 상실로 사업 중단[86)]

가) 기업개황

G사는 호치민시 인근 빈증성의 공단이 아닌 일반지역 부지를 장기 임차하여 소규모 슬리퍼 생산 공장을 직접 신축하였다. 그러나 투자 후 베트남 기업과의 경쟁력 상실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표 3-31> 기업개황

기업명	비공개
진출지역	베트남 빈증성
진출년도	2000년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80만 달러
주요품목	신발(슬리퍼) 제조
종업원 수	180명

나) 투자 동기 및 진출 과정

G사는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 특성상 베트남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해 현지에 슬리퍼 생상, 100% 수출하는 단독 투자기업을 설립하였다. 호치민시에 수출업무를 하는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공장은 호치민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빈증성 송베 지역에 연건평 2,500m2 규모의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86) 코트라, 2008

다) 투자 후 사업경과

2005년 베트남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 544kwh는 한국의 1976년 수준이며, 2020년 베트남 인구 1인당 추정 전력소비량 1,798kwh는 한국의 1988년 수준이다. 산업생산 증가율 14%와 전력소비 증가율 13%를 고려해 볼 때, 기초 소재 산업인 전선 산업의 성장률은 연간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05~2015년까지 10년간 전력수요는 2배의 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2> 베트남 전력 현황

구분	단위	2002	2005	2010	2020
전력생산 (실제소비)	GWH	30,235	45,390	82,986	178,418
인구수	명	79,730,000	83,371,937	89,815,254	99,211,917
1인당 소비전력량	KWH	379	544	924	1,79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청

공장이 소재한 지역은 공단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빈증성 정부로부터 5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였다. 그 당시 외국인 투자수요가 아무래도 호치민시보다 적은 빈증성 정부는 투자유치에 열의를 보였으며, 투자허가서 발급 등 제반 행정 처리에 있어서도 협조적이었다. 굳이 일반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공장 소재지역이 단순노동력 고용 상에 별다른 애로가 없었고, 공단 내 입주 시 동종 업종 간 인력 스카웃 등에 따른 임금경쟁 등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라) 실패요인

공장을 본격 가동한 후 연간 생산량은 슬리퍼 60만 쪽 정도로 전량 유럽으로 수출하였다. 그러나 G사는 공장가동 2년 만에 사업을 중단하고 공장을 매

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사업포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수출단가 면에서 로컬기업과의 경쟁력이 상실된 때문이었다. 베트남은 저임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로컬기업보다 높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하고, 그 당시에는 전기료, 통신비 등 제반 공과금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현지 로컬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슬리퍼와 같이 높은 기술력이 따르지 않는 제품의 경우 로컬기업들이 디자인만 약간 바꾸어 비슷한 제품을 저가에 생산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또한, G사의 경우 제품 특성상 고정적으로 오더를 하는 빅 바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로컬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 한 후 G사 기존 바이어와 네고하면 기존 바이어를 대책 없이 뺏기기 일쑤였다.

마) 시사점

이 같은 사유로 공장가동을 포기하게 된 G사 사장은 기술력이 없는 저가품목의 경우 현지의 저임 인건비만을 믿고 투자 하였다가는 현지 로컬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현지기업들이 당분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

마. 소결

이상으로 국내외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의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업이 규명하는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국내 파견 직원의 보수 및 행실 문제, 기업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 동남아 시장 근로자의 미흡한 기술력 및 높은 이직률, 갑작스러운 세계경제의 위기로 시장이 침체되어 기업이 어떠한 전략이나 방편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들이 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진

출하려는 시장 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진출 시장의 구매 선호도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의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벤더(Vendor)의 신뢰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의 필요성을 뜻한다고 하겠다. 둘째,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과 진출의 적절성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진출하려는 시장에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업의 상황을 적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우리나라가 가진 고임금을 포함한 생산비용의 상승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동남아의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 아래 너무 성급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로인해 진출 혹은 투자하려는 대상국가의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적 상황 등의 정황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실패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진출의 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4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일본의 동남아진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가. 지원 사업 및 지원시스템의 개요

일본 정부는 자국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 및 이를 통한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장기적 지원 사업과 일원화된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구상부터 해외현지거점 구축 및 현지 생산 및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항목별 지원 사업 및 지원기구가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선 일본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투자진출에 요구되는 전체적인 항목별 지원 사업은, ① 해외 대상 국가들의 일반적인 경제정보 입수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해외 투자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 입수 지원 사업 ③ 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입수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 부문인 일본 중소기업의 원활한 동남아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지원 사

업 및 시스템 관련 운영·관리하는 실무기구로서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 국제협력은행,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상공회연합회, 각지자체의 상공회의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해외무역개발협회, 교류협회 및 해외직업훈련협회, 상공조합금융공고, 신금(信金)중앙공고, 중소기업진단협회 및 국제연합공업개발기관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 구상 단계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어드바이스, 즉 투자진출(협력) 유형 및 합작 상대 업체 선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별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표 4-1> 동남아진출 구상단계에서의 지원 사업 현황과 특징

지원 기구	지원 사업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국내 업체별 투자진출 관련 전반적인 어드바이스사업
일본무역진흥기구	- 중소기업의 해외전개지원 정보제공사업
신금(信金)중앙공고	- 중소기업의 개별 상담 및 정보제공, 해외진출지원 등
국제협력은행	- 정보제공사업 및 상담 지원
지자체별 상공회의소	- 국제비즈니스(동남아 투자진출) 지원 사업
중소기업진단협회	- 전문가소개 서비스사업
교류협회	- 해당국가와의 비즈니스제휴 촉진사업
해외직업훈련협회	- 해당국가에 대한 원조관련 사업 상담 및 국제화대응 지원세미나 등 지원
국제연합공업개발기관	- 동남아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사업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각년도판.

또한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구상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자금조달 및 보증·보험 관련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4-2> 동남아진출 구상단계에서의 자금지원 관련 사업 특징

지원 기구	지원 사업
중소기업금융공고	- 기업활력강화대출(해외전개자금)사업 및 증소기업신용보험제도(해외투자보험) 운영
상공조합중앙금고	- 동남아사업 전개 종합지원책 전개
신금(信金)중앙공고	- 동남아국가와의 거래지원, 정보제공업무 및 상담 등
국제협력은행	- 해외투자금융, 수출, 동남아투자, 사업개발 등 자금 지원 사업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 동남아투자관련 신용보증제도 운영
일본무역보험 및 무역보험기구	- 해외투자보험 및 무역보험관련 사업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각년도판.

중소기업의 동남아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은 해외기술자연수협회, 해외직업훈련협회, 일본무역진흥기구 등이 있다.해외기술자연수협회는 중소기업 연수사업 및 특정국가 연수사업을 전개하며, 일본무역진흥기구는 동남아 국가들의 현지 법무·노무·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표 4-3> 동남아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과 특징

지원 기구	지원 사업
해외기술자연수협회	- 중소기업연수사업 및 특정국가 연수사업
해외직업훈련협회	- 관리기술 및 글로벌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해외컨설팅사업 전개
일본무역진흥기구	- 동남아국가들의 현지 법무·노무·세무 관련 상담사업
일본상공회의소	- 현지채용사원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운영
해외무역개발협회	- 중소기업전문가파견사업, 경제산업인재육성지원 및 해외취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해외기술자연수협회	- 중소기업연수·유입사업, 산업기술자연수·유입사업 등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각년도판.

나. 주요 지원기구별 세부 지원 사업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동 기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동남아 진출 및 안정된 정착, 신속한 협력관계 구축 및 현지 생산 및 판매 전개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은 동남아진출 워크샵 개최, 해당국가의 투자진출 장애요인 극복 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화지원 어드바이저사업, 동남아사업 활동 실태조사사업 및 동남아사업 전개사례 제공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동남아국가 대상 워크샵 개최사업은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 및 사업전개에 필요한 실무적인 정보 및 어드바이스를 제공한다. 2007년 기준으로 동 기구는 일본 중소기업의 전체 해외진출 대상국가 전체 48회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이 중 19건을 동남아시장에 대한 주제로 전개되었다. 일본 중소기업과 동남아 중소기업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워크샵이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중소기업들이 동남아 현지 진출 및 사업 전개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의 현지 법제도 및 상관행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해당국가의 투자진출 장애요인 극복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화지원 어드바이저사업은 현지 투자진출을 구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지에 정통한 전문가그룹(상사, 제조업체, 금융기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전, 투자진출 유형, 협력파트너 선정, 현지생산 시기 등 단계별, 항목별 동남아 투자진출 관련 전체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을 전개한다. 일본 중소기업은 2007년 동 사업(총 1,200건)을 통해 동남아국가에 대해 412건의 분야별 자문 및 현지조사 정보를 제공받아 현지 진출계획 확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동남아현지 사업활동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사업개요의 특징, 현지사업의 과제와 전망, 현지시장 변화에 따른 준비사항 및 대비책 강구, 변화에 부합하는 지원시스템 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2007년 주요 현지사업 실태조사로서는 태국 현지 일본중소기업의 경영과제, 태국내 글로벌기업과 일본 중소기업간의 경쟁력 조사, 베트남의 토지법・회계법 개정 특징 및 대비책 조사 및 ASEAN국가의 회계제도 비교조사 등이 있다.

2) 일본무역진흥기구

동 기구는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중점을 둔 지원 사업 및 시스템을 전개・구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유사한 형태의 기관이다. 주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동남아진출 관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무역투자통계 종합 Data Base 제공, 협력파트너 선정관련 정보제공(TTPP), 중소기업의 경제연대(EPA) 및 경제통합(FTA) 협정 활용 촉진사업, 진출 현지국가의 상품조사, 중소기업 현지상품전시회, 동남아시장 진입 지원 사업, 현지사업전개지원, 중소기업의 현지국가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 대책사업, 동남아국가의 법무・노무・세무 상담, 현지국가와의 Local to Local 산업교류사업 및 국제화 지원 네트워크사업 등이 있다.

동남아국가와의 신규거래(수출입) 및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 기구의 해외사무소에서 발신하는 다양한 현지 정보자료를 발신하며, 비즈니스매칭사이트인 TTPP(Trade Tie-up Promotion Program) 운영을 통해 동남아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 및 사업안건 등을 신속히 제공한다. 또한 동남아 현지기업과 사업제휴 가능한 업종, 업체 등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다.

최근 본격화된 일본과 ASEAN과의 경제연대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러한 협력틀을 최대한 활용 가능한 분야 및 업종 등을 조사 분석한 정보자료도 제공한다. 일례로 동남아 현지 원산지증명 취득 관련 절차 및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공·공유함으로써, 현지 진출기업은 물론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하고 상세한 실무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남아 현지시장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니즈에 대응한 상품개발 및 업체간 제휴 확대를 위한 상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현지시장진입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남아 현지 일본 중소기업의 글로벌(해외)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도모하고 있다. 동남아 진출기업의 현지생산 제품의 판로확대, 기술 및 디자인 협력 등을 목적으로 현지사업전개 컨설팅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에 관련 코디네이터를 상주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권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현지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보호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동남아국가들의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활용을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 그룹도 운영되고 있다.

3) 국제협력은행

동 기구는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진출 관련 투자금융 지원 사업 및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 확대 및 협력관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중소기업의 최대 경쟁력인 제조기술과 이에 따른 제품의 고부가가치 등에 대한 충분한 활용과 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역화·글로벌화 진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진출의 토대가 되는 일본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육성, 동남아 수출입 및 투자 금융, 투자관련 현지정보 제공, 투자개발금융 및 현지 국가들의 기반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동 기구가 전개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현지 제조기반 육성 지원 사업은 일본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의 원활한 사업 정착 및 안정된 전개가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동남아국가들의 산업기반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 기구는 지금까지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 발전소, 도로, 항만, 수자원 등 경제 인프라 정비, 인재 육성, 금융시장 육성사업 전개 등을 통해 해당국가의 기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동 기구는 2005년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 환경 정비 및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 일본 중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현지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및 현지 기술 및 관리 인력 육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태국에 대해서는 일본 중소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반산업육성 지원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일본 중소 제조업체의 활발한 생산 및 판매 등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기구의 융자대상은 동남아 현지 일본법인, 현지 협력업체의 현지합작회사 설립자금 및 현지 일본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4) 중소기업금융공고

동 기구는 동남아 투자진출을 구상 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현지정착을 위한 관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은 현지사업정착 원활화를 위한 자금지원 강화사업, 투자진출에 필요한 자금융자 및 보험제도 운영,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운용 사례조사 등이 있다.

5) ASEAN · JAPAN CENTER

동 센터는 일본과 ASEAN간 무역 및 투자 촉진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 센터의 ASEAN에 대한 지원 사업은 크게 무역분야와 투자분야로 구분되어 전개된다. 전자의 경우 ASEAN의 상품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해 일본의 대동남아 진출뿐 아니라 ASEAN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ASEAN국별 투자관련 세미나 및 일본 중소기업경영자의 ASEAN 투자촉진미션 운영, 현지 일본 중소기업의 투·융자 관련 정보 및 자문 제공, ASEAN 국가들의 관련 기업 및 관료 등의 참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역 분야의 주요 사업인 전시사업은, 상설전시사업과 특별 전시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이는 ASEAN기업들의 일본진출을 적극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일본 중소기업의 ASEAN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창출 등을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이다. 동 프로그램은 ASEAN 국가간의 경제 및 정보격차 해소에 요구되는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곧 일본 중소기업에 있어 현지 진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정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강화 프로그램, 일본 ASEAN간 디자인평의회 지원프로그램, ASEAN제품 소개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ASEAN국별 세미나 개최, 투자촉진 미션단 파견, ASEAN 산업조사 프로그램 운영, 인재육성 및 ASEAN 투자관련 정보 제공 등이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별 세미나 개최는 우리나라에서도 KOTRA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하나이지만, 우리와 달리 업종별, 단계별, 유형별 투자진출을 고려한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투자촉진 미션단 운영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험이나 노하우 등의 부재로 선뜻 동남아시장 진출을 결정하지 못하는 일본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실질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ASEAN 시장의 투자환경은 물론 현지 일본기업 방문을 통해 현지사업의 과제와 개선점 및 시행착오와 노하우 등을 파악하거나 전수받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동 센터는 각종 발행물 등을 통해 ASEAN 관련 모든 정보자료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ASEAN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 전략

가.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 개요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진출 동기 및 배경으로는 ① 자체 기술력을 토대로 한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진출 ② 생산거점간 상승효과 유발을 기대한 진출 ③ 현지기업과의 분업을 통한 이익 창출 ④ 현지생산에 따른 비용절감 및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납품계열사의 동남아 이전으로 인해 부득이 진출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자체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동남아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경감 차원에서도 동남아시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동남아시장은 일본 기업에게 있어 최적의 생산거점으로 인식되어 온 만큼 동남아시장에서의 일본 기업의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일본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국을 기점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장 등 3국가・지역 거점을 활용하는 형태로 동남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3구가를 거점화하여 원활한 수주(조달)・생산・판매(수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가장 이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장 수요자

의 니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상승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 중소기업에 있어 동남아시장 진출은 중국시장에 대한 리스크 헤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원재료의 조달, 수주 변동, 거래처의 이동 등의 위험요소에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진출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동남아 진출에 따른 일본내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단지 비용절감 차원의 해외이전을 초월한 신규 인력 활용 및 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등의 기회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진출 요인이다.

이하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동남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떠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사업전개 및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 동남아시장 진출 및 관련 지원 전략: 국가별·업종별

1) 태국과 베트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 동남아지역 · 국가의 투자처로서의 가치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즉 중국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의 매력, 산업인프라 정비, 노동력의 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지역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생산 현지화 전략의 가장 토대가 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태국에 진출하는 동기는 무엇보다도 세계시장을 겨냥한 관련 업종 및 기업의 전략적 진출처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을 현지생산,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진출하는 형태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본 중소기업의 태국에의 진출은 대부분 납품계열사 즉 대기업의 태국 진출에 따른 요인

이 컸으나, 최근에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용 절감 및 인력 확보 차원에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일본 중소기업이 제2의 태국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만큼 생산거점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투자처로서의 베트남의 입지는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또는 현지 위탁가공 관련 주요 업종으로는 아직 저렴한 노동력 활용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기에 포장비닐, 인형제품, 의료품, 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투자매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4> 베트남의 임금 수준 비교

(단위: 달러)

	하노이	호치민	중국 상해	중국 광주
일반노동자	87～198	122～216	272～362	134～446
기술자	243～482	329～453	441～641	282～604
중간관리직	597～859	681～1,690	663	612～912

주: 2007년 6월 기준. 월급여액 기준.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의 임금 상승 추이는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유층의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비층 창출 및 소비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베트남이 태국과 달리 생산거점과 함께 소비시장으로서 재평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한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은 소비자들의 성향이 "브랜드지향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번 호감을 가지게 되면 해당 업종 및 상품은 안정적인 사업 정착 및

전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본 중소기업은 베트남 시장 진출 초기 단계부터 브랜드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중소기업은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투자우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가공생산거점화 진출 전략과 현지판매 거점화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협력형태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태국에서의 일본 중소기업의 위상과 브랜드 인지도는 이미 높게 평가되고 있어 이러한 전략적 사업전개를 향후 베트남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일본 중소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중국의 투자 환경보다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보다 투명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이러한 향후 진출 전망을 높이고 있다. 최근 해외진출 현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베트남과 태국이 단연 최고의 투자처로서 평가되고 있음을 우리로서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2) 인도네시아

한편 오래전부터 일본 중소기업의 진출처로서 각광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생산거점화보다는 투자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및 생산원가 절감 등의 형태로 현지진출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07년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현지 일본 기업은 약 1,000사에 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 외국인투자 중 약 15%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진출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및 통신(60사)과 자동차관련(62사) 비중이 압도적이며, 화학・수지, 건설 및 부동산, 운송, 기계, 은행・보험 순으로 비중이 높다. 기업유형별로는 역시 상사(약35사)의 비중이 가장 크며, 섬유 및 연료(2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지역(BBK-FTZ) 협력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투자 관련법 개정 및 인프라 정비, 관청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노동법 정비 등으로 인해 상당부문 투자처로서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었다는 평가이다. 동 자유무역지역은 인도네시아의 바탕섬, 빙탕섬 및 카리문섬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조업에서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운송, 통신, 수산업과 서비스업으로는 은행, 보험 및 관광업에 대한 집중적인 외국인투자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투자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도 확대되었으며,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수주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수입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소비세 면제, 관세 및 세무절차 간소화, 등이 전개되며, 이러한 혜택은 향후 70년간 유효하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식품산업, 섬유 및 의료, 펄프 및 제지산업을 비롯하여 화학, 제약, 철강, 기계 및 전기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산업에의 투자유입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자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업 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 포장 및 반가공품 재포장, 수리서비스 등의 업종에도 특별 관리를 전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4-5> 인도네시아 바탕섬, 빙탕섬, 카리문섬의 주요 전략산업

	바탕섬	빙탕섬	카리문섬
주요 전략 산업	- 전자산업 - 기계산업 - 조선업 - 화학산업 - 석유・가스산업 관련 지원산업	- 관광산업 - 봉제산업 - 전자산업	- 조선업

자료: ASEAN-JAPAN CENTER.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처로서 유망국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6년 한국이 8위, 인도네시아가 9위였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가 8위

로 한국보다 투자유망국가로 인식되었다. 특히 전술한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일본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뒤에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과 인도네시아간 민간합동투자 포럼은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4개 분과위는 세제 및 관세, 노동문제, 산업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 및 인프라 설비 강화 등이다.

더욱이 이러한 일본 정부의 협력 긴밀화 노력은 양국간 경제연대협정(EPA, FTA)을 통해 심화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 기업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인도네시아에 정착시키는 정책적 노력, 현지조달비율 증대를 통한 인도네시아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 인도네시아의 기반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정책지원 노력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위상과 브랜드를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필리핀

투자처로서의 필리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어가 사용 가능하며, 높은 대학진학율과 풍부한 엔지니어 관련 이공계 인재, 효율성 높은 생산 활동이 가능한 사회풍토 조성, 성실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경험과 훈련 부족으로 숙련된 노동자가 부재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한편 이러한 일반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와 다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세제 강화, 노동력의 질적 향상, 제3국 수출기지로서의 매력, 국내 소비시장(수요) 확대 및 협조적인 대가족주의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의 변화에 부응하듯 일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최근 개발되

고 있는 "Economic Zone"(특별경제특구: PEZA)에 대한 매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필리핀이 새로운 투자 진출처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동 지역에는 2007년 현재 전자부품 및 반도체(약 51%) 관련 외국인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필리핀이 일본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수혈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입지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의 이러한 시각은, "Economic Zone"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우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 지역내 외국인투자 자본 우대범위는 ① 공장부지 부동산, 수출가공구역, IT 단지 및 IT 시설, 관광지역, 의료관광지역 및 시설, 퇴직자를 위한 지역농업지역 등을 포함하는 동 지역 개발자 ② 수출기업, IT 기업, 의료관광 및 농업관련기업 ③ 운송업자 ④ 시설관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 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 비중은 전체 대비 37%에 달하고 있어, 상술한 일본의 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동 지역에의 투자 가운데 미국은 19% 비중을 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소기업은 "Economic Zone"에 대한 투자 매력을 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환경 ②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관리 ③ 충분한 전력공급과 수도공급 ④ 최첨단 통신시설 정비 ⑤ 즉시입주 가능한 공장, 건물 설치 ⑥ 오수처리시설 정비 ⑦ 컴퓨터 안전보장 및 건물감시 시스템 정비 ⑧ 은행, 소방시설, 스포츠시설 등 설치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Economic Zone" 개발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대신하여 총소득의 5%를 특별세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자 및 동 가족을 위한특별 비자 지급, 외국인 고용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2007년 현재 "Economic Zone"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진출 현황을 보면, Fujitsu 계열 컴퓨터업체, Toshiba 계열 설비관련업체, TDK Fujitsu 필리핀합작회사, Taiyo Yuden 필리핀합작회사, Sanyo 계열 필리핀합작회사 및 NEC 계열 필리핀합작회사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글로벌

기업 및 관련 계열 중소업체 등 총 589사가 진출해 있다. 이 중 338사가 IT 관련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자동차관련 부품 및 관련 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일본 중소기업은 동남아지역내 또 다른 생산거점으로서의 필리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동 지역에 진출한 일본 중소기업은 4년에서 최장 8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총 이익의 5% 수준의 우대특별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자본재, 부품 및 원재료 등의 관세도 면제되며, 총 매출의 30%까지는 필리핀 국내 관련 기업 또는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수출세 및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더욱이 인재육성 관련해서는 총 비용의 50%는 공제 대상으로 우대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중소기업의 필리핀 진출은 과거와 달리 IT 관련 업종에서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진출 동기로서는 납품 대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에 따른 진출 형태가 상당부분 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중소기업의 필리핀 진출 배경에는 역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공적개발원조, 양국간 투자 상담회 및 다양한 투자포럼 개최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필리핀 기반산업 육성 및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시스템 추진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필리핀 기반산업에 대한 기술자 파견 및 기술공여 노력,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노력 등은 필리핀 내 일본 기업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 일본 중소기업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필리핀 진출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자금융, 정보제공, 비즈니스 매칭 사업 및 보증제도 등의 지원 사업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말레이시아

일본과 말레이시아간 경제협력 관계는 2006년 양국간 경제연대협정(EPA,

FTA)이 발효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 중소기업은 투자처로서의 말레이시아에 대해 안정된 정치정세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자유로운 투자정책, 투명성 높은 정책운영, 인프라 정비 및 산업간 조화,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높은 생활수준 등을 들어 높게 평가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2006년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투자규모(12억 달러)가 미국을 상회하여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3차 공업화로드맵을 전개하면서 동남아지역 타 국가에 대한 경쟁력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석유화학, 의약품, 전기전자, 운송기기, 유통물류 및 ICT 등을 핵심투자유치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일본의 관심도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또한 하랄이라는 말레이사아 식재료 관련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는 점도 새로운 현상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중간관리직 인력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동해안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임금 상승 영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일본 중소기업은 지적하고 있다. 인프라 관련 비용 또한 태국, 베트남, 중국 등과 비교하여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일본인 상공회의소가 설치되어 말레이시아에서 진출해 있는 약 1,400여사에 대한 각종 관련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국간 경제연대협정 효과에 힘입어 설립된 일본・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환경 정비위원회의 역할을 매우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현지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안정된 사업전개 및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야간 트럭 운송 중에 발생하는 납치사건 방지책 마련, 안정적인 가스 및 전기 공급, 강판 가격의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5)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봉제 및 가죽 관련 업종이 견인하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대만 등 화교자본의 기업들이 상당부분 진출해 있으며, 낮은 인건비와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투자환경과, 캄보디아 정부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봉제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캄보디아 봉제 산업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특히 항만시설 및 도로복구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해 과세 및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변화는 일본 중소기업에 있어 향후 베트남, 태국, 중국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캄보디아의 투자진출 매력은, 첫째, 주변국들의 임금 상승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의 인건비 급상승은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여 일본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주변국의 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이를 회피 또는 해결하기 위한 대체 투자처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규제로 인해 중국 현지일본기업으로서는 세이프가드 규제가 없는 캄보디아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강구해야 하며, 넷째,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규제가 시행되면서, 캄보디아로의 관련 생산시스템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현지 일본 중소기업들이므로, 향후 관련 업종의 중국 현지 일본 중소기업의 캄보디아 이전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요인 외에도 일본 중소기업이 캄보디아를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데는, ① 캄보디아 특별경제특구(SEZ) 개발・운영 ② Offshor

e · Oil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특별경제특구 개발은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전개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Offshore · Oil 개발 역시 일본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Offshore · Oil 개발은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일본 중소기업의 캄보디아 전체 산업에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캄보디아의 대표적 산업인 봉제 산업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기전자 산업에의 일본 중소기업의 진출은 타국에 비하여 선점효과를 유발하는 등 이익 창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 전기전자관련 조립 산업에는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취득관련, 통신,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사업 등은 수입관세면제대상이지만, 법인세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한 민간투자금지분야를 설정(정신제 및 비합법적으로 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투자분야, 전력 가공 및 생산분야, 삼림개발사업 등)하고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6) 라오스

일본에서 평가하는 라오스의 투자환경은 역시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임대료,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태국에 많은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는 일본으로서는 라오스의 지정학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산거점의 분업체제 운영이 가능하므로, 노동집약적 공정을 라오스로 이전하여 제조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라오스의 인식이 크게 변

화되었다.

라오스는 1986년 들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전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타 동남아국가들과 비교하여 라오스의 투자환경은, 역시 광활하고 비옥한 농지와 천연자원의 풍부함, 다양한 관광개발지역과 자연발생적 천재(天災)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며, 사회경제적, 재정적 안정성과 낮은 범죄율, 비즈니스에 적합한 법률 등도 주변경쟁국에 비하여 경쟁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과 우대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재료 및 자본설비 수입관세와 세금 및 수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공제해 주는 등의 우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장려분야(농림업, 농임산물가공, 수공예품, 생산가공, 인적자원개발과 공공위생, SOC 건설, 관강산업 등)를 설정하여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화 투장치를 도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더욱이 2003년부터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국가적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외국자본을 통한 핵심유망산업(에너지, 채굴, 농업관련산업, 관광, 건설자재, 경공업 및 서비스업 등)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라오스의 변화에 일본 중소기업은 태국에 이은 제2의 생산거점으로서 라오스 진출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지역보완형공업화전략"이라는 형태로 라오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보완형공업화전략은 라오스에서 사용하는 부품 등을 태국(부품공급기능)에서 수입하고, 태국 생산거점의 지시에 따라 가공한 부품을 다시 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집약적 부품가공 등의 사업전개는 태국과 라오스와의 분업체제를 통해 상승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본 중소기업의 라오스 활용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업체제 구축 및 확대를 위

해 일본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규모 원조 및 기술공여를 전개하는 동시에, 기술자 파견 및 기반산업 육성 등을 통해 라오스 정부의 시책 성공에 기여한다는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7) 미얀마

미얀마는 1988년 들어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ASEAN 국가 중에서는 후발경제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기에 미얀마에 대한 투자환경 및 다양한 사업관련 정보자료 등은 매우 취약하며, 실질적으로 투자 진출하여 사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진출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SEAN · JAPAN CENTER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배경으로 일본 중소기업의 미얀마 진출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특화된 성장산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ASEAN 역내는 물론 대세계 교역 또한 타 ASEAN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실정이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의 노동력이 중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 노동력 수급 문제만큼은 타 ASEAN 국가들과 달리 불안요인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얀마의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관련 산업이다. 과거 1960년대, 70년대 초의 우리나라를 연상하게 하는 현상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얀마의 투자환경은 외국인투자제도, 인프라(특히 전력) 등의 미정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ASEAN 역내 동일 수준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캄보디아(약 월 80달러)에 비해 미얀마의 인건비는 약 50% 수준(약 월 40달

러)이라는 점이 외국인투자유치의 가장 큰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에 있어 현지 경영자의 생산효율화에 대한 의식 부족이나 비즈니스 협력에 관한 경험 부족 등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우선 경영자의 의식개혁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곧 생산현장의 정비 및 종업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생산기술 습득 지연 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투자처로서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봉제 산업의 경우, 봉제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초분야산업이 부족한 상태이며, 동 업종관련 기업의 자금부족, 협력관계의 인식 부족 등이 높은 장애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봉제 산업 관련 원재료의 현지 조달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자금력 부족 및 제한된 외환거래 등으로 인해, 수주한 제품을 완제품화 해서 납품(수출)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특히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외국인투자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세심한 관찰과 체계적인 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제조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기업과의 합작형태의 협력 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분야, 농수산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정부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대동남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구 및 기관 등의 동남아진출 지원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특화된 ASEAN · JAPAN CENTER 설립 및 운영은 일본이 ASEAN 지역을 어느 정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일본의 대ASEAN 진출 관련 지원시스템 및 각종 지원 사업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및 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 진출 단계별 지원 시스템 및 사업 개선 시사점

우리나라의 ASEAN을 비롯한 해외진출 관련 지원체제는 중앙 · 지방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제는 일본과 유사한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원 기관 및 관련 사

업 등이 상당부분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특히 ASEAN 진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출 구상단계에서 필요한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가능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물론 일반적인 현지 경제상황, 투자정보 등은 이미 관련 정부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제공되어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현지 산업 및 기업정책, 인프라정비 계획사업, 주력육성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검토 자료의 항시적 제공 및 검색시스템 정비 지원 사업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달리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력, 정보력 및 인력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ASEAN 진출 및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세부 업종별 ASEAN 투자진출 어드바이스 사업, ASEAN 진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협력유형 및 상대 업체 선정 등) 지원 사업, 현지 비즈니스 특성 정보·자료 제공사업, 현지 전문가 소개사업, ASEAN 역내 사업제휴 관련 세미나 지원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시스템을 통해 ASEAN 역내 정보·자료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ASEAN 진출을 구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부문의 지원시스템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이 ASEAN 진출을 계획할 때, 사전에 사업의 효율성, 자금조달 및 보증·보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하고 있는 많은 금융관련 지원 사업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및 보증·보

험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므로, 보다 강력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지원기관의 확충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일부 기관에 의한 지원 사업 전개는 진출기업의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고려한 금융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기관에 의한 다양한 지원 사업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에 있어 가장 취약한 ASEAN 진출 관련 초기자금조달 및 투자보험제도의 운영 확충, ASEAN 현지사업 전개관련 종합적인 지원체제 확립・제공 사업, ASEAN 현지기업과의 거래 지원 사업, 신용보증제도 운영 확충 지원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업종별・유형별 투자계획 등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도 병행・운영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ASEAN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ASEAN 현지사업 전개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취약한 자금력을 비롯하여 무엇보다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생산・판매(수출), 현지 국가의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대비책 강구, 인력수급 및 현지 인재육성 등일 것이다. 이러한 ASEAN 시장에서의 직면과제는 비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 진출기업들에게도 나타나는 애로사항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문제점은 업종별・유형별로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사전(事前)적 조사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의 현지 중소기업의 사업 효율성과 이를 통한 향후 투자전략 등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ASEAN 진출을 구상 중인 중소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관리기술 및 글로벌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사

업, ASEAN 시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지원, 현지 법무·노무·세무 관련 상담사업 지원, 특정국가 기술자 연수·유입 사업 지원, 현지채용사원 연수제도 운영 확충, 중소기업전문가 파견 사업 및 해외취업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ASEAN 진출 촉진 및 원활한 사업 정착,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지원 사업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지원시스템과 관련 지원 사업 등이 최상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러한 지원 사업 및 시스템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시스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과 사업이 마련되어 있어도 중소기업이 이를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오히려,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술한 지원 사업 및 시스템 정비와 함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량, 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동시에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 진출을 구상 중인 업체를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지역별·업종별 및 투자유형별로 분류하여 진출 구상 또는 현지진출 업체의 총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업체의 대ASEAN 진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전적 현지시장 및 특성 등의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 교육과정은 ASEAN 시장에서의 사업구상과 현지 진출한 업체들의 향후 사업전개 검토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SEAN 현지국가 기업과 글로벌 선진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매칭에도 동 데이터베이스는 큰 플러스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상술한 사전적 교육과정 운영은 지원 사업 및 범위 등을 고려한 선별적 중소기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영방침은 국내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 단계별 지원 시스템 및 관련 사업 개선방안

지원 단계	시스템적 개선방안	사업별 개선방안
진출구상 단계	<종합적 지원> - ASEAN 시장 정보·자료 제공의 체계화·정례화 - 중소기업의 특성 고려	- 업종별·유형별 진출 어드바이스 사업 - ASEAN 진출구상 기업의 개별상담 사업 - 현지 전문가 소개·매칭 사업 - 사업제휴 관련 세미나 개최
	<금융적 지원> - 자금조달 지원시스템 강화 - 보증·보험 지원시스템 확충 - 중소기업의 취약한 자금력 보완	- 초기 자금조달 및 투자보험제도 확충 - 현지 금융조달 관련 지원체제 확립 - 현지 기업과 거래강화 사업지원 - 현지사업 관련 신용보증제도 확대 운영
현지 사업전개 단계	- 취약한 자금력 해결 노력 - 인건비상승, 인력부족 해소 - 현지법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 - 신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	- 업종별·유형별 사전적 조사시스템 구축 운영 - 관리기술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확충 - 시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 기술자 연수, 유입 지원 사업 - 현지 법제도관련 상담 지원 사업 - 중소기업전문가 파견 및 해외취업체험 사업
사전적 교육단계	- 중소기업의 역량 체크시스템 구축(경쟁력 제고시스템) - ASEAN 진출 중소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진출구상 및 현지 진출 업체의 지역별·업종별·유형별 Data Base 구축 지원 사업 - ASEAN 시장진출 및 사업 효율화관련 사전적 교육사업 지원 - 현지 기업 및 글로벌기업과의 제휴 강화 지원 사업

자료: 필자 작성.

나. 기구별 지원 사업 관련 개선 시사점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지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관련 실태조사 정보·자료이며, 동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ASEAN 현지 진출기업의 성공 및 사례 관련 조사 자료도 비정기적이지만, 몇몇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조사·제시되고 있는 등, ASEAN 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자료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조사 정보·자료를 충분히 흡수·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더욱이 각 기관에서 발표되는 현지시장의 사업 환경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과 이에 부합하는 성격의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ASEAN 진출 관련 기구별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기구가 어떠한 유형의 지원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내 기구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사업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ASEAN시장 진출 및 사업전개를 위해서는, 현지시장 진출 및 사업의 원활한 정착에 요구되는 국제화지원 어드바이저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ASEAN 역내국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현지 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이 참여하는 워크샵 또는 국제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형태로 전개되며, 이는 현지의 실무적 정보 입수 및 생산·판매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동 세미나 등은 현지진출 중소기업에게도 현지국 법제도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투자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지국가 내 사업전개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ASEAN 진출 초기부터 현지 정착까지의 총체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문가 그룹은 상사, 제조업체, 금융기관, 변호사, 현지 사업가 및 한국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현재 국내 각기구별로 전개되고 있는 현지시장 관련 정보자료 제공, 협력파트너 선정관련 정보제공 및 현지시장 실태조사 등은, 각 기구별 역할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현지 산업 및 기업과의 제휴·협력 확대 프로그램 미흡, 최근 가속화하는 양자간 경제통합(FTA 등)을 활용한 협력 촉진·강화 시스템 구축 지연 등을 고려하면, 우선 태국을 제외한 ASEAN 국가들과 체결한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원 사업 전개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른바 과거와 다른 사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변화된 현지 사업 환경과 법제도, 현지 정부와 기업의 향후 정책 및 사업방향 등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한 실무자료 제공 및 활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ASEAN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을 통해 단순한 사업협력 외에 기술을 수반한 협력관계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하는 사업전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 구축은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 유발되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 및 판로 개척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협력 관련 사업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권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현지 내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보호사업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부문의 지원 사업으로는, 단순히 진출기업에 대한 국내 기구의 지원뿐 아니라, 현지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여, 정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인 제조가공기술과 이에 따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의 역량 홍보 및 기업간 기술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을 둔 금융관련 지원 사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른바 국내 중소기업의 가공기술 활용 범위 확대, 현지국가의 기반사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 사업들은 특히 ASEAN 국가들이 취약한 산업기반 정비에 초점을 둔 국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이며, 국내 중소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마련해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본의 ASEAN · JAPAN CENTER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의 설립 또는 역할 확충이 필요하다. 일본의 동 센터는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의 협력 외에도 문화, 관광, 교육 등에 걸쳐 다양한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단순히 경제적 목적의 협력관계 구축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ASEAN 내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지 주민들과 접촉 ·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2> 기구별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지원기구	검토대상 지원 사업	지원 사업 기대효과
정보・자료 제공 기구	- 국제화지원 어드바이저 사업 전개 - 현지전문가그룹 설치사업 - FTA 활용・이익 극대화 사업 전개 - 기술협력 강화 사업 전개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활용 효과 - 원활하고 안정된 사업전개 - 현지 법제도,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한 대응가능 - 지적재산권 침해 보호 효과
금융 관련 지원 기구	- 제조가공기술 활용 극대화사업 전개 - 현지 금융조달시스템 강화	-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가공기술 통한 이익 극대화 효과 - 사업의 다변화, 안정화 효과
ASEAN 현지 협력 관련 기구	- ASEAN-KOREA CENTER 설립 및 운영 사업 확대	- 민간차원에서의 협력・교류 확대 효과 - 국내 중소기업 인지도 및 신뢰성 향상 효과

자료: 필자 작성.

2. 국가별·업종별 전략 시사점

ASEAN은 역내 국가들의 차별적인 외국인투자정책 운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처로서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이러한 ASEAN 국가 및 지역의 투자환경과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활용한 투자진출 및 사업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ASEAN 국가 및 지역을 대세계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화 지역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본 특유의 다양한 지원시스템과 지원사업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ASEAN 국가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촉진 및 원활한 사업전개를 위해 어떠한 전략적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들 지원정책에는 어떠한 세부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가. 태국 및 베트남

투자처로서의 태국의 장점은 ASEAN 역내 생산 현지화거점으로서의 높은 경쟁력을 들 수 있다. 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ASEAN 역내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비된 생산인프라, 질적 수준 높은 노동력, ASEAN 역내 생산네트워크 구축·활용기지 등의 잠재적 매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기업들의 기술력을 수반한 산업의 태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 촉진을 적극 도모하는 전략적 정책 전개가 요구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태국에 대한 진출 및 사업전개는, ASEAN 후발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및 미얀마 등과 연계하는 사업 발굴 및 이에 따른 지원정책이 병행·추진하는 시스템 재구축 및 관계강화 사업을 구상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메콩지역개발 프로젝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베트남 지원 사업과 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베트남은 향후 태국에 이어 ASEAN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 생산거점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지원 사업 및 현지진출 촉진 관련 시스템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성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지시장 판매망 확충 및 현지기업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 등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태국과 베트남 국민성의 공통점은 자존심이 강하며, 소비자의 브랜드 지향주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어, 진출 초기 및 사업전대 과정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한 업종선택 및 제품개발, 판매전략 등의 사업을 모색·전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정주 차원에서는 국가적 브랜드

향상,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성 강화 등에 초점을 둔 지원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및 지원사업은 생산거점화 전략보다는 투자협력을 통한 안정적 자원(원자재) 확보 측면을 고려한 협력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투자환경 측면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간 자유무역지역 구축 및 이를 통한 공동사업 전개 등으로 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관련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시스템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요 투자유망업종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 및 광물자원, 운송 및 통신 등 제조업과 함께 은행, 보험 및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전개하면서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을 통한 국책사업 수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화학, 제약, 철강, 기계 및 전기전자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병행하면서 이들 산업에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및 건설 관련 산업 육성도 특별 관리하는 등의 인도네시아 정부의 핵심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진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안정된 정치상황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업 환경, 개방된 투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진출 전략이 요구되는 국가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업화 전략 육성산업인 석유화학, 의약품, 전기전자, 운송기기, 유통물류 및 ICT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직 인재육성사업도 새로운 투자 사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진출 및 안정적 사업전개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확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새로운 국책사업에의 참여를 도모하는 등의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필리핀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흐름에 조응하는 새로운 진출형태를 모색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ASEAN 역내 국가들에 비하여 투자환경 측면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국가인 만큼, 새로운 투자처로서 부상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경제특구(Economic Zone) 개발에 의해 유발되는 각종 신규 국책사업은 물론,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진출과 이를 통한 전략적인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더욱이 동 개발 사업에는 다양한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 개발지역 및 관련 사업에 상당부문 일본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대규모적 국책사업 참여와 이를 위한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 양국간 무역투자 관련 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시스템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라. 캄보디아 및 라오스

최근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투자환경은, 주변국가인 베트남, 태국 및 중국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기업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주변국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 덤핑관세 부과 문제 해결 및 중국의 긴급세이프가드 규제조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캄보디아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투자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태국 등 기타 ASEAN 생산거점을 캄보디아로 이전 또는 신규 투자진출을 모색할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특별경제특구(SEZ) 개발·운영 및 Offshore·Oil 개발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정책 전개에는 노하우와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진출 및 사업전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Offshore·Oil 개발 정책은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타 산업에의 연관효과가 매우 커 캄보디아 정부의 기대 또한 높다는 점에 초점을 둔 정책적 지원 및 사업전개가 요구된다.

다만 필리핀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아직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법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취득 관련, 통신,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사업 등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라오스의 경우에는, 태국과 인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진출 및 사업전개를 검토할 수 있다. 즉 ASEAN 주변국들과의 생산 네트워크 활용 측면과 풍부한 천연자원 활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태국에 생산거점을 둔 일본기업의 라오스 진출 증가 추세가 이러한 라오스의 매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라오스는 계획경제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1988년 이후 꾸준히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주변 경쟁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의 법제도적 투자인프라를 정비한 국가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라오스는 2003년 들어 경제특구 개발과 이에 따른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에너지, 채굴, 농업관련 사업, 관광, 건설자재, 경공업 및 서비스업 등을 핵심유망산업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정책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라오스의 변화는 태국 등 주변 국가들의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지역 연계·보완형 생산거점화' 전략 차원에서 라오스를 최대한 활용한 전략적 진출 확대 및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마. 미얀마

미얀마와 브루나이는 아직 투자처로서의 취약한 국가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으나, 미얀마의 경우에는 ASEAN 역내 가장 낮은 인건비가, 브루나이의 경우에는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 및 이를 활용한 사업발굴·발전 추진 등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는 섬유산업의 집중 육성정책과 합작형태의 투자진출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석유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관련 산업 및 농수산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2001년 이후 급속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노력에 힘입어 핵심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와 가스자원을 활용한 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저장 관련 산업 및 원유정제산업 등과 관련한 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브루나이의 투자 매력은 무엇보다도 석유 및 가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고학력의 풍부한 노동력, 안정된 정치·경제·사회 등의 투자환경도 해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ASEAN 역내 3번째의 고학력 사회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매우 흡사하다.

브루나이의 투자환경 정비는 2001년 경제개발청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동 청의 핵심 사업은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왕의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브루나이의 산업발전정책은 전술한 석유와 가스자원을 활용한 연계산업 육성이며, 특히 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저장, 원유정제산업 등이 주요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또한 이들 집중성장산업 육성과 병행하여 생태다양화 관련 산업 확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창출, 양식 및 환경 관련관광산업 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항만을 구축하고, 정보기술산업을 유치하는 등의 전략적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브루나이의 경우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세입이 약 90% 비중)가 너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완만한 경제성장 추이(평균 2% 이하) 또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대부

분의 현지기업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유사한 영세기업(89%가 종업원 20명 미만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 가공생산 외의 사업전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및 정책 제안

이상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관련하여 지원 시스템 및 사업과 관련된 개선과제, 그리고 각 국가별로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관심을 가질만한 업종들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앞서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할만한 필요가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해 보았다.

첫째, 중국 남부에 부품조달을 위한 견본시장을 개최하여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중소기업들의 부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진출국의 산업화 정도가 낙후되어 필요한 원부자재를 적가/적기에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 등을 조달하기에는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JETRO는 베트남 북부 접경지역과 멀지 않은 중국 화남지역 도시에 부품조달을 위한 역견본 시장을 개최하여 동남아 지역 일본기업들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의 남부지역에 추가적인 수출인큐베이터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컨설팅, 유관기관과의 관계 유지,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서비스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동남아 지역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수출인큐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남아 지역이 섬이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필리핀 등을 연계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향후 ASEAN 지역과의 FTA 추진 등으로 동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특히 중소기업 진출의 중요 지역으로 부상할 예상인 점 등을 고려, 추가적인 수출인큐베이터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현지국에서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담당기관에 상호 옴부즈맨 기능을 설치/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에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물론,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같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정보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현지국의 법규 등이 수시로 변하고, 행정의 불투명성이나 관료의 부정부패로 인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양국의 중소기업담당 기관에 "기업협력 전담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관급을 상호 파견하여, 이를 통해 한국은 현지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정부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동남아국은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과 같은 한국 진출 근로자의 애로점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케 함으로서 양국이 상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지 대사관, KOTRA 관계자, 현지 중소기업인협회 관계자가 매분기 현지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회동 "(가칭: 옴부즈맨 회의)을 정례화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이 옴부즈맨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인들이 현지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기업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없고 대표성이 결여된 점을 고려, 현지 대사관이 JETRO와 현지기업인상공회 등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현지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경우 개별적인 인적관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KOTRA 등에서는 단지 정보 수집을 하는 정도이며 대사관의 역할을 거의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대사관이 현지국에 진출한 자국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정치적, 정책적으로 조리있게 전달

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이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한국 기업이 진출한 현지국에 한국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사업을 양국 중소기업관계기관 주관 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과 연계하여 전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양자간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최근, 한국에 유학 온 동남아지역 학생 들을 방학기간 동안 자국에서 활용하고 현지 중소기업관련기관과 연계하여 2~3일 정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 관습 등을 소개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 한국 기업들의 현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리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던 산업연수생들이 자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자연스럽게 한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동남아지역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해주는 "동남아 지역정보 전문센터"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중기청의 SPI는 물론, 다양한 기관에서 동남아지역의 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라기보다는 매우 보편적인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JETRO의 경우, 호치민시에서 요코하마항까지의 특정화물 운송 시 예상되는 통관세, 해상운임비용, 운임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예;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등), 이러한 센터의 운영을 의뢰 해, 보다 실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과 같은 나라의 정보는 동 지역과 같은 "저개발국 전문 정보수집센터"를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동지역에 진출하려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동지역의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서 현지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 타산지석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전략적으로는 동남아 특정 국가에 진출하거나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가칭)중소기업 동남아 지역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중기청과 중진공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동남아 중점 전략 국가와의 "(가칭)민간합동투자포럼"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뒤에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과 인도네시아간 민간합동투자 포럼은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는데 4개 분과위는 세제 및 관세, 노동문제, 산업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 및 인프라 설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협력 긴밀화 노력은 양국간 경제연대협정(EPA, FTA)을 통해 심화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기업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인도네시아에 정착시키는 정책적 노력, 현지조달비율 증대를 통한 인도네시아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 인도네시아의 기반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정책지원 노력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위상과 브랜드를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여덟째,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 기반산업 육성 및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추진함으로서 동지역에서 일본 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필리핀 기반산업에 대한 기술자 파견 및 기술공여 노력,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노력 등은 필리핀 내 일본 기업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 일본 중소기업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필리핀 진출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자금융, 정보제공, 비즈니스 매칭사업 및 보증제도 등의 지원 사업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 지역을 중소기업 진출의 전략적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동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메콩델타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동 지역은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중소기업들의 진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다. 앞에서도 분석된 것처럼, 동 지역에의 투자진출은 가능한 원자재의 현지조달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 지역에의 진출은 태국 현지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거점화 진출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는 투자관련 우대정책 중 하나로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5개국 모두가 동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한 현지조달을 중심으로 한 진출형태를 모색하는 것이 안정된 사업전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 지역 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현지조달은 태국의 기간산업의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들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콩지역개발사업의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은 낮은 인건비에 더하여 저렴한 일반경비, 각종 우대정책 및 세금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현지 진출 및 생산거점화를 통한 이익 창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지역의 기간산업에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동반진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을 알리고 기타 지역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자료]

이성진의 경영정보 시스템(MIS).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이윤보 외. 2005.『중소기업의 동남아진출 전략: 베트남진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한국중소기업학회.

최성규. 2007.「동남아 주요국의 개발수요 분석과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허범도. 2007.『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

홍기화. 2007.「주요 도시별 세부비용 내역」.『2007년 세계 주요도시 투자여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기화. 2007.『투자핵심가이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웹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대한무역협회, http://www.kita.net

라오스 중앙은행, http://www.bcellaos.com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http://www.mida.gov.my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http://www.bnm.gov.my

말레이시아 팜 오일보드 MPOB(Malaysian Palm Oil Board), http://www.mpob.gov.my/

미얀마 상무부, http://www.myanmar.com/Ministry/Commerce/

미얀마 투자위원회(MIC-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http://www.yadanabon.com

베트남 농업개발국(MARD), http://www.mard.gov.vn

베트남 투자계획부(MPI), http://www.mpiweb.org

베트남 통계청(GSO), http://www.gso.gov.vn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http://www.bkpm.go.id

주 필리핀 대사관, http://phl.mofat.go.kr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http://idn.mofat.go.kr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http://mys.mofat.go.kr

주 베트남 대사관, http://vnm-hanoi.mofat.go.kr

주 태국 대사관, http://tha.mofat.go.kr

주 캄보디아 대사관, http://khm.mofat.go.kr

주 미얀마 대사관, http://mmr.mofat.go.kr

주 라오스 대사관, http://lao.mofat.go.kr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http://www.kiica.or.kr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

태국 투자청(BOI), http://www.boi.go.th

태국 중앙은행(BOT), http://www.bot.or.th

태국 경제개발국, http://www.nesdb.go.th

태국 상무부(MOC), http://www.moc.go.th

필리핀 통계위원회(NSCB-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http://www.nscb.gov.ph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http://www.fta.go.kr

Centr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jbic.go.jp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Japan International Training Cooperation Organization, http://www.jitco.or.jp

Nippon Export and Ivestment Insurance, http://nexi.go.jp

Organiza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Regional Innovation, http://www.smrj.go.jp

Overseas Vocational Training Association, http://ovta.or.jp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gency, http://www.chusho.meti.go.jp

UN(United Nations), http://www.un.org

기본연구 08-12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정보와 전략

2008년 12월 인쇄
2008년 12월 발행

발 행 인	최 홍 건
발 행 처	중소기업연구원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6층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출판등록	제318-2005-00015호

본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함

ISBN 978-89-6179-051-2 93320 정가 12,000원